2026 한국청동기학회 정기학술대회

청동기시대 사적, 그 가치와 활용

2026 한국청동기학회 정기학술대회 「청동기시대 사적, 그 가치와 활용」 국립문화유산연구원·한국청동기학회

국립문화유산연구원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한국청동기학회 青銅器 Korean Society of Bronze Age Studies

2026 한국청동기학회
정기학술대회

청동기시대 사적,
그 가치와
활용

일시 2026.11.13(금) 10:30 - 18:20

장소 대전 인터시티 호텔
2층 그레이스홀

주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한국청동기학회 青銅器 Korean Society of Bronze Age Studies

2026 한국청동기학회
정기학술대회

청동기시대 사적, 그 가치와 활용

일시 2026.11.13(금) 10:30 - 18:20

장소 대전 인터시티 호텔
2층 그레이스홀

주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한국청동기학회 Society for Korean Bronze Culture

■ 학술대회 일정

학회등록 [10:30 - 10:40]		**사회 : 현대환(누리고고학연구소)**
10:40 - 11:00	**개회사 :** 이기성(한국청동기학회장)	
11:00 - 11:30 [기조발표]	청동기시대 사적의 학술적 중요성 -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황재훈 (충남대학교)
11:30 - 12:00	한국고고학 디지털사전 구축 및 활용 - 청동기시대 편 증보를 중심으로 -	김지연, 변영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12:00 - 13:00	점심식사	
학술발표 [13:00 - 15:45]		
13:00 - 13:25	강화도 지석묘의 고고학적 의의와 문화유산적 가치	**발표 :** 구혜영(강화군청) **토론 :** 문수균(미래문화유산연구원)
13:25 - 13:50	부여 송국리 유적의 활용 방안 - 최신 발굴 성과를 중심으로 -	**발표 :** 성민주(한국전통문화대학교) **토론 :** 박서현(부여군청)
13:50 - 14:15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현황과 활용 방안	**발표 :** 손아라(고창세계유산고인돌박물관) **토론 :** 김진환(민족문화유산연구원)
14:15 - 14:30	휴식	
14:30 - 14:55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의 학술적 가치와 활용 방안	**발표 :** 이재언(민족문화유산연구원) **토론 :** 강진표(동북아지석묘연구소)
14:55 - 15:20	묘역지석묘의 함의와 창원 진동리 유적의 가치	**발표 :** 이명훈(국립중앙박물관) **토론 :** 정대봉(부산대학교)
15:20 - 15:45	춘천 신매리 유적의 학술적 가치와 활용 방안	**발표 :** 홍주홍(강원역사문화연구원) **토론 :** 홍주희(강원고고문화연구원)
15:45 - 16:00	휴식	
종합토론 [16:00 - 18:00]		**좌장 : 김종일(서울대학교)**
18:00 - 18:20	총회	

■ 포스터 발표

발표 제목	발표자
산불피해 국가유산 수습조사 절차와 방법	김동열(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과 기후변화 대응	김세현(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조발표

청동기시대 사적의 학술적 중요성

-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황재훈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청동기시대 사적의 학술적 중요성
–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황재훈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목차

Ⅰ. 머리말
Ⅱ. 청동기시대 사적 현황
Ⅲ. 청동기시대 사적의 보존·정비·관리 현황
Ⅳ. 청동기시대 사적의 보존·관리와 활용 방안
Ⅴ. 맺음말을 대신하여: 청동기시대 사적의 학술적 중요성

Ⅰ. 머리말

사적(史蹟)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유적 가운데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과거의 기억을 증명하는 시설물,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와 공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역사적·학술적·경관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유적을 사적으로 지정한다(노중국 2021). 사적의 가치는 과거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역사성과 학술성은 물론, 희소성과 상징성 등도 사적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청동기시대 사적은 과거 어떠한 학술적·역사적·경관적·예술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정되었으며, 그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보존·정비·관리되어 왔는가? 또한 오늘날 청동기시대 사적은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가? 특히 청동기시대 사적의 학술적 가치와 중요성은 어디에 있으며,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나아가 미래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그 가치를 어떻게 계승·전달해야 할 것인가?

청동기시대 사적은 취락, 분묘, 패총, 저습지 등 다양한 매장문화유산 유형으로 구성되며, 대부분 고고학적 발굴조사를 통해 학술적 중요성이 인정된 것들이다. 이들 사적은 당시의 생활양

식과 생업경제, 취락 구조와 사회조직, 장례 관습과 의례, 기술체계와 지역 간 교류 등을 반영하고 있는 중요한 학술자료이다. 또한 문헌기록이 없는 선사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복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간과 환경의 관계 및 사회 변동을 이해하는 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한다. 따라서 청동기시대 사적의 학술적 중요성은 개별 유적의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선사문화의 형성과 역사시대로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동기시대 사적의 가치는 연구자들의 학술적 관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청동기시대 사적은 전문 연구자에게 새로운 연구 질문을 제기하고 고고학적 해석을 발전시키는 학술자료인 동시에, 비전공자와 시민에게는 과거 사람들의 삶을 성찰하고 현재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문화 자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동기시대 사적의 보존과 활용을 논의할 때는 학술적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방안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들이 문화유산을 통해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고 공유하며, 이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유적의 가치를 시민들이 일상에서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보존·관리·활용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미비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청동기시대 사적의 지정·보존·관리·교육·활용은 일회성 행사나 단기 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학술적 가치의 지속적인 규명과 보존을 바탕으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문화자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에 관한 논의를 넘어, 개별 유적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학술적 성과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

본 발표에서는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사적의 장소성과 진정성, 경관을 저해하는 보존·관리·활용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존·관리 및 교육·연구적 활용 측면에서 나타나는 한계와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동기시대 사적의 지정 및 보존·관리·활용 현황과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존·정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실천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청동기시대 사적이 행정적 관리와 물리적 보존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학술적 중요성을 지닌 연구 대상이자 연구자와 시민이 함께 이해하고 향유하는 국가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청동기시대 사적 현황

1962년 법률 제961호로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적을 사적으로 지정하고 보호·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적은 국보, 보물,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등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한 종류이다. 사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엄격한 지정 절차를 거쳐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호·관리하고 그 가치를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여기서 중요

한 것은 사적의 가치를 물리적으로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유적의 역사적 의미와 학술적 중요성을 이해하고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다. 즉, 사적의 보존은 물론 교육과 문화적 활용을 통한 가치의 확산과 육성도 중요한 과제이다. 상기 여러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사적은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별 유물 단위로 지정되는 국보나 보물과 달리 토지를 기반으로 넓은 공간에 걸쳐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취락, 분묘, 패총 등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하나의 사적에 포함될 수 있으며, 개별 유적·유물의 가치를 넘어 유적 간 관계와 공간적 맥락, 주변 경관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적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해서는 해당 유적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공간적 특성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한국의 청동기시대 사적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우선 시대 및 유구 성격에 따른 지정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지정 면적, 전시관 및 유적공원 유무 등 보존·정비·관리 및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자 한다.

한국의 청동기시대 사적은 1963년 김해 봉황동 유적을 시작으로 2012년 제주 용담동 유적까지 총 21곳이 지정되었다.[1] 김해 봉황동, 하남 미사리, 제주 삼양동, 공주 장선리, 사천 늑도, 서천 봉선리 유적 등 취락이나 복합유적, 패총에 해당하는 유적은 특정 시기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시기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철기시대 유적으로 분류되는 해남 군곡리, 시흥 오이도, 광주 신창동 유적 역시 청동기시대부터 유적 형성이 이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청동기시대 이래 초기철기시대에 걸쳐 형성된 유적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사적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청동기시대 사적은 주로 저구릉지와 충적대지가 발달한 지역에 위치하는데, 이는 청동기시대 유적의 입지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규모 취락이나 분묘군이 조성될 수 있는 지형적 조건을 갖춘 곳에 입지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유적의 성격별로는 주거 유적이 11곳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지석묘 8곳(입석 1곳 포함), 패총 3곳, 저습지 1곳 등이 있다. 그러나 유적의 성격이 주거지나 무덤 등 특정 유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여 송국리, 울주 검단리, 속초 조양동, 제주 삼양동, 공주 장선리, 광주 신창동, 파주 덕은리 유적 등에서는 주거지와 지석묘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 유구와 매장 유구가 함께 확인되어 복합취락유적의 성격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김해 봉황동, 사천 늑도, 시흥 오이도 유적에서는 주거지와 패총, 무덤 등이 함께 조사되어 당시의 복합적인 생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현 문화유산법)이 제정된 이후 이듬해인 1963년부터 사적 지정이 이루어졌다. 청동기시대 사적의 시기별 지정 건수는 1960년대 4건, 1970년대 2건, 1980년대 0건, 1990년대 7건, 2000년대 7건, 2010년대 1건이며, 2020년대에는 지정 사례가 없다. 지정 건수가 적어 시기별 추이를 다른 시대의 사적과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1990

1) 선사시대 사적의 시기 구분은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철기시대로 분류된 사적은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를 포괄하는 유적으로, 보다 세분된 시기 구분이 필요하다. 최근 학계에서는 기원전 300년에서 기원전 100년까지를 초기철기시대, 이후 기원전 100년부터 기원후 3세기 중엽까지를 원삼국시대로 구분하고 있다(한국고고학회 2010). 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사적 대부분 청동기시대에서부터 이어지는바 분류상 철기시대의 사적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년대와 2000년대에 지정이 집중된 반면, 2010년대에는 제주 용담동 유적을 끝으로 추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청동기시대 유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사적 지정과 보존·관리 정책의 현황을 검토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현재 지정된 한국의 청동기시대 사적은 역사시대 사적에 비해 현저히 적다. 이는 무엇보다 지석묘를 제외한 청동기시대 유적의 대부분이 지하에 매장되어 있어 발굴조사를 통해서만 실체와 가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제발굴 과정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유적이 확인되더라도, 발굴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상당 부분 진행되어 유구가 훼손되고 유물이 수습된 상태에서는 해당 유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사적 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요 원인이다.

청동기시대 사적은 대체로 전면 또는 일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후 지정되기 때문에 조사 지점이나 주변으로 지정 범위가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지상에 노출된 지석묘군은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가 지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규모 지석묘군이 분포하는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은 지정 면적이 2,474,562㎡로 가장 넓으며,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이 1,011,219㎡로 뒤를 잇는다. 한편, 강화·고창·화순 고인돌 유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21년 시행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도적 기반 아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유적은 국내 사적의 보존·관리 체계를 넘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전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표 1. 한국의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 사적 현황

연번	지정	명칭	시대	지정일	면적	전시관	공원
1	2	김해 봉황동 유적	청동기~철기	1963.01.21	133,201㎡	○	○
2	103	부안 구암리 지석묘군	청동기	1963.01.21	4,800㎡		○
3	137	강화 부근리 지석묘	청동기	1964.07.11	69,293㎡	○	○
4	148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청동기	1966.03.22	12,986㎡		○
5	249	부여 송국리 유적	청동기	1976.12.31	535,108㎡	○	○
6	269	하남 미사리 유적	신석기~삼국	1979.10.25	56,479㎡		○
7	332	울주 검단리 유적	청동기	1990.08.21	6,338㎡		
8	375	광주 신창동 유적	철기	1992.09.09	260,715㎡	○	
9	376	속초 조양동 유적	청동기	1992.10.10	23,135㎡		○
10	391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청동기	1994.12.21	1,011,219㎡	○	○
11	410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청동기	1998.09.17	2,474,562㎡		○

12	411	대구 진천동 입석	청동기	1998.12.23	6,178㎡		○
13	416	제주 삼양동 유적	청동기~철기	1999.11.16	18,363㎡	○	○
14	433	공주 장선리 유적	청동기~철기	2001.09.11	52,431㎡		○
15	441	시흥 오이도 유적	신석기~통신	2002.04.01	439,461㎡	○	○
16	449	해남 군곡리 패총	철기	2003.07.02	83,557㎡		
17	450	사천 늑도 유적	청동기~철기	2003.07.02	250,671㎡		
18	472	마산 진동리 유적	청동기	2006.08.29	103,761㎡		○
19	473	서천 봉선리 유적	청동기	2006.11.06	256,924㎡		
20	489	춘천 신매리 유적	청동기	2007.11.14	91,236㎡		
21	522	제주 용담동 유적	청동기	2012.05.17	10,279㎡		

Ⅲ. 청동기시대 사적의 보존·정비·관리 현황

유적은 과거 사회와 공동체의 삶과 죽음, 기술과 건축, 관념과 종교 등 문화적 잔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당시의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물질 자료이다. 이 중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유적은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존·관리된다. 따라서 사적은 개별 유적의 가치를 넘어, 사회 또는 국가의 생활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적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지정되며, 지정 이후에는 국가의 법적 보호와 관리를 받는다. 「문화유산법」 제3조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있어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유산은 본래의 위치와 공간적 맥락을 유지하고 주변의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존·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국가는 사적의 원형 보존과 역사적 경관 유지를 위해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주변 지역의 건축행위와 현상변경 등을 제한하고 있다(노중국 2021).

청동기시대 사적의 경우 지정구역의 일부나 전체가 이미 발굴된바 유적의 성격과 유구 특징에 적합한 보존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유적의 입지와 생태환경과 같은 고고학적 정보도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적 내외 경관의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사적 관람을 돕기 위한 유적 안내판이나 유구 유물 설명판이 설치되어야 하며, 대부분 매장문화유산에 속하는 청동기시대 사적의 특성상 유구 노출 전시나 복원물을 활용하여 고고학적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적의 안내판은 유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전달하고 시민의 교육과 문화유산 향유를 돕는 기본적인 시설이다. 그러나 제한된 수의 안내판만으로는 유적 전체의 성격과 개별 유구·유물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 또한 전문용어와 난해한 설명은 일반 시민의 이해와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지점별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안내문의 오탈자와 외국어 표기 오류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노중국 2021).

다음으로, 유적 복원은 전시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되, 과학적 조사와 충분한 고증을 바탕으로 역사적 진정성과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확보된 자료를 통해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복원을 추진하고, 복원의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리한 정비나 복원을 유보하고 원형 보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신희권 2014; 송길상 2021). 아울러 현장 여건이나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아래 박물관과 전시관, 체험시설 같은 시설물이 건립된다면 유적에 대한 이해와 교육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현재 상당수의 청동기시대 사적은 발굴조사 이후 유적 전체를 잔디로 피복하고, 소수의 설명판과 탐방로를 설치하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박물관·전시관·야외 역사공원 등 전시·교육 공간을 갖춘 사례는 일부에 한정되며, 전문 해설사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곳도 많다. 이로 인해 유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방문객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유적은 사실상 공원이나 산책로로 이용되거나 관리가 미흡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안내체계뿐 아니라 보존·관리 및 활용 전반에서 나타나며,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접근성과 관람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공주 장선리, 서천 봉선리, 춘천 신매리, 해남 군곡리, 사천 늑도, 울주 검단리 유적 등은 안내판이 소수 설치되어 있을 뿐 진입로와 탐방로 안내, 출입시설 등이 미비하여 방문객이 유적을 찾고 관람하기 어렵다. 유적의 경계와 전체 범위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주차장·화장실·휴게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 단체 관람과 현장학습에 제약이 따른다. 대표적으로 울주 검단리 유적은 골프장과 산업단지에 둘러싸여 접근성이 낮고, 진입로와 관람 동선 및 안내시설이 미비하다. 또한 전시·교육시설과 편의·휴게시설이 부족해 유적의 이해와 활용에 한계가 있다. 주변 개발에 따른 지형 훼손과 경관 변화 역시 사적의 장소성과 진정성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둘째, 유적의 역사적·학술적 정보를 전달하는 시설과 콘텐츠가 부족하다. 전문용어 중심의 설명판만으로는 비전공자와 시민, 학생들이 청동기시대의 생활상과 사회구조를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주거지와 지석묘 등의 외형만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당시의 건축 기술, 장례 관습, 취락 구조와 같은 고고학적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 전시·교육시설과 전문 해설이 부재한 유적에서는 이러한 한계가 더욱 두드러진다.

셋째, 유적의 설명은 대개 유구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거나 복원되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동기시대 사적은 주거지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 유구와 매장 유구가 함께 확인되는 복합취락유적의 성격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개별 유구 중심으로만 보여주는 방식은 유적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 유구 간의 공간 배치, 행위나 동선, 주변 자연 경관과의 관계 등 복합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복원 방식의 적절성과 역사적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복원은 유적의 이해를 돕는 수단이지만, 충분한 고증 없이 이루어지거나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유적의 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 또한 유적의 입지와 주변 경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복원은 장소성과 진정성을 약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송국리 유적은 도로와 인접해 접근성이 양호하며, 문화관·자료관·체험교육장과 야외 역사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비교적 적합한 관람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건물지 복원은 목재의 부식과 파손으로 원형을 파악하기 어렵고, 무덤 복원 역시 구조와 축조 방식 등 고고학적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 또한 인근 산직리 지석묘를 모조품으로 전시하면서 실제 규모와 구조를 반영하지 못해 유적의 장소성과 진정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다섯째, 도시개발과 토지 이용에 따른 유적의 공간적 맥락과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 공업단지와 상업시설, 주택단지, 골프장 등의 개발은 유적 주변의 지형과 경관을 변화시키며, 농경과 도시화에 따른 유적의 훼손 및 이전은 유적의 원래 입지와 주변 유적 간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특히 유적이 이전·분절되어 현장성이 약화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전시·교육시설이나 디지털 콘텐츠가 마련되지 않으면 유적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

반면 강화 부근리, 고창 죽림리,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제주 삼양동, 시흥 오이도, 김해 봉황동 유적 등은 관람 동선과 산책로, 편의시설 및 관리시설, 탐방열차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일부는 박물관·전시관·체험교육장과 야외 역사공원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구 노출과 복원 전시, 발굴 과정의 재현, 청동기시대의 수렵·채집과 고인돌 축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방문객이 유적의 가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학습이나 전문 해설을 제공하는 것도 교육적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지역사회와의 연계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강화 고인돌 유적은 과거 고인돌 문화축제(1998년~2013년)를 개최하고 강화 나들길과 연계하여 유적과 주변 경관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부여 송국리 유적에서도 주민 참여형 청동기시대 축제(올해 제8회)가 개최되어 유적을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화순 고인돌 축제는 2013년부터 개최되어 온 지역 대표 축제로, 지석묘와 다채로운 가을꽃이 어우러진 경관 속에서 청동기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과 전시·공연 등을 제공한다. 이러한 사례는 사적의 보존·활용이 유적 자체의 정비에 그치지 않고, 지역 관광자원과 역사문화 교육, 주민 참여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유적의 물리적 보존뿐만 아니라 관람 편의, 학술정보 제공, 체험교육, 지역사회 연계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이다. 다만 개별 시설과 프로그램의 효과는 유적의 특성과 운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설의 설치 여부만으로 활용 수준을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교육 효과와 방문객의 이해도, 지속적인 운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Ⅳ. 청동기시대 사적의 보존·관리와 활용 방안

기존 사적의 원형 보존 중심 정책은 유적의 물리적 보존에 기여해 왔지만, 전담 박물관이나 해설·교육 시설이 없는 유적의 경우 단조로운 안내판에 의존하는 등 대중과의 접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도 드러냈다. 이로 인해 유적이 지역사회와 분리된 채 일반 시민의 접근과

이해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유적·유구의 유실과 훼손, 포털 사이트 및 GIS 정보와 현장 자료 간 불일치, 관리 주체의 소극적 대응과 관리 체계의 정체 등 제도적·행정적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는 사적의 지정과 보존 자체만으로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구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대중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활용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적의 보존·관리·활용 사례를 참고하되, 이를 단순히 소개하거나 모범 사례로 제시하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 각 사례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국내 청동기시대 사적의 입지와 유적 유형, 관리 여건 및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의 청동기시대 사적이 지닌 고유한 학술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국내외 연구자와 방문객에게 실질적인 학술적·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적의 보존·관리·활용 수준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의지, 행정 역량 및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개별 지자체의 노력에만 맡겨서는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지자체의 실행 역량을 연계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는 실천적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의 시행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보존 성과, 교육적 효과, 시민 참여와 활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청동기시대 사적의 보존·관리·활용 수준은 전시·교육 인프라와 콘텐츠의 구성, 주변 환경의 보존 상태, 운영 주체의 역량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전담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갖춘 유적은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관람과 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 전문 해설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반면 현장 시설이 부족한 유적은 짧은 관람에 그치거나 지역 주민의 산책 공간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방문객 유치와 지역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모든 사적에 동일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보다 유적의 규모와 성격, 보존 상태, 접근성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선 진입로와 관람 동선, 안내시설 등 기본적인 관람 여건을 개선하고,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개별 유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전담 전시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유적에는 디지털 자료와 이동형 전시, 현장 해설 프로그램 등 대안적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복원은 충분한 고고학적 고증과 검증을 전제로 추진하고, 유적의 장소성과 진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무리한 재현보다 원형 보존을 우선해야 한다.

아울러 주변 경관과 생태환경을 함께 관리하고, 취락과 생활유구, 분묘 등 관련 유구·유적을 연계하여 청동기시대의 공간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적의 보존·관리뿐만 아니라 교육·홍보·활용을 담당할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업의 지속성, 교육적 효과, 시민 참여와 방문객 만족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청동기시대 사적의 활용은 단순한 공원화나 복원 전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고고학적 연구

성과에 기반한 정보 제공과 체험교육, 주변 경관의 보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사적을 학술적 연구의 대상이자 시민들이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향유하는 지속가능한 교육·문화 자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미국의 국립 역사공원은 국립공원관리청이 관리하며, 박물관·전시관·야외 학습장 등 교육시설과 야영장·하이킹 트레일·투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방문객과 연구자, 일반인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학교·대학·주민단체 및 국내외 관련 기관과 협력한다. 이러한 운영체계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감시, 정비·활용, 시민 참여, 지역문화 교육, 전문가 양성 및 학술 연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황재훈 2021).

일본의 경우, 학계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유적의 보존·정비 방안을 마련하며, 정비 이후에도 보존 전시와 복원,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적의 가치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자 노력한다. 이다즈케 유적과 도로 유적 등은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환호, 주거지 등을 복원하여 역사공원으로 정비하였는데, 특히 과거의 논을 복원하여 실제로 벼를 경작하여 야요이시대의 농경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또한 도이가하마 유적, 아야라기고 유적의 야외전시관과 역사공원에서는 발굴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 디오라마나 체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유적의 조사 이후 정비·복원을 추진할 때에도 활용 및 관리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지역 주민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직접 향유할 수 있도록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2025).

영국 월트셔 박물관의 사례에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월트셔 필드그룹을 운영하고, 일반 시민에게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연례 심포지엄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시민의 고고학적 이해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영국의 유적 보존·관리 및 활용은 개별 유적에 국한하지 않고 주변 경관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관리 체계를 지향한다. 아울러 민간 기업과 지역사회, 국가 및 공공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보존과 해설, 관람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유적을 교육·문화 활동의 거점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2025). 이는 청동기시대 사적 역시 개별 유적의 물리적 보존을 넘어 주변 경관과 지역사회를 연계하고,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통해 교육·문화적 가치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 하나의 방안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튜브와 숏폼 등 영상 플랫폼을 통한 역사 콘텐츠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학술적 엄밀성을 유지하면서 유물의 제작과 복원 과정, 유구의 발굴 현장 등을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하고 역사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대중의 관심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고화질 영상과 현장음 중심의 사운드스케이프(ASMR)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적의 공간적 특성과 현장감을 전달하고, 국가유산채널(K-HERITAGE TV)의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사례를 참고하여 청동기시대 사적의 대중적 향유 방식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현장 중심의 활용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일부 사적은 접근성이 낮고 편의시설과 관리시설이

부족하며, 관람객에게 유적의 성격과 학술적 가치를 전달하는 정보 제공 체계도 미흡하다. 이에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QR코드와 증강현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발굴 당시의 모습과 출토 유물, 주변 경관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장 학습과 체험 교실 등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사문화축제와 같은 문화행사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시민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각설하고, 역사 사적과 달리 청동기시대 사적은 대부분 매장문화유산에 해당하는바 발굴조사가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 청동기시대 유적은 지하에 매장된 유구가 대부분이므로 발굴조사 이전에는 유적의 범위와 성격, 유구의 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동기시대 사적의 대부분은 지정 구역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한 발굴이 대부분 완료되어 추후 조사연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발굴 이전 사적 지정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적의 지정과 정비에 앞서 조사 필요성과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 이후에는 유적과 주변 경관의 보존을 바탕으로 정비·복원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추가 학술조사의 필요성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송국리 유적과 같이 발굴조사가 일부에 그쳐 취락의 전모를 복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최근 주변 지역의 조사 성과를 고려하면 유적의 분포 범위가 현 사적 지정구역 밖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김경택 외 2010). 따라서 유적의 전체 범위와 유구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지표조사나 시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주변 유적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명확한 학술적 목적에 기반한 발굴조사를 계획적·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조사성과를 연구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유산 당국과 지자체, 지역주민, 고고학계, 대학 등이 협력하여 조사·보존·연구·홍보·활용을 포괄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이기성 2021).

궁극적으로 청동기시대 사적의 지속가능한 활용은 유적의 물리적 보존을 넘어 학술 연구와 디지털 미디어, 교육 현장,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데서 실현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동기시대 사적을 과거의 유물을 보존하는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대중의 일상 속에서 역사적 의미를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살아 있는 교육·문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을 대신하여: 청동기시대 사적의 학술적 중요성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사적의 학술적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의 교육·연구적 가치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간단하게는 사적 내 박물관과 전시관, 현장체험관, 안내판 등에 최신 국내외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현재 통용되지 않는 용어나 이론이 여전히 사용되거나, 한국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세계사적 보편 이론을 적용하여 유적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별 유구의 형태와 구조에 국한된 접근에서 벗어나 유구 간 공간적 배치와 상호 관계, 주변 유적과의 맥락, 자연환경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관고고학적 관점(강동석 2021; 고일홍 2025; 김범철 2012; 김종일

2006; 김지민 2026; 손준호 2016; 이성주 외 2022)에서 유적의 복원과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사적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서는 학술조사와 교육·연구을 연계한 연구 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공공기관과 주립대학이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학생과 시민에게 유적 답사, 야외 조사, 선사문화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고고학과 과거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시민의식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대학 등 연구팀이 미국국립과학원(NSF)의 지원을 받아 국가사적 학술조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어 학술적 성과뿐 아니라 참여 학생과 연구원의 현장 조사 및 이론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사적을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장으로 활용할 때 보존·정비·복원은 물론 시민 교육과 문화유산 활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황재훈 2021).

이 밖에도 일본과 중국 등 주변 국가에서도 사적의 학술적 가치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사례를 단순히 참고하거나 선망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국내 적용 가능성과 한국 사적의 국제적 가치 제고, 국내외 연구자와 방문객에게 미칠 실질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학·연구소와 학계, 교육부(한국연구재단),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선사시대 사적에 대한 장기적인 조사연구 계획과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사적을 대상으로 한 학술적 활용이 이루어져 왔으나, 일회성 사업이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연구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연구뿐 아니라 문화·사회·경제·환경적 측면을 아우르는 활용은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아직 미흡하며, 청동기시대를 비롯한 선사시대 사적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사적은 교육·연구적 가치를 넘어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공자원인 만큼, 유적의 특성과 학술적 기대효과를 함께 고려한 체계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동기시대 사적의 활용이 소극적인 데에는 지자체의 낮은 관심과 제한적인 예산 지원뿐 아니라 경제적 효용성에 대한 인식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선사시대 유적은 지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구가 제한적이어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시성이 낮고, 발굴조사에서도 유구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출토 유물이 소량의 파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발굴 이후 특별전과 도록 발간, 학술대회 및 논문 발표 등 후속 성과를 비교적 빠르게 도출할 수 있는 역사시대 유적에 비해 연구 성과의 가시화와 활용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선사시대 사적의 역사적 가치와 학술적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청동기시대 사적은 장기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지역의 고고학적 문화를 규명하고, 그 성과를 교육과 문화 콘텐츠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적을 개발의 제약이나 장애요인이 아닌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보존하고 활용하는 공공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적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 고유한 특성을 보여주는 자원인 만큼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존·활용이 중요하다(강현 2021). 지자체는 조사연구 성과를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보호·보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의 고고학적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축제와 참여형 관광,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애니메이션·게임·영화·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와 관련 상품 개발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이화종 2020; 이화종·이정철 2022).

한편, 국가 차원의 중요 유적을 담당하는 국립문화유산연구소의 학술조사사업은 주로 역사시대 유적에 집중되어 있다. 부여 송국리 유적을 제외하면 지속적인 학술 발굴이나 조사연구가 이루어지는 청동기시대 사적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송국리 유적 역시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최근 세계유산 등재 추진으로 관련 행정이 이원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청동기시대 사적은 유적의 비가시성과 학술적 성과의 가시화에 따른 어려움, 경제적 효용성에 대한 인식 등으로 인해 역사시대 사적과 비교해 지정과 활용에서 극심한 불균형을 보인다. 따라서 청동기시대 사적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고, 단순한 지정이나 정비·복원에 앞서 유적의 가치와 활용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황재훈 2022).

이번 한국청동기학회 정기학술대회는『청동기시대 사적, 그 가치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총 6명의 발표자가 청동기시대 사적 6곳을 선정하여, 각 유적의 보존·관리 현황과 조사·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술적 가치와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강화도 지석묘의 고고학적 의의와 문화유산적 가치에 대해 정리한 구혜영은 강화도 지석묘와 주거지의 물질문화가 대동강 유역 청동기문화와 역삼동·신흥동문화유형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며, 대형 탁자식 지석묘는 지역 간 교류와 한반도 북부의 사회구조 및 문화 변동을 이해하는 데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성민주는 부여 송국리 유적의 활용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조사성과 공개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을 제안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주요 유구와 취락 범위, 농경생산 공간에 대한 추가조사와 사적 지정범위의 재검토, 전문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학술적 가치를 보존하고 연구성과를 대중과 공유해야 한다고 보았다.

손아라는 고창 고인돌 유적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서는 세계유산 확대 등재 추진, 죽림리 고인돌군과 채석장의 연계, 학술연구에 기반한 경관복원, 박물관 전시환경 개선 및 다양한 관람동선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고인돌의 분포와 형성 과정, 채석·운반·축조 과정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성과를 전시·교육·디지털 콘텐츠에 반영함으로써 유적의 학술적 가치와 세계유산으로서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재언은 화순 효산리·대신리 지석묘군을 군집의 형성과 변화, 채석·운반·축조 과정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유산으로 평가하고, 기초자료의 재검토와 지역 간 비교연구를 통해 지석묘문화의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규명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연구성과를 디지털 콘텐츠와 전시·교육·탐방 프로그램에 연계하고, 보존과 지역사회 참여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활

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명훈은 창원 진동리 유적을 대형 묘역지석묘가 연접한 대표적인 분묘군으로, 청동기시대 계층사회의 형성과 심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적색마연토기를 근거로 지역 내 생산 중심지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당시 사회의 계층성을 분묘 축조뿐 아니라 전문공인의 출현과 재화의 분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홍주홍은 춘천 신매리 유적의 장기 지속성에 주목하고, 특히 청동기시대 취락의 형성과 변화 양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기초적인 보존·관리체계 정비와 주변 관광자원 연계, 2027년 사적 지정 20주년을 활용한 연구성과 공유 및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상 6명의 발표자는 각 사적의 고고학적 의의와 문화유산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조사·연구와 체계적인 보존·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적 지정범위의 재검토와 정비·복원, 디지털 콘텐츠 및 전시·교육 프로그램 개발, 주변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 지역사회 참여와 전문기관 간 협력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청동기시대 사적을 단순한 보존의 대상을 넘어 학술적 연구와 교육, 사회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인 조사연구 계획과 지속가능한 보존·활용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　현, 2021,「사적의 지정과 지역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역사가 남긴 기념물, 사적』, 문화재 행정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문화재청.

강동석, 2021,「경관고고학의 신동향」,『고고학 연구법의 신동향』, 제30회 영남고고학회 정기학술발표회.

강봉원, 1998,「미국의 문화재 관리 현황과 과제」,『고문화』51.

고일홍, 2025,「고대 및 역사시대 채석장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고창 죽림리 채석장 재사유하기」,『건지인문학』42.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2025,『고창 죽림리 지석묘군(Ⅱ지구6군)』.

김경택·이기성·서현주·주동훈·박병욱·노양지·백혜림, 2020,『송국리ⅩⅢ』, 한국전통대학교 고고학연구소.

김범철, 2012,「거석기념물과 사회정치적 발달에 대한 고고학적 이해」,『한국상고사학보』75, 한국상고사학회.

김재홍, 2021,「역사시대 사적의 보존·관리 현황과 가치」,『역사가 남긴 기념물, 사적』, 문화재 행정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문화재청.

김종승, 2015,「문화재청의 발굴 보존유적 관리체제 개선방향」,『보존조치유적 제도개선 모색을 위한 워크숍』, 한국고고학회·한국매장문화재협회.

김종일, 2006,「경관 고고학의 이론적 특징과 적용 가능성」,『한국고고학보』58.

김지민, 2026,「화순 고인돌 유적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철주, 2021,「사적 지정의 행정적·학술적 검토」,『역사가 남긴 기념물, 사적』, 문화재 행정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문화재청.

노중국, 2021,「사적의 국가적 중요성」,『역사가 남긴 기념물, 사적』, 문화재 행정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문화재청.

문화재청, 2002,『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 계획』.

문화재청, 2012,『선사유적의 보존관리 메뉴얼』.

박종섭, 2015,「국내 발굴유적의 보존사례와 개선방안」,『보존조치유적 제도개선 모색을 위한 워크숍』, 한국고고학회·한국매장문화재협회.

손준호, 2016,「호서지역의 지석묘와 그 보존 및 활용」,『야외고고학』26.

송길상, 2021,「법과 사례를 통한 복원고증연구의 방향」,『백제왕도핵심유적 복원고증연구의 개선방안 모색』, 백제왕도핵심유적 정책연구포럼, 문화재청 백제왕도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단.

신희권, 2014,「고고유적 활용 방안 연구」,『야외고고학』19.

신희권, 2021,「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와 사적의 지정·관리」,『역사가 남긴 기념물, 사적』, 문화재 행정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문화재청.

이기성, 2021,「부여 송국리 유적 세계유산 등재과정의 문제점과 추진방향」,『호서고고학』50.
이명선, 2021,「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적의 보존·관리와 활용」,『역사가 남긴 기념물, 사적』, 문화재 행정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문화재청.
이성주·김태희·이수정, 2022,「지석묘의 축조와 경관의 역사」,『한국청동기학보』31.
이화종, 2020,「세계연속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의 관리 연구와 활용 방안」,『호남고고학보』64.
이화종·이정철, 2022,「세계유산 강화 고인돌의 현황과 보존·활용 방안」『호서고고학』51.
최종규, 2015,「국내 보존유적 정비 및 관리방안」,『보존조치유적 제도개선 모색을 위한 워크숍』, 51-86, 한국고고학회·한국매장문화재협회.
허의행·안형기, 2012,「매장문화재정보 관리와 활용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획및 제작 연구」,『야외고고학』15.
한국고고학회, 2010,『한국고고학강의 개정신판』, 사회평론아카데미.
홍보식, 2021,「국가 사적 정책의 역사. 어제와 오늘」,『역사가 남긴 기념물, 사적』, 문화재 행정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문화재청.
황재훈, 2021,「선사 사적의 보존·관리 현황과 가치」,『역사가 남긴 기념물, 사적』, 문화재 행정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문화재청.
황재훈, 2022,「선사 사적의 지정·보존·관리 현황과 활용 방안」,『헤리티지:역사와 과학』55-2.

발표 1

강화도 지석묘의 고고학적 의의와 문화유산적 가치

구혜영
(강화군청)

강화도 지석묘의 고고학적 의의와 문화유산적 가치

구혜영
(강화군청)

목차

Ⅰ. 머리말
Ⅱ. 강화도 지석묘 조사 현황
Ⅲ. 강화도 지석묘의 형식과 구조
Ⅳ. 강화도 지석묘의 고고학적 의의
Ⅴ. 맺음말

Ⅰ. 머리말

강화군은 강화만을 사이에 두고 황해남도와 직선거리로 약 7km의 공간적 거리를 갖는다. 이 지역에는 강화 북부에 소재한 고려산을 중심으로 약 160여기의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다. 강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총 5개 권역으로 강화 부근리, 강화 삼거리, 강화 오상리, 강화 고천리, 강화 교산리 지석묘군이 군집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다. 국내에서 강화 부근리 지석묘는 1964년 단독으로 국가지정유산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강화 부근리 지석묘군을 포함한 5개의 지석묘군은 1999년 인천시 지정유산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또한 2000년도에는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아 다섯 개의 권역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 외에도 강화 부근리 점골 지석묘와 강화 대산리 지석묘가 인천시 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강화 삼거리 천곡 지석묘가 향토 유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강화도 내 지석묘의 존재는 1913년 이마니시 류(今西龍)에 의해 강화 하도리 유적이 발굴조사되면서 주목받았다. 이후 1962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시한 강화 삼거리 유적 조사는 해방 이후 체계적인 지석묘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조사에서 지석묘 5기와 주거지 1기가 확인되었고, 특징적인 신흥동식토기가 출토되면서, 한반도 서북부지역 신흥동문화유형[1]에 해당

1) 해당 문화유형에 대하여 '각형토기문화유형'으로 명칭하거나(최종모 2006), '각형토기문화'(강동석 2021;

되는 공간임이 학술적으로 증명되었다. 이후 1999년에는 강화군 지석묘 전체 정밀 지표조사를 통해 지석묘의 현황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강화 오상리 지석묘군에 대한 학술발굴조사 및 복원이 실시되었다.

최근 약 20년만인 2022년도에 강화군은 지석묘의 전체 현황에 관한 지표조사를 통해 지정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지석묘의 구조 및 훼손 정도 등을 고려하여 5등급(A~E)으로 현황을 관리의 우선순위를 상정하였다(백두문화재연구원 2022: 314).

이와 같이 한국고고학의 시작 단계부터 강화도는 한반도 남부 최대의 탁자식 지석묘가 존재한 공간으로 주목받았다. 이후 강화도 지석묘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Ⅱ. 강화도 지석묘 조사 현황

1. 1990년대 이전 조사

1917년에 발간된『고적조사보고』를 통해 송해면 하도리에 위치한 지석묘 5기가 소개되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1호 지석묘는 비교적 얇은 판석을 세우고 개석을 얹은 형태이며, 양쪽 지석은 상실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고적조사 과정에서 이 지석묘를 현지에서 일컫던 하점면 지석묘로 기술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에도 부근리 지석묘의 존재가 학계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1967년에는 삼거리 유적 중 소동마을에 위치한 지석묘 5기를 대상으로 학술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국립중앙박물관 1967). 지석묘는 얇은 판석을 세우고 개석을 올린 형태이며, 석실 바닥에는 석괴를 깐 구조를 확인하였다. 지석묘 내에서 일단경식석촉이 출토되어, 지석묘의 부장 유물을 확인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1975년 문화재관리국에서 발간한『문화재대관』에서는 1964년에 지정된 사적 부근리 지석묘가 독립하여 위치한 것으로 소개되었다. 이때까지는 사적 부근리 지석묘군을 중심으로 분포된 16기의 부근리 지석묘군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진경 2022), '각형토기유형'(황재훈 2017), '신흥동유형(이청규 1988)', '팽이형토기문화(오강원 2022)' 으로 명명하고 있다. 필자는 전고(2023)에서『조선원시고고학개요』에서 각형토기를 남긴 유적을 '신흥동유적유형'이라 명시한 점과 한반도 남부지역의 문화유형의 명칭과 통일성을 근거로 신흥동문화유형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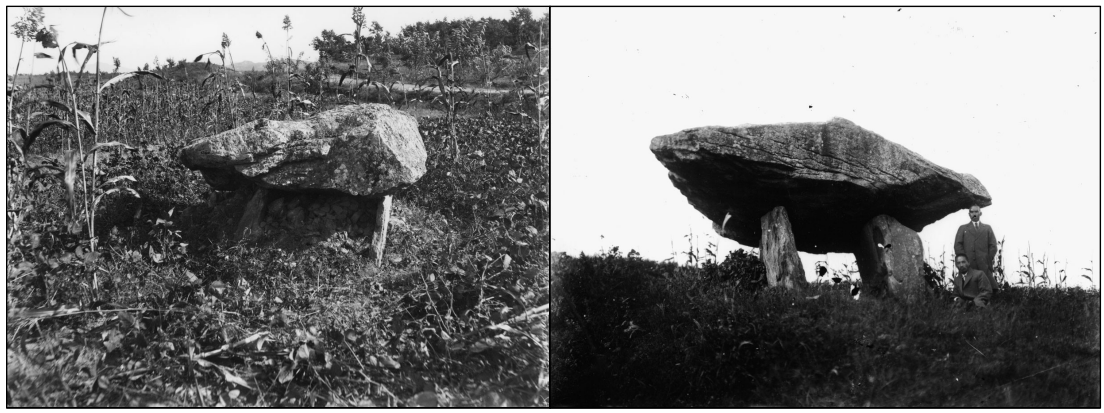


그림 1. 일제강점기 강화도 지석묘 조사 현황
(좌 : 송해면 하도리 지석묘, 우 : 하점면 부근리 지석묘)

2. 1990년대 이후 조사

1990년대 이전까지 지석묘에 대한 연구가 단편적인 소개나 일부 발굴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는 데 그쳤다면, 1990년대에 들어서는 전면적인 정밀지표조사가 이루어지며 지석묘의 분포 현황과 형태적 특징이 본격적으로 규명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2)은 지표조사를 통해 강화도 내 총 80기의 지석묘가 분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하였으며, 1917년 『고적조사보고서』에 소개된 송해면 하도리 지석묘군의 현황을 기록하였다. 또한 『한국지석묘연구』에 소개되었던 삼거리 소동마을 지석묘 5기 중 2기가 유실된 현장을 확인하며, 발굴조사 이후 유적 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사적 강화 부근리 지석묘 주변의 지석묘군을 새롭게 보고하며, 1975년에 발간된 『문화재대관』의 오류를 정정하였다.

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소(2000)는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강화 북부에 산재한 지석묘의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강화군 내 소재한 지석묘는 127기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이 중 형태 분류가 가능한 지석묘를 대상으로 탁자식(72기)과 개석식(48기)으로 분류되었다. 이 조사의 가장 큰 성과로는 지석묘의 입지를 평지형과 산상형으로 구분하고, 특히 해발 300m에 가까운 고려산 고지에 위치한 고천리 고인돌군의 입지를 확인한 점이 꼽힌다. 일반적으로 지석묘가 하천변의 평지, 평지를 향해 뻗은 구릉, 평지가 내려다보이는 평탄한 산 구릉에 분포한다는 일반적인 견해(이영문 2012: 330)와는 대비되는 입지 양상이다. 즉, 부근리 지석묘군처럼 평지에 위치한 지석묘군이 생활공간 영역 내에 축조한 것과 차별적으로, 고천리 지석묘군은 산지에 묘역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3. 2000년대 이후 조사

2000년대 이후부터는 개개 지석묘에 대한 발굴조사와 복원이 실시되었다. 강화 오상리 지석묘 학술발굴조사 및 복원(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 2002), 강화 부근리 점골 지석묘 학술발굴조사 및 복원(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강화 대산리 지석묘 학술발굴조사(한강문화재연구원 2013) 등 주요 유적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개별 지석묘의 세부 구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수몰 위기에 있는 강화 하도리 개석식 지석묘(134호)를 대상으로 긴급 발굴조사를 진행한 결과, 개석 하단에 매장주체부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지석묘가 본래 위치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혜안문화재연구소 2021). 아울러 강화 고인돌 공원 예정지 발굴조사(서울대학교박물관 2006)와 부근리 지석묘에서 약 150m가량 떨어진 강화자연사박물관 조성부지 내 발굴조사(서경문화재연구원 2010)가 실시된 바 있다.

한편, 강화군은 2022년에 관내 지석묘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비지정유산에 대한 기록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정기적인 지석묘 보존처리 작업을 통해 지석의 기울임 정도와 석재 강화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강화군에 소재한 주요 지석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동시에 국가 및 시지정문화유산 및 향토유산으로 지정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Ⅲ. 강화도 지석묘의 형식과 구조

서북한 지역에서는 탁자식 지석묘가 단독으로 분포하거나 군집을 이루는 사례가 많다(황재훈 2015: 253). 강화도 지석묘의 경우, 부근리 점골 지석묘나 대산리 지석묘 등 중형급의 탁자식 지석묘가 단독으로 배치된 사례도 존재하지만, 대체로 탁자식과 개석식이 혼재되어 군집을 이루는 특징을 보인다. 강화군 전체 지석묘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전체 127기 중 탁자식 지석묘가 72기(57%)를 차지하여 그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 지역 전체 지석묘 중 탁자식의 비율이 14.9%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경기도박물관 2007: 27), 강화도에서 확인되는 탁자식 지석묘의 높은 비율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황재훈이 언급한 바와 같이, 탁자식 지석묘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양상은 강화도 일대가 서북한 지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경기권 내에서도 탁자식 지석묘가 주로 광명-시흥-안산 일대에서 대다수 발견되며, 경기 남부로 갈수록 그 비율이 급격히 낮아진다(황재훈 2015: 259). 이러한 공간적 분포 양상은 청동기시대 한반도 서해안권을 따라 물질문화의 확산 경로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강화도 지석묘가 한반도 서북한 지역의 영향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북한 지역 지석묘의 형식 분류를 기준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석광준(2002)은 한반도 서북부지역에 확인된 지석묘를 대상으로 침촌형, 오덕형, 묵방형의 세가지 형식으로 분류하였다(표 1). 이와 같은 형식 분류는 축조 기술의 발전 단계를 근거로 한다. 예를 들어, 침촌형Ⅰ형식에서 확인되는 묘역 시설은 개석의 무게에 비해 지석이 미약하여 발생하는 묘제의 불안정성을 보강하기 위해 고안된 축조 기술이다. 이처럼 별도의 묘역 시설을 수반하는 침촌형은 상대적으로 축조기술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선행하는 것으로 논의된다. 반면 오덕형은 대체로 높이가 높은 특징을 지니며, 크기나 구조면에서도 한층 발전된 축조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석광준은 이러한 기술적 특징 외에도 출토 유물의 양상을 통해 각 형식의 상대 연대와 편년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침촌형 1·2형식의 지석묘에서는 유엽형 석촉과 유경식 석촉이 주로 출토된다는 점, 그리고 미송리형토기가 오덕형 지석묘와 묵방형 지석묘에는 출토되지만 이

른 시기의 침촌형 지석묘의 이른 시기에는 출토되지 않은 점을 편년의 근거로 하였다.

표 1. 한반도 서북부 지석묘 형식 분류안(석광준 2002)

	형식	주요 유적	형태적 특징
침촌형	Ⅰ	황주군 긴동 침촌형 지석묘(3・4・5・6호)	- 하나의 묘역 안에 다수 지석묘 밀집 - 얇은 판돌로 조립
	Ⅱ	황주군 침촌리 천진동(4・5・6호)	- 두께 4~5cm인 얇은 판돌로 석관을 조립한 지석묘와 두께 10~20cm 두꺼운 지석이 있는 지석묘가 동일 묘역에 분포
	Ⅲ	황주군 침촌리 신대동(2・3・4호)	- 두꺼운 판돌을 양옆에 평행하게 세우고, 양 옆에 얇은 판돌로 석실을 조립 - 30~40cm 정도의 큰 돌을 깔아 묘역형성
	Ⅳ	평양시 상원군 장리 왁새봉 등	- 석실은 판돌 4개로 조립한 형식과 강돌 등으로 석실벽을 올린 묵방형의 석관
오덕형	Ⅰ	평양시 상원군 룡곡리 등	- 4장의 판돌로 석관을 형성하고 그 중 한 켠의 막음돌을 문돌로 이용
	Ⅱ	・평양시 강동군 문흥리 3호 ・황해북도 연탄구 오덕지구 10호	- 문턱돌이 있고 지석을 다듬은 평면형태, 기초홈을 파고 지석을 견고하게 세움
	Ⅲ	황해북도 연탄구 오덕지구 1호	- 외형이 매우 크고, 모서리에 나들문이 있음 - 땅 위에 지반을 고르고 세 벽의 판돌을 세울 만한 폼을 파고, 두 지석과 북쪽 막음돌을 세움. 남쪽에는 2/3만 막음돌을 세우고, 나머지 공간은 막돌로 쌓은 문 (오덕 1호)
묵방형	Ⅰ	평안남도 개천리 묵방리 4호	- 작은돌을 여러 번 겹쳐 쌓은 'ㄷ' 자형 석실
	Ⅱ	평안남도 평원군 석암 야영소 1호	- 석실 네 벽체를 판돌로 겹쳐 쌓았고, 한 켠 벽 모서리에 나들문 형성
	Ⅲ	평안남도 숙천군 검산리 안촌	

압록강 유역 및 중국 동북지방에서 지석묘는 오덕형 및 묵방형이며, 침촌형 지석묘는 확인되지 않는다(석광준 2002: 133). 이를 통해 볼 때, 침촌형은 시간적 차이뿐만 아니라 일정한 지역성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와 같은 형식 분류는 강화도 내에 분포하는 지석묘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정립하는 기준이 된다.

강화도에 소재한 5개의 지석묘군은 탁자식과 개석식이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강화 부근리 지석묘군의 경우, 대형의 탁자식 지석묘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탁자식과 개석식 지석묘가 함께 분포하고 있다. 반면, 대산리 지석묘와 부근리 점골 지석묘는 단독으로 조성된 탁자식 지석묘에 해당한다. 한편, 교산리 지석묘군과 고천리 지석묘군은 해발 300m의 안팎의 고지대에 있으며, 탁자식 지석묘와 개석식 지석묘가 혼재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강화군 소재 지석묘 중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을 중심으로 그 구조적 특징을 논의하고자 한다.

표 2. 국가 및 시지정 지석묘 현황(구혜영 2022: 17)

구분	지석묘명	해발고도	수량	형식
사적, 인천시 기념물	부근리 지석묘군	20~30m	17기	탁자식, 개석식
인천시 기념물	대산리 지석묘	20m	1기	탁자식
인천시 기념물	부근리 점골 지석묘	15m	1기	탁자식
인천시 기념물	오상리 지석묘군	76m	12기	탁자식
인천시 기념물	삼거리 지석묘군	100~200m	9기	탁자식
인천시 기념물	교산리 지석묘군	100~300m	11기	탁자식, 개석식
인천시 기념물	고천리 지석묘군	250~350m	18기	탁자식, 개석식

1. 강화 오상리 지석묘군

강화 오상리 지석묘는 해발 76m의 구릉에 일정한 묘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높이가 낮은 탁자식 지석묘이다. 오상리 12호를 중심으로 작은 11기의 지석묘가 일정한 열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다. 구조상 가장 큰 특징은 지석묘의 하부 석관 형태의 석실을 구축하고 있고 네 변의 지석이 넘어지지 않게 지석묘 주변에 쐐기돌을 박아 개석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한 점이다(선문대 고고학연구소 2002: 82). 즉, 지석이 'ㅍ'자형 형태를 갖추었으며, 하부구조가 소형의 석관과 같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구조는 쐐기돌이 적석의 역할을 하며 묘역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침촌형 지석묘의 구조와 맥락을 같이 한다. 구체적으로는 두꺼운 판돌을 양 측면에 평행하게 세우고, 그 양 끝을 얇은 판석으로 막아 석실을 조립한 뒤, 30~40cm 크기의 할석을 깔아 묘역을 형성한 침촌형 Ⅲ형식과 유사하다(선문대 고고학연구소 2002: 87).[2)]

지석묘의 주변부에서는 유엽형석촉, 일단경식석촉, 장주형석도, 환상석부 편 등이 출토되었으며, 지석묘와 적석사이에는 신흥동식토기가 다수 출토되었다. 특히 1·11호 지석묘 내부 바닥에서 각각 관옥이 출토되었다. 관옥은 크기를 기준으로 길이 2~3cm를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하는데, 중기가 되면 1cm 미만의 소형 관옥이 대량으로 출토되는 경향이 있다(庄田愼矢 2014: 111). 1호에서 출토된 관옥은 길이 1.1cm, 11호 관옥은 1.0cm이다. 인근의 김포 양촌 유적 L-2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관옥의 길이가 각각 6.0cm, 4.5cm인 점과 비교할 때 뚜렷한 규격

2) 강동석(2022)은 오상리 지석묘군에 대하여 하나의 군집묘역과 복수의 개별묘역으로 구분하였다. 군집묘역과 개별묘역(3·4·10호)으로 구분하였다. 군집묘역은 복수의 지석묘가 적석형의 묘역 시설 내에 분포하는 단위묘역을 구성하며, 각 지석묘는 개석식으로 지하식의 석관형 구조를 갖추었고, 단독묘역의 매장주체부는 지상에 위치하며, 탁자식에 해당되는 것으로 논의된다. 한편, 황재훈(2009)은 오상리 지석묘군 중 매장주체부 구조 파악이 가능한 1·2·6·8호는 'ㅍ'자형의 형태를 띠고 있어 대동강유역의 탁자식 지석묘구조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논의하였다.

차이를 보인다. 오상리 지석묘의 관옥은 소형에 해당되지만 각각 1점씩 단독으로 부장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관옥이 한정된 계층에 속한 일부가 착장한 위세품이며, 그 제작에 투입된 노동력과 기술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쇼다신야 2009: 204), 피장자의 높은 사회적 위치와 더불어 해당 집단의 사회적 발전 단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당초 발굴보고서에는 1·8·10호에서 출토된 토기 구연부편이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로 보고되었으나, 이중구연문과 사선을 특징으로 하는 신흥동식토기 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유물 출토 양상은 오상리 지석묘군의 축조 집단이 대동강 유역과 밀접하게 교류하였거나 관련되어있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8호 지석묘 주변에서 장주형석도의 출토된 점은 이들이 농경을 기반으로 한 집단이었음을 시사한다.

2. 강화 삼거리 지석묘군

강화 삼거리 지석묘군은 196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학술 조사되었다(김재원·윤무병 1967).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총 5기의 높이가 낮은 탁자식 지석묘가 확인되었다(표 3).[3] A·B호 장지석은 남동-북서 방향으로, C~E는 북동-남성방향으로 장축이 형성되어 있어, 두 그룹 간의 축조 방향이 서로 직교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A·B호의 주변부에는 할석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C·D호의 주변부에는 할석이 깔려 있어 일정한 묘역 시설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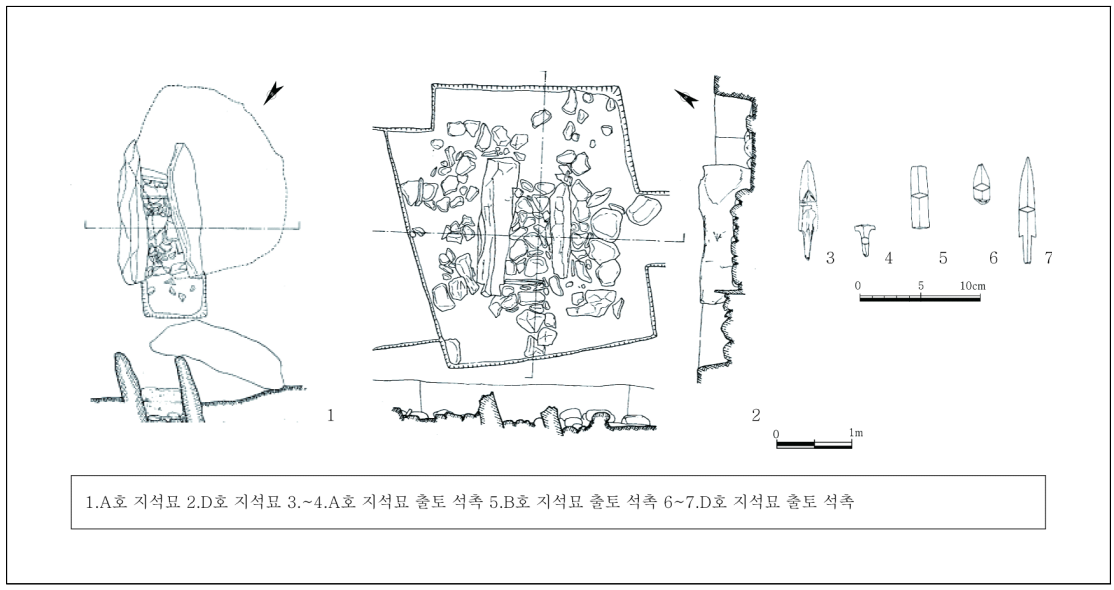
이처럼 축조 방향과 묘역 시설의 유무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므로, 이들을 A·B호 그룹과, C~E호 그룹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묘역 시설을 수반하는 지석묘가 상대적으로 더 이른 시기에 축조되는 경향을 고려할 때, 삼거리 지석묘군의 이러한 양상은 두 군집 간의 시간성을 반영할 개연성이 높다(황재훈 2022: 320).

한편, A호·D호 지석묘 내부에서 일단경식석촉이 출토되었으며, A호 지석묘 출토 석촉은 신부 하단이 일자형, D호 지석묘 출토 석촉은 삼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어 형태적 차이를 보여준다(그림 2).

3) 강동석(2022)은 전술한 강화 오상리 지석묘군과 동일한 맥락에서, C~E호는 매장주체부가 지하에 있는 개석식 지석묘로, A·B호는 매장주체부의 바닥이 지하에 시설되어 있지만, 묘실이 지상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탁자식으로 구분하였다.

표 3. 강화 삼거리 지석묘군 조사 현황

	개석			(장)지석				할석		내부 출토유물
	길이	너비	두께	길이	높이	두께	장축	외	내	
A	2.4m	1.8m	25~55cm	2m	60cm	- 15~20cm - 10cm	동-서	무	유	석촉(2)
B	3m	-	-	1.9m	1m	20cm		무	유	
C	소실	-	-	1.5m	1m	20cm	북동-남서	유	유	
D	소실	-	-	1.7m	-	-		유	유	토기편(7) 석촉(1)
E	2.6m	1.6m	30cm	1.5m	-	20cm		무	유	



1.A호 지석묘 2.D호 지석묘 3.~4.A호 지석묘 출토 석촉 5.B호 지석묘 출토 석촉 6~7.D호 지석묘 출토 석촉

그림 2. 강화 삼거리 지석묘(A·D호) 및 출토유물(지석묘 1/100, 석촉 1/6)

3. 강화 부근리 점골 지석묘

부근리 점골 지석묘는 비교적 평탄한 해발 15m의 능선 말단부에 입지하고 있으며, 1967년 강화 삼거리 지석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거지와 약 100m 거리를 두고 배치되어 있다. 강화 삼거리 주거지는 신흥동식토기의 굽형 저부와 이중구연+단속·사선문토기가 출토되어, 경기 서북부지역 내에서도 신흥동식토기의 영향권에 속하는 주요 유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구혜영 2022; 강동석 2020; 김한식 2006; 이기성 2010; 최종모·김권중·홍주희 2006; 황재훈 2017).

부근리 점골 지석묘는 전형적인 탁자식 지석묘이며, 지석묘를 중심으로 약 5m 가량의 마운드가 조성되었음이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표 4). 이 마운드는 15톤 가량의 개석과 4톤 가량의 지석 등 석재를 운반하고 건립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측된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12). 동쪽에 굴광선 3개소, 서쪽에 1개소가 확인되며 별도의 묘역시설은 조성되지 않았

다. 한편, 부근리 점골 지석묘와 직선거리 1.4km 거리에 있는 강화 부근리 지석묘는 해발 20~30m에 위치하며, 이와 유사한 구조로 추정된다(강동석 2020: 44), 부근리 지석묘의 개석 크기는 길이 6.5m, 너비 5.2m, 두께 1.2m이며 두 지석은 각각 4.6m×1.5m×80cm, 5.5m×1.4m×60cm으로 부근리 점골 지석묘보다 약 4배가량 무게가 있는 약 53톤으로 추정된다.

부근리 점골 지석묘 내부에서는 석촉 3점, 석착 1점, 무문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 석촉은 일단경식으로 신부 하단이 일자형을 띠고 있어, 삼거리 A호 지석묘에서 출토된 석촉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준다.

표 4. 강화 부근리 점골 지석묘 조사 현황

	개석			(장)지석				할석		(내부) 출토유물
	길이	너비	두께	길이	높이	두께	장축	외	내	
1	3.7m	3.6m	40cm	1.7m	0.9m	40cm	동-서	무	유	석촉(2)
				2.9m	1.9m	60cm				

4. 강화 대산리 지석묘

강화 대산리 지석묘는 고려산에서 뻗어내린 북산과 황무산 사이의 해발 20m의 완만한 사면에 단독으로 위치한다. 이는 강화군에 분포하는 지석묘 중 가장 동쪽에 위치한 사례이다. 개석은 길이 3.7m, 너비 2.6m로 부근리 점골 지석묘에 비하여 크기가 작다(표 5). 발굴조사 결과 별도의 묘역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지석묘 하부까지 교란층이 확인되었다.

표 5. 강화 대산리 지석묘 조사 현황

	개석			(장)지석				할석		내부 출토유물
	길이	너비	두께	길이	높이	두께	장축	외	내	
A	3.7m	2.6m	55cm	2.4m	1.5m	-	동-서	무	-	-
				1.6m	1.3m	-				

한편, 대산리 지석묘에서 동쪽으로 약 400m 떨어진 학무산의 상단부(해발 66m)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9기와 환호시설이 확인되었다. 해당 취락은 대산리 지석묘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하고 있다. 주거지 내에 노지는 무시설식이며, 주요 출토 유물은 이중구연+단속·사선, 공렬, 이중구연+공렬토기, 평저형 저부 등이다. 앞서 부근리 점골 지석묘 인근의 삼거리 주거지에서 신흥동식토기가 출토된 것과 달리, 역삼동식토기가 출토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주거지의 방사성탄소연대 결과는 2900~2800 B.P.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통해, 해당 취락은 청동기시대 전기 후엽인 기원전 11~10세기의 전기 후엽에 형성된 취락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는 역삼동유형이 성행하는 시기이며, 이후 역삼동문화유형은 청동기시대 후기 전엽인 2700 B.P. 무렵부터 쇠

퇴하기 시작한다(朴性姬 2015: 8).

대산리 지석묘와 주거지의 시간적 선후 관계는 섣불리 단언할 수 없으나, 취락이 지석묘로부터 약 400m가량 이격된 지점에 조성되었다는 점은 유의미한 부분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산리 지석묘는 강화도 북부에 분포하는 지석묘 중 가장 동쪽 경계에 위치한 중형 탁자식 지석묘이다. 따라서 공렬토기를 비롯해 역삼동문화유형의 물질문화가 확인되는 대산리 주거지가 지석묘 분포권의 동쪽 외곽에 입지한다는 점, 그리고 취락에 환호가 설치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시 집단 간의 일정한 공간적 경계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Ⅳ. 강화도 지석묘의 고고학적 의의

1. 역삼동문화유형의 유입과 확산

강화도 소재 지석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비롯하여 국가지정문화유산, 시지정문화유산, 향토유산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강화도는 간척의 역사라고 불릴 정도로 과거와 현재의 지형에 차이가 있다(최영준 1997: 186). 강화 부근리 지석묘처럼 평지에 단독으로 입지한 중·대형의 지석묘들은 현재의 경관보다 과거 해안과의 접근성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중·대형 지석묘가 해안가를 따라 형성된 중요한 교통로 상에 축조된 점을 통해, 이를 단순히 무덤이라기보다는 지석묘 축조 공동체가 사회적·이념적 행위를 반복하기 위해 조성한 기념물로의 역할이 강조되기도 한다(강동석 2020: 156).

강화도는 '섬'이라는 공간적 한계를 지닌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학계에서는 최근까지도 이 한정된 공간을 신흥동문화유형의 단독 점유 영역으로 인식해 왔다. 1970년대 연구 초기에 확인된 신흥동식토기의 특징적인 굽형 저부나 탁자식 지석묘의 존재는 이러한 견해를 공고히 뒷받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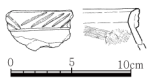
그러나 2000년대 초반에 조사된 강화 장정리 유적 내에서는 5기의 주거지가 확인되었으며, 이곳에서 신흥동문화유형의 물질문화가 확인되었다. 토기는 이중구연+(1~3조)좌상·우하 사선문과 이중구연문이 중심을 이룬다. 특히 이중구연+좌상·우하 사선문은 황해북도 봉산 신흥동, 송림 석탄리 유적 등의 신흥동문화유형에서 출토되는 특징적인 문양이다(표 6). 해당 문양은 김포 양촌 유적에서도 출토되는데, 이중구연+(1조)좌상-우하 사선문이 출토된 김포 양촌 나-15호와 D-23호 주거지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치는 기원전 11세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연대 측정 결과를 통해, 김포 양촌 유적은 기원전 13세기 전후에 역삼동문화유형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후 기원전 11세기경 신흥동식토기가 유입된 것으로 해석된다(구혜영 2022: 12). 따라서 강화 장정리 유적에서는 김포 양촌 유적보다 이른 단계의 신흥동식토기가 출토된 점을 고려할 때, 장정리 유적은 기원전 13~12세기 무렵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능선을 경계로 인접해 있는 강화 신봉리 유적 내에서는 7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으며, 역삼동문화유형의 물질문화가 확인된다. 구순각목+공렬, 공렬을 비롯하여 이중구연+공렬+X자문, 이중구연+공렬+단사선문 등 혼합된 문양의 토기가 출토되었다(그림 3). 또한 삼각만입촉,

이단경식석촉, 이단병식석검, 장주형석도 등 취락 내 주거지 수에 비하여 다양한 석기류가 출토된다. 앞서 살펴본, 강화 대산리 주거지에서도 공렬, 이중구연+연속·사선, 이중구연+공렬이 출토된 점을 고려하면, 청동기시대 전기 후엽에 접어들면서 강화 지역에도 역삼동문화유형이 본격적으로 유입 및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산 말단부 해발 20m에서 확인된 유적에서는 주거지 3기가 확인되었다. 반관통된 공렬문토기, 흑색마연토기가 출토되는 등 늦은 단계의 토기 양상이다. 주거지는 소형크기(12~15㎡)에 방형 형태이며, 노지가 1기 있거나 없는 등 경기 서북부지역에 늦은 단계의 특징을 보인다.

표 6. 이중구연+사선(좌상·우하, 좌하·우상) 출토 현황(구혜영 2022: 12, 토기 1/6)

사선수	5조	4~3조		1조
사선방향	좌하-우상	좌상-우하	좌하-우상	좌상-우하
출토 유적	송림 석탄리 9호 강화 장정리 3호 강화 삼거리	송림 석탄리 4호 강화 장정리 1호 강화 장정리 2호 김포 양곡 1-5호	봉산 신흥동 3호	강화 장정리 2호 김포 양촌 D-13호 김포 양촌 D-14호 김포 양촌 나-15호
도 면	 <강화 장정리 3호>	 <강화 장정리 2호>	 <봉산 신흥동 3호>	 <강화 장정리 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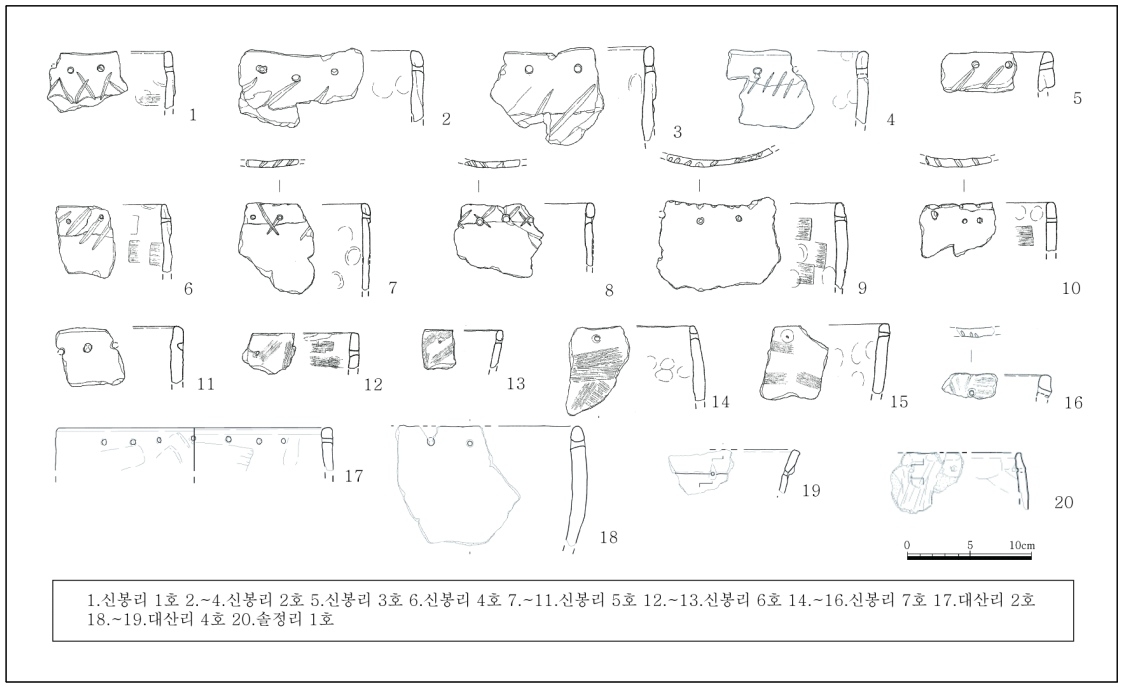


그림 3. 강화도 출토 역삼동식토기(구혜영 2022: 15)

주거지 발굴조사를 통해 강화도 일대가 청동기시대 이른 단계부터 신흥동문화유형이 중심을

이루며 공간임이 재입증되었다. 나아가, 신흥동문화유형만의 배타적인 점유 공간은 아니었음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즉, 역삼동문화유형의 성행과 더불어 전기 후반부터 강화도 내에 새로운 물질문화가 유입되어 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흥동식토기가 한강 이남으로 확산되지 못한 현상 역시 한반도 남부 지역 재지집단의 세력이 강력했던 점과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다(최종모·김권중·홍주희 2006: 100). 이와 관련하여 문수균(2011)은 1~3단계로 설정하며, 2단계가 1단계에 비해 분포 범위가 축소된 원인을 신흥동문화유형과 인접한 남쪽의 토착 문화유형과의 역학 관계에 따른 세력 범위의 변화로 해석한 바 있다.

이처럼 강화도 내 신흥동문화유형의 전개 양상은 역삼동문화유형과의 역학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지석묘 축조의 동인 또한 두 문화유형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중·대형 탁자식 지석묘 축조의 사회적 배경

대부분의 연구자가 동의하듯이 중·대형 탁자식 지석묘의 축조를 단순히 묘제의 기능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강화 부근리 지석묘와 같이 53톤의 대형 탁자식 지석묘를 축조하는 과정은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 사회 계층화, 정치력 등 복합적인 사회적 의미를 내포한다. 나아가 최근에는 경관고고학 측면에서 축조 이후에 완성품을 보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에 주는 영향까지도 논의되고 있다(강동석 2020; 김범철 2011; 김선우 2016; 이성주·김태희·이수정 2022; 황재훈 2015). 지석묘가 축조된 공간은 권력을 행사하거나 정당화하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며, 매장의례에 참여하고 그 기억을 공유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로 작용하였을 것이다(강동석 2021: 43). 즉, 강화 부근리 지석묘와 같은 대형 지석묘의 축조 과정은 물론 완료 이후에 이를 경관으로서 공유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 집단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의미가 부여되었을 것이다.

주지하듯이, 강화도 탁자식 지석묘는 개석과 지석 모두 치석 조정된 파석을 이용하여 평면 'ㅍ'자형의 매장주체부를 구축하는데, 이러한 구조는 대동강유역에서 확인되는 전형적인 특징이다(황재훈 2017: 22). 제작 과정의 기술 체계를 담은 기술적 양식(Technological style)은 제작자들의 상호 작용 및 학습을 수반하기에 쉽게 모방될 수 없다(Hegmon et al. 2000: 221). 따라서, 기술적 양식이 새로운 공간에 등장하는 현상은 곧 제작자의 직접적인 이주를 의미한다.

황재훈(2022)은 주거지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값, 삼거리 주거지에서 출토된 굽형 저부 토기, 강화 오상리 지석묘군의 신흥동식토기 출토 양상 등을 종합하여 오상리 지석묘군을 가장 이른 단계로 설정하고 그 상한을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인 기원전 11~12세기로 보았다. 반면, 대형 탁자식 지석묘는 가장 늦은 시기에 축조한 것으로 보며, 주거지 내에서 출토된 점토대토기와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값을 근거로 기원전 4~5세기를 하한으로 편년하였다. 강동석(2020) 역시 지석묘의 입지에 주목하여, 소형의 개석식 또는 탁자식지석묘로 이루어진 소군집을 Ⅰ유형, 고지에 입지한 중형의 탁자식 지석묘를 Ⅱ유형, 평탄지나 구릉지에 단독으로 분포한 대형 지석묘를 Ⅲ유형으로 분류하고 지석묘군은 Ⅰ유형에서 Ⅲ유형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강화도 지석묘의 전개 과정을 다룬 여러 연구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부근리 지석묘와 같은 단독 대형 탁

자식 지석묘가 가장 늦은 단계에 축조되었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탁자식 지석묘의 축조 기법인 대동강유역의 축조기술과 동일한 '표'자형 구조이며, 이러한 기술적 양식은 모방으로 구현낼 수 없다. 대형 탁자식 지석묘의 축조 집단은 대동강유역의 영향권 내에 있는 신흥동문화유형 집단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강화 대산리와 신봉리 주거지의 출토 양상을 감안할 때, 전기 후반부터 역삼동문화유형이 이 지역으로 본격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역삼동문화유형에 해당되는 김포 양촌 유적 등지에서 신흥동식토기가 출토되고 인천 검단 등지에서 환상석부, 경부에 홈이 새겨진 유구경식 석창 등 대동강유역의 물질문화가 다수 출토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두 문화유형 간에 일정한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강화도의 물질문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변 지역은 역삼동문화유형을 중심으로 대동강유역의 물질문화가 일부 확인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강화도 내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는 신흥동문화유형과 역삼동문화유형이 상호 융화되지 않는 경향을 갖는다. 강화 신봉리와 장정리 유적은 동일한 능선 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각각의 물질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질적인 물질문화는 상호 융합되고 혼합문화(cultural creolization)가 나타나기 마련이지만, 강화도의 두 문화 유형 간의 상호 배타적인 관계를 갖는다. 김장석(2002)은 이주민의 등장에 따른 관계를 모델화한 바 있다. 그는 이를 ①이주민이 선주민에 통합되는 경우, ②선주민-이주민이 느슨한 공간적 경계를 두고 점차 상호 동화되는 경우, ③이주민이 선주민을 압도하는 경우, ④선주민과 이주민이 명확한 경계선을 가지고 집단 점유영역을 양분하는 경우, ⑤이주민이 선주민의 점유지역 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주변 지역만을 점유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이 중 마지막 모델, 즉 이주민이 선주민의 점유지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외곽을 점유하는 사례로 강화 대산리 유적이 주목된다.

필자(2022)는 강화 대산리 지석묘가 동쪽 경계에 입지한다 점에 주목한 바 있다. 대산리 주거지는 대산리 지석묘로부터 약 30m 가량 동쪽 방향으로 이격된 해발 66m의 학무산 상단부에 취락이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입지는 해발 20m에 위치한 대산리 지석묘를 조망할 수 있다. 이는 역삼동문화유형인 대산리 집단이 동쪽 경계선 역할을 하는 대산리 지석묘 외곽에 취락을 조성하였을 뿐, 선주민인 신흥동문화유형의 핵심 공간 안으로는 진입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한다. 통상 하천에 위치한 주거 유적들이 자원획득 영역의 경계 반경을 5km로 설정하는데, 부근리 지석묘와 강화 대산리 지석묘 간의 직선거리가 4.5km인 점 또한 당시 중·대형 지석묘가 집단의 공간적 경계를 표시하는 상징물로 기능했음을 뒷받침한다.

강화도는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한, 새로운 집단이 이주하였을 경우, 즉각적인 생계 경쟁이 수반되며 한정된 공간 내 인구 밀도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즉, 이주민이 유입될수록 문화가 융합되기보다는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생계 경쟁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선주민 집단은 필연적으로 폐쇄성을 갖게 되며, 자신들의 공간적 영역을 강고하게 지켜내야만 했다. 부근리 지석묘와 같은 거대한 기념물은 바로 이러한 긴장 속에서 집단의 결속력과 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축조되었을 것이다.

Ⅴ. 맺음말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하여 국가 지정 사적, 인천광역시 기념물로 지정된 강화군 소재 지석묘는 한반도 남북이 분단된 현 상황에서 대동강 유역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속한 물질문화를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나아가, 최근 주거지 발굴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물질문화 양상은 이 지역이 청동기시대 한반도 남부를 중심으로 성행한 역삼동문화유형이 유입된 공간이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기존 지석묘의 형태와 분포 양상 분석에 치중하던 연구 경향을 넘어 논의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즉, 거석 기념물인 지석묘의 축조는 근본적으로 두 문화유형 양상 간의 정치·경제적 역학 관계 속에서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으로 이주 집단이 유입되는 현상은 필연적으로 생계 자원을 둘러싼 경쟁을 수반하며,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 집단 내부의 결속을 강고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대형 탁자식 지석묘가 축조되었으며, 그 축조 기법이 대동강 유역의 전형적인 'ㅍ'자형 구조를 띤다는 점은 축조 집단이 해당 지역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정리하면, 강화도에 소재한 지석묘는 한반도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대동강유역의 물질문화의 직접적 영향권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문화유산이다. 또한 청동기시대 한반도 남부에 성행한 역삼동문화유형과 신흥동문화유형 간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물질문화를 통해 논의할 수 있는 접점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 강화군에 일대에 분포하는 청동기시대 문화유산과 학술 발굴조사된 물질문화는 현시점에서 한반도 북부의 청동기시대 사회구조와 문화 변동 양상을 규명할 수 있는 학술자료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강동석, 2020,「강화도 지석묘 축조의 사회경제적 배경 검토」,『한국고고학보』第116輯, 한국고고학회.

강동석, 2021,「강화도 지석묘 사회의 형성과 발전 과정 재고」,『고고학』제20권제1호, 중부고고학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제3장 청동기시대」,『조선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남경유적에 관한 연구』.

구혜영, 2021,「경기 서북부지역 무문토기문화의 변천과 전개」,『한국청동기학보』第29號, 한국청동기학회.

구혜영, 2022,「강화도 무문토기문화의 전개 과정」,『고고학』제21권제3호, 한국고고학회.

구혜영, 2023,「무문토기시대 경기 서북부지역 물질문화 검토」,『인천학연구』제38호.

김범철, 2012,「巨石記念物과 社會政治的 發達에 대한 고고학적 이해」,『韓國上古史學報』第79號, 한국상고사학회.

김선우, 2016,『한국 청동기시대 공간과 경관』, 주류성.

김승옥, 2001,「금강유역 송국리형 묘제의 연구-석관묘·석개토광묘·옹관묘를 중심으로」,『韓國考古學報』第45輯, 한국고고학회.

김승옥, 2006,「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사회변천」,『韓國考古學報』第69輯, 한국고고학회.

김승옥, 2015,「묘제의 특징과 변천」,『한국 청동기문화 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1,『조선원시고고학개요』.

金元龍, 1986,「제4장 청동기문화」,『韓國考古學開設』, 一志社.

김장석, 2002,「이주와 전파의 고고학적 구분:시험적 모델의 제시」,『韓國上古史學報』第38號, 한국상고사학회.

도유호, 1959,「조선 거석 문화 연구」,『문화유산』.

문수균, 2016,「경기서북부지역 청동기시대 중·소형주거지 검토」,『한국청동기학보』제19호, 한국청동기학회.

朴性姬, 2015,「청동기시대 취락의 공간적 분포와 지역권역」,『고고학』14-1호, 중부고고학회.

서울대학교박물관 인문학연구소·강화군, 1999,『강화도 고인돌군-정밀지표조사보고서』.

석광준, 2002,『조선의 고인돌무덤 연구』, 사회과학원.

세종대학교박물관·강화군, 2005,『강화지역 고인돌 실측보고서』, 세종대학교박물관 학술조사보고서 제46책.

宋滿榮, 2013,「欣岩里式 土器 發生의 再檢討」,『韓國上古史學報』第79號, 한국상고사학회.

庄田愼矢, 2014,「옥의 종류와 특징」,『청동기시대 고고학』5,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오대양, 2020,『북한지역의 청동기시대묘제와 고조선연구』, 단국대학교 출판부.

이기성, 2010,「영종도의 청동기문화」,『인천학 학술대회 영종도의 고고학』, 인천학연구원.

이진민, 2008,「서울·경기지역 전기 무문토기 문화의 시공간적 전개」,『전통과 변화-서울경기 무문토기문화의 흐름』, 2008년도 서울경기고고학회 추계학술대회.

최종모·김권중·홍주희, 2006,「각형토기문화유형의 연구」,『야외고고학』창간호, 야외고고학회.

하문식, 2021,『기전지역의 청동기시대 무덤 연구』, 주류성.
韓永熙, 1983,「角形土器考」,『韓國考古學報』14·15권, 한국고고학회.
홍주희, 2018,「청동기시대 중부지역의 지역성 성립과 전개」,『2018년도 중부고고학회 학술대회』.
황기덕, 1966,「서부지방 팽이그릇유적의 년대에 대하여」,『고고민속』, 1966.
황재훈, 2009,「경기지역 무문토기시대 묘제의 형식과 지역성 검토」,『고고학』8-1호, 서울경기고고학회.
황재훈, 2015,「서북한지역 지석묘 연구 검토」,『고고학』14-3호, 중부고고학회.
황재훈, 2022,「Ⅴ. 강화도 지석묘의 분포와 특징」,『강화 고인돌조사 학술연구 용역 보고서』, 강화군·백두문화재연구원.

「강화도 지석묘의 고고학적 의의와 문화유산적 가치」에 대한 토론문

문수균
(미래문화유산연구원)

강화지역은 한반도 중부지역의 대표적인 고인돌 분포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국가지정문화유산, 시지정문화유산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지역의 지석묘를 비롯한 고고학적 자료는 그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토론자는 인근 경기서북지역의 중기 취락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이 지역을 관심 있게 다룬 바가 있다. 이 지역은 청동기시대의 남한 전기 및 중기 유형과 서북한지역 유형의 물질문화가 혼재된 공간적 특징을 보여주었다. 또한 강화도 지역도 발표자의 설명대로 남한과 서북한지역의 물질문화가 함께 확인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간단한 질문으로 토론문을 대신하고자 한다.

1. 발표자는 강화 신봉리와 장정리 유적이 동일한 능선상에 있지만 서로 각각의 물질문화를 가진다고 보고 신흥동 문화유형과 역삼동문화유형이 상호 융화되지 않는 경향을 갖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현상을 동시기에 배타적인 점유가 이루어진 현상이 아닌, 두 유적이 시차를 두고 점유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2. 대산리 지석묘와 관련하여 발표자는 역삼동문화유형인 대산리 집단이 재지집단인 신흥동문화유형 집단의 핵심 공간으로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이주민이 선주민의 외곽을 점유하는 경우). 토론자의 무지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3. 본 학술대회의 주제인 '청동기시대 사적, 그 가치와 활용'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본 발표문은 고고학적 의의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강화도 지석묘는 수량적으로 한반도 서남부지역의 고인돌보다는 적으나, 북한 및 중국 동북지역과의 관련성을 염두한다면, 의미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앞으로의 강화지역 지석묘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이나 발표자의 포부, 바램을 여쭙고자 한다.

발표 2

부여 송국리 유적의 활용 방안

- 최신 발굴 성과를 중심으로 -

성민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부여 송국리 유적의 활용 방안
– 최신 발굴 성과를 중심으로 –

성민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목차

Ⅰ. 머리말
Ⅱ. 송국리 유적의 조사와 보존
Ⅲ. 취락범위의 재검토와 사적범위의 문제
Ⅳ. 송국리 유적의 활용 현황과 개선 방향
Ⅴ. 맺음말

Ⅰ. 머리말

부여 송국리 유적은 한국 청동기시대 중기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유적으로, 1974년 석관묘의 수습조사(김영배·안승주 1975)를 계기로 알려진 이후 현재까지 발굴조사가 이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유구·유물의 조합은 '송국리유형'을 설정하는 근거가 되었으며(김경택 2023: 6), 이러한 학술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1976년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총 27차에 걸친 발굴조사에도 불구하고 지상건물지·목주열·울책시설 등의 성격과 상호관계, 취락의 전체 범위, 농경유구의 존재 등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송국리 유적의 활용은 이미 조사가 완료된 유적과 달리, 지속적인 조사와 그 성과의 반영을 전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송국리 유적의 활용 방향을 두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최근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취락의 공간범위를 재검토하고, 사적 남쪽 구역의 조사 확대와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둘째, 기존 활용사업을 검토하고, 축적된 발굴성과와 학술적 가치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송국리 유적의 조사와 보존

선사시대 사적은 역사시대의 성곽이나 건축유산과 달리 지상에서 유적의 형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기성 2024: 313). 주거지, 건물지, 분묘, 저장시설 등 대부분의 유구가 지하에 매장된 상태로 존재하며,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보존을 위해 다시 매립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방문자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적의 모습과 실제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진 취락의 모습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선사시대 사적에서 발굴조사가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구의 배치와 구조, 출토유물, 자연환경과 생산활동 등에 대한 정보는 유적의 성격을 해석하는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전시와 복원,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핵심 자료가 된다. 즉 선사유적에서는 발굴조사를 통해 생산된 고고학적 정보 자체가 활용의 가장 중요한 콘텐츠인 것이다. 이는 곧 유적의 성격과 공간구조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을 때 비로소 적극적인 정비와 활용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송국리 유적의 활용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의 발굴조사를 통해 무엇이 밝혀졌으며, 반대로 아직 어떤 부분이 규명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송국리 유적의 조사 연혁은 다음과 같다(그림 1). 송국리 유적은 1974년 석관묘 수습조사를 시작으로, 1975년 송국리·소사리·산직리 일대가 농지확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국립박물관에서 예비조사가 이루어졌고(강인구·이건무·한영희·이강승 1979),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시작되었다. 1975년부터 1997년까지 국립박물관에 의해 11차례의 조사가 실시된 뒤 한동안 조사가 중단되었으나, 2003년 종합정비계획 수립 후 2008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제12차 조사를 재개하면서 연차적인 학술발굴조사로 전환되었다. 현재까지 제27차에 걸쳐 발굴조사[1]가 진행되었다.

제1~11차 조사는 주로 54지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분묘, 주혈군, 구상유구 등을 확인하면서 중심취락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원형 및 장방형 주거지가 확인되면서 송국리 유적의 중심부에 주거공간이 집중분포했음을 확인하였다. 제12차 조사 이후에는 기존 조사구 사이의 미조사 공간과 구릉 평탄면, 곡간부 및 저지대 등으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상건물지와 목주열, 울책시설, 대지조성시설, 수혈, 탄화곡물 등이 확인되면서 취락 내부의 공간구성과 생산활동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다. 최근 제25~27차 조사에서는 사적 경계부와 남쪽 구릉까지 조사범위가 확대되었고, 특히 제27차 조사에서 구릉 하단부에서 주거지와 건물지, 목주열, 성토대지 등이 확인되면서 기존에 알려진 취락범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 2025).

이처럼 송국리 유적은 장기간의 발굴조사를 통해 단순한 주거지군에서 주거·분묘·저장·생산 및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진 복합적인 대규모 취락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될 때마다 새로운 유구와 공간구성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송국리 취락의

1) 발굴조사는 총 27차, 발굴(시굴)조사를 포함하면 총 29차까지 진행되었다.

전체 구조와 범위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현재까지의 조사성과는 송국리 유적의 성격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반인 동시에, 앞으로 해결해야 할 학술적 과제를 드러내는 자료이기도 하다.

구릉 정상부에서는 5~6열의 목주열이 약 200m에 걸쳐 확인되어왔으나, 그 성격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한편 제27차 발굴조사 결과 구릉 하단부에서도 목주열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54지구를 중심으로 확인된 상부의 목주열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어 양자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사단은 그 진행 방향이 제10차 조사에서 확인된 석관묘를 포함한 분묘군을 향한다는 점에서 분묘군의 제의와 관련된 시설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 2025: 82). 이와 함께 목주열·지상건물지·울책이 서로 평행하게 배치되는 양상 역시 확인되고 있으나, 이들 시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취락 내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였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송국리 취락의 전체적인 규모와 공간범위 역시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기존 발굴조사는 주로 54지구를 비롯한 중심 능선과 그 주변에 집중되어왔으나, 최근에는 사적 경계부와 남쪽 구릉에서도 청동기시대 유구가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자들이 현재까지 사적 지정면적의 일부만이 조사되어 유적의 정확한 범위가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을 송국리 유적 보존·정비상의 문제로 지적해 왔으며(김경택 2023; 이기성 2021, 2024), 유적 전체의 범위와 유구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지표조사와 시굴조사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된 바 있다(황재훈 2022: 244).

농경생산 공간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과제이다. 송국리 유적에서는 다량의 탄화미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탄화곡물과 삼각형석도, 유구석부 등의 농경구가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송국리 단계에 집약적인 도작농경이 확대되었다는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김경택 2023: 12~14). 그러나 현재까지 송국리 유적 내에서 논이나 경작면과 같이 농경생산의 공간과 방식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유구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문제의식은『부여 송국리 유적 종합정비계획(부여군 2023)』에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해당 계획에서는 토지매입과 학술조사를 정비사업의 선행과제로 설정하고, 정비대상지에 대한 시·발굴조사와 함께 목주열의 성격 규명, 사적 경계 확인, 농경유구 확인을 위한 시추조사 등을 주요 학술조사 과제로 제시하였다(부여군 2023). 결국 앞서 살펴본 과제들, 즉 목주열을 비롯한 주요 유구의 전체 규모와 상호관계, 취락의 경계, 농경생산 공간의 소재는 송국리 취락의 핵심 조사구역의 바깥을 가리키고 있다. 과제의 해결은 이미 유구가 확인된 조사구역을 중심으로 인접지역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연속적인 조사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곧 현재의 사적 지정범위가 취락의 실제 범위와 일치하는가라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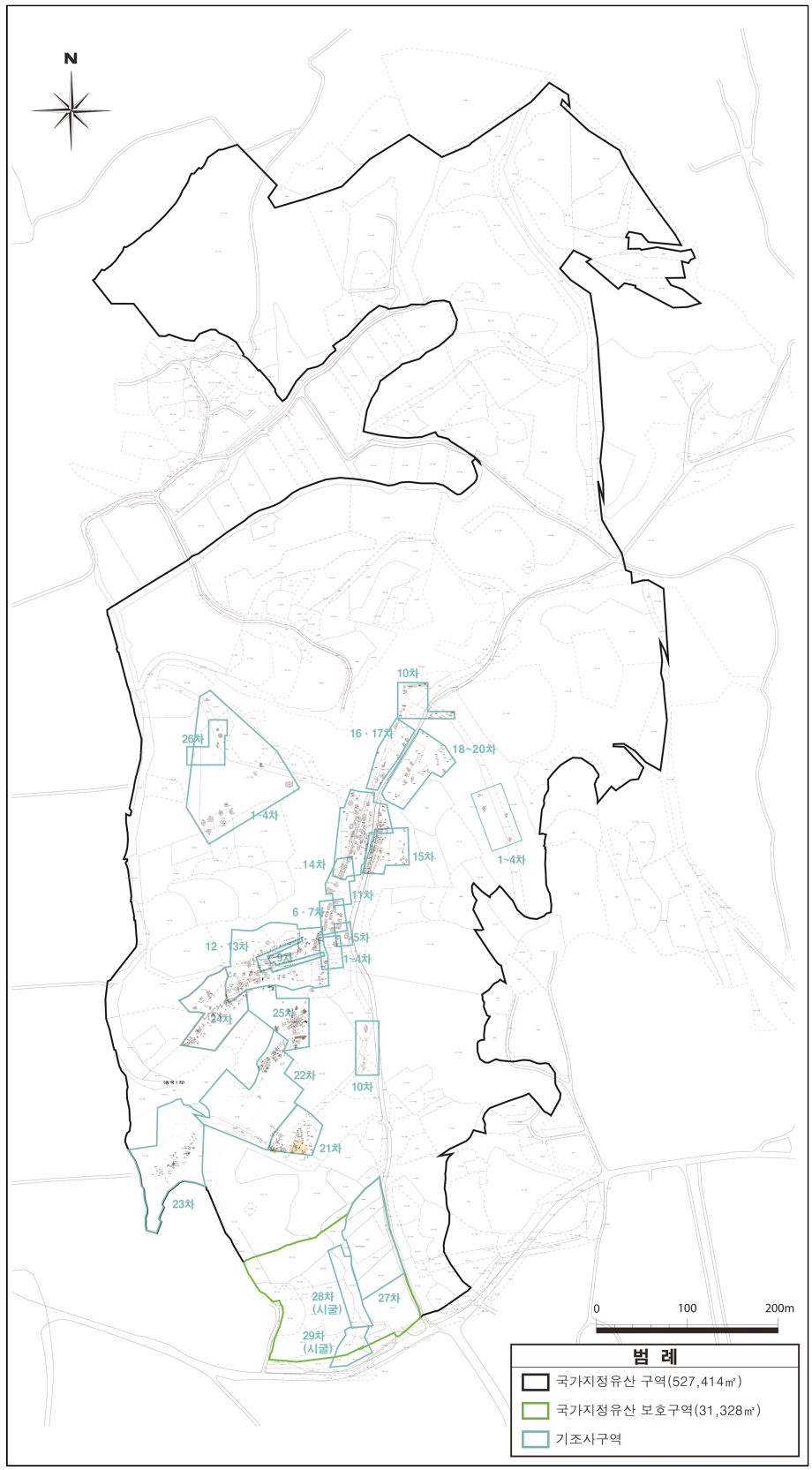


그림 1. 부여 송국리 유적 조사현황도
(부여 송국리 제27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수정)

Ⅲ. 취락범위의 재검토와 사적범위의 문제

1. 사적 지정 및 보호구역의 변천

1975년 송국리를 포함한 소사리·산직리 일대 야산 약 80만㎡가 농지확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개발에 앞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부여박물관이 이 일대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그림 2). 이 과정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분묘를 비롯한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송국리 유적은 1976년 12월 31일 '부여 송국리 선사취락지'라는 명칭으로 사적 제249호에 지정되었다. 최초 지정범위는 송국리 산21-1번지를 포함한 6필지, 4,830평이었다(문화공보부 고시 제353호, 1976.12.31.)(그림 4).



그림 2. 75년도 예비조사범위
(부여군・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 2012)

이후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당초 지정범위 밖에서도 주거지와 분묘, 목책 등 다양한 유구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사적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은 조사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1997년에는 기존 지정범위 주변에서 확인된 유적을 보존하고 향후 조사·정비에 대비하기 위해 26필지가 추가 지정되었으며(문화재관리국 고시 제1997-4호)(그림 5), 2001년에는 최초 지정 당시 누락된 범위와 추가 조사에서 확인된 유적분포를 반영하여 전체 지정구역이 38필지, 92,316㎡로 확대되었다(문화재청 고시 제2001-46호).

현재 사적 지정범위의 기본적인 공간범위는 2004년의 대규모 추가지정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확대의 배경에는 전년도인 2003년에 수립된 『송국리 선사취락지 종합정비 기본계획(부여군 2003)』이 있었다. 당시 종합정비계획에서는 기존 지정구역을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조사·보존·정비가 필요한 범위를 866,597㎡로 산정하였는데(그림 3), 이는 현재의 사적 지정범위보다도 넓은 범위로, 유구가 집중 분포하는 가지능선 일대가 비교적 넓게 포함된 것이었다. 이러한 유적 범위에 대한 인식은 2004년 사적 추가지정 검토로 이어졌다. 2004년 2월 문화재위원회에서는 확대지정 신청범위(771필지, 1,454,395㎡)가 지나치게 넓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확대지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조사에서 유구분포가 확인된 지역을 우선 지정하고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후 조정과 현지조사를 거쳐 같은 해 10월 추가지정 범위가 242필지, 443,430㎡로 확정되면서 전체 지정구역은 280필지, 535,746㎡로 크게 확대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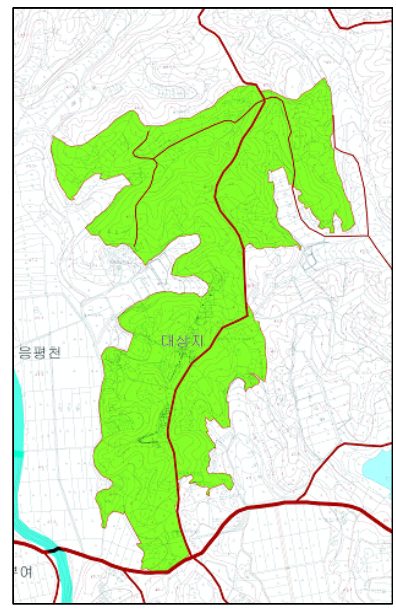


그림 3. 2003년 종합정비
기본계획 제안 사적대상범위

었다(문화재청 고시 제2004-50호)(그림 6).

2008년 이후부터는 유적범위를 대규모로 확대하기보다는 기존 지정내용과 실제 토지현황 간의 불일치를 정비하고 지번과 면적을 조정하는 작업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2018년에는 유적과 일체성이 있으나 제외되어 있던 일부 지역의 추가지정과 함께 문화재구역(261필지, 527,414㎡)과 보호구역(21필지, 21,328㎡)이 재구분되었다(문화재청 고시 제2018-56호)(표 1, 그림 7).

이상의 변화는 1976년 최초 지정 → 1997·2001년 조사성과를 반영한 단계적 확대 → 2004년 대규모 추가지정 → 2008년 이후 지적·행정적 정비 → 2018년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의 재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2004년의 확대 자체가 향후 조사성과에 따른 단계적 확대를 전제로 한 잠정적 범위 설정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사적 지정범위는 송국리 유적 전체의 공간적 범위를 확정한 결과라기보다는, 각 시기까지 확인된 조사성과와 보존·관리상의 현실적 조건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형성된 범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표 1. 국가유산청 고시 내용

근거	주요 내용	필지 (총면적)
문화공보부 고시 제353호(76.12.31.)	- '부여 송국리 선사취락지' 사적 제249호 지정	6필지, 4,830평
문화재관리국 고시 제1997-4호(97.05.10.)	- 유구 발견지역 및 향후 조사·정비가 필요한 지역 보호 위해 보호구역 지정	추가 26필지 → 32필지 (82,343㎡)
문화재청 고시 제2001-46호 (01.09.29.)	- 최초 지정 시 누락된 부분 및 발굴조사로 확인된 확대 유적 범위를 반영하여 보호구역 추가지정	추가 6필지 → 38필지, (92,316㎡)
문화재청 고시 제2004-50호 (04.10.27.)	- 시·발굴조사 결과 유적분포지역 중 자연 지형 보존상태가 양호한 잔여 지역 추가지정	추가 242필지(443,430㎡) → 280필지 (535,746㎡)
문화재청 고시 제2008-160호 (08.12.10.)	- 단순 지번 누락·중복, 현황측량과 실제 위치 불일치, 지번 변동 등으로 일괄 조정	277필지 (540,869㎡)
문화재청 고시 제2009-131호 (09.12.30.)	- 사적과 무관하게 행정오류 등으로 지정된 필지를 현지 조사 후 해제	274필지 (535,107㎡)
문화재청 고시 제2013-31호 (13.03.21.)	- 행정착오로 제외된 지번 추가 - 잘못 고시된 지형도면을 정정	278필지 (546,908㎡)
문화재청 고시 제2018-56호 (18.05.17.)	- 유적과 일체성이 있으나 제외된 지역 추가지정 및 유적과 무관한 1필지 해제 - 남측 관리지역 일부를 문화재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전환	문화재구역 261필지 (527,414㎡), 보호구역 21필지 (21,328㎡), 총 282필지 (548,742㎡)
문화재청 고시 제2018-176호 (18.12.21.)	- 송국리 유적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허용기준 변경	지정면적 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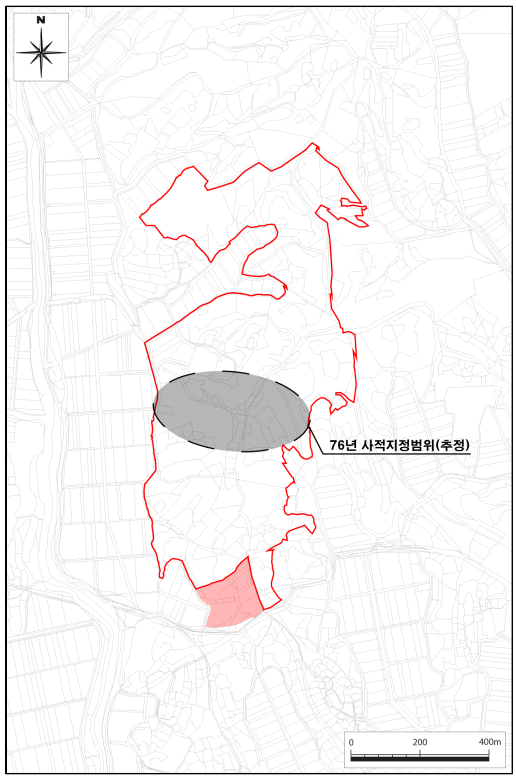


그림 4. 사적 지정 범위 (1976년,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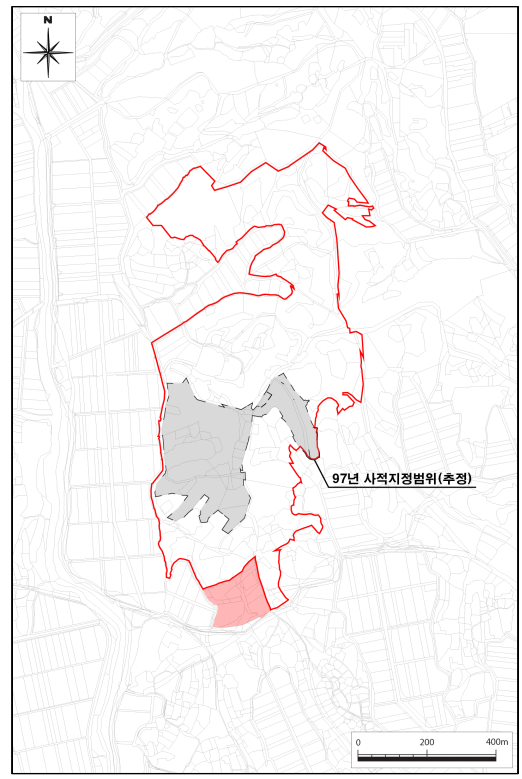


그림 5. 사적 지정 범위 (1997년,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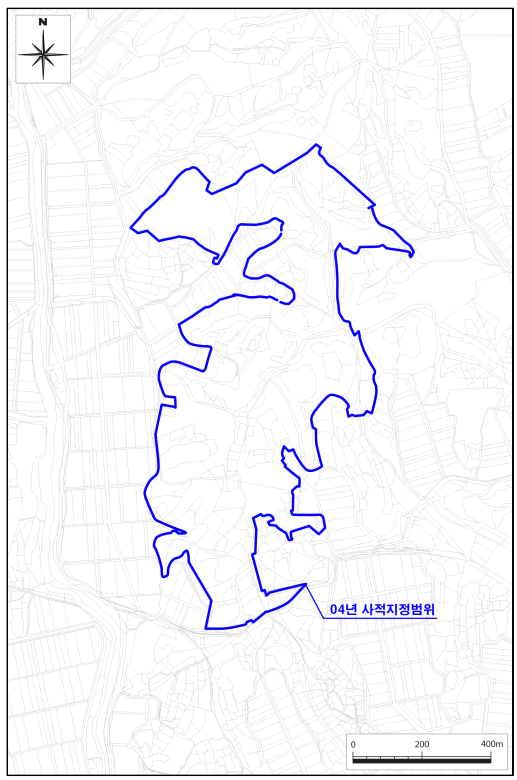


그림 6. 사적 지정 범위 (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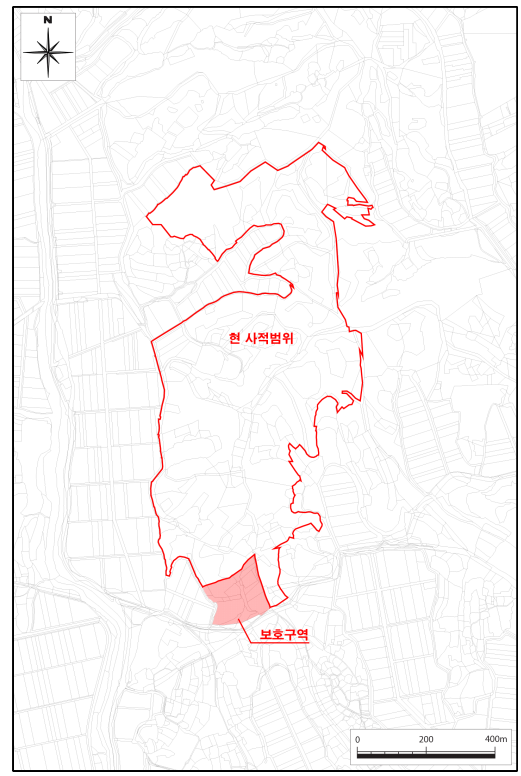


그림 7. 2018년 이후 현 사적 지정 범위

2. 취락범위의 재검토

2004년 이후 이루어진 발굴조사와 주변 지역에 대한 시·발굴조사, 정밀분포조사 및 고지형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의 사적 지정범위가 송국리 취락의 전체 공간범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제27차 발굴조사에서는 이전 발굴조사(14차, 18~20차) 당시 확인된 대지조성과 유사한 토층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성토대지 조성 이후 설치된 목주열, 지상건물지, 대지구획시설 등 확인된 다수의 유구의 존재로 보아 취락은 남쪽으로 더 연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제28차 발굴(시굴)조사 결과 주 능선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구릉 평탄부 서사면에서 지형이 파괴되지 않는 일부 구간에 한해 성토대지와 유사한 흔적이 확인되었다(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 2024). 시굴조사 지역은 사적 보호구역의 바로 서쪽으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이러한 최근 발굴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적어도 현 사적 경계부근에서 취락관련 시설이 종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송국리 유적 발굴조사를 통해 새롭게 제기된 것만은 아니다. 산직리 지석묘와 초평리 석개옹관묘는 송국리 유적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진 동일 구릉대에 위치하고 있어, 이들을 송국리 취락과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유적이 아닌 같은 시기의 취락으로 볼 수 있다. 송국리에서 산직리 지석묘로 이어지는 진입도로 확·포장구간에 대한 시굴조사에서는 청동기시대 유구가 다수 확인되었다. 제1구간에서는 송국리형 주거지로 추정되는 원형유구 8기가 확인되었으며, 조사단은 이를 "인접한 송국리 유적에서 확인된 것과 같은 송국리형 주거지가 구릉을 따라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4: 11). 제2구간에서도 청동기시대 방형유구와 구상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이 가운데 구상유구는 산직리 지석묘 방향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여 지석묘와 관련된 유구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그림 8).



그림 8. 송국리-산직리 지석묘 진입도로 확포장구간 내 시굴조사 결과
(1구간 송국리형 주거지(左), 2구간 방형유구(中), 방형유구 출토 무문토기(右))

즉 송국리 취락의 남쪽에서 산직리 방향으로 이어지는 구릉상에서도 동일한 계통의 청동기시대 주거유구가 확인된 것이다. 산직리 지석묘와 초평리 일대의 분묘까지 함께 고려하면, 이 일대를 별개의 취락으로 분리하여 보기보다는 하나의 취락권 안에서 생활공간과 분묘공간이 이어지는 양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그림 9). 다만 해당 구간 전체가 발굴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공간적 연속성과 시기적 관계는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부여 송국리 유적 일원 고지형분석 및 정밀분포조사(누리고고학연구소 2021)』는 현 사적 지정범위가 "송국리 선사마을 핵심취락지 구릉에 국한"되어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주변 지역까지 포함한 유적의 명확한 범위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사 결과 초촌면 일대의 여러 유물산포지에서 청동기시대 무문토기편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현 사적범위 남쪽의 초평리·산직리의 경계에 위치한 구릉에서도 청동기시대 유물이 확인되었다. 고지형분석에서도 송국리에서 초평리·산직리·소사리로 이어지는 구릉지형의 연속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초평리와 산직리 일대의 산록완사면과 충적지는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었으며, 곡저부와 구하도는 청동기시대 수전 등 생산유구가 입지할 가능성이 있는 지형으로 보았다(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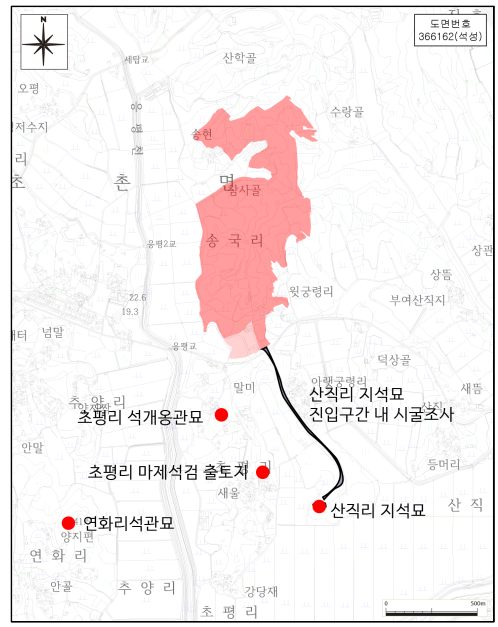


그림 9. 송국리 주변유적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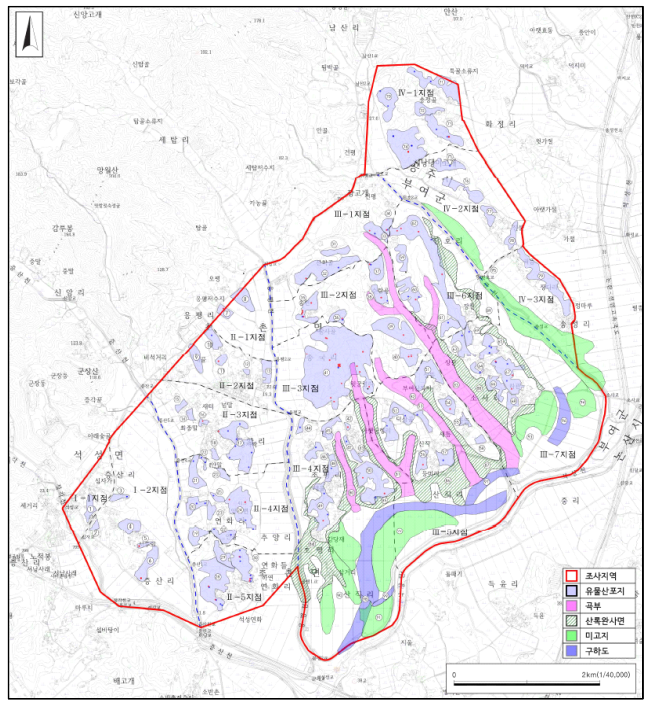


그림 10. 고지형분석 및 정밀분포조사 결과 (누리고고학연구소 2021)

앞서 농경생산 공간의 확인이 송국리 유적의 주요 과제로 남아있음을 고려하면, 이 일대는 주거와 분묘뿐 아니라 생산공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성과는 사적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의 설정 원칙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호구역을 지정문화유산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

역 가운데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또는 정비를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적 지정구역이 문화유산 자체가 점유하는 공간이라면, 보호구역은 그 외곽에서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는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적 지정구역에 범위에 대한 설정 원칙은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사적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연구(문화재청 2009a)』에서는 사적 지정구역을 해당 사적의 점유면적으로 개념화하고, 선사유적의 경우 발굴된 유구를 중심으로 지정구역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안하였다. 다만 유적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물산포구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역사적 가치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 유물산포구역이나 해당 유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역사문화환경구역은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문화재청 2009a: 111~114).

이러한 기준과 지금까지의 조사성과를 함께 고려하면, 현재 송국리 유적의 사적 지정범위를 취락 전체의 공간범위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27차 발굴조사 및 제28차 발굴(시굴)조사를 통해 성토대지와 목주열 등 취락 관련 유구가 확인된 사적 남단부는 지정구역의 적정성을 우선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남쪽의 산직리·초평리 일대는 송국리형 주거지로 추정되는 유구와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지석묘 등이 확인되었으나 아직 유구의 성격과 범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역이므로, 추가조사를 진행하면서 보호구역 설정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당장 전면적인 조사가 어렵더라도 보호조치의 검토는 선행될 필요가 있다. 매장유산은 원지형이 한번 훼손되면 조사의 기회 자체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남쪽 구역의 원지형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취락범위 규명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현재의 사적범위는 고정된 경계라기보다 향후 조사성과에 따라 그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범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Ⅳ. 송국리 유적의 활용 현황과 개선 방향

1. 사적의 활용과 송국리 유적

사적은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을 인정받아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유산[2]으로, 그 가치를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사적의 보존은 유적의 물리적 원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그 가치와 의미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유산기본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람·전시·교육·체험 등의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유산의 활용이 부수적인 관광사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공공적 과제임을 보여준다.

문화유산의 활용은 국제적으로도 보존·관리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ICOMOS의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문화유산 유적의 해석과 전달에 관한 헌장(2008)」은 문화유산의 해석과 전달을 보존·관리 과정의 일부로 규정하고, 유적에 대한 접근과 이해, 학술적 근거, 진정성, 지속가능성, 공동체의 참여, 지속적인 연구와 평가 등을 주요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유산의 해석은 인쇄물과 전자매체, 강연, 교육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대중이 유산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적의 활용은 방문객의 유치나 관광수익의 창출만으로 그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참여 역시 활용의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으나, 국가가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유적이라는 점에서 해당 유적의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사시대 유적은 문헌자료보다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와 유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성격과 의미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고고학적 조사성과의 해석과 전달이 활용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송국리 유적은 현재까지 밝혀진 성과 외에도 유구 성격이나 농경유구의 존재 여부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학술적인 과제가 더 많은 유적이다. 따라서 송국리 유적의 활용은 현재까지 확인된 유적의 특징을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지는 성과를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 규명되지 않은 유구의 성격과 향후 조사과제 역시 유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료가 될 수 있다.

2. 송국리 유적 활용사업 현황과 과제

현재 송국리 유적에서는 송국리전시관 운영과 함께 야외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활용사업으로는 송국리 청동기축제, 생생 국가유산 사업, 전통공예 교육이 있다. 이들 사업은 각각 전시·교육, 주민 참여, 관광, 전통공예 기술의 전승 등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에 따라 운영주체도 구분된다. 따라서 현행 활용사업의 한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적의 상설 전시와 야외 정비 현황을 살펴보면, 유적문화관은 송국리 유적의 초기 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근까지 축적된 발굴조사의 성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야외 전시물의 정비와 복원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도 여러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특히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주거지의 상부구조가 복원되어 실제 조사성과와 재현된 부분이 혼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형건물지와 분묘군 역시 현재의 정비방식만으로는 유구의 규모와 구조적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 제기되었다(이기성 2024: 80~81).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전시 및 정비사업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관련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전시 개선은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

먼저 송국리 청동기 축제는 지역 주민이 기획과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축제로, 충청남도와 부여군이 주최하고 부여송국리청동기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2026년에 8회째 개최하였다(그림 11). 금년도 축제에서는 초촌면 주민들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풍년기원제, 합수식, 청동기 식문화 체험, 물동이 나르기, 창던지기, 유적발굴 체험, 토기 만들기, 고사리 채취, 주민 공연 등이 있다. 최

근에는 고고학 발굴체험, 반달돌칼 만들기, 돌도끼 만들기 등 유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축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동체의 활성화, 외부 방문객의 유치 등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축제에 포함된 모든 프로그램에 높은 수준의 학술성을 요구하거나, 학술적 성과의 전달 여부만을 기준으로 축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송국리 유적이라는 사적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유적의 특징을 소개하는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충실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25년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송국리 유적 발굴 50주년을 기념하여 학술강연회를 진행했으며 이 밖에도 발굴체험 등의 부스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이는 기존 축제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유적의 학술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학술강연회와 유적 답사는 송국리 유적의 조사성과를 일반 대중에게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기회이며, 발굴체험 등의 프로그램은 고고학적 조사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발굴조사기관 및 관련 연구자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학술강연회와 유적 답사는 최근 발굴조사에서 새롭게 밝혀진 성과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발굴체험 등의 프로그램은 실제 조사과정과 유적의 특징을 반영하여 운영한다면, 기존 축제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송국리 유적의 학술적 의미를 전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1. 제8회 부여 송국리 청동기 축제 팜플렛

다음으로 생생 국가유산 사업은 부여군과 지역 단체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체험형 활용사업으로, 국가유산청이 공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가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본 사업은 부여토종씨앗도서관협동조합에서 2023년부터 운영중이며 송국리 유적의 움집, 유물, 복식, 농경자료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3] 2026년도에는 「청동기 마을 미식을 맛보다」, 「브론즈빌 고고학 탐험대」, 「탄화미에서 보물을 찾다」과 같은 프로그램과 함께 미식, 탄소중립,

AI 숏폼 등 현대적인 주제와 결합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개발 상품도 판매하고 있는데 초촌면에서 재배한 현미를 가지고 찜질팩과 곡물빵을 판매하고 있다(그림 12). 생생 국가유산 사업 역시 움집, 탄화미, 농경자료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미식, 탄소중립, AI 콘텐츠 등 현대적 주제와의 결합이 확대되면서 송국리 유적 자체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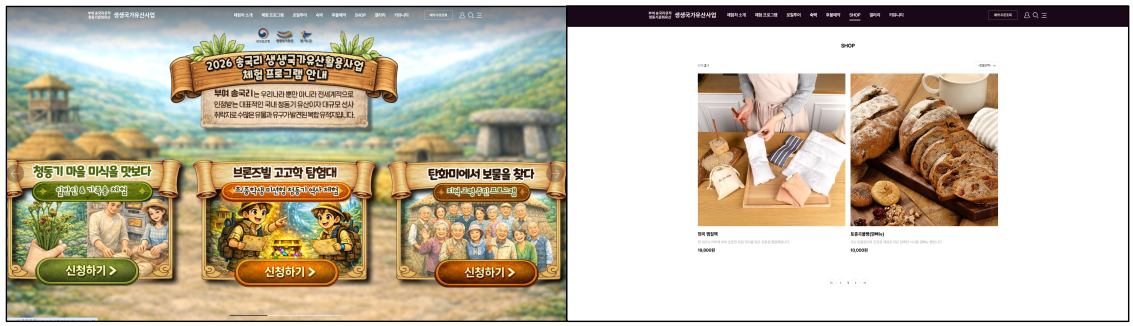


그림 12. 생생국가유산사업 프로그램 예약 홈페이지

마지막으로 송국리 유적문화관 도예교육은 2022년 하반기부터 운영되고 있는 장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송국리 유적 사적관리소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이다. 기초과정에서 출발하여 실습·전문과정으로 확대되었으며, 송국리형 무문토기 제작기법을 익히는 교육과 함께 도자공예기능사 자격취득을 위한 전문교육과 작품 전시 등이 연계되어 있다. 일회성 체험프로그램과 달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교육은 송국리 유적의 출토유물이나 발굴조사 성과를 교육하는 프로그램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유적의 고고학적 가치를 전달하는 활용사업은 아니다.

이처럼 송국리 유적에서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활용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의 주체가 다르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이 유적의 의미와 가치를 잘 담는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축적되는 학술적 성과를 정기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송국리 유적의 대중적 활용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송국리 유적에서는 현재까지 다양한 활용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발굴조사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하는 체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송국리 유적은 현재까지도 발굴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새로운 조사성과에 따라 취락의 구조와 범위에 대한 이해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축적된 조사성과를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한 온라인 정보 제공 및 홍보체계의 개선과 유적이 소재한 지역사회에 조사성과를 환류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제안하고

3) 부여 송국리 유적 생생국가유산사업 프로그램 예약 홈페이지, songgukri001.cafe24.com

자 한다. 다만 유적의 전시시설 정비와 교육·체험시설의 확충 등은 현재 부여군의 종합정비계획에서도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보다는 기존 활용사업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조사성과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조사성과의 공개와 홍보

송국리 유적은 현재까지도 발굴조사가 지속되고 있으나, 개별 발굴조사는 조사 완료 후 복토되므로 일반인이 조사 당시의 유구를 직접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송국리 유적의 활용은 발굴조사 기간에 이루어지는 현장 공개와 설명회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축적된 조사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발굴조사 과정에서 축적된 사진과 도면, 3D 기록 등을 활용하여 조사성과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러한 자료를 교육·체험 및 홍보 콘텐츠로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발굴성과를 기존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국가유산포털[4] 및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5]에서는 송국리 유적의 기본 정보와 설명, 사진, 도면 및 조사연구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단위의 정보 제공과 개별 유적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적 홍보는 목적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다양한 국가유산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송국리 유적의 온라인 플랫폼은 유적의 학술적 특징과 지속적인 조사성과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

현재 부여 송국리 유적은 부여군 누리집 내에 별도의 공식 홈페이지[6]가 운영되고 있다(그림 13). 홈페이지에서는 유적 소개, 세계유산적 가치, 시설 안내, 주민활동, 찾아오시는 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유적의 개괄적 소개와 관람정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굴조사 자료나 연구성과, 보고서, 사진, 도면 등을 검색·열람할 수 있는 기능은 확인되지 않으며, 검색포털을 통한 접근성 또한 높지 않다. 포털에 송국리 유적을 검색하면 민간기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생국가유산사업 홈페이지가 공식홈페이지로 소개되고 있다(그림 13). 향후 홈페이지가 지속적으로 보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송국리 유적의 장기간 축적된 조사성과와 앞으로 추가될 발굴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안내 페이지를 넘어선 정보체계가 필요하다.

4) 국가유산포털 홈페이지, www.heritage.go.kr
5)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 홈페이지, digital.khs.go.kr
6) 부여 송국리 유적 홈페이지, www.buyeo.go.kr/html/ass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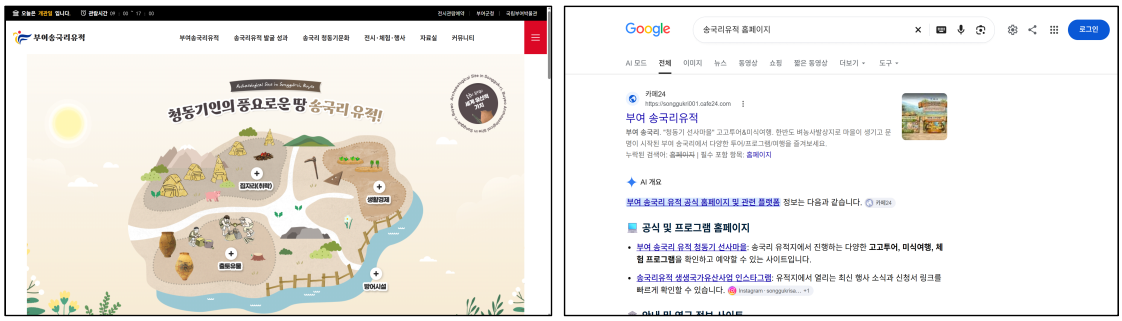


그림 13. 송국리 유적 공식 홈페이지(左) 및 포털 검색 결과 (右)

이를 위해 우선 기존 송국리 유적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유적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은 유적의 발견과 사적 지정, 발굴조사의 경과, 주요 유구·유물의 특징, 최신 조사성과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특히 발굴조사의 차수별 성과를 사진과 도면, 영상 등의 자료와 함께 제공한다면 유적에 관한 이해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와 전문적인 학술자료를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발굴조사보고서나 유구 도면, GIS 자료 등을 모두 개별 홈페이지에 구축하기보다는, 기존의 국가 단위 기록관리체계와 연계하면서 대중에게 필요한 정보는 별도의 해설 콘텐츠로 제공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주요 유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발굴사진을 제공하고, 관련 보고서와 학술논문을 함께 안내한다면 일반적인 정보 탐색과 함께 전문적인 연구자료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발굴조사에서 축적된 3D 스캔 자료를 온라인 활용에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발굴조사는 조사 이후 유구가 복토되거나 정비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실제 조사 당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공개가 가능한 3D 기록과 발굴사진 등을 활용하여 조사 당시의 유구와 현재 정비된 유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조사성과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제27차 발굴조사에서는 조사 구역과 유구에 대한 3차원 스캐닝이 실시되어, 발굴 당시의 현장 상태와 유구의 형태를 입체적으로 기록한 자료가 있다(그림 14). 이후 발굴조사에서도 3차원 스캐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거 조사자료 전체를 소급하여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더라도 최근 및 향후 발굴조사 성과부터는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4. 송국리 유적 제27차 발굴조사 3D 스캐닝 파일 캡쳐본

이와 함께 기존 홈페이지와 SNS를 연계하여 새로운 조사성과와 교육·체험 프로그램, 축제 및 현장 공개 일정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송국리 유적 사적관리소에서도 SNS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보의 제공과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존 SNS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학술정보와 연계하여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송국리 유적의 주요 유구와 유물, 발굴조사의 경과 및 최근 조사성과 등을 소개하는 카드뉴스를 정기적으로 제작하고, 온라인 홍보와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발굴조사의 성과를 사진과 도면, 간략한 해설을 활용한 콘텐츠로 제작한다면, 유적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송국리 유적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동기축제와 생생 국가유산 사업,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일정과 활동 내용을 지속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기존 활용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카드뉴스와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는 국내 여러 유적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방식으로, 반드시 대규모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기존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송국리 유적 역시 새로운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함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홍보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플랫폼은 구축 자체보다 지속적인 유지와 갱신이 중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독립적인 플랫폼을 설치하는 방안과 기존 홈페이지를 정비하는 방안의 비용 및 관리 여건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굴조사 자료의 공개 범위와 저작권, 자료 제공 및 검토 주체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지역사회와 연계한 발굴성과의 공유와 교육프로그램 개설

송국리 유적의 활용에서는 지역주민과 유적의 관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송국리 유적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발굴조사와 보존·정비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역시 유적의 조사와 정비 과정을 가까이에서 경험해 왔다. 특히 송국리 유적 주변의 주민들은 유적의 조

사와 정비·복원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며, 발굴조사의 학술적 성과에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지역주민을 단순한 활용사업의 참여 대상이 아니라, 유적의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적의 보존과 활용은 외부 방문객의 유치뿐 아니라 유적이 소재한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송국리 유적은 현재까지도 발굴조사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적의 성격과 취락의 공간구조 등에 관한 새로운 연구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것은 유적의 학술적 가치를 전달하는 동시에, 장기간에 걸친 발굴조사의 경과와 향후 조사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 고령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학술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현재 송국리 유적 주변의 주민 구성과 학술적 관심을 고려하여 기존의 문화·체험 중심 교육과는 구분되는 강좌를 마련하는 것이다. 교육은 송국리 유적의 발견과 발굴조사 경과, 주요 유구와 유물의 특징, 최근 발굴성과와 향후 조사과제 등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특히 발굴조사에 참여한 연구자나 관련 분야 전문가가 강연에 참여한다면 실제 조사과정과 연구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일회성 강연에 그치지 않고, 주요 연구 주제에 따른 정기적인 강좌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송국리 유적의 주거문화와 취락구조, 분묘와 의례, 농경 등 주요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강좌를 구성하고, 최근의 발굴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성과를 별도로 소개하는 방식이다. 특히 제27차 조사에서 확인된 구릉 하단부의 목주열과 기존 석관묘군과의 관계 등 현재까지 성격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유구에 대해서도 기존 연구성과와 새롭게 제기된 문제를 함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부여의 청동기시대 유적에 대한 이야기라던지, 청동기시대 중기 문화의 특징과 같은 연속적인 강좌를 개설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을 위해서는 부여군과 대학 및 발굴조사기관 간의 협력을 검토할 수 있다. 대학과 발굴조사기관이 학술적 성과의 제공과 강연에 참여하고, 공공 관리주체가 정기적인 교육의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특히 새로운 발굴조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 성과를 교육 내용에 반영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송국리 유적의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교육주제 예시

교육주제	교육내용
송국리 유적의 발굴 50년	발견 이후 주요 조사성과와 송국리유형의 설정
최근 발굴조사의 성과	최근 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와 새롭게 제기된 연구과제
송국리 유적의 취락구조	목주열, 지상건물지, 분묘군 등 주요 유구의 분포와 성격
송국리 유적의 보존과 미래	취락의 범위, 향후 발굴조사와 사적의 보존·정비 방향

이를 통해 송국리 유적의 활용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성 체험이나 행사에서 나아가, 유적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 온 지역주민들에게 축적된 학술적 성과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확대

될 수 있을 것이다.

4.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성

이상에서 검토한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별 프로그램의 개발뿐 아니라 이를 기획·운영하고 학술적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송국리 유적처럼 발굴조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사적에서는 새로운 조사성과가 축적될 때마다 이를 활용 콘텐츠에 반영할 수 있는 전담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 국내 주요 선사유적 가운데 공주 석장리유적은 석장리 박물관을 중심으로 활용프로그램을 진행[7]하고 있으며 전곡리유적 역시 전곡선사박물관과 연천군이 협력하여 교육사업을 진행[8]하고 있다. 이렇듯 대체로 박물관에서 활용 프로그램을 전담하고 있으며, 암사동유적의 경우에는 강동구 문화예술과 선사유적박물관팀이 따로 편성[9]되어있다.

반면 송국리 유적은 부여군[10]이 관리단체로 지정되어있으나, 현재 사적관리소에서 이루어지는 송국리 유적문화관의 주요 운영사업은 시설 및 경관 관리와 전통공예 교육 등으로, 유적의 학술적 성과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과는 성격이 다르다. 또한 청동기축제와 생생 국가유산 사업 등 다양한 활용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 사업은 각각의 목적과 운영주체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사업과 별개로 송국리 유적의 학술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공공 활용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송국리 유적의 보존·관리와 함께 교육 및 활용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구는 정기적인 유적 해설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 등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조사성과의 공개와 홍보, 유적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의 개발 등을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대학과 발굴조사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발굴조사의 성과를 활용 콘텐츠에 반영하고, 그 학술적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별도의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은 조직 구성과 전문인력, 예산 등 행정적·재정적 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뿐 아니라 기존 송국리 유적문화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전문적인 활용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7)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석장리박물관 홈페이지, 교육·문화행사(검색일: 2026. 9. 29.)
8) 경기문화재단 전곡선사박물관, 2026, 「2026년 전곡선사박물관·연천 전곡리 유적 통합 교육 강사 인력풀 모집 공고」.
9) 강동구, 「서울 암사동 유적」, 강동문화포털, 역사/국가유산(검색일: 2026. 9. 29.)
10)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부여 송국리 유적」/부여송국리 유적(검색일: 2026.9.29.)

Ⅴ. 맺음말

부여 송국리 유적은 장기간의 발굴조사를 통해 한국 청동기시대 중기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27차에 걸친 발굴조사에도 불구하고 주요 유구의 성격과 상호관계, 취락의 전체 범위, 농경생산 공간의 소재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최근 발굴조사와 주변 지역의 정밀분포조사 및 고지형분석 결과를 고려하면, 현재의 사적 지정범위가 송국리 취락의 전체 범위를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 조사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발굴조사를 확대하여 취락의 공간범위를 규명하고, 사적 남쪽 구역에 대해서는 추가조사와 함께 보호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 송국리 유적의 활용은 현재까지 축적된 학술적 성과뿐 아니라 향후 새롭게 확인될 조사성과를 지속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한 조사성과의 공개 및 홍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학술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운영체계와 발굴조사기관 및 관련 연구자와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국 송국리 유적은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사적의 보존범위를 재검토하는 한편,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대중에게 공유함으로써 학술적 가치의 보존과 활용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인구·이건무·한영희·이강승, 1979,『송국리 Ⅰ』, 국립중앙박물관.

김경택, 2023,「부여 송국리 유적의 보존과 활용 방안 연구」,『건지인문학』36.

김범철, 2023,「고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과제와 전략」,『문화재』56(1).

김영배·안승주, 1975,「부여 송국리 요령식동검출토 석관묘」,『백제문화』7·8.

누리고고학연구소, 2021,『부여 송국리 유적 일원 고지형분석 및 정밀분포조사 보고서』.

동방문화재연구원, 2023,『부여 초평리 유적』, 동방문화재연구원 학술조사보고서 제71책.

문화공보부, 1976,「문화공보부 고시 제353호」, 1976. 12. 31.

문화재관리국, 1997,「문화재관리국 고시 제1997-4호」, 1997. 5. 10.

문화재청, 2001,「문화재청 고시 제2001-46호」, 2001. 9. 29.

문화재청, 2004,「문화재청 고시 제2004-50호」, 2004. 10. 27.

문화재청, 2008,「문화재청 고시 제2008-160호」, 2008. 12. 10.

문화재청, 2009a,『사적 지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문화재청, 2009b,「문화재청 고시 제2009-131호」, 2009. 12. 30.

문화재청, 2013,「문화재청 고시 제2013-31호」, 2013. 3. 21.

문화재청, 2018,「문화재청 고시 제2018-56호」, 2018. 5. 17.

문화재청, 2018,「문화재청 고시 제2018-176호」, 2018. 12. 21.

부여군, 2003,『송국리 선사취락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부여군, 2023,『부여 송국리 유적 종합 정비 계획』.

부여군·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 2009,『扶餘의 先史遺蹟』.

이기성, 2021,「부여 송국리 유적 세계유산 등재과정의 문제점과 추진방향」,『호서고고학』50.

이기성, 2024,「문화유산으로서의 선사시대 유적 활용 방안 검토-부여 송국리 유적을 대상으로」,『중원문화연구』33.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4,『부여 송국리-산직리 지석묘 진입도로 확·포장구간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 2024,『부여 송국리 유적 제28차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 2025,『부여 송국리 유적 제27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황재훈, 2022,「선사시대 사적의 지정·보존·관리 현황과 활용 방안」,『문화재』55(2).

ICOMOS, 2008, The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ㅇ 누리집

강동문화포털, www.gangdong.go.kr/web/culture/contents/gdc020_010_010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www.ggcf.kr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 홈페이지, digital.khs.go.kr
국가유산포털 홈페이지, www.heritage.go.kr
부여 송국리 유적, www.buyeo.go.kr/html/assb/
부여 송국리 유적 생생국가유산사업 프로그램 예약 홈페이지, songgukri001.cafe24.com
석장리박물관 공식 홈페이지, www.gongju.go.kr/sjnmuseum/

「부여 송국리 유적의 활용 방안-최신 발굴 성과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박서현
(부여군청)

금번 학술대회에 주제는 '청동기시대 사적, 그 가치와 활용'으로, 그 청동기시대 유적에 대한 학술적 가치 뿐 아니라, 이를 정비하고 활용하여 대중들에게 이를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계획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문화유산의 단순 보존·관리를 넘어 공개 및 활용을 통해 가치를 증진하고, 국민의 일상적 참여·향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적은 총 569건[1]으로 이 중 선사시대(구석기~청동기시대)에 해당되는 사적은 27건입니다. 확인해 본 선사시대의 사적 대부분은 대체적으로 조사를 완료하고, 정비가 완료된 상태임에 반해, 송국리 유적은 일부 주거지와 무덤군 일부만 정비되었을 뿐 아직까지 조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2026년 11월 기준 30차 시굴조사 진행).

발표자께서는 송국리 유적의 발굴조사에 참여하여 송국리 유적의 최근 발굴성과와 앞으로의 정비 방향에 대해서 작성해주셔서, 토론자이지만 발굴자료를 가지고 정비 방향을 설정해야하는 지자체 담당자로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표문의 내용에는 전체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 송국리 유적의 지정구역의 재조정 부분과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과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송국리 유적의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한 공간범위 재검토

발표자께서는 송국리 유적의 취락범위와 사적범위가 맞지 않고, 최근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취락의 공간범위를 재검토하고, 사적 남쪽 구역의 조사 확대 및 선제적 보호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물론 최근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확인해보았을 때 송국리 지정구역의 하단부 및 보호구역 사면부에서 성토대지 및 다양한 유구 등이 확인되었으며, 산직리지석묘로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2004년에 충청역사문화연구원에서 조사한 진입도로 확·포장구간 시굴에서도 주거지로 추정되는 유구들이 일부 확인되어 송국리 유적의 취락 범위의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송국리 유적의 지정구역 548,742㎡ 중 현재 유적 발굴 면적은 약 10%이며, 특히 공주박물관에서 조사한 10차 이후로 그 북쪽은 조사된 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까지

1)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검색 기준

조사된 목주열의 북쪽 끝이 아직 확인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북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취락의 범위에 대한 기준점이 확인된다면, 송국리 유적의 남쪽지역과 더불어 사적 지정범위 조정에 대한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매장문화유산의 훼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송국리 유적의 역사문화보존지역 범위와 주변 매장유산유존지역 분포범위입니다. 이는 지정문화유산의 주변환경(경관 등)과 매장유산의 보호를 위해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 송국리 유적 및 산직리 지석묘 주변으로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발행위가 일어날 경우 매장유사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당장의 송국리유적의 사적 지정 범위의 변경보다는 사적 지정 범위 내의 조사와 더불어 주변의 조사성과들을 확인하여 사적 지정 범위를 점차 변경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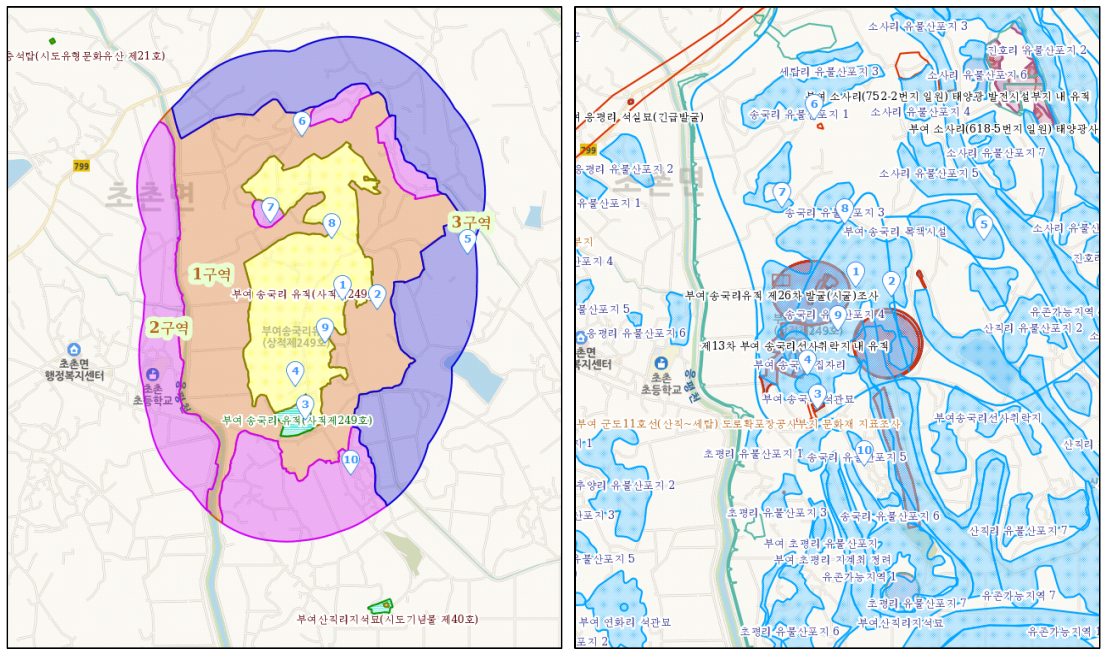


그림 1. (좌) 부여 송국리 유적 역사문화보존지
(우) 부여 송국리 유적 주변 매장문화유산 유존지역

2. 송국리 유적의 유적 및 유구 정비 방향

송국리 유적은 1974년 유적이 발견된 이래로 약 30차례 조사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 송국리 유적의 유구 및 유적의 정비가 조사만큼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3년 종합정비계획을 토대로 임사자료관 설치하고 2005년 변경계획을 기준으로 원형과 방형주거지, 무덤군 정비, 탐방로 개설. 2016년 송국리 체험관 건립, 2020년 주차장 조성 및 분묘 재정비 및 현재 노후화된 움집을 철거하고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 부여박물관 특별전시 「부여 송국리」 도록에 마지막 장에 보면 '송국리 마을은 계속 변한다!' 주제로 70~80년대에 추정한 송국리 취락, 목책열이 확인되면서 대형 방어시설을 갖춘 최대마을인 90년대 추정한 송국리 취락, 그리고 2008년 이후 전통대학교가 조사하면서 설상대지

에 있는 방어시설이 있는 대형건물터 등이 있는 송국리 취락 등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송국리 유적의 정비 방향을 보면 여러 번의 계획변경과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현재의 정비 역시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 역시 완성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발굴 성과와 유구 정비는 맞물려 간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발표자께서는 부여 송국리 유적의 유적 정비에 있어 어떤 부분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3. 송국리 유적 활용 현황 중 지역사회와 연계한 발굴성과 공유와 교육프로그램 개설

송국리 유적에서도 사적관리소에서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 송국리 풍년기원제, 청동기 축제, 생생국가유산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단기적인 사항이며, 대부분 지역분들에 한해 진행되고 특히 민간 단체인 '송국리 유적정비지원추진위원회'가 주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유적이 위치한 지역이 부여군 내에서도 면 내에 위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노령화가 심해진 상황이며, 송국리 유적의 인지도 홍보를 위해서는 외부 관람객 유입을 위한 홍보 및 기타 참여형 프로그램 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조사성과 공개와 홍보뿐 아니라 외부에서 관람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소개해주실 만한 소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표 3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현황과 활용 방안

손아라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

고창 죽림리 고인돌군 현황과 활용 방안

손아라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

목차

Ⅰ. 머리말
Ⅱ. 죽림리 고인돌 조사와 이전복원된 고인돌 현황
Ⅲ. 고창 고인돌 관련 학술대회 현황
Ⅳ. 고창 죽림리 고인돌군 활용 방안
Ⅴ. 맺음말

Ⅰ. 머리말

고창 죽림리와 도산리 고인돌(이하 고창 고인돌 유적)은 2000년 12월 화순·강화 고인돌 유적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특히 고창 죽림리 고인돌은 한반도의 대표적인 선사시대 거석기념물로, 단일 구역 내 높은 밀집도와 다양한 형식이 공존하고 있는 유적이다.

고창 전역에는 현재 1,790여 기 이상의 고인돌이 현존하고 있으며, 없어진 고인돌까지 포함한다면 2,000기 이상으로 추정된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창읍 죽림리·도산리, 아산면 상갑리 일대 약 1.8㎢의 좁은 면적에 10개 군집, 총 447기(죽림리·상갑리 442기, 도산리 5기)의 고인돌이 분포하여 단일 면적당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양상이며, 다양한 형식이 한 공간에 공존하고 있어 고인돌의 형성·발전 과정을 규명하는 핵심 유적이다. 특히 고창 죽림리와 상갑리 고인돌군은 회암봉에서 성틀봉(고성봉)으로 이어지는 산지의 남쪽 사면에 분포하고 있다. 고인돌군 남쪽으로는 고창천이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있고, 고인돌은 고창천 북쪽 산록과 완만한 구릉 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고창천 주변으로는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어 묘역 전체가 산지에서 평지로 이행하는 지형적 전환부에 자리한다. 이러한 입지는 고인돌의 분포와 경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축조에 사용된 대형 석재의 공급과 이동 조건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공간적 기반을 제공하며(윤호필·김규정 2026), 채석부터 운반, 축조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고창 지역의 고인돌은 일정한 지역에 아주 높은 밀집도를 보이며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고인

돌의 입지는 축조 당시의 주변 지세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유적의 지형 조건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하문식 2026: 12). 전체적으로 보면 고창군 고인돌의 약 80%가 북부산간지역권의 남쪽 경사면과 동남부산간지역권의 서쪽 경사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최대 밀집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은 고창읍 죽림리, 도산리 일원과 대산면 상금리 일원으로 200여 기 이상의 고인돌이 밀집되어 있다(윤호필 2022: 293).

고창 고인돌 유적은 세계유산 등재 이후 유적지 내 매산마을 주민 이주, 1.8㎞ 농로 폐쇄 및 황토 포장 탐방로 전환, 송전선 지중화 등 **'필요 최소한의 개입'** 원칙에 따라 원형 경관을 보존하고 있다. 그리고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 죽림선사체험마을, 미디어아트, VR 및 유산 환경 관리를 통해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세계유산 등재 25주년을 맞이하여 성과를 돌아보고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학술회의가 이루어졌고, 2026년에도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고창 고인돌 유적의 지질·환경적 특성, 고대 경관과 의례, 역사적·문화적 가치 및 경관 관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국가유산청의 지원을 받아 2022년부터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기조 아래 국가지정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화를 진행하면서 고창 고인돌 유적의 디지털 기록화 및 정밀실측, 보존현황 조사 등 정밀실측조사가 진행되었다.

최근 고인돌군과 함께 채석장에 대한 분포조사를 통해 고인돌과 채석장을 연계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고인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고인돌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활동도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이하 고인돌박물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발표문은 세계유산인 고창 고인돌 유적의 조사현황과 고창지역에서 발굴조사된 고인돌을 이전복원 현황을 살펴보고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 학술대회 및 활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고창 고인돌 유적의 활용 방안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작성되었다.

Ⅱ. 죽림리 고인돌 조사와 이전복원된 고인돌 현황

1. 죽림리 고인돌 조사 및 실측조사 현황

1) 죽림리 고인돌 조사현황

고창 고인돌 유적은 2000년 화순·강화 고인돌 유적과 연속유산으로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 특히 고창 고인돌 유적은 그 중심에 죽림리 고인돌군이 위치하고 있다. 죽림리 일대는 우리나라 고인돌 최대 밀집 분포 지역으로 고인돌은 해발 20~30m 사이 경사가 완만한 지역을 중심으로 군집으로 분포하고 있다. 주변 지형을 살펴보면 고인돌군 남쪽은 고창천이 고수천과 합수되어 남동-북서 방향을 흐르다 Ⅰ구역 고인돌군 앞에서 곡류하여 동-서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고창천 주변으로는 너른 충적지가 펼쳐져 있다.

죽림리 일대 고인돌군은 등고선 방향을 따라 2~3열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대체로 고창천의 흐름 방향과 일치하고 있지만, 회암봉과 고성봉 사이 운곡(남사르습지)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분포하고 있는 고인돌군은 고개(과거 교통로)를 따라 배치되어 있다.

고창 고인돌 유적 조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1965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표 및 발굴조사를 통해 고창군에 약 60여 기가 확인되었고, 이 가운데 상갑리 고인돌 3기가 발굴조사되었으며, 유물은 지표에서 유경식석검편이 수습되었다(김재원·윤무병 1967).

1970년대에는 이렇다 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981년 죽림리 고인돌군이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면적 : 1,272㎡). 또한 1980년대부터 각 대학박물관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각 시군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지표조사가 이루어졌는데, 1983년 전북대학교박물관에서 고창군 고인돌에 대한 지표조사를 통해 고창군에 약 600여 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전북대학교박물관 1984).

이후 1990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죽림리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고인돌의 분포양상에 따라 Ⅰ지구와 Ⅱ지구로 구분하고 모두 10개 군을 설정하였고, 모두 442기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표본 실측을 실시하였다(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92). 그리고 1991년 죽림리 일대 고인돌군 가운데 16기가 발굴조사되었다(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93). 이후 1994년 고창 죽림리 고인돌군이 사적(고인돌 442기. 면적 : 81,763㎡)으로 지정되었고, 1999년 전주대학교박물관에서 채석장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모두 23개소의 채석장과 상석의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하였으며(전주대학교박물관·전주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1999), 1999년 도산리 고인돌군이 사적으로 추가 지정(고인돌 5기. 면적 : 1,272㎡)되었다.

2000년 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죽림리 고인돌군 정비를 위한 지표조사를 통해 고인돌 34기가 추가로 확인되었고, 죽림리 일대 고인돌군 현황측량이 이루어졌으며(호남문화재연구원 2001), 2004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고창군 문화유적 분포조사를 통해 고창군에 모두 1,319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5). 2005년에는 원광대학교 박물관에서 재해로 무너진 2419호와 2433호 고인돌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무너진 고인돌은 매장주체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2433호 근처에서 상석이 없는 석관묘 1기가 조사되었다. 석관묘 내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 2009년 군산대학교 박물관에서 고창군 고인돌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죽림리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447기 이외에 고창군에 모두 1,119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군산대학교박물관 2009).

그리고 2010년 전주문화유산연구원에서 도산리 고인돌군 주변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3년에는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영산강유역 고인돌에 대한 조사를 통해 GIS측량과 제원작성, 고인돌 보존관리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고창군에 누락된 29개 유적 154기의 고인돌과 9기를 추가로 확인하였으며, 5개 유적 11기의 고인돌을 새롭게 확인하였다. 결과 원래 고창군 관내 고인돌은 231개소 총 1,785기가 분포하고 있었는데, 일부 멸실되어 193개소 1,434기가 확인되었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6).

2019년에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죽림리 고인돌군과 도산리 고인돌군, 그리고 같은 능선 위에 있는 송암 고인돌군을 포함하여 죽림리 고인돌군 일대에 기존 유네스코에 등재된 447기, 199년 이후 보고된 고인돌과 신규 고인돌 60기를 포함하여 총 507기 고인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으며, 2000년에 조사되어 보고된 송암 고인돌군의 34기에 대해 추가 보완조사를 시행하였

다(호남문화재연구원 2019).

2022년 문화유산연구소 길에서 고창군의 고인돌에 대한 정체성과 역사성을 재조명하고, 고인돌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활용하며, 향후 문화유산 지정과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 활용·활성화를 위한 기반 자료로 사용하고자 고창군 전역에 분포하는 고인돌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진행하여 고인돌 32개소 283기를 추가로 확인하여 고창군 고인돌 전체 수량은 225개군 1,748기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창군·문화유산연구소길 2023).

2022년에는 문화유산마을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죽림리 고인돌군에 대해 1차 시굴조사(Ⅱ지구 1군, 4군, 5군, 6군 및 2차 Ⅱ지구 2군)를 실시하였으며(고창군·문화유산마을 2022), 2023년에는 조선문화유산연구원에서 1차 시굴조사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Ⅰ지구 1군, 2군, 3군, 4군과 Ⅱ지구 2군, 3군)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고인돌 5기가 추가로 확인되었다(고창군·조선문화유산연구원 2022).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 세계유산 고창 죽림리 고인돌에 대한 학술조사연구 및 활용을 위해 미정비 구간이자 미조사 구간에 해당하는 Ⅱ지구 6군 내 3,500㎡의 범위를 대상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이 일대는 지속적인 훼손으로 인해 지형의 변경이 상당히 이루어져 고인돌과 관련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원지형 바로 상층에서 고려시대 문화층(건물지 축대시설, 석열)이 확인되었다(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2025).

이상에서처럼 고창 고인돌은 지속적인 지표조사를 통해 고인돌의 분포 현황이 확인되고 있지만, 아직도 조사되지 않은 많은 고인돌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고창군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고창군에 분포한 고인돌을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 푯말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2) 죽림리 고인돌 및 채석장 실측조사 현황

국가유산청에서는 2022년부터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기조 아래 국가지정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화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고창 고인돌은 국가유산이자 세계유산으로 가치가 보존 전승되어야 한다고 인정 받아 디지털 기록화 및 정밀실측, 보존현황 조사 등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22년부터 4차에 걸쳐 정밀실측조사가 진행되었다. 1차 정밀조사는 총 116기기(Ⅱ지구 1군 31기, Ⅱ지구 2군 31기, Ⅱ지구 3군 23기, Ⅱ지구 4군 17기, Ⅱ지구 5군 8기, Ⅱ지구 4군 도산리 6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창군 2022). 당시 조사는 Ⅱ-1~6구역에 있는 고인돌 110기와 도산리 고인돌군 전수조사로서 자료조사, 고증조사, 현장조사, 기준점 측량, 사진촬영, 3D스캔, 도면작성, 보고서작성 등이 진행되었다. 2차 정밀조사는 Ⅰ-1~3구역에 있는 고인돌 114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였으며,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인돌군에 대한 객체별 구조 분류, 수실측, 광대역 스캔, 3D스캔 및 포토그라메트리, 훼손도 조사를 추가로 진행되었다(고창군 2023). 3차 정밀조사는 Ⅱ-1(20기), Ⅱ-2(37기), Ⅱ-3(41기), Ⅱ-4(19기), Ⅱ-5(13기) 등 총 130기에 대한 3차원 형상 정보 획득 및 모델링, 도면화 작업, 보존과학분석 등이 포함되었다(고창군 2024). 4차 정밀조사는 1~3차 정밀실측조사에서 조사한 구역을 제외한 Ⅰ-3구역 55기, Ⅰ-4구역 51기, Ⅱ-6구역 32기와 Ⅱ-5구역 중 미조사한 4기 총 142기를 조

사하였다. 실측보고서는 기존 사업에 수록된 내용을 제외한 신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작성하였다. 항공 포토그라메트리를 통해 전 구역 배치도 보완, 3D스캔 및 포토그라메트리, 실측도면, 훼손지도, BIM 데이터 작성 2기, 지석묘 모형 44기(전시용 모형 4기, 홍보용 모형 40기) 등 결과물을 작성하였다. 학술연구는 거석문화 학술 사례를 추가로 수집하였으며, 지석묘군의 군집 별 형식 및 분포, 취락 유적 분포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 사업에서 구축한 통합 데이터 시트를 보완하여 전 지석묘군 데이터를 정리하였다(고창군 2025).

죽림리 상석채석장에 대한 조사는 1999년 전주대학교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23개소의 채석장과 상석의 이동경로를 추정하는 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2024년에는 1999년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23개 지점을 5개 영역(A, B, C, D, E구역)으로 구분하여 이 가운데 A-B-C구역은 2024년에 GPS측량과 3D스캔 및 포토그라메트리 측량조사와 병행하여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고창군 2024). 2025년에는 1차 조사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GPS측량과 3D스캔 및 포토그라메트리 측량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D구역(1999년 7개소, 현 10개소 내외 추정)과 E구역(1999년 6개소, 현 10개소 내외 추정)에 대한 GPS측량과 3D스캔 및 포토그라메트리 측량조사와 병행하여 정밀지표조사조사가 이루어졌다(고창군 2025).

2. 이전복원된 고인돌 현황

고창군에 분포한 고인돌은 기본적으로 현지 보존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부득이한 공사로 멸실 위험이 있는 고인돌은 발굴조사 후 이전복원을 실시하여 일반인들이 유적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선사유적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인돌박물관에서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 보존·관리뿐만 아니라 고창지역에서 발굴조사된 고인돌 가운데 현지 보존이 불가한 고인돌에 대해 이전복원하여 교육적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도로개설, 댐(저수지) 건설, 공단 조성 등으로 파괴가 불가피한 고인돌은 발굴조사 후 현지에 이전복원이 불가할 경우 고인돌박물관 야외전시장으로 이전복원하여 고창지역에서 조사된 다양한 고인돌을 한곳에서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그동안 고창지역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고인돌 가운데 고인돌박물관으로 이전복원된 고인돌과 기타 지역으로 이전복원된 고인돌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고인돌박물관 내 이전복원된 고인돌

고인돌박물관으로 이전복원된 고인돌은 고창 계산리 고인돌(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 금평리 고인돌(도로 개설 공사), 봉산리 고인돌(마을진입로 조성 공사) 등으로 발굴조사 후 이전복원된 고인돌이다.

① 계산리 고인돌은 계산제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 과정에 모두 4기의 고인돌이 조사되었다. 1호는 기반식 고인돌로 상석의 형태는 괴석형으로 윗면은 편평하나 아래는 가운데 부분이 지면에 닿을 정도로 배가 불러 있다. 지석은 주형지석으로 4개가 상석을 받치고 있다. 2호와 3호, 4호는 상석만 남아 있고 하부구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전복원된 고인돌은 1호 고인돌로 박물관 입구에 이전복원되어 박물관과 죽림리 고인돌유적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고인돌이다.



그림 1. 계산리 고인돌 조사 모습



그림 2. 계산리 고인돌 이전복원 후 현재

② **금평리 고인돌**은 무장-금평간 국지도 확·포장공사구간에 포함되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고인돌 9기, 석곽묘 1기, 석관묘 3기가 좁은 공간에 군집을 이루며 분포되어 있었다. 고인돌은 2~4기가 열을 지어 분포하고 있는데 3호와 8호를 제외하고 모두 묘역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기반식 5기와 개석식 3기이다. 이 가운데 고인돌 3기(1호 6호 8호), 돌널무덤 1기(1호), 돌덧널무덤 1기(1호)를 고인돌박물관 야외전시장으로 이전복원하였다.



그림 3. 금평리 고인돌 이전복원 모습



그림 4. 금평리 고인돌 이전복원 후

③ **고창 봉산리 고인돌**은 산업단지 인접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로 발굴조사된 2기의 고인돌로, 원래는 기반식으로 보고되었으나, 지석이 모두 유실되었으며, 하부구조도 확인되지 않았다. 최초 보고 당시 기반식으로 보고되었고, 상석은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어 고인돌박물관으로 이전복원되었다.



그림 5. 봉산리 고인돌 이전복원 된 모습



그림 6. 봉산리 고인돌 이전복원 전경

2) 기타지역 이전복원된 고인돌

고창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토목공사들로 많은 고인돌들이 발굴조사되었다. 2000년 이전에 발굴조사된 고인돌을 제외한 고인돌은 대부분 이전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모든 고인돌을 이전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상석만 확인된 고인돌의 경우 이전복원되지 않은 고인돌도 있다. 지금까지 이전복원된 고인돌은 운곡리 고인돌, 죽림리 고인돌, 암치리 고인돌, 부곡리 고인돌, 상평리(조산) 고인돌, 도천리 고인돌, 월암 고인돌, 계당리 고인돌, 주산리 고인돌, 교흥리 고인돌 등 모두 10개 유적이다.

① 운곡리 고인돌 : 운곡저수지 조성공사로 발굴조사되었는데, 원래는 운곡리 32기, 용계리 12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운곡리 17기, 용계리 7기가 발굴조사 되었다. 운곡리 고인돌은 A지구 7기, B지구 8기, C지구에 2기의 고인돌이 발굴조사되었다. 용계리 고인돌은 4기가 발굴조사되었고, 3기는 고인돌이 아니고 5기는 공사과정에 유실되었다. 발굴조사 후 모두 수몰되었다. 운곡리 고인돌은 발굴조사 이후 5기(A-5, B-1, B-5, B-6, B-8)의 고인돌은 현지 보존되었고, 5기(A-3, A-4, A-6, B-3, C-2)는 원광대학교 박물관으로 이전복원 되었다. 이전복원된 고인돌은 캠퍼스 내에 있어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 개석과 지석만 이전복원되고 하부구조는 이전복원되지 않았다.



그림 7. 운곡리 고인돌 이전복원 전경



그림 8. 운곡리 A-4호 고인돌

② 죽림리 고인돌 유적(벽송리 고인돌) : 서해안고속도로 건설로 발굴조사 되었으며, 고인돌은 해발 80m 정도의 구릉 정상부에 단독으로 입지하고 있었다. 주형과 괴석형 지석 5개가 있는 기반식 고인돌로 석곽형 매장주체부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벽석 사이에서 유경식석촉 1점이 수습되었다. 발굴조사 후 고인돌은 서해안고속도로 고창휴게소(상) 부지(신림면 벽송리 598-5번지)에 이전복원되었다. 휴게소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복원과정에 지반을 충분하게 다지지 않아 상석의 무게를 못 이겨 약간 내려앉아 있어 발굴조사 당시의 모습과 차이를 보인다.



그림 9. 죽림리 고인돌 유적 조사 모습



그림 10. 죽림리 고인돌 유적 이전복원 된 모습

③ 암치리 고인돌 : 암치제 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수몰 위기에 있는 고인돌 13기에 대해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1기를 제외하면 나머지 고인돌은 모두 경지정리 등으로 하부구조가 대부분 파괴되거나 형태 파악이 불가하였다. 그러나 발굴조사 후 학술 가치가 높아 교육적 차원에서 보존·보호가 필요하다고 이전복원이 결정되었는데 이전복원된 고인돌은 원광대학교에서 조사한 A-1호와 전북대학교에서 조사한 12기의 상석을 도로와 암치제 사이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이전복원되었다. 이전복원 당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며, 현재는 관리되지 않아 잡풀과 잡목이 무성하다.



그림 11. 암치리 고인돌 최초 이전복원 모습



그림 12. 암치리 고인돌 11호 이전복원 후

④ **부곡리 고인돌 :** 고창-장성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고인돌은 시루봉에서 이어지는 구릉의 말단부를 따라 남-북 방향으로 열을 이루어 분포하고 있다. 상석이 있는 것 3기, 상석 없이 하부구조만 남아 있는 17기 등 총 20기를 조사하였다. 고인돌 둘레에 2중의 구가 돌려진 상태가 확인되어 무덤 영역 표시를 위한 구획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고인돌 상석 3기와 석관묘 3기가 남고창 IC의 회전 진출입로 안쪽 공지(고수면 부곡리 319, 320-6번지)로 이전복원되었다.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내부 진입이 쉽지 않고 일부 이전복원된 석관묘의 경우 풀숲에 있어 찾기 쉽지 않다.



그림 13. 부곡리 고인돌 이전복원 모습



그림 14. 부곡리 2호 고인돌 이전복원

⑤ **상평리 고인돌(조산고인돌) :** 조산저수지(1956년 준공) 고창 고수지구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고인돌은 1기로 상석 아래에 깨진 돌 일부가 노출되었으나 하부구조는 아니고 다량의 강돌이 불규칙하게 깔려 있고, 무덤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발굴조사 후 고수면 상평리 269-2번지로 이전복원되었으며, 행정구역이 상평리에 속해 상평리 고인돌 라로 명명되었다. 현재는 관리는 양호한 편이다.



그림 15. 상평리 고인돌 발굴조사 모습



그림 16. 상평리 고인돌 현재 모습

⑥ **도천리 고인돌 사군:** 도천저수지 준설사업의 일환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고인돌은 1기로 상석 아래에 지석 3매가 확인되었는데 서쪽에 2매, 동쪽에 1매로 상석의 장축방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3매의 지석은 높이가 모두 50cm이상으로 기존 분류상 주형고인돌로 조사된 고인돌은 도천리 고인돌군 A 가까이에 이전복원되었다. 현재 휀스는 재설치되었지만, 잡풀과 칡넝쿨이 우거져 있다.



그림 17. 도천리 고인돌 이전복원 당시 모습



그림 18. 도천리 고인돌 현재 모습

⑦ **월암리 고인돌 나군**은 외정천 개량공사로 발굴조사되었다. 하천변을 따라 4기의 고인돌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지만, 원래는 2005년 분포조사 당시 이동되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이후 재차 하천변으로 재이동되었다. 발굴조사 이후 4기의 상석은 외정천변 산책로(월암리 45번지)로 이전복원되었다. 산책로 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전복원된 장소가 수직암반이 노출되어 있는 곳이라 추후 암반 붕괴 등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19. 월암리 고인돌 이전복원



그림 20. 월암리 1호 고인돌

⑧ **계당리 고인돌**은 1984년 '선동마을 지석묘군Ⅱ'로 보고되었는데,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시행하는 고창 선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포함되어 발굴조사되었다. 주형고인돌 1기(1호), 기반식 고인돌 2기(4호, 8호)와 상석과 지석으로 추정되는 석재 6기 등 총 9기의 고인돌

이 확인되었다. 주형 고인돌과 기반식 2기를 제외하면 경지정리 등으로 이동되었다. 발굴조사 후 계당리 40번지 선동저수지 상류 쪽으로 이전복원되었다.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 계당리 고인돌 이전복원



그림 22. 계당리 1호 고인돌 이전복원

⑨ **주산리 고인돌 나군**은 3기의 고인돌이 있었으며, 3호 고인돌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는 도로시설 개량공사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인근 1호와 2호 고인돌이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이전복원되었다. 마을 진입로 변에 이전복원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3. 주산리 고인돌 3호 이전복원 후 전경



그림 24. 주산리 고인돌 3호 고인돌 이전복원

⑩ **교흥리 고인돌 다**는 1기의 고인돌이 있었으며, 원래 논에 위치한 고인돌로 발굴조사 결과 상석만 확인되고 상석 아래에서 확인된 석재는 상석으로 모서리가 파괴되면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발굴조사 후 고인돌 주변을 정리하여 유적공원으로 조성하였다. 관리는 양호한 편이다.



그림 25. 교흥리 고인돌 다 이전복원 후 전경



그림 26. 교흥리 고인돌 다 이전복원

이상에서처럼 고창지역에서 조사된 고인돌은 1980년대에 아산댐(운곡저수지) 수몰지역에서 조사된 고인돌 가운데 용계리 고인돌은 모두 수몰되었고, 운곡리 고인돌은 5기만 이전복원되고 모두 수몰되었다.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조사된 예지리 대성 고인돌도 발굴조사 후 이전복원되지 않고 멸실되었다.

최근 조사된 고인돌은 대부분 이전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타 지역으로 이전복원된 고인돌은 대체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고인돌도 있지만, 관리되지 않아 잡풀이 무성한 고인돌도 있다. 접근성 또한 양호한 지역에 이전복원된 고인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고인돌들도 있어 전공자가 아니라면 이전복원된 고인돌을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교육적 자료의 활용과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가능한 고인돌박물관 야외전시장으로 이전복원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여기에는 지자체의 의지와 국가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문화유산 발굴조사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1980년대 이전에 축조된 저수지 내에도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고인돌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암치리, 계산리, 계당리, 상평리, 도천리처럼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고인돌도 있지만, 노동리 고인돌처럼 노동저수지 개보수공사사업으로 저수지 바닥면이 드러나면서 존재가 알려진 고인돌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몰된 상태로 지속적인 훼손의 가능성이 있다.



그림 27. 노동리 고인돌 모습



그림 28. 노동리 1호 고인돌

Ⅲ. 고창 고인돌 관련 학술대회 현황

현재 고창군에서는 연속유산으로 지정된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과 별개로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의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개최된 고창 고인돌 유적 관련 학술대회를 크게 국제학술대회와 국내학술대회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국제학술대회 현황

고창군에서 실시한 국제학술대회는 2025년과 2026년 2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2025 세계유산 축전 기간에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진행되었고, 2026년에는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의 형성과 경관 복원』**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1) 2025년 국제학술대회

2025년 세계유산축전의 일환으로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으로 **고창 고인돌 유적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의의**에서 발표자는 우리나라 고인돌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우리 민족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인류가 아끼고 가꾸며 보존해야 할 민족 유산으로 우리 조상들이 건조한 거석기념물인 고인돌은 수천 년 동안 우리 곁을 묵묵히 지켜보고 왔던 살아있는 역사로 고인돌들은 당시 주변 경관과 관련되어 축조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 환경과 자연경관 자체를 그대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선사시대 유적은 그리 많지 않으며 이런 점에서 한국의 고인돌 유적은 희귀성, 역사성 그리고 특수성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등재 의미를 가진다라며 “유적지 관리와 함께 전시 공간과 체험 공간 조성을 통한 지적 욕구를 제공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편안함과 친밀감이 있는 유적지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의 조사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에서 발표자는 고창 고인돌 유적이 지닌 역사적·문화적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향후 보존 및 활용 방안, 나아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였는데, 고창 고인돌의 장기 축조에 따른 축조집단 간의 관계, 경관고고학의 문제점 검토,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재설정 필요,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통시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의 보존관리 현황과 향후 활용 방안에서 발표자는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은 선사시대 인류의 삶과 죽음, 그리고 공동체의 기억을 간직한 거대한 유산으로 소중한 유산을 과거의 유산을 넘어 현재와 미래의 자산으로 계승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와 학계, 정책당국이 한데 힘을 모아 이러한 제안들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보았다. 선사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고인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앞으로도 훼손 없이 유지되면서, 전 세계인과 공유되는 살아있는 문화로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영국 스톤헨지의 최신 조사연구 성과 및 보존관리 현황에서 발표자는 영국의 고대 유적지인

스톤헨지를 둘러싼 학술적 진보와 실무적 행정의 핵심을 파악하고자 작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진행된 조사연구의 학문적 성과를 정리하는 동시에, 유적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보존 관리 현황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유적에 대한 최신 정보의 요약을 요청함으로써 과거의 유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지시하고 있다.

인도 우산돌의 최신 조사연구 성과 및 보존관리 현황에서 발표자는 인도 비다르바의 거석문화는 철기 시대의 매장유적으로 특징지어지고, 인도 거석문화는 신석기시대 부터 초기 역사 시대에 걸쳐 존재한 것으로 보았다. 비다르바 거석문화 공동체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고대인들의 일상생활, 의례, 그리고 사회 조직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으며, 말 장식의 존재는 동물의 가축화와 더불어 엘리트 계층의 지위 또는 의례적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보았다.

인도네시아 사부섬 고인돌의 최신 조사연구 성과 및 보존관리 현황에서 발표자는 사부섬 거석문화 고인돌은 훼손되지 않은 채 현존하는 전통문화로 고인돌은 지역 사회상의 중요 부분이지만 그 역할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자들의 관심 밖에 있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모두에서 이러한 잠재력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이것의 실현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일본 오유환상열석 거석기념물의 최신 조사연구 성과 및 보존관리 현황에서 발표자는 일본 혼슈 북부 아키타현 가즈노시에 위치한 오유의 만자와 노나카도의 이중 오유 환상열석은 조몬 시대 후기를 대표하며, 환상열석이 조성된 주변 경관에 관한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고, 연구성과는 현재 오유 조몬 박물관에서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전시되고 있으며, 해당 유적지는 2021년, 다른 16개 유적과 함께 연속유산으로 등재된 북부 혼슈와 남부 홋카이도의 조몬 유적군 세계유산의 일부를 이룬다고 보았다.

2) 2026년 국제학술대회

2026년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의 형성과 경관 복원』**이라는 주제로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와 공동으로 국제 학술대회가 개최하였다. 학술대회에서는 고인돌 유적의 지질·환경적 특성, 고대 경관과 의례, 역사적·문화적 가치 및 경관 관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고창 죽림리 고인돌군 군집 유형 재분류 및 입지 특성 분석에서 발표자는 고창 지역 고인돌 가운데는 무덤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의 제의 행위와 관련 있는 고인돌들이 있으며, 고창 고인돌 유적은 지금까지 죽림리·도산리·상갑리의 일부 지역에 분포하는 고인돌만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지만, 축조 당시 사람들의 활동 범위를 고려한 문화권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더불어 세계유산의 범위 확장을 위한 조사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고창 죽림리 고인돌 축조 석재의 기술적 선택과 조달전략에서 발표자는 고창 죽림리 고인돌의 축조 석재 조달을 기존의 '채석장-운반로-고인돌'이라는 단선적인 과정에서 벗어나, 석재의 형성 상태와 인간의 기술적 선택이 결합된 획득·이동·사용의 전체 과정으로 재검토하였다. 죽림리 고인돌 축조집단은 자연석의 형상·규모·평탄도·절리 상태와 위치가 제공하는 관계적 이용 가능성을 구조적 요구와 자신들의 기술적 능력에 맞추어 인식·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분리·가공·운

반·조정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은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키지 않고, 자연환경이 제공한 가능성과 인간의 기술적 선택이 결합하여 고인돌의 물질적 형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고창 고인돌 유적 일대의 고환경 분석에서 발표자는 고창 고인돌 유적 주변 충적평야 일대의 각종 지형·지질 자료를 비롯하여 고환경 분석 성과와 주변 유적의 토층 자료를 종합하여 고환경 변화과정을 추론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고환경 복원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유적 일대의 고환경 복원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에 따른 연구가 수행과 이를 기초로 고인돌 유적 일대의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충적평야를 중심으로 한 청동기시대 토지 이용상과 유적 입지 현황에 대한 유용한 고고학적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거석기념물 관점에서 본 고창고인돌의 경관 형성과 인식에서 발표자는 최근 진행된 고창 고인돌의 형식과 분포, 채석장 그리고 경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성과로 1) 노두와 자연석을 포함하는 자연경관과 고인돌 축조; 2) 다양한 고인돌 형식의 공존; 3) 부장품의 부재와 묘역 및 제단; 4) 고인돌의 열상분포에 주목하여 개인행위주체와 비인간행위주체 사이의 연결망과 수행능력 그리고 고인돌 축조에서 드러나는 개인행위주체의 창의력과 장소법을 통한 경관의 인식과 기억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창 고인돌 유적 역시 이러한 새로운 방향으로의 연구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고고학적 증거로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국외 사례 발표로는 **일본 지석묘의 형성과 경관**에서 발표자는 일본 고인돌은 수렵채집사회였던 조몬시대로부터 벼를 재배하는 야요이시대로의 전환기에 한반도 청동기시대 문화와 연관되며, 조몬시대부터 계속되는 지역적 특징을 가진 장례·묘제의 요소와 한반도로부터 영향을 받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무덤 형태뿐만 아니라 고인돌 축조와 완성 후의 모습은 야요이 사람들의 죽음과 삶의 교차하는 새로운 장으로서의 경관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새로운 고인돌의 경관은 기존의 풍습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한반도 청동기시대 문화의 요소를 받아들이고 그라데이션을 이루면서 점차 '야요이화'되어 갔다고 보았다.

중국 랴오둥반도 석붕의 문화 계보에서 발표자는 랴오둥반도는 중국 동북 지역 석붕과 개석묘의 자생적 발원지로 재지의 신석기시대 후기 적석묘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요동 산간 지대의 마성자 문화 및 신성자 문화 등의 요소를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정립되었으며, 그 문화요소는 주변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었고, 특히 서북한 지역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기원전 4세기 무렵 석붕과 개석묘의 형태에 변화가 일어나 위체형과 정석형이 주류가 되었으며, 문화의 중심은 압록강 상류와 서류 송화강 상류 남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이후 점차 적석묘로 변화하였고, 그 유적 형태와 문화적 유전자는 후대의 지역문화에 계승되어 지속된 것으로 보았다,

영국의 거석기념물과 그 경관 관리에서 발표자는 수십 년 동안 공공사업청은 의사결정을 주도하며 유적 보존을 위한 혁신적이고 야심찬 건축적 해결책들을 마련했다. 20세기를 거치면서 유적 자체에만 치중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유적이 자리한 지역의 경관 환경, 유적 안팎을 향한 조망, 나아가 천문학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관심의 지평이 대폭 확장되었다고 보았다. 유적 보호의 역사는 모든 보존 프로젝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 실질적인 실행 조치들을 철저히 기록하고, 전 과정에 고고학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최신의 프로젝트들은 지역사회의 참여가 지닌 중요성을 입증해 주었고, 거석 유적이 어떻게 사람

들을 하나로 모아 가치 있는 연구·교육 및 대중적 편의라는 성과를 가져오는 뛰어난 프로젝트를 창출해낼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고 보았다.

2. 국내 학술대회 현황

1) 2019년 학술대회

2019년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이루어졌다. 소주제로 **연속유산인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보존에 대한 제언**에서 발표자는 고창 고인돌 유적으로 세계유산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을 연속유산으로 보존하자는 제언이 있었다. 즉 고창 고인돌 유적은 단일한 구성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경계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으로 고창 고인돌 유적은 여러 요소 중 하나이지 독립된 유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연속유산은 반드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발표자는 고인돌박물관의 선사체험, 화순 동북아지석묘연구소의 여러 활용프로그램, 강화고인돌 선사체험학교 등 일반 관람객이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직접 운영 주체는 다르다 하더라도, 통합 플랫폼이 존재한다면 공급자는 차별화와 내실을 기할 것이고 수요자(관람객)는 선택의 기회가 많아지고 관심이 커진다는 것이다. 고창·강화·화순의 고인돌 유적의 보존을 위해서는 첫째, OUV에 기반한 보존 둘째, 연속유산으로서의 보존과 활용을 제안했다.

고창 고인돌의 구조와 특징에서 발표자는 고창지역 고인돌은 전북지역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고 다양한 형태와 구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특히, 고창 고인돌만의 특징이 주형고인돌을 기반식 고인돌이나 지상식 고인돌의 다양한 형태들은 이 지역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보았다. 다만 고인돌의 수나 밀집도에 비해 조사사례가 적어 고인돌의 다양한 형태와 구조가 정밀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고창 죽림리 고인돌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어 지속적인 발굴조사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표조사나 단편적인 발굴조사만으로는 고창지역 고인돌의 성격과 특징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향후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와 활발한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고창 고인돌 유적의 활용 방안 모색-문화유산 활용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발표자는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문화유산 활용은 보존을 전제로 해야 하고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등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고 활성화 할 필요가 있으며, 무형의 문화유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보다 다양한 콘텐츠(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상품, 교구제 등)를 개발해야 하고, 문화예술 분야, 첨단기술 분야 등과의 융복합을 통한 활용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향유기회 확대와 활용의 다양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차별화가 필요하고, 문화유산 활용의 고도화를 위해 전문가 및 전문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활용프로그램 개발의 체계화 등 경쟁력 강화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하고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스토리텔링, 브랜딩, 마케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영국 거석문화의 영구와 활용-스톤헨지 에비버리 세계유산 사례-에서 발표자는 세계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연구 방향 및 전략의 수립이 실행으로 이해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세계유산에서의 연구는 연구자의 학문적 목적이나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이 크고 이를 위해 조사 연구된 자료가 연구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런 연구의 기반은 연구의 성과가 보관·보호, 공개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과 함께, 이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주체와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세계유산은 분리된 관리구조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과 함께 지속적인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그리고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결국 문화유산이 연구되는 이유는 유산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증진 확산하는 것으로 이러한 의미에서 연구는 단순히 연구자만의 분야가 아니라 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고창 고인돌 유적의 사회적 가치에서 발표자는 세계적 유명세를 타는 영국 스톤헨지를 예로 들어 관광객을 오래 머무르게 하는 묘안은 관람객의 접근을 막기보다는 선돌 사이 길을 뚫고 지나며, 그에서 선돌에 기대어 사진도 찍게 하고 동영상도 찍게 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문화유산에 접근해서 보고 느끼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현장과 유리하는 문화유산 활용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므로 고인돌공원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참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2) 2023년 학술대회

2023년 고인돌박물관 특별전과 연계하여 **『고인돌 숲, 신비로운 돌의 초대』**와 **『세계 거석문화로 비춰본 고창 고인돌의 가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소주제로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의 고고학적 의미**에서 발표자는 본격적인 농경이 확산하여 가는 시기에 고인돌이 축조되기 시작하며, 고인돌의 축조가 이러한 토지를 둘러싼 공동체 간의 갈등을 포함한 다양한 관계와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는 가설이 제시된 바 있고, 그 과정에 고인돌의 공동 축조와 함께 공동체 구성원들이 해당 사회의 유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또는 하나의 권리로서 고인돌 축조에 참여한 것으로 보았다.

고창·영광지역 고인돌의 분포양상과 고인돌 사회의 성장에서 발표자는 고창·영광지역 고인돌 사회는 여전히 부족사회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았지만 백제 군현(성)과 고인돌 밀집 지역이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아 고인돌은 마한 소국 형성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고, 백제의 군현(성)은 이러한 마한 소국의 토대 위에 연계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고창 고인돌의 경관 구조와 의미에서 발표자는 고인돌은 단순히 매장시설이 아니라, 이를 매개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의미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텍스트로서의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주형고인돌은 독특한 외형과 군집 내 차별성, 기둥 모양의 고임돌을 세워 상석을 두드러지게 하고, 현저한 입지를 선택하여 시각 체험 중심의 이미지를 만드는 경관 구현 전략이 구사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세계 고고학계의 거석기념물 최신 연구 경향과 고창 고인돌의 연구 방향에서 발표자는 '문화유산'과 늘 세트로 등장하는 문구는 '보존과 활용'이다. 이중 '활용'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문화

재 관리기관이나 지자체에서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학계에서도 새로운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의 개발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고인돌 그 자체뿐만 아니라, 고인돌을 토목·건축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시공간적으로 확장되는 사회적 장(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실천들까지 문화 콘텐츠로 계발하는 상상력을 발휘할 때이며, 고인돌을 토목·건축 프로젝트로 접근할 때 생기는 궁금증들은 새로운 문화 콘텐츠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고창지역 고대사회 내 고인돌의 의의 -삼국시대 유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에서 발표자는 고창지역의 고인돌은 현재에도 지역사회의 경관과 이미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재해석되고 있는데 삼국시대의 관점에서 고인돌을 조망해 보았다.

3) 2019년 고창 상금리 고인돌 관련 학술대회

2019년 **『고창 상금리 고인돌군 세계문화유산 확대등재 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이루어졌다. 소주제로는 **고창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확장등재 방향**에서 발표자는 죽림리 고인돌군의 가치에 견줄만한 상금리 고인돌이 파괴와 멸실의 위험성에서 벗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및 가지를 제안으로 첫째, 상금리 고인돌군을 전라북도 기념물로 먼저 지정하여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둘째, 국가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조사나 학술회의를 통해 상금리 고인돌의 가치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셋째, 이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창 고인돌의 보존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위한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넷째, 세계유산에 등재된 고창 고인돌 유적의 경계를 확대하여 세계유산의 완전성을 공고히 한다는 개념으로 상금리고 인돌의 확대등재 추진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상금리 고인들 유적의 세계유산 확대등재 추진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세계유산 고인들 유적이 고창만의 유산이 아니라 강화·화순의 고인돌 유적과 함께 등재된 연속유산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세계유산의 최초 등재나 확대등재, 그 어떤 경우에도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창 상금리 고인돌군 현황 및 특징에서 발표자는 고창에는 많은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지만, 사적으로 지정된 죽림리 일대 고인돌, 기념물로 지정된 산수리 고인돌을 제외하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고창 고인돌에 대해 지속적인 학술조사와 함께 보존과 활용 방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최근 고창 부곡리 강변 고인돌과 상금리 고인돌이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고창지역 청동기문화(발굴성과를 중심으로)에서 발표자는 최근까지 조사된 고창지역 청동기시대 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고창은 금강 유역에서 만경강을 거쳐 영산강으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양 지역의 문화요소가 접목되는 양상이 뚜렷하다고 보았다. 특히 고창과 영광지역에 집중 분포하는 주형 고인돌과 탁자식 고인돌은 이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양상으로 고창지역은 청동기시대부터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하고 이후 고인돌 사회의 점진적인 변화과정을 거쳐 마한사회로 변화된 것으로 보았다.

세계 거석문화와 고창 고인돌 발표자는 고창 고인돌은 주변 환경이나 고인돌들의 훼손이 크지

않으면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분포된 점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고인들 축제 같은 행사를 통한 그 지역의 브랜드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고, 관광객의 취향이나 의식에 맞추어 유적지 관리와 함께 전시공간과 체험공간 조성을 통한 지적 욕구를 제공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편안함과 친밀감이 있는 유적지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Ⅳ. 고창 죽림리 고인돌군 활용 방안

1. 활용사업 현황

고창 고인돌 유적은 원형 경관 회복 및 최소 개입 원칙에 따라 유적지 중심에 있던 매산마을 21가구를 외부로 이주시키고 유적을 가로지르던 1.8㎞ 농로를 폐쇄하여 황토 포장 및 자연석 배수로를 갖춘 탐방로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전신주 철거 및 송전선 지중화, 주차장 외곽 집중 배치 등 필요 최소한의 개입 원칙을 적용해 원형 경관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동적·과학적 유산 관리를 위해 발굴 정밀화로 고인돌 수가 꾸준히 증가(1990년 442기 → 2019년 507기)했으며, 태풍 루사로 무너진 고인돌을 발굴·복원하여 유기물과 부장품을 확인하는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한 동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장충희 2025: 132). 또한 교육 및 체험 인프라를 구축하여 2008년 개관한 고창 고인돌박물관과 죽림선사체험마을을 통해 학생 답사 및 원시생활 프로그램을 정례화하였으며, 고인돌박물관에서는 해마다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1. 국가유산청 활용 및 홍보 지원사업 프로그램 현황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2022	세계유산 활용사업	세계유산 고인돌과 풍경소리 고인돌 야행	생태자원을 활용한 야간 고인돌 유적지 탐방, 별자리 관찰, 국악과 농악버스킹 등 융복합 종합예술체험
		찾아오는 세계유산 고인돌 사람들의 사계	청동기시대 토기 및 돌도구 제작, 어로 및 사냥, 밭농사 체험 등 사계절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
		고인돌! 자연의 색을 담고 치유의 숲이 되다	고인돌 유적지에서 자연의 색을 활용한 고인돌 힐링, 치유 체험 프로그램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미디어아트 황혼의 기적	고창 고인돌 유적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재해석한 문화유산 활용사업
2023	세계유산 활용사업	괨돌 그리고 삶을 그리다 고인돌 야행	생태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종합예술체험(야간 고인돌 유적지 탐방, 별자리 관찰, 국악과 농악버스킹)과 고인돌에 관한 스토리를 커스텀하여 드론라이트쇼 공연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미디어아트 별빛 기행	고창 고인돌 유적의 첨단 미디어 기술과 야간 체험 콘텐츠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관광·문화콘텐츠로 확장

	세계유산 활용사업	죽림 선사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	반달돌칼, 토기, 키링 등 선사시대 유물 만들기 체험
2025	세계유산 홍보사업	세계유산 홍보를 위한 3D 실감영상제작	세계유산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이야기를 어린이 눈높이의 스토리텔링 애니메이션 제작
	세계유산 축전 사업	2025 세계유산 축전 인류의 영원한 시간 갯벌과 고인돌	고인돌 세움학교, 세움마당, 갯벌 탐조, 국제학술대회 등 세계유산 가치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2026	세계유산 활용사업	세계유산 고인돌 활동 교재 및 상시체험	유적지 탐방 어린이 활동지 개발과 선사시대를 이해하고 보존에 관한 상시체험프로그램 운영
		선사의 하루 공방 및 캠프	선사 그림 그리기, 악기 만들기, 활쏘기, 토제목걸이 등 생활체험, 고기 굽기 등 기획 프로그램
		고인돌 소리를 담다	고인돌에 듣는 판소리 이야기를 주제로 판소리 배우기 등 무형유산 판소리를 활용한 복합체험프로그램

대표적인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중 고인돌 유적지에서 2019년 고인돌 생태문화제를 1박 2일로 개최하였는데, 크게 운곡습지 생태길 걷기, 생태관광 페스티벌, 고인돌 문화제가 진행되었다. 운곡습지 생태길 걷기는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과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인 운곡습지 탐방이 진행되어 고인돌과 주변 생태습지를 연계한 행사이다. 생태관광 페스티벌에서는 운곡람사르습지 주변 6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운곡습지의 역사와 옛 추억을 되돌아보는 축제로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고인돌 문화제에서는 다양한 선사문화를 체험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구석기시대 뗀석기 제작과 청동기시대 간석기제작 체험, 선사시대 최고의 사냥도구 목궁과 창의 체험, 선사시대 정육점, 가을밤 죽림선사마을 토킹어바웃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세계유산 축전을 비롯하여 소규모 축제 단위의 활용프로그램을 증진하여 대중의 문화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고인돌박물관과 고인돌 유적지의 공간을 연계한 교육과 체험, 특별전시 등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형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2025년 세계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보존하기 위해 개최된 세계유산 축전은 **자연과 공존, 인류의 영원한 시간! 갯벌과 고인돌**을 주제로 고창의 세계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고인돌 유적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교 수업 형태로 고인돌의 역사와 문화를 학습하는 '고인돌 세움학교', 고인돌 축조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고인돌 세움마당', 고인돌 계절을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특별기획전, 해설사와 함께 유적을 탐방하는 '고인돌 마실여행'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고인돌을 비롯한 거석문화유산의 가치와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성과가 있었다.

2026년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 활용 프로그램은 고창 고인돌과 함께 선사의 하루라는 주제로 세부적으로 **뚝딱이 고인돌 공방**에서는 깨진 토기를 복원해 화분 만들기, 고인돌 모양의 향기나는 석고 방향제 만들기, 돌가루로 그리는 고인돌 그림, 갈돌 갈판으로 곡물 가루 내기, 돌로 만든 리소폰으로 연주하기, 활쏘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고인돌 야생가족 선사캠프는 흙과 모래도 열심히 밟아 흙으로 동물도 만들어보고, 돌가루 물

감을 사용해 그림 그리기, 대바늘로 맘에 드는 옷 만들어 보기, 선사악기 체험도 해보고 갈돌 갈판, 목궁활동, 고인돌 산책과 함께 고창 판소리 버스킹과 꼬치에 고기를 끼워 화덕에 구워 먹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과 함께하는 1박 2일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유적지에서 하루를 보내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고창 고인돌 마을잔치는 선사시대 생활 및 예술 체험과 선사식 먹거리가 어우러진 통합형 프로그램으로 주민 참여형 마을장터를 결합한 소규모 축제로 기획되었다. 또한 선사 체험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선사 문화 콘텐츠의 차별성을 강화하여 고창 고인돌 유적을 대표하는 고인돌 축제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림 29. 2025년 세계유산 축전 프로그램



그림 30. 2026년 활용사업 중 뚝딱이 고인돌 공방

2. 활용 방안의 문제점과 향후 활용방향

1) 활용 방안의 문제점

아무리 뛰어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어도 보존에만 머무르는 유산은 과거의 유물에 불과하며, 대중과 공유되고 활용되어야 비로소 '살아있는 자산'이 된다. 즉 문화유산을 단지 훼손되지 않도록 가두어 두기만 한다면 이는 과거의 단절된 유적에 머무르게 되지만, 유산의 가치를 대중에게 알리고 교육·체험·지역사회 연계 등으로 활용할 때, 비로소 과거와 현재를 잇고 미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자 살아있는 문화자산으로 기능하게 된다.

결국 문화유산의 활용은 **"문화유산에 담긴 가치를 찾아내어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거나 변용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장호수 2006: 157). 최근 전국 곳곳의 매장유산 발굴조사 현장과 문화유적지에서 체험행사 및 문화유적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매장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해 매장유산의 중요성 인식 재고와 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널리 확산시키고 있다(국가유산청 2012).

문화유산의 활용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교육하고 홍보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유산이나 유물의 보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며, 이에 바탕을 두어 공동체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최근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문화유산을 관광이나 지역 홍보 등을 위한 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이다(윤덕향 2008: 59). 문화유산 활용 방안의 전제는 일반인이 보기에 무의미한

고인돌에서 의미와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 되어야 한다. 순천 고인돌공원과 양구 선사박물관, 여수 선사공원 등은 유적공원으로 조성되어 고인돌 교육의 장과 함께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이영문 2008: 107).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자연경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검증되지 않은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유적의 경관을 해치는 경우도 확인되는데, 고인돌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조성된 청동기시대 마을은 잘못 복원된 사례로 고창 고인돌군 경관이 형성될 당시 마을의 모습과는 이질적인 모습으로 이러한 잘못된 사례는 관람객들이 청동기시대 사회상을 이해하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김규정 2019)이 있었다. 최근 고인돌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조성되었던 청동기시대 마을은 철거되었으며, 지금은 잔디밭으로 조성되어 있다.

고인돌박물관에서는 향후 고인돌박물관와 죽림리 고인돌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죽림리 고인돌은 관람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도보는 물론 모로모로 기차를 통한 고인돌 관람도 가능하다. 그런데 문화유산의 보호차원에서 각각의 고인돌을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관람 동선은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고인돌박물관에서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죽림리·도산리 고인돌 이외에도 고창관 내에 분포하고 있는 많은 고인돌을 세계유산으로 확대등재 하기 위한 노력과 죽림리 고인돌과 채석장을 연계하는 방안, 박물관 활성화 방안, 보존 활용 방안과 이전복원된 고인돌의 관리 방안 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

현황상의 문제점 및 한계로 첫째, 내국인 및 계절 편중구조가 지적되는데 연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지만 외국인 비율은 0.5% 내외에 불과해 글로벌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도가 낮다. 또한 청보리밭 축제, 모양성제, 국화축제 등 특정 계절 이벤트와 학생 단체 관람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외부 충격 시 방문객 회복력이 저하되는 불안정성을 보인다. 둘째, 연속유산 간 광역 거버넌스가 미흡하다. 고창·화순·강화가 하나의 연속유산으로 등재되었음에도, 세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관리 체계나 공동 프로모션 플랫폼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 셋째, 관람 편의시설 및 정보 전달 부족하다. SNS 빅데이터 분석 결과 긍정적 이미지(88% 이상)가 우세하지만, 불편하다, 어렵다 등 관람 편의시설 부족과 정보 전달의 미흡함이 지적되었다(장충희 2025: 35~37).

2) 향후 활용방향

고창 고인돌 유적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고창 고인돌군 확대 등재추진 :** 2000년 고창·강화·화순 고인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죽림리와 도산리 일대 이외에도 고창군에는 많은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상금리 고인돌은 200여 기가 넘는 고인돌이 고대 교통로를 따라 분포하고 있으며, 죽림리 고인돌 다음으로 고창 관내에서 고인돌 최대 밀집지역이다. 따라서 추후 상금리 고인돌을 세계유산으로 확대 등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19년 **“고창 상금리 고인돌 세계유산 확대 등재 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세계유산으로 확대 등재를 위해서는 먼저 죽림리와 도산리 고인돌과 상금리 고인돌 나아가 고창 관내 고인돌군을 연계한 답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창 죽림리 고인돌군에서 운곡습지로 가는 길은 고대 교통로이다. 운곡습지는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리상으로도 가까운 곳에 있고, 람사르습지가 있는 운곡

일대에도 많은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어, 죽림리 고인돌과 운곡리 고인돌군을 연결하는 선사시대 옛길 투어 등 다양한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고창군에서는 상금리 고인돌군을 세계유산으로 확대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금리 고인돌 세계유산 확대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상금리 고인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과 경계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일부 고인돌은 행정구역상 영광군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영광군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죽림리 고인돌군과 채석장의 연계 : 1999년 죽림리 채석장이 조사된 이후 이렇다 할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죽림리 고인돌군과 채석장의 관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고인돌박물관에서는 2024년과 2025년 2차례에 걸쳐 채석장에 대한 정밀실측조사와 지표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채석장 가운데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K지점을 중심으로 관람로를 조성하였지만, 죽림리 고인돌 채석장은 회암봉에서 고성봉에 이르는 산줄기를 따라 지점만 다를 뿐 전체적으로 채석장이 연계되어 있고, 각 채석장 아래에는 고인돌군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죽림리 고인돌 채석장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고인돌군과도 연결이 되지 않아 별개로 다루어졌으나, 고인돌군과 채석장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2026년 고창 죽림리 고인돌과 채석장을 종합한 정밀 실측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추후 고인돌군과 채석장을 연계하여 상석의 채석부터 운반, 고인돌 축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준비하고 있다.

셋째, 고창 고인돌 경관복원을 위한 학술연구 본격화 : 고창군은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와 공동학술연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고창 고인돌 유적의 경관복원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2026년 국제학술대회 **"고창 고인돌 유적의 형성과 경관복원"**에서는 고인돌의 형식과 분포, 채석장 연계, 인지적 연구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고인돌 유적의 형성과 경관에 관한 연구 방향이 제시되었다. 경관 복원은 고창 고인돌 유적의 시대상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유적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고인돌 주변의 탐방 동선 및 안내시설 등을 정비하여 선사시대 고인돌군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관람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방문객에게 더 직관적인 세계유산 가치 공감대를 제공하고자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넷째, 국보순회전 개최를 통한 박물관 관람환경 개선 : 고인돌박물관은 작년 2025년 9월 대비 2026년 9월 60%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지방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유물을 전시 함으로써 지역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더욱 높은 수준의 전시를 보여줌으로써 지방박물관이 가진 중요 유물의 보유 한계를 극복하고자 그 일환으로 고창 고인돌박물관은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농경과 농경 관련 의례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주제로 국보순회전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청동기시대 농경사회의 모습과 고창 고인돌 유산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게 되었다.

다섯째, 보존관리 활용 방안 : 고창 죽림리 고인돌 관람 동선은 크게 모로모로 기차를 이용해서 전제적인 관람으로 끝이 나고 세부적인 관람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코스를 따라가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관람 동선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어 개별 고인돌을 보기 위해서는 관람동선이 쉽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관람동선 개발이 필요한데, 고인돌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동선이 필요하다. 다양한 각도에서 고인돌을 관람하고 하부구조까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면 고인돌

구조를 설명하는 데도 유리하지만,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영국 스톤헨지의 경우 안전선과 같은 시설을 열어, 행사가 있을 때 좀 더 가까이에서 스톤헨지를 볼 수 있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훨씬 더 유리하다. 앞으로 고창 고인돌도 가까이 접근해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다만 보존관리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한을 정하여 한정적으로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Ⅴ. 맺음말

고창지역 고인돌 유적은 고인돌 사회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고고 자료로 2000년 화순·강화 고인돌 유적과 함께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유적의 지속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해 현황조사와 활용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혹시 자연재해로 인해 문화유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다. 지금은 고창 고인돌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자들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학술대회를 실시하여 고창 고인돌이 갖는 위상과 문화적 우수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지속할 수 있는 향후 활용 방안으로 연속유산 통합관리 체계 구축과 K-컬쳐 및 K-헤리티지 브랜드 연계, 글로벌 홍보 및 세계 시민 공감대 형성, 디지털 기술과 스토리텔링 결합,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및 유산 환경용량 관리, 다양한 관람 동선 개발이 필요하다.

문화유산 관리의 대전제이자 최우선 원칙은 원형 유지와 보존이지만, 철저한 보존을 바탕으로 디지털 미디어아트, 체험 프로그램,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등 창의적인 활용이 접목되어야만 지역사회와 세계 시민이 유산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 문화유산은 관람객이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느끼며 소통할 수 있을 때 보존과 활용이 함께 이루어진다. 대중이 유산의 가치를 친숙하게 이해하고 향유할 때 자발적인 보존지지 기반이 공고해지며, 이는 유산을 미래 세대로 온전히 물려주는 원동력이 된다.

결론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산은 과거의 유물에 그치지만, 창의적으로 활용될 때 현재와 미래를 살리는 자산”이 된다는 시각은 세계유산 보존관리의 현대적 핵심 방향이다.

○ 참고문헌

강동석, 2022,「고창 고인돌의 입지와 분포 패턴」,『고창의 고인돌』上·下, 고창 고인돌 기록화사업 2022, 고창군·문화유산연구소 길.

강석주, 2026,「고창 고인돌 유적 군집 유형 재분류 및 입지 특성 분석」,『고창 고인돌 유적의 형성과 경관 복원』, 2026년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 국제학술회의, 고창군·완주문화유산연구소.

고창군·문화유산연구소 길, 2022,『고창의 고인돌』上·下, 고창 고인돌 기록화사업 2022.

고창군, 2024,『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정밀실측조사 보고서』, 3차 조사 보고서.

고창군, 2024,『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채석장 학술 및 정밀실측조사 보고서』.

고창군·완주문화유산연구소, 2026,『고창 고인돌 유적의 형성과 경관 복원』, 2026년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 국제학술회의.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6,『영산강유역 지석묘Ⅳ-고창·영광-』.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2025,『고창 죽림리 지석묘군(Ⅱ지구 6군)발굴조사보고서』.

군산대학교박물관, 2009,『고창군의 지석묘』.

김규정, 2019,「김해 구산동 지석묘의 보존과 활용 방안」,『묻힌 표상, 드러나는 가치 구산동 고인돌』, 김해 구산동 지석묘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김재원·윤무병, 1967,『한국 지석묘 연구』,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6책.

김종일, 2026,「거석 기념물 관점에서 본 고창 고인돌의 경관 형성과 인식」,『고창 고인돌 유적의 형성과 경관 복원』, 2026년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 국제학술회의, 고창군·완주문화유산연구소.

류춘길, 2026,「고창 고인돌 유적 주변 충적평야 일대의 고환경 복원을 위한 예비조사」,『고창 고인돌 유적의 형성과 경관 복원』, 2026년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 국제학술회의, 고창군·완주문화유산연구소.

문화유산마을, 2022,『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시굴조사(1차) 약식보고서』.

신경숙, 2012,「고인돌 축조기술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야외고고학』13호, 한국매장문화재협회.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92,『고창, 죽림리일대지석묘군 지표조사보고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93,『고창 죽림리지석묘군 발굴조사보고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97,『서해안고속도로(군산-고창간)건설사업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5,『문화유적분포지도-고창군-』.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6,「죽림리 지석묘」,『고창의 주거지Ⅰ』.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5,『문화유적분포지도-고창군-』.

원광대학교박물관, 2009,『고창, 죽림리 재해 고인돌 발굴조사보고서』.

윤덕향, 2008,「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호남문화재연구원.

윤호필, 2022,「고창 고인돌의 발굴과 성격」,『고창의 고인돌』上·下, 고창 고인돌 기록화사업 2022, 고창군·문화유산연구소 길.
윤호필, 2026,「고창 죽림리 지석묘 축조석대의 기술적 선택과 조달전략-석재의 선택과 운반-」,『고창 고인돌 유적의 형성과 경관 복원』, 2026년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 국제학술회의, 고창군·완주문화유산연구소.
이영문, 2008,「지석묘유적의 보존 현황과 활용 방안」,『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호남문화재연구원.
장호수, 2006,「문화재 활용론-활용의 개념과 범주에 대하여-」,『인문콘텐츠』7, 인문콘텐츠학회.
장충희, 2025,「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의 보존관리 현황과 향후 활용 방안」,『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국제학술대회, 국가유산청·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4,『고창 계당리 지석묘』.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8,「고창 도천리 지석묘」,『고창 도천저수지 내 지석묘 발굴조사』.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8,『고창 운곡리유적』.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8,『고창 도천리 지석묘』.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8,『고창 운곡리유적』.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20,『고창 봉산리 지석묘』.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20,『고창 월산리(548-14)번지 외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부지 내 정밀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21,『고창 해리-부안 도로시설 개량공사 부지 내 문화재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전북대학교박물관, 1984,『고창지방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전북대학교 박물관, 2000,『고창지구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전북대학교박물관, 2002,『고창 암치리 유적』.
전북문화재연구원, 2020,『고창 부곡리 강촌 고인돌』.
전영래, 1984,『고창, 아산지구지석묘발굴조사보고서』, 전주시립박물관.
전영래, 1993,『고창 죽림리지석묘군 발굴조사보고』,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전주대학교박물관, 2002,『서해안 고속도로(군산-고창)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고창 예지리·우평리-』.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0,『고창 도산리 고인돌군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2,『고창 고수저수지(조산제) 내 문화재 분포·확인조사』.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4,『고창 고수지구 둑높이기사업 부지 내 문화재 발굴(정밀)조사 약식보고서』.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5,『고창 금평리·왕촌리·고성리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8,『고창 두어리 유적』.
조선문화유산연구원, 2022,『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시굴조사(2차) 약식보고서』.
하문식, 2026,「세계 거석문화속의 고창 고인돌」,『고창 고인돌 유적의 형성과 경관 복원』,

2026년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 국제학술회의, 고창군·완주문화유산연구소.
호남문화재연구원, 2001,『사적 제391호 고창 고인돌유적지표조사 보고서』.
호남문화재연구원, 2003,『고창 계산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호남문화재연구원, 2006,『고창 부곡리 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2013,『고창군 무장면 원촌리지석묘 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호남문화재연구원, 2019,『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보존실태조사』.

「고창 죽림리 고인돌군 현황과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문

김진환
(민족문화유산연구원)

손아라 선생님의 발표는 고창 죽림리, 도산리, 상갑리 고인돌군 등을 대상으로 그동안 이루어진 조사·실측 및 이전·복원 현황을 정리하고, 세계유산 등재 이후 진행된 학술대회와 각종 활용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고창 고인돌의 보존과 활용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단순히 죽림리 고인돌군 자체에 한정하지 않고, 고창지역에서 조사된 고인돌의 이전·복원 사례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고창 고인돌 유적은 1990년 조사 당시 442기에서 2019년 507기로 조사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지속적인 기록화와 정밀실측을 통해 유적의 실태가 갱신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이후 3D 스캔, 포토그라메트리, 훼손도 조사, BIM 데이터 구축 등 디지털 기록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향후 고인돌의 보존관리와 연구 기반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창 고인돌 유적의 조사 성과가 축적되면서 개별 유적의 현황을 넘어 고인돌군의 공간적 분포와 주변 경관, 채석장과의 관계, 디지털 자료 구축 등으로 연구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조사와 학술대회를 통해 많은 자료와 성과를 축적하고 있는 고창 고인돌 유적에 대해서 토론자로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고창 고인돌 유적의 디지털 자료화의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발표문을 보면 국가유산청에서는 2022년부터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기조 아래 국가지정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창 고인돌 유적은 국가유산이자 세계유산으로 가치가 보존 전승되어야 한다고 인정받아 디지털 기록화 및 정밀실측, 보존현황 조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까지 구축된 디지털 자료를 통해 기존 조사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고인돌의 축조 방식, 석재 가공과 운반, 고인돌 간의 공간적 관계 등에 대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직 그러한 해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재의 국가지정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화 사업은 기록과 보존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검증 가능한 고고학적 가설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사업인지 그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드리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첫번째 질문에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고창 고인돌 유적은 2019년 이후 국내외 학술대회를 통해 고인돌의 형식과 구조, 축조집단의 성격, 석재의 조달과 가공기술, 세계 거

석문화와의 비교 등 다양한 연구 성과와 과제가 제시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석재의 기술적 선택과 조달전략, 축조과정, 경관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형식과 분포 중심의 연구에서보다 구체적인 축조 기술과 사회적 행위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학술대회를 통해 제시된 연구과제들이 실제 조사·연구 성과로 얼마나 이어졌으며, 고창 고인돌 유적의 학술적 가치를 새롭게 규명하는 데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동안의 학술대회 성과를 종합할 때, 기존에 강조되어 온 밀집분포와 다양한 형식의 공존을 넘어 고창 고인돌 유적에서 새롭게 드러난 학술적 가치는 무엇이며, 향후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연구과제는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속가능한 활용의 문제점과 향후 활용 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발표문에서는 고창 고인돌 유적의 활용과 관련하여 내국인과 특정 계절에 편중된 방문구조, 외국인 방문객의 낮은 비율, 관람 편의성과 정보 전달의 부족, 연속유산 간 통합관리 체계의 미흡함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활용 방향에서는 세계유산 확대 등재, 채석장과 고인돌군의 연계, 학술연구의 확대, 국보순회전 개최, 관람동선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하고 있어 앞서 지적한 문제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도 유적의 가치를 높이는 데 의미가 있지만, 새로운 사업의 추진이 곧 지속가능한 활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 활용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방문객의 다양화와 상시적인 교육·해설 체계 구축, 지역사회 참여 등 실제 활용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세계유산 확대 등재의 추진 방향과 활용적 가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창군에서는 현재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죽림리·도산리 일대뿐 아니라 상금리 고인돌군 등을 대상으로 확대 등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학술조사와 보존·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대 등재는 기존 세계유산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고창지역에 분포하는 고인돌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확대 등재 자체가 유적 활용의 목적이 될 수는 없으며, 기존 세계유산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이를 실제 활용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이 하나의 연속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창지역의 확대 등재는 전체 세계유산의 가치 및 보존관리 체계와도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고창 상금리 고인돌군 등의 확대 등재가 기존 고창 고인돌 유적의 학술적 가치와 활용에 어떠한 차별성을 더할 수 있으며, 연속유산 전체의 통합관리와 공동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2024년 고인돌군 채석장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죽림리 고인돌군과 채석장의 연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인돌 채석장에 대한 연구는 고인돌군과 채석장의 관계, 축조에 사용된 석재의 확보 등 고인돌 축조 집단의 기술적인 역량과 노동력 등을 이해하는 자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까지 연구 경향를 보면, 지질학적으로 유사한 암석이 분포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채석장이 특정 고인돌의 석재 공급원인지? 채석장과 고인돌 사이의 공간적 근접성 또는 이동의 편리성이 실제 조달 관계를 의미하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 공급지(채석장) 가운데 특정 산지를 선택한 이유가 설명이 가능한지 그리고 석재의 지질학적 산지와 청동기시대 고인돌 축조와 관련한 조달 체계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발표 4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의 학술적 가치와 활용 방안

이재언

(민족문화유산연구원)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의 학술적 가치와 활용 방안

이재언
(민족문화유산연구원)

목차

Ⅰ. 머리말
Ⅱ.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현황
Ⅲ.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의 학술적 가치
Ⅳ. 학술적 가치의 활용 방안
Ⅴ. 맺음말

Ⅰ. 머리말

화순 효산리·대신리 일대 지석묘는 1995년 지표조사 과정에서 처음 확인되었고, 지석묘의 밀집분포가 보고되면서 학술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목포대학교박물관 1996, 1998). 이후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순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일대에 대한 정밀지표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사 결과 13개 군에서 지석묘 287기와 추정 지석묘 309기 등 총 596기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목포대학교박물관 1999).

유적은 1998년 사적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으로 지정되었으며, 2000년 제2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강화·고창 지석묘 유적과 함께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특히 지석묘의 밀집도가 높고 보존 상태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채석장이 확인되어 석재의 채석과 운반, 축조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교육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조사·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의 학술적 가치를 정리하고, 활용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현황



그림 1.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일원 수계분포도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이 위치한 화순군은 호남정맥의 영향으로 산지의 비중이 높고, 수계는 영산강 수계와 섬진강 수계로 구분된다. 유적은 영산강 지류인 지석천 유역에 자리하며, 지석천 주변의 평지에서 효산리와 대신리를 연결하는 계곡부 및 산지 사면을 따라 분포한다.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은 동-서 길이 약 2㎞ 구간에 걸쳐 분포하며, 보검재(寶劍峙, 188.5m)를 경계로 효산리와 대신리 두 구역으로 구분된다. 유적에서는 하부구조 49기, 지석묘 238기, 추정 지석묘 309기 등 13개 군 596기가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

화순 도곡면 효산리 일대에서는 지표조사를 통해 980개의 석재가 확인되었으며, 이후 정밀지표조사에서는 총 1,124개의 석재가 조사되었다. 효산리에서는 277기(하부구조 25기, 지석묘 133기, 추정 지석묘 119기)로 보고되었으며, 지석묘군은 해발 45~90m 사이의 구릉 기슭과 계곡 주변에 밀집하여 분포한다. 모두 7개 군(A~G군)으로 구분되었다.

춘양면 대신리 지석묘군의 정밀지표조사에서는 총 3,543개의 석재가 조사되었으며, 319기(하부구조 24기, 지석묘 105기, 추정 지석묘 190기)가 보고되었다. 계곡 평지 말단부의 해발 65~70m 지점에서 계곡 중턱의 해발 120~125m 지점에 이르는 약 1㎞ 구간의 구릉과 산기슭을 따라 분포하며, 모두 6개 군(A~F군)으로 구분되었다.

각 지석묘군 주변에는 채석장으로 추정되는 지점이 있으며, 산지 상부에는 채석이 가능한 암반층이 확인된다. 추정 채석장에서는 암반과 괴석형 석재가 노출되어 있으며, 주변에서도 지석묘 상석과 유사한 형태의 석재가 다수 확인된다.

1) 화순 효산리·대신리 지석묘군의 통계에서 하부구조와 추정 지석묘의 기수는 보고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하부구조만 확인된 수량과 조사 당시 확인된 석재 수량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유적의 기초자료인 목포대학교박물관, 1999, 『화순 지석묘군』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해당 보고서에서 지석묘의 판별 기준은 ① 석실이나 지석의 유무, ② 상석의 채석 및 치석흔 등 일정한 형태, ③ 상석 아래 잡석의 유무, ④ 상석의 수평면, ⑤ 일정한 거리와 방향성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부구조와 외형적 형태와 지형적 특징을 중심으로 지석묘, 지석묘 추정 상석, 자연석으로 분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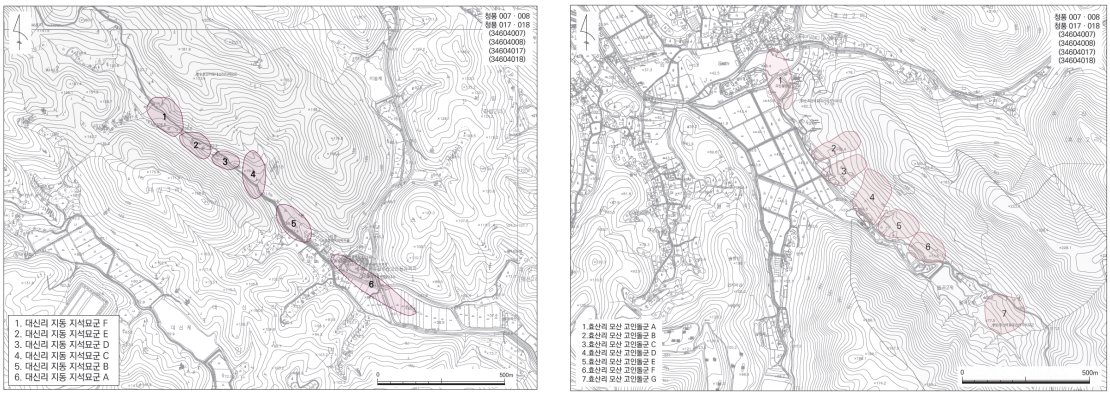


그림 2.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분포현황
(左:효산리, 右: 대신리,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20 인용)

1. 조사 연혁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은 199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지표조사를 통해 지석묘 분포가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목포대학교박물관 1996, 1998; 조선대학교박물관 1999). 초기 조사에서는 효산리 모산마을과 월곡2제 일대, 대신리 지동마을 주변으로 다수의 지석묘가 확인되었고, 지석묘의 군집과 분포양상에 따라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을 각각 가~마군으로 구분·보고하였다. 이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정밀지표조사에서 지석묘의 분포 범위와 군집별 수량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었고, 지석묘의 군집 및 분포양상을 고려하여 효산리 7개 군과 대신리 6개 군으로 구분되었다.

효산리와 대신리의 각 조사마다 군집과 수량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지만, 이는 조사 범위와 지석묘 판정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문화유적분포지도-화순군-』(전남대학교박물관 2002)에서는 앞선 조사 성과를 종합하여 각 군집의 범위와 분포양상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효산리 월곡2제와 대신리 지동 일대의 대규모 지석묘군이 연속적인 분포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두 지역은 보검재를 중심으로 하나의 지석묘 분포권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도 현황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기존에 파악된 분포범위와 군집 체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 성과가 정리되었다.

표 1. 화순 효산리·대신리 일원 지석묘 보고 현황표

구 분		전남의 고대묘제 (1996)	화순군 문화 유적 (1999)	한국 지석묘유적 종합조사·연구 (1999)		화순 지석묘군 (1999)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2)		세계유산 고인돌 보존관리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보고서(2011)		영산강 유역 지석묘 I (2015)		화순의 고인돌 (2020)		
		능주목의 역사와 문화 (1998)		지석묘 (기타)		지석묘	추정	기타	하부 (석실)	추정	지석묘 (모니터링)	추정	지석묘	추정	지석묘	추정	기타
효산리	가	7	120여기	8(1)	A	7	–	1	25	133	8	0	133	119	7	–	1
	나	20여기		8(수십기)	B	7	17	1			7	17			7	17	1
	다	10여기		27	C	5	10	1			5	10			5	10	1
	라	20여기		18	D	20	26	1			20	26			20	26	1
	마	40여기		39	E	44	20	1			44	20			44	20	1
	바	20여기 이상		70여기	F	52	28	2			52	28			52	28	2
	사	– –	–	40	G	22	18	1			22	18			22	18	1
대신리	가	1	1	17	A	21	–	–	22(2)	105	37(40)	0	105	190	21	–	–
	나	17	12	25	B	14	11	–			14	11			14	11	
	다	4	7	39(3)	C	37	101	1			39	101			37	101	–
	라	12	5	36	D	19	17	–			19	17			19	17	–
	마	50여기	50(1)	45	E	29	16	–			29	16			29	16	–
	바	15	1	52	F	7	45	–			7	45			7	45	–
	사	1															

표 2. 화순 효산리・대신리 지석묘군 일원 조사 현황

연번	주요 내용	비고
1	・ 화순지역 지석묘 현황: 145개소 1,186기(영산강유역 130군 1,107기 / 보성강, 섬진강유역 15군 79기) - 효산리 모산 지석묘(월곡 2제 모정주변 6기 2열 배치 /효산 저수지 뒤 7기) - 효산리 월곡 2제 지석묘군(신자료) 가~바군 총 117기 (가) 대형지석묘 1기(570×290×310㎝, 기반식) 및 주변 6기 - 대신리 지동 지석묘군(신자료) 가~사군 약 100기 **【목포대학교박물관, 1996, 『전남의 고대 묘제』】**	지표
2	・ 지석강 유역 지석묘 현황: 93개 군 697기(영산강 상류지역 중 가장 밀집된 분포) ・ 도곡면 월곡리・효산리~춘양면 대신리 지동 일대 - 골짜기를 따라 약 200기 군집 분포, 형식: 기반식・개석식, 대곡리・대신리에서 대형지석묘 확인 - 대신리 지동 지석묘군(7개소) 100기, 효산리 지석묘군 총 4개소 22기 **【목포대학교박물관, 1998, 『능주목의 역사와 문화』】**	
3	・ 효산리 지석묘군: 총 4개군 20기 / (가) 7기 (나) 7기 (다) 3기 (라) 3기 ・ 효산리 지석묘군 월곡 2제 고인돌군: 약 120여기, 총 6개 군 - 위치: 효산리 모산마을에서 월곡리 월곡 제2저수지 방향 500여m지점~저수지 주변 ・ 대신리 지석묘군: 총 6개군 약 76기 **【조선대학교박물관, 1999, 『화순군의 문화유적』】**	
4	・ 조사범위: 도곡면 효산리~춘양면 대신리를 연결하는 보검재 계곡 일대 ・ 분포현황: 13개군 596기(효산리 277기, 대신리 319기) ・ 조사성과: 효산리・대신리 일대 지석묘군의 전체 분포와 군집 범위 확인, 대표 지석묘 42기 도면 작성 **【목포대학교박물관, 1999, 『화순 지석묘군』】**	
5	・ 입지・분포: 도곡면 효산리 모산마을~춘양면 대신리 지동마을을 잇는 보검재(188.5m) 계곡 일대 ・ 분포: (효산리) 해발 45~90m / 비고 약 45m, (대신리) 해발 65~125m / 비고 약 60m ・ 분포 수량: 총 596기 - 효산리 지석묘: 133기, 추정 지석묘: 119기, 하부구조: 25기 총 277기 - 대신리 지석묘: 105기, 추정 지석묘: 190기, 하부구조: 24기, 총 319기 **【전남대학교박물관, 2002, 『문화유적분포지도-화순군-』】**	
6	・ 전체 현황: 총 13개 군 596기(지석묘: 287기, 추정 지석묘: 309기) - 위치: 도곡면 효산리 모산마을~춘양면 대신리 지동마을 - 입지/분포: 보검재 양쪽 계곡의 동쪽 산기슭을 열상 분포 ・ 효산리 지석묘군 - 위치: 도곡면 효산리 모산마을~월곡2제 일대 - 분포: 해발 45~90m, 총 277기 이상(총 7개 군집) - 구분 기준: 소규모 계곡, 구릉 기슭의 지형, 지석묘 밀집 정도 ・ 대신리 지석묘군 - 위치: 춘양면 대신리 지동마을 및 주변 농경지 - 분포: 세장한 계곡 평지 말단부~계곡 중턱, 약 1㎞, 총 319기 이상(총 6개 군) - 구분 기준: 석재의 군집 양상, 산지・계곡 지형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5, 「화순 효산리・대신리 지석묘군」, 『영산강유역 지석묘Ⅰ』】**	
7	・ 대신리 지동 지석묘군 - 분포 범위: 계곡 평지 말단부~계곡 중턱, 약 1㎞, 총 6개 군	

	- 구분 기준: 석재의 군집 및 계곡 지형 - 지석묘 관련 석재: 319기 이상(하부구조: 22기, 상석 판단: 105기, 석실: 2기, 상석 추정: 약 190기) - 특징: 지석묘 및 지석묘 상석으로 사용하기 위해 채석・이동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재 다수 분포 ・ 효산리 모산 지석묘군 - 위치: 도곡면 효산리 모산마을 및 월곡2제 방향 산기슭 - 분포 범위: 해발 45~90m, 총 7개 군 - 구분 기준: 소규모 계곡, 구릉 기슭의 지형, 지석묘 밀집 정도 - 지석묘 관련 석재: 277기 이상(하부구조: 25기, 상석 판단: 133기, 채석・이동된 추정 상석 등: 119기)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20, 『화순의 고인돌』】**	
8	【대신리 지석묘 가・나・다】 ・ 가군(대신리 지동 A군): 총 35기 발굴 → 상석 20기, 하부구조 22(35)기, 지석묘 6기/경지정리 과정에서 상당수 상석 이동) - 전체적으로 계획된 묘역 조성 가능성 - 기반식, 위석형, 석곽・석관형 등 다양한 지석묘 및 석실 구조가 동일 공간 공존 - 부석(18~21호, 2기씩 쌍을 이루며 배치, 방형-원형)・적석(25,28~31호)시설 및 연접형태 확인 - 출토유물: 가락바퀴 2점, 석검편, 석촉편 등 출토 - 대신리 가지구 27호의 2500±80년(중심연대 기원전 555년, 보정연대 720~390년) ・ 나군(대신리 지동 C군/감태바위): 지석묘 3기(24・28・29호) 주변 및 채석장(감태바위 일대) 시굴 - 탁자식과 기반식 확인, 29호: 지상2형(지상석곽형) / 채석장: 석재의 채석과 축조과정 검토 - 지석묘와 인접 채석장의 관계를 통해 석재 확보 및 축조과정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다군(대신리 지동 F-007호/핑매바위): 채석장에서 지석묘에 이르는 석재의 운반・축조 과정 검토 - 기반 조성 후 지석묘 축조(묘표석 또는 제단의 기능 가능성 제기)	시・발굴조사
9	【화순 효산리・ 대신리 지석묘 발굴(시굴)조사】 1차 ・ 조사대상: 5개 지구(가~마지구), 괴바위, 관청바위, 핑매바위 주변 정비 ・ 조사현황 - 가지구(고분 1기, 수혈유구 1기), 나지구(2기:도-B-001호, 002호), 다지구(1기 : 도-C-002호), 라지구(5기: 도-F-041, 043 ,048, 049 ,052), 마지구: 1기(도-F-007) ・ 조사내용: 총 9기 지석묘,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1기와 고분 1기, 성격미상유구 1기 확인 - F-043호: 남쪽에서 구획석 확인, C-002호 주변: 무문토기 저부편 2점, 유경식석촉편 1점 출토 - 지형을 따라 열상 배치, 대형 상석을 중심으로 주변 지석묘 배치 양상 확인 - 대형 상석의 경우 상석의 형태에 맞추어 지석을 조정・배치한 것으로 추정	
10	【화순 효산리・대신리 지석묘 발굴(시굴)조사】 2차 ・ 조사대상: 효산리 달바위군・대신리 마당바위군・감태바위군 총 3개군 26기와 채석장 1개소 ・ 조사목적: 지석묘 주변 정비, 외형구조 파악 및 기존 지형 복원 자료 확보 ・ 조사내용 - 효산리 모산 G군(달바위군/전체: 22기, 배치: 북서-남동, 2~3열) : 8기(1・1-1・3・4・4-1・5・6・7) 조사, 매몰된 상석 하부에서 지석확인, 기반식 지석묘로 파악 - 대신리 지동 E군(마당바위/전체 29기, 배치: 북서-남동, 2~3열) : 7기(6・8・9・11・12・13・30) 조사, 대형 상석을 가진 지석묘에서 여러 매의 지석이 상석을 받치는 구조 확인, 석촉, 무문토기편, 방추차, 석착, 석재편 등	

<table>
<tr><td></td><td>- 대신리 지동 C군(감태바위군/전체: 39기, 2~3열 군집) 및 채석장
: 지석묘 4기(24・27・31・32호), 추정 지석묘 7기(11・13・16・18・19・20・추정 202) 조사, 추정 지석묘 하부시설 미확인</td><td rowspan="5">시・발굴조사</td></tr>
<tr><td>11</td><td>【화순 효산리・대신리 지석묘 발굴(시굴)조사】 3차
・ 조사대상: 효산리 가지구 인접지역((현) 선사체험장부지)
・ 조사결과: 유구 미확인, 트렌치 조사 과정에서 회청색경질토기편과 분청자기편 수습(외부 유입)</td></tr>
<tr><td>12</td><td>【화순 효산리・대신리 지석묘 발굴(시굴)조사】 4차
・ 조사대상: 전시관 건립에 따른 대신리 A군(발굴지) 주변, 채석장 추정지 (춘-F-007 주변)
・ 조사결과
- 전시관 건립부지 유구 미확인
- 채석장 추정지
: 길이 15m 내외 적석시설 확인, 핑매바위 북서쪽 능선 폭5m, 길이 15~20m 규모의 적석과 석렬 확인
→ 적석 및 석렬시설은 지석묘 상석의 운반 및 묘역 정비 과정과 관련된 흔적으로 추정</td></tr>
<tr><td>13</td><td>【화순 효산리・대신리 지석묘 발굴(시굴)조사】 5차
・ 조사대상: 총 3개 지점
- 연구교육 및 전시공원지구 부지(도-A군), 춘-C-23・24호 지석묘, 도-A-008호 고분
・ 조사결과
- 도-A군: 지석묘 총 12기 확인(기존 7기 보고 외 상석 5기 추가 확인),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
- 春-C군: 23호(기반식, 지석 및 묘역시설 확인, 유경식석검 출토),・24호(개석식)</td></tr>
<tr><td>14</td><td>【추정 지석묘 학술시굴조사】
・ 조사대상: 효산리・대신리 일대 6개 지구, 추정 지석묘 309기(효산리 119기, 대신리 190기)
・ 조사결과: 추가적인 유구나 유물은 미확인
- 기존 추정 지석묘 309기를 구조적 특징과 석재의 형태를 기준으로 3개 범주로 재분류
: 지석묘 84기, 상석 추정 182기, 소형 석재 43기
<table>
<tr><th colspan="4" rowspan="2">구분</th><th colspan="2">수량</th></tr>
<tr><th>효산리</th><th>대신리</th></tr>
<tr><td rowspan="3">A</td><td rowspan="3">지석묘</td><td>A①</td><td>뚜껑돌이나 무덤방 확인</td><td>6</td><td>7</td></tr>
<tr><td>A②</td><td>받침돌 확인</td><td>3</td><td>9</td></tr>
<tr><td>A③</td><td>비교적 평탄한 구릉이나 산사면에 수평을 이루면서 위치</td><td>19</td><td>40</td></tr>
<tr><td rowspan="2">B</td><td rowspan="2">지석묘 상석 추정</td><td>B①</td><td>채석흔, 치석흔 등이 확인되는 경우</td><td>12</td><td>30</td></tr>
<tr><td>B②</td><td>원형·타원형·장방형 형태로 다듬어진 경우</td><td>59</td><td>81</td></tr>
<tr><td>C</td><td colspan="2">소형석재</td><td>덮개돌 및 무덤방의 재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td><td>20</td><td>23</td></tr>
<tr><td colspan="4">총계</td><td>119</td><td>190</td></tr>
</table></td></tr>
<tr><td>15</td><td>・ 화순 도곡면 평리 일원 지표조사(2015년 유곡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화순 효산리 모산유적: 효산리 모산 지석묘 라군 일대
- (1지점) 지석묘 1기, 석관 2기, (2지점) 지석묘 3기, 말각방형 주거지 1기, 수혈 1기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7, 『화순 효산리 모산유적』】
・ 화순 월곡리 669-4번지: 현상변경 1구역 내 위치, 조사 결과 유구・유물 미확인
【전남문화재연구원, 2019, 『화순 월곡리 주택신축부지내 유적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 화순 백암리 백암유적: 지석묘 상석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하부구조 4기 조사
【영해문화유산연구원, 2022, 『화순 백암리 백암유적』】</td><td>기타</td></tr>
</table>

2. 조사 성과

화순 효산리·대신리 지석묘군 일원에서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지석묘는 지동 지석묘 35기, 달바위 주변 지석묘 1기, 春-C-23·24호 지석묘 2기, 道-A-007~12호 지석묘 6기, 모산 지석묘 라군 3기 등 총 47기이다.

1999년 대신리 A군에 대한 발굴조사 이후 2003년부터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후속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상석 주변의 하부구조와 관련 시설을 확인하는 제한적인 조사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개별 지석묘의 구조와 지석묘군 전체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1) 입지와 분포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지석묘의 입지는 마을 앞 평지에서 산기슭과 고갯마루까지 다양하지만, 각 군집에서 지석묘의 배치는 등고선 방향을 따라 2~3열을 이루며 분포하는 공통적인 양상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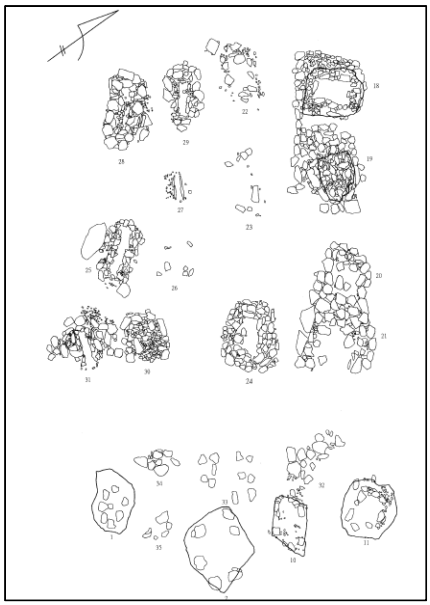


그림 3. 대신리 지석묘 가군 배치도

대형 상석을 가진 기반식 지석묘는 군집에 따라 입지상 차이를 보이며, 크게 단독, 군집 외곽, 군집 내부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단독 입지는 효산리 괴바위와 대신리 핑매바위가 대표적이다. 괴바위는 주변 평지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하며, 핑매바위[2]는 대신리에서 보검재로 이어지는 계곡의 상부에 자리한다.

군집 외곽에 치우쳐 위치하는 사례로는 효산리 달바위군 1호, 대신리 마당바위군 6호, 감태바위군 31호, 대신리 지동 11호 등이 있다. 이러한 예로는 순천 우산리 곡천, 화순 벽송리, 이십곡리, 고흥 장수리 등에서 확인된다. 대체로 군집의 동쪽에 위치하지만, 효산리 달바위군에서는 대형 지석묘가 서쪽에 치우쳐 차이를 보인다.

군집 내부에서 대형 지석묘가 집중되는 사례는 효산리 관청바위군에서 확인된다. 관청바위 동쪽을 중심으로 대형 상석을 가진 기반식 지석묘들이 집중분포한다. 이와 같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경우로는 영광 단덕리 두암, 곡성 동암리, 광양 석사리 명암 등이 있다(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06).

발굴조사가 진행된 대신리 A군(가지구) 지석묘 군집의 공간구성에 대해서 군집 내 지석묘의 형태적 차이를 동시기로 전제하여, A군 2호와 23호에 대해서는 상징적 기념물로 추정하였다(이영문 2002). 반면 기반식과 위석형이 주로 분포하는 범위와 그 북쪽으로 다양한 형식이 함께 확인되는 양상을 근거로, 군집 내 차이를 지석묘의 시기적 차이와 관련지어 묘역의 공간구성이 달

2) 핑매바위의 경우 주변 일대를 내려다 보는 단독 입지로 주목받았으나, 인접하여 지석묘군이 확인되는 등 다른 지석묘 군집과 동일하게 군집 외곽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라지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조진선 2004: 43; 황재훈 2006: 61).

2) 유구

(1) 지석묘 형식

지석묘의 형식은 탁자식, 기반식, 개석식, 위석식이 모두 확인되며, 개석식과 위석식의 비중이 높다. 탁자식 지석묘는 春-C-24호이다. 석실의 벽석이 상석을 받치는 지상 석실형 구조로, 벽석은 동·서·남벽 3매만 잔존한다. 기반식 지석묘는 春-C-23호이다. 상석 아래에서 지석 1매가 확인되었다. 개석식 지석묘는 대신리 가 25호이다.[3] 위석식 지석묘는 상석 아래 지석을 4~11매의 지석을 배치한 구조로 확인된다. 가지구 1·2·10·11호이다. 이외 대신리 가지구 27호처럼 개석을 3중으로 덮은 구조도 확인된다.[4]

(2) 상석[5]

효산리 지석묘군에서는 158기의 상석이 분류 가능하다. 장축은 100~600㎝로 평균 256.8㎝, 중앙값 240㎝이며, 단축은 평균 163.8㎝, 두께는 71.6㎝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타원형·장타원형 순으로 많고, 단면형태는 장방형이 99기(63.9%)를 차지한다. 장축방향은 북서-남동이 가장 많다.

대신리 지석묘군에서는 130기의 상석이 분류 가능하다. 장축은 90~730㎝로 평균 226.1㎝, 중앙값 200㎝이며, 단축은 평균 148.7㎝, 두께는 60.5㎝이다. 평면과 단면 모두 장방형의 비중이 높으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과 남-북 방향이 중심을 이룬다.

두 지역을 비교하면 효산리에서는 장축·단축·두께의 평균값이 모두 높아 상석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며, 대신리에서는 최대 규모의 상석이 확인된다. 상석 형태는 두 지역 모두 장방형이 중심을 이루는데, 효산리는 형태와 장축방향이 비교적 다양하고 대신리는 장방형과 북서-남동 방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3) 하부구조[6]: 지석, 묘역, 매장주체부

기반식지석묘 春-C-23호에서는 지석 1매가 확인되는 반면, 대신리 가 1·2호는 6매, 10호 7매, 11호에서는 11매의 지석이 확인된다. 위석식으로 보고된 경우는 4~11매의 지석을 배치한

---

3) 대신리 가지구에서는 상석이 대부분 이동되어 확인되었다. 해당 군집 내 하부구조만 확인되는 유구는 개석식으로 추정되나 상석과 하부구조의 정합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4) 27호 하부구조는 가지구 배치에서 23호 위석식 서측에 위치한다. 군집 내 배치양상과 잔존 상태로 볼 때 27호는 2중 개석에 상부는 석재로 덮은 묘역식 지석묘로 추정된다.

5) 목포대학교박물관, 1999, 『화순 지석묘군』에 보고된 상석을 기준, 장축·단축이 확인되는 상석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6) 하부구조는 지석, 묘역, 매장주체부를 지칭한다. 지석묘군의 지형과 공간분포 분석을 통해 매장주체부의 축조 재료는 할석→혼축→판석, 묘역은 적석→위석으로 변천한다. 섬진강유역에서 지석묘 입지는 충적평지나 구릉대지에서 구릉 사면과 고갯마루로 입지가 확대되며 변화한다(황재훈 2006: 61~65, 2012: 118). 대신리 지석묘의 경우 1기(가 30호), 3기(가 18호), 4기(C군 28호)로 위치되는데 지석묘군의 입지와 유구의 변화상은 연동된다. 이는 남해안지역과 유사한 변천상으로 송국리문화단계에서 보이는 전개과정으로 이해된다. 다만 최근 지역별 전개양상이 확인되는바, 향후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의 축조 순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구조가 확인된다. 지석묘의 형식에 따라 매수와 배치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현재 조사자료를 통해 지석의 규모와 매수 간 관계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석은 상석의 하중을 지탱하거나 지반을 보강 또는 지형적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기능적 시설로 외형적으로 상석이 웅장한 가시적인 측면에서 주목받았고(이영문 2002), 지석은 상석이나 석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지석묘의 형식 변천을 관찰하는데 중요한 구조적 속성 중 하나로 이해된다(황재훈 2012).

묘역시설은 일정한 범위에 판상석이나 납작한 석재를 깔거나 쌓아 조성한 시설이다. 효산리 달바위군 1호·7호와 대신리 마당바위군 6호(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06), 春-C-23호이 대표적이다. 해당 지석묘는 모두 기반식 지석묘이며, 효산리 달바위 1호는 구획석과 부석, 효산리 달바위 7호· 대신리 마당바위 6호 구획석, 春-C-23호는 묘역만 확인된다. 묘역을 서로 잇대어 조성한 사례도 대신리 가지구 18·19호, 20·21호에서 확인되며, 이와 유사한 연접 양상은 남해안지역에서도 나타난다.

묘역시설 또한 지석처럼 상석의 하중을 분산하거나 지반을 보강하는 구조적 기능, 또는 개별 묘역의 범위를 표시하는 시설로 이해되었다(이영문 2002). 묘역의 형식과 규모는 시·공간적 차이를 반영하며, 시설의 유무 역시 지석묘의 시간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속성으로 파악되고 있다(황재훈 2006: 50~54). 지역과 집단에 따라 묘역의 양상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화순 대신리 지석묘에서 확인되는 포석형 묘역은 적석형 묘역에서 무묘역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중간단계일 가능성이 있다.

잔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유구의 매장주체부는 석관형, 석곽형, 혼축형으로 구분된다. 기반식 지석묘에서는 석관형의 하부구조가 확인된다. 장방형의 판석형 할석을 이용하였으며, 양 단벽은 각각 1매의 석재를 가로 방향으로 세우고 양 장벽은 3~4매의 석재를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 세워 축조하였다.

개석식 지석묘의 하부구조는 석관형, 석곽형, 혼축형의 세 형태로 구분된다. 석관형은 대신리 가지구 27~29호, 春-C-23호가 해당된다. 단벽은 판석형 석재 1매를 세우고 장벽은 판석형 석재 2매에서 6매를 세워 축조하였다. 석곽형은 석재를 2~3단으로 쌓아 축조한 형태로, 대신리 가지구 19호이다. 혼축형은 대신리 가지구 25호에서만 확인되며, 단벽은 판석재를 세우고 장벽은 석재를 쌓아 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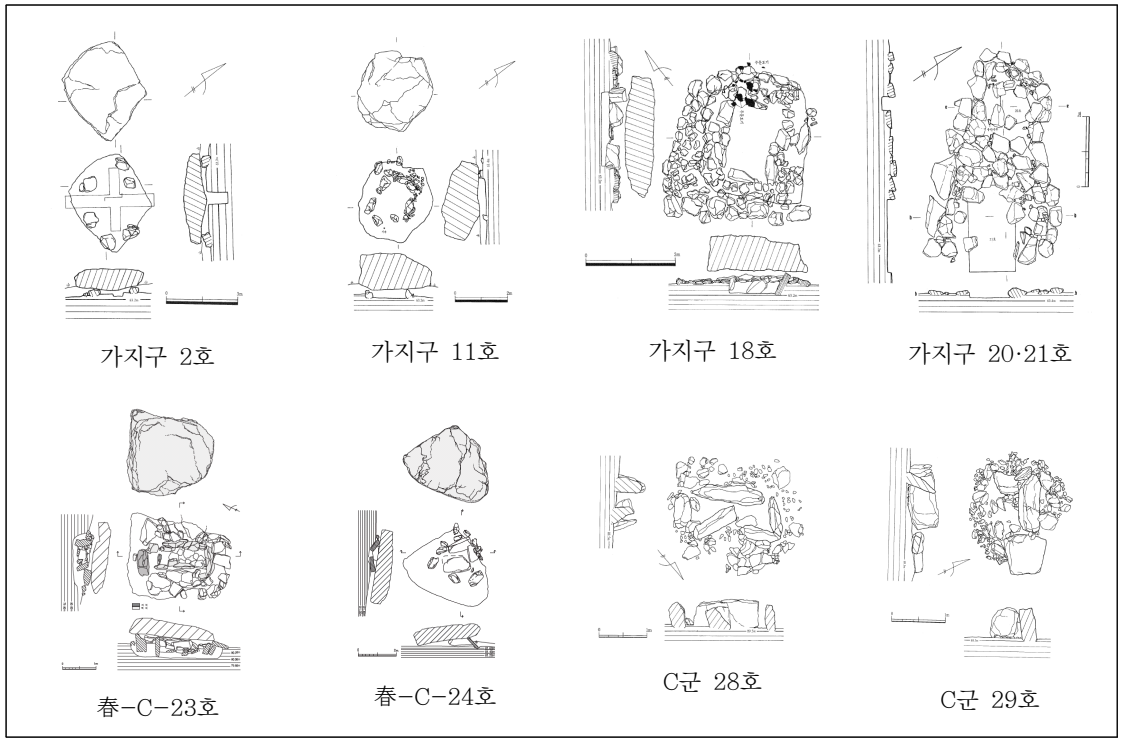


그림 4. 대신리 A(가지구)·C군 지석묘 평·단면도

(4) 출토유물

유물은 마제석검, 마제석촉을 비롯한 석기류와 방추차, 무문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유물은 석실 외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량이 확인되며, 명확한 부장유물은 유경식 석검과 방추차이다.

유경식 석검은 이영문의 분류에 따른 유경Ⅰb식과 유경Ⅱa2식이 확인된다. 春-C-23호 지석묘 출토 유경 Ⅱa2식 석검은 세워져 확인되었는데 송국리문화 단계의 부장 양상이다. 신부에서 단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영암 엄길리 21호 석실과 광주 수문 25호 주거지 석검과 유사하다(홍밝음 2015: 51). 이 형식은 영산강 유역의 나주와 화순에서도 일부 확인되지만, 보성강 유역에서 주로 확인된다. 보성강·탐진강 유역에서 유경 Ⅱa식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유사성을 동일한 제작기술 전통이나 전문 제작집단에 의한 생산과 공급의 가능성으로 해석하기도 한다(이영문 1997; 강동석 2021).

대신리 가지구 28호 출토 유경식 석검[7]의 경우 검신에 뚜렷한 등날이 형성되지 않고 단면이 편육각형을 이루는 등 실용성이 약화된 형태적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늦은 단계의 유병식 석검과 마찬가지로 석검의 기능이 점차 실용구에서 부장용으로 변화하는 과정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대신리 출토된 유경식 석검은 향후 유병식 석검과 함께 제작·소비의 관계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방추차는 완형으로 대신리 가지구 29호 지석묘 하부구조에서 출토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7) 이재운(2011)의 분류안에 따르면 春-C-23호 석검은 유경ⅡC식으로 청동기시대 중기, 대신리 가지구 28호 석검은Ⅰb식으로 기원전 800년경에 출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주 마산리, 보성 죽산리, 순천 월산리, 여수 적량동·월내동 등이다(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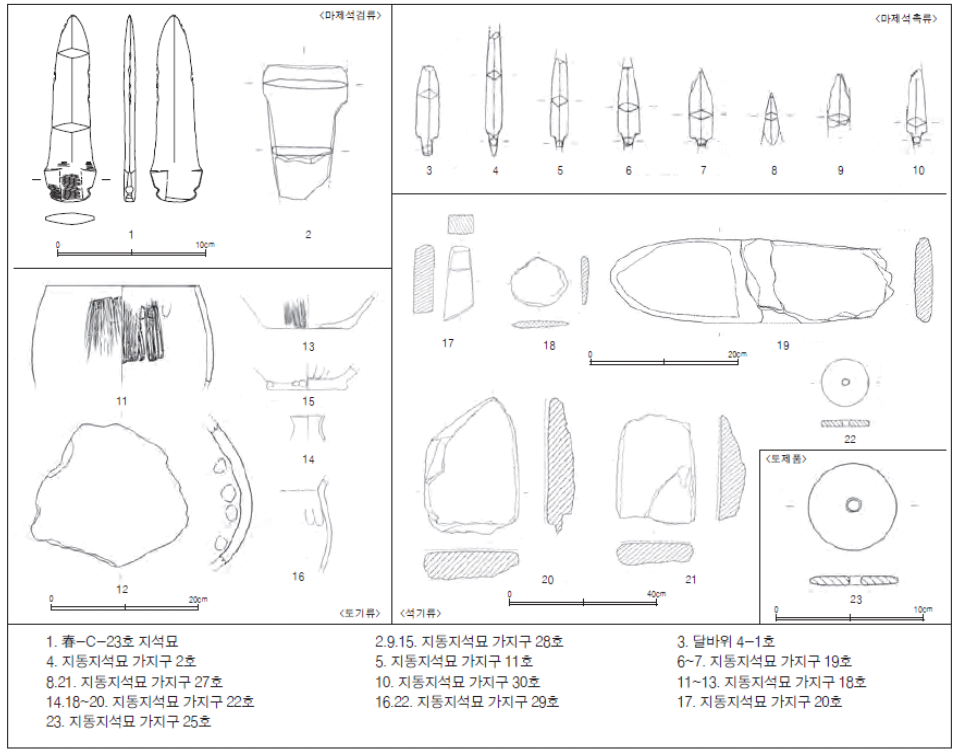


그림 5. 발굴조사 출토유물(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06 인용)

대신리 C군의 채석장 일대에서는 유경식 석촉, 석착, 지석과 함께 무문토기편 12점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에는 구연부 아래 삼각거치문을 시문하고 그 아래에 횡방향의 점열문을 배치한 토기편이 출토되었다.[8] 해당 토기편은 진주 대평리, 익산 영등동, 강릉 교동 출토품과의 유사성을 근거로 이를 지석묘 축조연대와 관련지어 전기 청동기시대까지 소급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다만 문양 구성은 검단리유형의 토기와도 유사한 점이 있어, 해당 토기의 편년과 지석묘 축조연대와의 관계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연대

화순 대신리에서 측정된 절대연대 가운데 B.P. 2500±80은 중심연대가 기원전 555년이며, 보정연대는 기원전 720~390년으로 제시되었다. 현재 확인된 절대연대와 출토유물을 종합하면 대신리 지석묘군의 중심시기는 청동기시대 중기, 즉 송국리문화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화순지역에서도 전기부터 지석묘가 축조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영산강 유역에서는 전기에 해당하는 분묘가 함평과 나주 일대를 중심으로 확인된다. 또한 중·상류지역으

8) 해당 토기편에서 주목한 점은 거치문이 시문된 양상이다. 해당 토기편은 구연과 가까이 점열문이 배치되고 하단에 삼각거치문이 시문된 것으로 이해되며, 점열은 공열보다는 두립문 계열의 토기와 유사한것으로 생각된다.

로 확산되는 양상과 화순 효산리·대신리에서 확인된 절대연대와 부장유물을 고려하면 유적의 중심적인 형성 시기는 청동기시대 중기로 보는 것이 안정적이다.

늦은 단계까지 존속하는 지석묘 형식을 고려하면 유적의 전체 기간은 비교적 길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효산리·대신리 일대는 수백 년에 걸쳐 지석묘가 축조되고 묘역 경관이 형성·유지된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화순 효산리·대신리 지석묘군은 지속적인 지표조사를 통해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대규모 지석묘군으로 파악되었다. 발굴조사는 전체 지석묘군 가운데 일부에 한정되어 그 성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군집의 배치와 지석묘 형식, 하부구조 및 묘역시설 등에서 다양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지석묘는 평지에서 산기슭과 고갯마루까지 다양한 지형에 분포하며, 군집에 따라 공간구성과 구조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축조기법의 차이를 넘어 지석묘군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절대연대와 출토유물을 종합하면 유적의 중심 형성 시기는 청동기시대 중기인 송국리문화 단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부 자료는 전기까지 소급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효산리·대신리 일대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지석묘가 축조되고 군집과 묘역 경관이 형성·변화한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유적은 영산강 상류지역의 지석묘 문화와 주변 지역과의 관계, 청동기시대 사회의 지역적 변화와 교류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Ⅲ.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의 학술적 가치

1. 연구성과를 통해 본 가치

화순 효산리·대신리 지석묘군은 보검재를 중심으로 효산리 7개 군과 대신리 6개 군 등 총 13개 군 596기가 분포하는 대규모 지석묘군이다. 밀집분포와 다양한 형식, 대형 상석, 채석장, 양호한 보존상태 등이 주요 학술적 가치로 평가되어 왔다(이영문 2021, 2022).

그동안 축적된 지석묘 연구성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지석묘군의 학술적 가치는 현상적 특징을 넘어 군집의 공간구성과 형성과정, 석재의 채취와 이동, 장기간에 걸친 묘역 경관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첫째, 좁은 범위에 다수의 지석묘가 밀집하면서도 군집별로 일정한 공간구조를 이루고, 다양한 형식과 구조가 함께 확인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군집에서 지석묘의 공간 배치와 구조적 차이는 지석묘군의 형성과 변천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이다.

둘째, 지석묘군 주변에는 채석장과 채석·치석의 흔적이 남은 석재가 함께 분포하여 상석의 채석과 운반, 가공과 축조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거석의 확보와 이동에 필요한 축조 기술뿐 아니라 노동력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대형 상석과 묘역시설, 지석묘의 규모와 배치 차이는 지석묘를 축조한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와 공간조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영산강 상류지역뿐 아니라 보성강·탐진강 및

남해안지역의 지석묘와 입지, 구조, 출토유물을 비교함으로써 청동기시대 지석묘문화의 지역적 전개와 집단 간 교류·확산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넷째, 절대연대와 출토유물을 종합하면 화순 지석묘군의 중심적인 형성시기는 청동기시대 중기로 판단되지만, 일부 자료는 전기까지 소급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효산리·대신리 일대는 장기간에 걸쳐 지석묘가 축조되고 군집과 묘역 경관이 확대·변화한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화순 효산리·대신리 지석묘군은 단순히 많은 수의 지석묘가 밀집하거나 다양한 형식이 공존하는 유적을 넘어, 군집의 공간구조와 변화, 석재의 채석과 축조,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 장기간에 걸친 지역문화의 전개를 하나의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

2. 현재적 관점에서 본 가치: 지리적 입지와 장소·경관의 의미

최근 지석묘 연구는 형식과 구조, 발생과 확산, 사회복합화에 대한 논의를 넘어 지석묘가 어떠한 공간에 조성되었으며, 인간의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장소의 의미가 어떻게 형성·변화하였는지에 주목하고 있다(이성주 외 2022; 강동석 2023).

이러한 관점에서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의 가치는 밀집 분포와 형식적 다양성에 한정하기보다 경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은 하나의 유적단위로 이해되고 있지만, 효산리 7개 군과 대신리 6개 군 등 모두 13개 군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군집이 축조 당시부터 하나의 지석묘군으로 인식되었는지, 서로 다른 시기에 형성된 군집들이 현재와 같은 분포권을 이루게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보검재를 중심으로 양쪽 계곡과 산기슭을 따라 다수의 군집이 연속적으로 분포한다는 점은 중요한 공간적 특징이다.

경관은 자연환경 자체라기보다 사람들이 자연공간을 인식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호작용이 장기간 축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효산리·대신리 지석묘군의 입지는 영산강 상류의 지석천 유역에 위치하면서도 보성강·섬진강 수계와 인접해 있어, 주변 지역과의 지리적·문화적 관계 속에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일정한 지형을 따라 지석묘가 선형으로 배치되는 현상은 당시 이동로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함안지역에서는 이동로를 따라 지석묘가 열상으로 배치된 사례가 제시되었으며(이성주 외 2022), 고창 죽림리·상갑리 지석묘군의 경우는 생활공간과 생업공간 사이를 이동하면서 지석묘를 반복적으로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입지가 주목되었다(강동석 2023).

이처럼 이동로를 단순히 이동 공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인식하고 경험하는 공간에 특정 의미가 부여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직접적으로 청동기시대 교통로로 단정하거나 이를 지석묘 축조의 배경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효산리와 대신리를 연결하는 보검재는 이동과 반복적인 경험이 이루어진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또한 지석묘군 주변에는 상석을 확보할 수 있는 암반과 채석장이 확인되는 점은 효산리·대신리의 장소 선택에 있어 이동과 가시성뿐 아니라 석재의 확보와 운반에 유리한 조건, 지형적 특성, 그리고 이미 축조되어 있던 지석묘의 존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시간적 측면 속에서도 현재까지 확인된 절대연대와 출토유물을 고려하면 지석묘군의 중심적인 형성 시기는 청동기시대 중기의 송국리문화 단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영산강 유역에서 함평과 나주 일대를 중심으로 확인되는 청동기시대 전기 분묘의 분포와 영산강·보성강·탐진강 일대에서는 송국리문화 단계를 전후하여 기존의 지역적 전통과 새로운 문화요소가 결합하면서 지석묘의 입지와 구조, 묘역 구성이 변화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이영문 2002, 2011; 이종철 2015). 또한 청동기시대 묘제 간의 관계 역시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변천 또는 복합되는 과정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황재훈 2012) 등 효산리·대신리 지석묘군 역시 기존의 전통과 새로운 문화요소가 지역적 조건 속에서 결합·변용되면서 현재와 같은 대규모 지석묘 경관으로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석묘 경관을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사회적 역할과 기능, 장소에 부여된 상징적 의미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반복적인 장소 이용과 의미 부여를 통해 집단의 경험과 기억이 축적되고, 이러한 과정이 공동체의 정체성과 결속을 유지·재생산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으로 이해(강동석 2024)한다는 점에서 효산리·대신리 일대 역시 지속적으로 선택되고 이용되면서 경험이 중첩된 장소로 변화됨을 추정할 수 있다.

결국 화순 효산리·대신리 지석묘군의 가치는 많은 수의 지석묘와 다양한 형식이 공존하는 점에만 있지 않다. 보검재를 중심으로 한 자연환경과 이동로의 가능성, 채석장과 석재 확보의 조건, 주변 지역과 공유한 지석묘 전통, 기존 지석묘와 새로운 지석묘 축조 행위가 여러 세대에 걸쳐 중첩되면서 형성된 경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효산리·대신리 지석묘군은 청동기시대 지석묘사회의 시간적 변화와 지역 간 관계, 장소의 선택과 반복적인 공간 이용의 과정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Ⅳ. 학술적 가치의 활용 방안

1. 학술연구의 방향성

효산리·대신리 지석묘군은 13개 군집이 어떠한 시간적·공간적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개별 지석묘의 형태와 규모에 대한 검토를 넘어 군집별 공간분포, 확장·중첩, 채석장과의 관계, 축조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구체화하고, 다른 지역의 지석묘와 공유하는 보편성과 효산리·대신리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특수성을 함께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1) 기초자료 재검토를 바탕으로 한 미시적 연구와 지역 간 비교연구

영산강 유역의 지석묘는 다양한 형식적 변이가 확인되는 반면, 편년에 활용할 수 있는 부장유물이 상대적으로 적어, 형식 변화와 시간성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효산리·대신리 지석묘군의 경우에도 1999년 정밀지표조사 이후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596기의 지석묘와 주변 지형을 대상으로 한 미시적인 재검토는 충분하지 않다.

대표적으로 상석의 형태가 인위적인 가공 또는 자연풍화 등의 결과인지 등의 기초적인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GIS를 통한 분석을 연계한다면 13개 군집의 형성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시적 분석을 토대로 영산강·섬진강유역과 남해안지역 등 주변 지역과의 공통성과 차이를 검토한 연구성과가 축적된다면 지역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다른 지역의 지석묘 및 거석문화와의 비교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2) 채석장을 중심으로 채석·운반 등 지석묘 축조과정에 대한 실증적 검토

채석장으로 추정되는 지점이 여러 곳 확인되며, 지석묘군과 가까운 곳에 수평절리가 발달한 암반과 상석으로 이용될 수 있는 석재가 함께 분포한다. 이는 완성된 지석묘만을 대상으로 형식과 구조를 분석하는 데서 나아가, 석재의 선택과 채석, 가공, 운반, 지석·묘역 등 하부구조의 조성 등 일련의 작업과정을 하나의 축조체계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채석장 연구에서는 기존의 현장조사와 정밀실측뿐 아니라 지형·공간분석, 원격탐사, 암석의 재질과 원산지 분석 등의 자연과학적 방법도 함께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석재의 채석·가공, 지형의 경사와 예상 이동경로 등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강석주 2026; 윤호필 2026)

이러한 연구는 어떠한 석재를 선택·채석하였으며, 어떤 방법으로 가공·운반하여 지석묘를 축조하였는지 전 과정을 검토하고 유적 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지석묘문화의 특징과 세계 거석문화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축조 행위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학술연구와 유적 활용의 연계

화순 효산리·대신리 지석묘군은 사적 지정과 세계유산 등재 이후 보존·정비를 중심으로 관리되어 왔다. 2002년 보존·활용 방안에서는 유적공원화와 전시공간 마련, 전문박물관 설립, 지석묘연구센터 설치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이후에도 전시·연구·교육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는 방향이 유지되었다.

그동안 유적지 정비와 대신리 발굴지 보호각, 선사체험장, 세계거석테마파크, 탐방버스, 방문각센터 등 관람과 체험을 위한 기반시설이 단계적으로 마련되었다. 현재 고인돌 유적지는 무료로 연중 개방되고 있으며, 선사체험장과 대신리 발굴지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에 제시된 보존·활용 기반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활용의 내용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고창의 경우 연구성과와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기초적인 유물 제작 등의 체험에서 나아가 판소리와 고인돌을 결합한 「고인돌, 소리를 담다」와 같은 확장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화순에서도 선사마을 탐방, 활쏘기와 사냥, 불피우기, 고인돌 퍼즐, 반달돌칼 만들기, 토기 복원, 탐방버스,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선사생활 체험이나 관광의 성격이 강해 유적의 학술적 특징을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산리·대신리 지석묘군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서는 이미 갖추어진 탐방버스·선사체험장·발굴지·축제에 지속적인 조사·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추진과정은 기초자료 정비 → 시각화 → 현장 적용 → 콘텐츠 확대 → 광역 비교의 단계로 연구성과를 탐방·교육·전시·디지털 콘텐츠에 적용하고, 새로운 조사결과에 따라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연구성과의 시각화

현재 방문자 센터에서는 남아 있는 지석묘군의 모습을 정적인 상태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군집별 분포와 거리, 채석장과의 관계 등의 정보가 단계적으로 추가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디지털 기반으로 시각화한다면 일반 관람객도 유적의 시간성과 형성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 학술연구의 지속을 통한 해설 강화

주요 지석묘의 규모와 형태, 군집별 배치, 대형 지석묘의 위치 등을 탐방 동선과 연결하여 현재의 지석묘군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를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탐방지점에서 보이는 지석묘와 군집 사이의 거리, 지형적 연결관계를 활용하면 관람객이 현장에서 유적의 공간구성을 직접 이해할 수 있다.

유적의 활용에서는 프로그램의 소재 자체보다 학술적 연구성과를 관람객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점이 중요하다. 거석 운반과 축조기술, 과학적 조사방법 등을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역사뿐 아니라 지리·환경교육과 연결할 수 있다.

표 3. 화순 고인돌 유적 프로그램 활용 예시(안)

구분	학술연구 성과	활용 기반	프로그램 내용(안)
1	누적 경관	탐방버스 ・탐방로	「고인돌이 만들어지는 시간」 : 같은 장소에 고인돌이 단계적으로 추가되는 모습을 AR・태블릿・해설로 체험
2	이동과 가시		「고인돌을 바라보는 길」 : 주요 정차지점에서 당시 가시권과 주변 지석묘 위치를 중첩해서 보여주는 경관탐방
3	기존 지석묘와 후속 축조	효산리・대신리 군집	「왜 또 이곳에 묻었을까」 : 지석묘의 입지를 선택해보고 실제 분포와 비교
4	채석과 운반	채석장 ・핑매바위 ・선사체험장 ・가족・단체 체험	「200톤의 돌을 움직여라」 : 축소모형・롤러・지렛대・밧줄을 이용한 협업형 STEM 체험
5	공동노동 ・사회관계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하나의 지석묘 모형을 완성하는 공동체형 체험
6	영산강 ・섬진강 지역성	방문객센터 ・전시공간	「두 강, 다른 고인돌」 : (비교전시) 형식・부장품・상석・묘역시설을 직접 비교
7	광역 지석묘 분포	탐방버스 ・GIS 데이터	주변 4㎞권 지석묘를 보여주는 디지털 고인돌 지도

8	고지형・GIS・ 가시권 연구	방문객센터	「고인돌 경관연구」 체험 : 지형・가시권・이동경로를 방문자가 직접 선택
9	장기간 지속된 장소의 기억	지역민・마을	「고인돌 기억지도」 : 주민들의 지명・전승・이용 기억과 고고학 자료를 함께 기록

3) 광역적 비교와 세계 거석문화로의 확장

지석천 유역에서 호남지역과 한반도, 나아가 세계 거석문화의 맥락으로 비교 범위를 확장하는 전시·교육 콘텐츠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화순은 영산강과 섬진강이라는 서로 다른 수계의 지석묘 문화를 비교할 수 있으며, 지석묘의 형식과 분포, 출토유물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지역 간 비교연구에 유리하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지역사회에서 지석묘가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되고 전개되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나아가 고창·강화 지석묘군, 스톤헨지 등 세계 각지의 거석 유적에서 보이는 석재의 선택과 운반, 장소의 기억 등 공통된 주제를 통해 학술적 활용과 관광·교육 활용을 연계하는 장기적인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다.

3. 유적 활용의 고려사항

효산리·대신리 지석묘군의 활용은 학술연구를 통해 밝혀진 유적의 가치를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학술적인 시각이 강조될 경우 일반 관람객에게는 어렵고 복잡한 유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방문객이 현장에서 가장 먼저 갖는 질문은 '왜 이렇게 많은 지석묘가 있는가', '왜 이곳에 만들었는가', '이 큰 돌을 어떻게 옮겼는가'와 같은 직관적인 궁금증이다. 따라서 학술적 개념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 관람객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대상과 연결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활용은 새로운 시설과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보다,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에서 밝혀지는 내용을 방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전시·교육·탐방 콘텐츠로 전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우선 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어린이·가족·일반 관람객·전문가 등 이용자의 관심과 이해 수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유적의 보존환경도 함께 고민해야한다.

결국 유적 활용의 목적은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방문객을 늘리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연구를 통해 확인된 지석묘군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방문객이 현장에서 스스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Ⅴ. 맺음말

화순 효산리·대신리 지석묘군은 총 13개 군 596기의 대규모 분포와 다양한 형식 및 구조, 대형 상석, 채석장과 관련 석재가 함께 확인된다는 점에서 지석묘문화의 형성과 전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이다.

유적의 가치는 단순한 규모를 넘어 특정 공간이 장기간 점유되고 반복적으로 선택되면서, 동

일한 공간에서 지석묘가 어떠한 방식으로 축조되고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데 있다. 향후 동일한 수계와 지형을 공유하는 지역을 함께 비교·검토를 통해 효산리·대신리 지석묘군을 비롯한 한반도 지석묘문화가 가지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힌다면 학술적 가치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축적된 조사·연구성과의 디지털화와 사회적 활용, 지속적인 보존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김권구, 2024,「지석묘 구조 다양성의 사회적 의미」,『영남학』89.

김규정, 2019,「섬진강유역 청동기시대 유적 일고찰-섬진강 중·상류를 중심으로-」,『호남고고학보』62.

김규정, 2019,「김해 구산동지석묘의 보존과 활용 방안」,『묻힌 표상, 드러나는 가치 구산동 고인돌』, 김해 구산동 지석묘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대회자료집.

김규정, 2021,「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중기 분묘 일고찰」,『한국청동기학보』29.

김규정, 2021,「고창 상금리 지석묘의 구조와 특징」,『마한백제문화』37.

강동석, 2011,「GIS를 활용한 지석묘 공간분포패턴의 사회경제적 배경 이해」,『중앙고고연구』8.

강동석, 2018,「지석묘사회의 취락패턴과 복합화-GIS를 활용한 영산강중류역 취락패턴의 재구성-」,『한국고고학보』109.

강동석, 2019,「김해 구산동지석묘의 경관과 그 의미」,『묻힌 표상, 드러나는 가치 구산동 고인돌』, 김해 구산동 지석묘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대회자료집.

강동석, 2019,「지석묘사회의 네트워크 구조와 성격검토-GIS와 SNA를 이용한 영산강중류역 여수반도의 비교-」,『한국상고사학보』105.

강동석, 2021,「보성강·탐진강유역 지석묘사회의 변동 양상」,『한국청동기학보』29.

강동석, 2023,「남강 유역 청동기시대 분묘의 경관-진주 대평리·평거동·초장동 유적을 중심으로-」,『청동기학보』32.

강동석, 2023,「고창 고인돌의 경관 구조와 의미」,『세계의 거석문화로 비춰본 고창 고인돌의 가치』,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강동석, 2024,「장소만들기 관점에서 본 김해 구산동 묘역지석묘의 공간구현 전략」,『한국고고학보』2024-3.

강동석, 2025,「파주 일원 지석묘 분포패턴의 다중스케일적 접근」,『백산학보』132.

김승근, 2007,「전남지역 청동기시대 묘제와 고인돌」,『아시아 거석문화와 고인돌』, 제2회 아시아권 문화유산(고인돌)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집.

강석주, 2026,「고창 고인돌유적 군집 유형 재분류 및 입지 특성분석」,『고창 고인돌 유적의 형성과 경관 복원』, 2026년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강진표, 2016,『전남지역 묘역지석묘의 연구』, 부산대학교석사학위논문.

고일홍, 2025,「고대 및 역사시대 채석장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건지인문학』42.

박철웅·김인철, 2012,「지석묘의 입지특성과 축조방식에 대한 지형학적 고찰 -효산리,대신리를 중심으로-」,『한국지형학회지』제19권 제3호.

손준호, 2002,「금강유역 송국리문화단계의 지석묘 검토」,『고문화』60.

손준호, 2009,「호서지역 마제석검의 변화상」,『호서고고학』20.

손준호, 2007,「호서지역 청동기시대 묘제와 고인돌」,『아시아 거석문화와 고인돌』, 제2회 아시아권 문화유산(고인돌)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집.

손준호, 2016,「호서지역 지석묘와 그 보존 및 활용」,『야외고고학』26.
이동곤, 2021,「영산강유역권 지석묘 특징과 지역성」,『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재조명』, 국제 학술대회 자료집.
이성주, 2019,「기억, 경관, 그리고 기념물 축조」,『묻힌 표상, 드러나는 가치 구산동 고인돌』, 김해 구산동 지석묘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대회자료집.
이성주·김태희·이수정, 2022,「지석묘의 축조와 경관의 역사」,『한국청동기학보』31.
이영문, 1990,「호남지방 지석묘 출토유물에 대한 고찰」,『한국고고학보』25.
이영문, 1997,「전남지방 출토 마제석검 연구」,『한국상고사학보』24.
이영문, 2002,『한국 지석묘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이영문, 2004,「영산강유역 지석묘 문화의 성격」,『문화사학』21.
이영문, 2011,「호남지역 지석묘의 형식과 구조에 대한 몇가지 문제」,『한국청동기학보』8.
이영문, 2021,「한국 고인돌의 특징과 세계유산적 가치」,『향토문화』40.
이영문, 2022,「화순 고인돌의 세계유산 의미와 등재 과정」,『향토문화』41.
양영주, 2021,「고창지역 청동기문화에 대한 검토」,『한국청동기학보』28.
이화종·이정철, 2022,「세계유산 강화 고인돌의 현황과 보존·활용 방안」,『호서고고학』51.
이화종, 2020,「세계연속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의 관리 연구와 활용 방안-영국 스톤헨지와 에이브버리 거석유적 사례와 비교-」,『호남고고학보』64.
윤호필, 2017,「청동기시대 지석묘의 축조배경과상징성」,『한국청동기학보』21.
윤호필, 2026,「고창 죽림리 지석묘 축조석재의 기술적 선택과 조달전략」,『고창 고인돌 유적의 형성과 경관 복원』, 2026년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정다운·박인영, 2025,「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의 조사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고창죽림리 지석묘군(Ⅱ지구 6군)』, 발굴조사보고서.
정다운, 2026,「수계 단위 분석을 통해 살펴본 전북 서남부지역 지석묘 연구의 현황과 과제」,『헤리티지』59-1.
최성훈, 2023,「전남지역 상징 지석묘의 분포와 특징」,『한국청동기학보』32.
조진선, 2004,「전남지역 지석묘의 연구 현황과 형식변천 시론」,『한국상고사학보』43.
조진선, 2008,「탐진강유역 지석묘의 형식과 변천」,『호남고고학보』30.
홍밝음, 2015,「영산강 상류지역 지석묘 분포현황 및 연대검토」,『고문화』85.
황재훈, 2006,「전남지역 지석묘의 형식분류와 변천」,『한국상고사학보』53.
황재훈, 2009,「전남지역 선송국리~송국리단계의 인구 분포 변동」,『호서고고학』20.
황재훈, 2012,「섬진강유역 지석묘의 전개과정」,『한국상고사학보』75.
황재훈, 2017,「영산강유역 송국리식 토기의 특징과 변천」,『호남고고학보』56.
황재훈, 2022,「선사시대 사적의 지정·보존·관리 현황과 활용 방안」,『문화재』55-2.
황창한, 2026,「제주 청동기시대 석기 석재의 산지 연구」,『고고광장』38.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5,「화순 효산리·대신리 지석묘군」,『영산강유역 지석묘Ⅰ』.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2025,『고창 죽림리 지석묘군(Ⅱ지구 6군)』.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2026,『장수 삼봉리 지석묘』.
국립중앙과학관, 2011,『고인돌 축조로 본 과학기술 원리연구』.
목포대학교박물관, 1996,「전남의 지석묘」,『전남의 고대 묘제』.
목포대학교박물관, 1998,「능주목의 고고학적 배경」,『능주목의 역사와 문화』.
목포대학교박물관, 1999,『화순 지석묘군』.
목포대학교박물관, 2002,『和順 大薪里 支石墓』.
목포대학교박물관, 2005,『화순 효산리·대신리 지석묘군(1차)』.
문화재청·서울대학교박물관, 1999,「화순 지석묘」,『한국 지석묘(고인돌)유적 종합조사·연구-분포, 형식, 기원, 전파 및 사회복원-』.
문화재청, 2008,『세계유산 고인돌 보존관리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문화재청, 2011,「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세계유산 모니터링 보고서』.
전남대학교박물관, 2002,『문화유적분포지도-화순군-』.
조선대학교박물관, 1999,『화순군의 문화유적』.
화순군지편찬위원회, 2012,『화순군지』.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06,『和順 孝山里·大薪里 支石墓(2차)』.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06,「和順 孝山里·大薪里 支石墓(3차)」,『화순 효산리·대신리 지석묘군(2차)』.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09,「和順 孝山里·大薪里 支石墓(4차)」,『화순 화림리 광대촌유적』.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6,『和順 孝山里·大薪里 支石墓(5차)』.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6,『화순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추정 지석묘 학술시굴조사 보고-』.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20,『화순의 고인돌』.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학술적 가치와 활용 방안」 에 대한 토론문

강진표
(동북아지석묘연구소)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영문(2022: 1~16)의 견해가 있으며, 이 견해에 동의한다. 또한, 발표자가 Ⅳ, Ⅴ장에서 언급한 학술적 가치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다. 다만, 행정적인 뒷받침이 미비한 현실이라는 점을 말해둔다.

발표문의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대신리 A군의 공간구성에 대한 것입니다. Ⅱ.2.1) 입지와 분포에서는 대신리 A군(가지구)의 공간구성에 대해 두 가지 견해를 언급하였고, 각주 6번에서는 섬진강유역에서 매장주체부의 축조재료가 할석→혼축→판석, 묘역은 적석→위석으로 변천한다는 황재훈의 견해에 연동된다고 하였으며, 남해안지역과 유사한 변천상으로 송국리문화단계에서 전후 보이는 전개과정으로 이해된다고 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우며 변천과정의 하나로 참고하자고 한다고 하였으나, '연동된다', '이해된다'고 기술하셔서 대신리 A군의 공간구성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영산강유역에서 지석묘의 확산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전기에 해당하는 분묘가 함평과 나주 일대를 중심으로 확인되어, 중·상류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영문 1993, 2002)으로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가 형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분묘'라 하는 것이 지석묘인지 아니면 석관묘나 토광묘인지 궁금하며, 지석묘를 포함하였다면 함평과 나주 일대의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전기 지석묘 유적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출토된 석검 관련입니다. 春-C-23호 석검은 유경식이지만 鐔部가 미미하게 형성된 것으로 보여, 영암 엄길리 21호 판석조석관 출토 유경식석검과는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유경식석검 중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발표자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동기시대 중기에 형성되었다고 하였는데,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청동기시대 중기의 연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문헌

李榮文, 1993,『全南地方 支石墓 社會의 硏究』, 韓國敎員大學校 博士學位論文.
李榮文, 2002,『韓國 支石墓 社會 硏究』, 學硏文化社.
李榮文, 2022,「화순 고인돌의 세계유산 의미와 등재 과정」,『향토문화』41.

발표 5

묘역지석묘의 함의와 창원 진동리 유적의 가치

이명훈

(국립중앙박물관)

묘역지석묘의 함의와 창원 진동리 유적의 가치

이명훈
(국립중앙박물관)

목차

Ⅰ. 머리말
Ⅱ. 묘역지석묘에서 보이는 청동기시대 계층사회의 요소
Ⅲ. 경제적 재화의 집중이 부재한 원인
Ⅳ. 다성적 상징물로서의 묘역지석묘
Ⅴ. 사적으로서 창원 진동리 유적의 가치
Ⅵ. 맺음말

Ⅰ. 머리말

우리 사회는 첫 등장 이래 계속해서 점차 복잡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직업이 등장하여 사회분화가 시작되었고, 계층이 형성되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하였다. 특히, 계층분화가 일어난 이후 점차 심화한 것은 시간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처럼 계층사회의 등장과 심화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류사회의 거대한 주류이다.

계층사회의 등장과 심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물질문화는 분묘이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사회의 계층성이 심화하면 심화할수록 분묘를 더욱 거대하게 조성하고, 수많은 재화를 부장하면서 심화한 계층성을 표출하였다. 즉, 분묘의 거대함과 경제적 재화의 집중은 계층성을 표출하는 거시적인 두 방향으로 볼 수 있다.

남한지역의 계층사회는 청동기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한다. 농경이 본격화하면서 마을이 점차 커지고 거대한 분묘를 조성하는 양상이 세계사적 맥락과 일치한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물질문화가 묘역지석묘이다. 묘역지석묘는 청동기시대에 조성되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분묘로서, 거대한 규모로 인하여 일찍부터 유력개인의 출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계층성 표출의 상징물로 이해되었다. 게다가 묘역지석묘는 규모뿐 아니라 배치와 경관 등 다양한 관점에서 당시 심화한 계층성을 여실히 보여 준다.

반면, 재화를 통한 계층성의 표출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비파형동검, 석검, 적색마연토

기, 옥기 등 희소성이 큰 재화는 분명히 확인되지만, 이들이 다량 부장되는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 재화의 집중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남한지역의 청동기시대 계층사회는 거대한 분묘가 확인되지만, 경제적 재화의 집중은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남한지역의 청동기시대는 심화한 계층사회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거대한 분묘와 동일하게 경제적 재화의 집중 역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계층성 표출의 대표적인 방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동기시대 유력개인의 출현을 회의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청동기시대에 조성되었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거대한 묘역지석묘는 세계사적 맥락과 일치하는 대표적인 계층성 표출의 상징물이다. 게다가 묘역지석묘는 거대한 규모 외에도 귀속지위의 등장을 짐작할 수 있는 유·소아묘의 출현이나, 전문공인의 등장을 예상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으로 규격화한 석검·적색마연토기의 존재를 함께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시대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심화한 계층사회라는 점은 쉽게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동기시대 계층사회를 특정 양상으로 단정하기보다 치밀한 검토를 거친 후 신중한 판단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핵심은 첫째, 묘역지석묘를 통해 알 수 있는 청동기시대 계층사회의 속성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함의하고 있는 사회적 모습이 어떠한지 파악해야 한다. 둘째, 왜 경제적 재화의 집중이 확인되지 않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검토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묘역지석묘에서 찾을 수 있는 청동기시대 계층사회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경제적 재화의 집중이 확인되지 않는 이유를 의례적 관점에서 지석묘가 갖는 의미를 함께 검토하여 나름대로 제시해 보았다.

Ⅱ. 묘역지석묘에서 보이는 청동기시대 계층사회의 요소

묘역지석묘는 거대한 규모를 통해 일찍부터 유력개인의 계층성이 표출된 대표적인 상징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거대한 규모도 물론 중요하지만 묘역지석묘에서 보이는 계층사회의 요소는 더욱 다양하다.

묘역지석묘에서 보이는 계층사회의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청동기시대 계층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상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계층사회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전남지역에서 지석묘 발굴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된 이후이다(崔夢龍 1981). 이후 콜린 렌프류(Colin Renfrew)나 티모시 얼(Timothy Earle)이 제시한 수장사회이론(Chiefdom Society Theory)을 남한지역 청동기시대에 적용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계층사회를 보여주는 요소로 인정되는 요소를 정리하면 첫째, 거대 단독묘의 조성, 둘째, 귀속지위의 출현, 셋째, 전문공인의 등장, 넷째, 경제적 재화의 집중, 다섯째, 경제적 재화의 분배 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1. 거대 단독묘

거대 단독묘의 특징은 세 가지 속성으로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는 거대함이다. 거대한 규모는 묘역지석묘의 가장 뚜렷한 가시적인 특징이다. 특히 청동기시대에 조성되었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거대한 규모는 분명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세계사적 관점에서도 분묘를 거대하게 조성하는 것은 계층성을 표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그러므로 거대함은 묘역지석묘에서 볼 수 있는 계층사회의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속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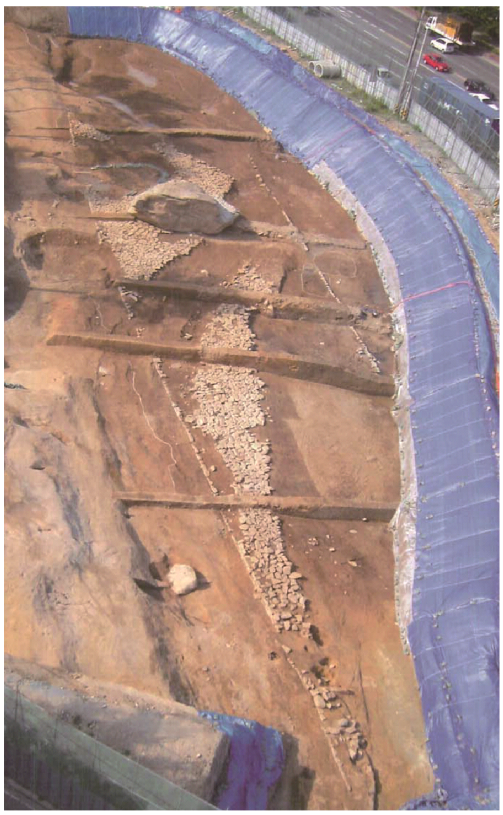
두 번째는 단독(單獨)이라는 속성이다. 단독의 사전적 의미는 '단 한 사람' 또는 '단 하나'이다(국립국어원 1991). 여기서 말하는 단독의 개념 역시 오로지 한 사람, 즉 1인을 위해 조성한 분묘를 말한다. 분묘의 위치나 배치가 멀리 떨어져 홀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묘역지석묘를 계층성이 표출된 대표적인 요소로 보는 이유는 1인을 위한 거대 분묘이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의 묘역에 다수의 사람이 함께 매장되었다면, 묘역지석묘를 유력개인의 분묘로 상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단독이라는 속성은 계층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속성이다.

세 번째는 묘(墓), 즉, 무덤 여부이다. 다시 말하지만 묘역지석묘는 1인을 위한 분묘이기 때문에 계층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인정된다. 그런데 묘역지석묘 중에는 매장주체부가 확인되지 않는 것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밀양 살내, 의령 매촌리, 경주 전촌리 등 매장주체부가 확인되지 않은 묘역지석묘를 기념물이나 제단으로 바라보는 견해도 있다(김병섭 2009; 우명하 2016). 묘역지석묘가 제단이라면 계층성 표출의 상징물이 아닌 제장(祭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표 1. 경남지역 대형급 묘역지석묘 일람

연번	지역	유적명	유구명	잔존규모(m) (길이×너비)	면적	매장주체부	
						유	무
1	거제	농소	1호 지석묘	12.0×8.0	72.0㎡	●	
2	고성	삼덕리	2호 지석묘	22.0×10.3	226.6㎡	●	
3	김해	구산동	1호 지석묘	85.0×19.0	1,615㎡	●	
4							
5							
6		대성동 294번지	1호 묘역지석묘	8.62×8.09	69.7㎡	●	
7			2호 묘역지석묘	13.74×4.42	60.7㎡	●	
6		율하리	A1-11호묘	13.71×9.20	126.1㎡	●	
7			A2-17호묘	15.78×5.65	89.1㎡	●	
8			A2-19호묘	23.81×18.79	351.2㎡	●	
9			A2-25호묘	직경 10.07	79.4㎡	●	
10			B-4,5,6호	43.49×2.58	112.2㎡	●	
11	남해	당항리	2호 지석묘	24.0×4.5	108.0㎡	●	
12	밀양	사포리	나-2호 지석묘	10.8×5.5	59.4㎡		●
13			나-12호 지석묘	17.3×4.0	69.2㎡		●
14		살내Ⅱ	1호 지석묘	9.88×5.4	53.3㎡		●
15			2호 지석묘	10.4×6.4	66.5㎡		●
16		신안 선사유적	1호 지석묘	9.95×6.6	65.6㎡	미상	
17		용지리	제단	14.5×6.77	98.1㎡		●
18		제대리	2호 구획시설	8.3×7.1	58.9㎡		●

19			3호 구획시설	9.1×8.2	74.6㎡		●
20			4호 구획시설	10.0×7.1	71㎡		●
21			5호 구획시설	8.2×6.7	54.9㎡		●
22			6호 구획시설	11.3×3.8	42.94㎡		●
23	부산	분절유적	4호묘	직경 11.0	94.9㎡	●	
24	사천	덕곡리 (경발연)	1호 지석묘	직경 17.5	240.4㎡	미상	
25			2호 지석묘	직경 13.5	143.0㎡		●
26			4호 지석묘	직경 10.0	78.5㎡	●	
27			8호 지석묘	직경 11.0	94.9㎡	미상	
28		이금동	A-1호 지석묘	38.0×10.0	380.0㎡	●	
29			C-5호 지석묘	14.7×6.5	95.5㎡	●	
30			C-9호 지석묘	11.4×3.2	36.4㎡	●	
31	산청	매촌리	6호 묘역지석묘	10.3×4.09	42.1㎡		●
32			7호 묘역지석묘	10.3×5.4	55.26㎡		●
33	의령	동동리 (2구간)	10호 지석묘	9.38×6.86	64.3㎡		●
34			11호 지석묘	7.48×7.32	54.7㎡	●	
35	진주	가호동	1호묘	17.5×9.2	161.0㎡	●	
36			2호묘	(주구포함) 직경 12.25	73.8㎡	●	
37			3호묘	(주구포함) 직경 12.45	59.4㎡	●	
38		대평리 옥방1지구	5호묘	직경 9.53	71.2㎡	●	
39		초장동	1호묘	직경 26.8	563.8㎡	미상	
40		평거동 (2지구)	가-1호	9.8×5.5	53.9㎡	●	
41			라-1호	17.4×6.2	107.8㎡	●	
42		호탄동	11호 구획묘	13.55×5.42	73.4㎡		●
43			15호 구획묘	직경 10	78.5㎡	●	
44	창원	덕천리	1호 지석묘	62.3×21	1,308.3㎡	●	
45		진동리	A군 1호	직경 20.2	320.3㎡	●	
46			A군 3호	직경 9.4	69.3㎡	●	
47			A군 5호	14.8×11.6	171.6㎡	●	
48			A군 9호	10.1×9.7	97.9㎡	●	
49			C군 1호	13.2×5.7	75.2㎡	미상	
50			D군 1호	14.4×2.2	31.68㎡	미상	
51			E군 1호	25.0×11.5	287.5㎡	미상	
52			H군 3호	직경 14.0	153.8㎡	●	
53			H군 4호	직경 15.0	176.6㎡	●	
54		봉림동	1호묘	11.4×5.66	64.5㎡	●	
55		용잠리	39호 기단묘	25.0×7.0	175.0㎡	미상	
56		화양리	1호 지석묘	직경 23~27	487.4㎡	●	
57	통영	남평리	1호묘	13.2×6.7	88.4㎡	●	
58	함안	용정리 석천	9호 지석묘	추정 25.0	-	미상	
59		용정리	1호 묘역식 고인돌	12.0×5.2	62.4㎡	●	
60	함양	화산리	1호 지석묘	25.8×4.28	110.4㎡	●	
61			5호 지석묘	27.0×5.5	148.5㎡	●	
62	합천	저포리 E지구	8호 지석묘	10.8×4.4	47.5㎡	●	



김해 구산동 A2-1호(길이 85m)



진주 초장동 1호(직경 26.8m, 면적 563.8㎡)



사천 이금동 A-1호(길이 38m)



창원 덕천리 1호(길이 62.3m)

그림 1. 거대 단독묘(축척 부동)

그러므로 묘역지석묘가 심화한 계층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요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거대함을 갖춘 1인을 위한 분묘여야 한다(이명훈 2023).

〈표 1〉은 경남지역에서 확인되는 대형급[1] 묘역지석묘[2]이다. 모두 31개소 62기인데, 이 자료는 거대함이라는 속성만 고려한 것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거대 단독묘로서 묘역지석묘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묘역지석묘가 분묘인지 아닌지 살펴보면, 총 62기 중 매장주체부가 분명한 것은 38기이다(그림 1). 매장주체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24기인데, 이 중에는 보존조치를 위해 내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4기), 매장주체부가 삭평되거나 유실된 것(3기), 조사구역 외부에 있어 확인하지 못한 것(2기)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매장주체부가 의도적으로 조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15기이다.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15기 중 11기가 밀양지역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밀양지역의 묘역지석묘를 제단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데, 묘역지석묘가 잘 확인되지 않는 경주지역의 전촌리에서도 매장주체부가 없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지리적인 위치가 송국리문화권과 검단리문화권의 점이지대에 해당하는 지역의 묘역지석묘의 경우 묘역이라는 속성은 송국리문화권이 영향, 매장주체부가 잘 확인되지 않는 장법은 검단리문화권의 영향이라는 견해도 제기되었다(윤형규 2019). 밀양지역의 묘역지석묘의 성격을 단정할 수 없지만 지역성이 뚜렷한 것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처럼 거대한 규모의 묘역지석묘는 대부분 분묘를 목적으로 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매장주체부가 존재하지 않는 묘역지석묘(또는 지석묘) 문제는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필자 역시 매장주체부가 없는 묘역지석묘는 제단이나 기념물 등 다른 성격을 가졌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제단이나 기념물 등 다른 성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묘역지석묘의 외형을 가진 것은 본질을 분묘에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뒤에서 상술하겠다.

---

1) 대형의 기준은 길이 10m 이상, 면적 50㎡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2) 필자가 생각하는 묘역지석묘의 핵심은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그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필자는 묘역지석묘를 '매장주체부 보다 넓은 공간을 점유한 것을 지상에 적석시설을 조성하여 가시적으로 표현한 분묘'로 이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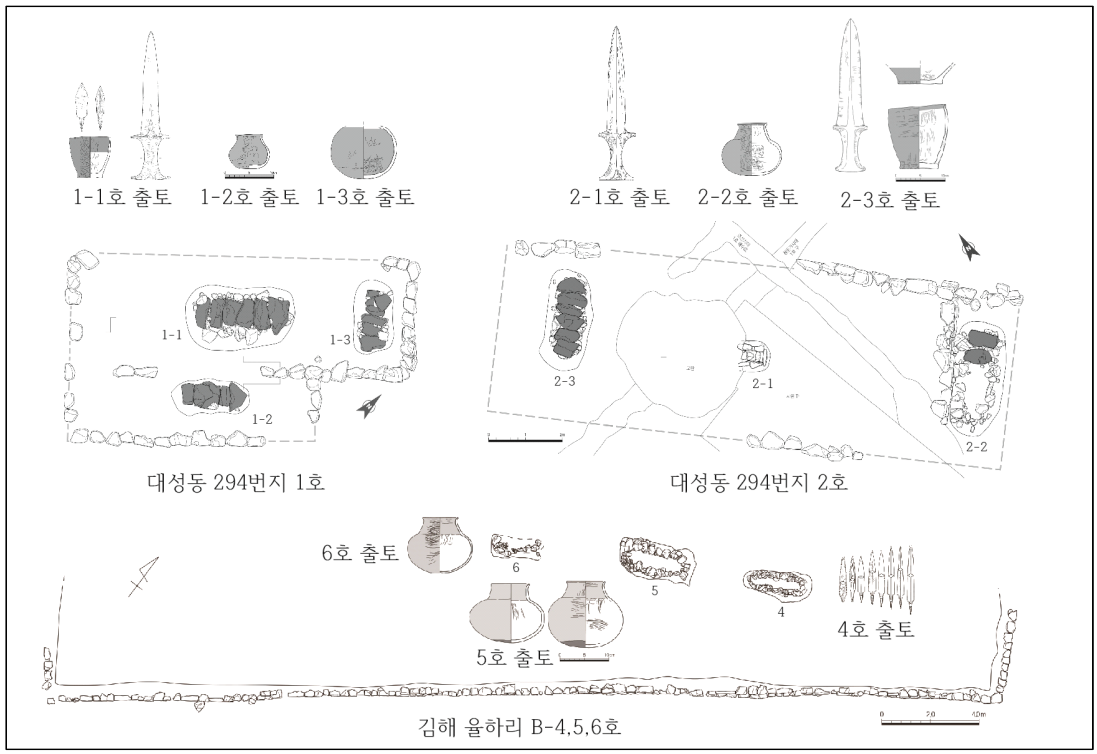


그림 2. 동일 묘역 내 다수 매장주체부 조성 사례
(유구: 대성동 1・2호 1/200, 율하리 1/300, 유물: 1/15)

다음으로 단독에 대한 검토이다. 매장주체부가 조성된 38기 중 하나의 묘역에 2기 이상의 매장주체부가 함께 확인된 사례는 김해 대성동 294번지, 김해 율하리 단 2개소, 3기에 불과하다(그림 2). 그러므로 묘역지석묘는 1인을 위한 분묘라는 성격이 본질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거대함은 길이 10m 이상, 면적 50㎡ 이상, 단독은 1인 매장 여부, 묘는 매장주체부의 조성 여부라는 기준으로 묘역지석묘를 거대 단독묘로서 살펴보았다. 다시 강조하지만 거대함은 묘역지석묘의 가장 큰 가시적인 특징이다. 거기에 1인을 위한 분묘라는 점에서 묘역지석묘는 점점 심화하는 계층사회의 흐름 속에서 탄생한 유력개인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요소이다.

2. 귀속지위

귀속지위의 출현은 심화한 계층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정된다. 계층사회의 발전 단계는 사회적 신분을 성취지위로 획득하는지, 귀속지위로 획득하는지의 구분을 큰 획기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마이크 피어슨 2009). 특히, 귀속지위의 출현은 신분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지속한 고착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심화한 계층사회의 중요한 요소로 이해된다(洪斗承·具海根 1993).

귀속지위의 출현은 유·소아묘를 통해 검토되고 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지위를 획득하기 어려운 어린 나이의 피장자가 분묘에 부장되었다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이 구조화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소아묘가 성인의 분묘에 비해 규모가 더 크거나 혹은 질적·양적으로 탁월한 재화가 부장된 경우 세습적 계서체계(콜린 렌프류·폴 반 2006)와 출생에 의한 사회적 서열

(李在賢 2003)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한지역에서도 청동기시대의 유·소아묘가 확인된다. 우리나라는 산성토양의 특성으로 인해 인골이 잔존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래서 청동기시대 인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누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청동기시대 유·소아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兪泰勇 2003; 이명훈 2024).

〈표 2〉는 청동기시대 유·소아로 볼 수 있는 인골[3]이 출토된 분묘로 모두 10기이다.[4]

유·소아묘는 존재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유·소아묘를 통해 알 수 있는 계층사회의 심화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여기서도 앞과 같이 거대함, 단독, 묘라는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우선 주목되는 점은 묘역지석묘의 사례 2기가 확인된다는 점이다. 춘천 중도 1호묘는 과거에 조사되었지만, 최근 조사된 레고랜드 유적과 함께 살펴보면 수많은 석관묘보다 우월한 규묘를 가진 묘역지석묘에 유·소아가 매장된 분묘이다.[5] 특히 연령이 3~7세이고, 다리뼈가 자라는 장애가 있는 피장자[6]임에도 묘역지석묘에 매장된 점은 피장자의 탁월한 신분을 짐작게 한다. 의령 동동리 9호는 더욱 크고 분명한 묘역을 가졌다. 동동리에서는 지석묘 13기, 석관묘 42기가 확인되었는데, 13기만 존재하는 묘역지석묘에 3~6세로 추정되는 어린아이가 묻힌 것은 이 시기에 이미 귀속지위가 출현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유·소아묘는 분묘군 내에서 독립적이거나 배타적인 배치를 보이지도 않는다. 즉, 유·소아묘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차별적인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신분에 따른 차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인과 동등하게 혹은 더 탁월하게 매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

3) 인골 분석에서 연령 구분은 유아를 만1세~5세, 소아를 6세~11세, 약년을 12세~19세로 구분한다(田中良之·김재현 2011). 하지만 본고의 목적은 청동기시대에 귀속지위가 출현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고의 유·소아는 사회적 신분을 업적으로 성취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10대 초반까지로 설정하겠다.

4) 북한지역의 자료인 묵방리 30호와 룡산리 5호를 더하면 12기까지 늘어날 수 있다.

5) 레고랜드를 비롯하여 중도에서 확인된 분묘를 종합하면 성격이 분명한 것은 162기이다. 이 중 묘역이 조성된 것은 75기, 조성되지 않은 것은 78기이고 불분명한 것이 9기이다.

6) 중도 1호묘의 인골은 과학적 분석을 거친 것이 아니라 의대교수의 자문을 통해 파악된 자료이다. 과학분석을 거치지 않았지만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검토대상에 포함하였다.

표 2. 청동기시대 유·소아 인골 출토 분묘 속성표

유적명	유구명	규모	화장흔적	추정연령	비고
의령 동동리	9호 지석묘	116×49×43		3~6세	묘역지석묘(358×300)
춘천 중도동	(국박)1호 지석묘	30×25×?	有	3~7세	묘역지석묘(205×190)
창원 진동	15호 석관묘	97×26×39		8세 전후	
진주 대평리 어은 1지구	4호 무덤	80×32×28		5세 전후	
대구 달성 평촌리	1호 석관묘	110×40×38		12~18세	
	7호 석관묘	97×26×15		12~18세	
	25호 석관묘	155×45×38		12~18세	
보은 부수리	1호 석관묘	176×70×44		10세 전후	성인과 합장
	3호 석관묘	192×35×37		어린이	
영월 연당 피난굴	2굴 청동기 무덤 3호	200×120×60		어린이	성인과 합장

표 3. 청동기시대 성인 인골 출토 분묘 속성표

유적명	유구명	추정 연령·성별	매장주체부 길이(cm)	매장 자세	화장 흔적
안성 만정리 신기	3호 석관묘	20~39세 여성	83		有
평택 토진리	1호 석관묘	성인 남성	45		有
제원 황석리(국박)	13호 지석묘	불명, 신장 170cm	185	신전장	
제원 황석리 B지구	충 6호 고인돌	20세 전후 남성	195	신전장	
	충 7호 고인돌	20~30세 남성	160	신전장	
	충 17호 고인돌	30세 전후 남성	181	신전장	
제원 양평리 D지구	1호 고인돌	15~35세	200		
대구 진천동	3B호 석관묘	20세 전후 여성, 신장 150~160cm	110	굴장	
대구 매호동 지석묘군 I	1호묘	20세 전후	135		
대구 달성 평촌리	3호 석관묘	30~34세 남성, 신장 168~178	167	굴장	
	11호 석관묘	45~55세	(잔존길이)140		
	12호 석관묘	20~24세 남성	(잔존길이)125		
	13호 석관묘	25~29세 남성	(잔존길이)135	신전장	
	15호 석관묘	25~29세 남성	165		
	16호 석관묘	45~55세 남성	192	신전장	

	17호 석관묘	30~34세 남성	180	굴장	
	20호 석관묘	30~34세 남성, 신장 173	150	굴장	
	21호 석관묘	50세 이상	152	굴장	
	22호 석관묘	30~34세 남성	145	신전장	
	27호 석관묘	35~45세 남성	185		
	28호 석관묘	30~34세 남성	175	굴장	
경주 석장동 876-5번지	화장묘	성인 3명	(잔존길이)216		有
진주 대평리 옥방 4지구	4호 석관묘	60세 이상 남성	163	굴장	
	5호 석관묘	40~59세	163		
	26호 석관묘	60세 이상 남성, 신장 164cm	미보고	신전장	
진주 대평리 옥방 5지구	A-1호 석관묘	60세 이상 여성	151	굴장	
진주 대평리 옥방 7지구	3호 석관묘	불명, 여성, 신장 149.3	168	신전장	
진주 중천리	Ⅲ-1호 석관묘	40~49세 남성	145	굴장	
사천 본촌리	가2호 석관묘	30~39세 여성	161	굴장	
창녕 사창리	10호 매장유구	17세 이상	80		
	12호 매장유구	17~29세	123		
김해 내동	3호 큰돌무덤	40세 이상	225		
창원 진동	K호 묘역지석묘	30세 전후	150		
나주 랑동	1호 지석묘	40세 이상 남성	154		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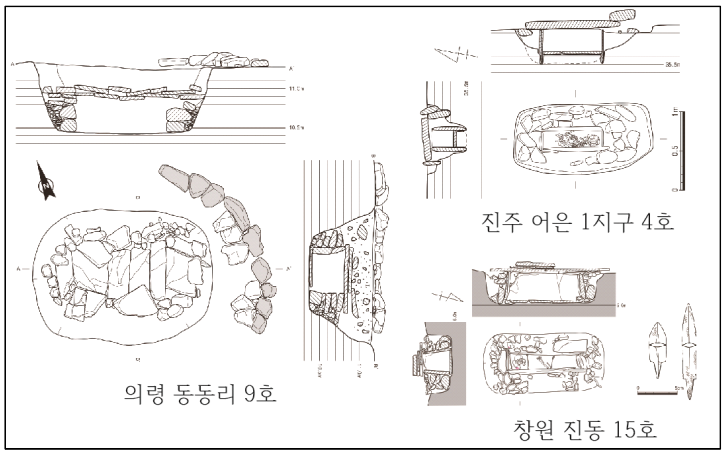


그림 3. 유아인골 출토 사례(유구: 1/100, 유물: 1/10)

유·소아의 인골이 출토된 매장주체부의 크기가 대체로 작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할 요소이다. 성인과 합장되었거나 성년에 가까운 10대 중후반으로 볼 수 있는 피장자의 분묘를 제외하면 의령 동동리, 춘천 중도, 창원 진동, 진주 대평리의 경우 모두 유·소아 인골이 출토된 매장주체부는 일반 성인이 매장되기 어려울 만큼 작은 크기이다. 반면, 성인 인골이 출토된 분묘는 총 32기인데, 평택 토진리, 창녕 사창리, 안성 만정리 신기,

대구 진천동의 사례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성인 묻히기 충분한 크기여서 대조적이다(표 3).

크기가 작은 매장주체부에 대해 화장(우정연 2020) 혹은 세골장(신석원 2016)을 거친 이차장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차장의 경우 화장 혹은 세골장을 통해 육탈과정을 거친 인골을 일괄로 수습하여 매장한 분묘로 볼 수 있다. 일괄로 수습하여 매장하였다면 인골은 무작위로 섞여 있겠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청동기시대 인골은 신전장이든 굴장이든 대체로 신체의 본래 위치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7] 또한 화장묘는 경기·강원지역 11개소 52기, 호서지역 1개소 13기, 호남지역 3개소 6기, 영남지역 3개소 9기가 확인될 뿐이다(우정연 2020). 경기·강원지역의 지역성이 강한 분묘로 볼 수 있지만, 청동기시대 전체 분묘 수를 고려한다면 극히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크기가 작은 매장주체부의 경우 유·소아묘의 가능성을 크게 열어두어야 한다. 청동기시대 유·소아묘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을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유·소아묘는 신분에 따른 구조적 불평등을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증거이다. 구조적으로 불평등이 고착화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랜 기간 불평등이 지속하였음을 보여준다. 즉, 유·소아묘는 거대 단독묘와 함께 청동기시대 심화한 계층사회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3. 전문공인

전문공인의 출현 또한 심화한 계층사회의 지표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전문공인이 출현한 사회는 식량을 생산하지 않는 구성원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회이며, 동시에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유력개인의 존재가 탄생한 사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Renfrew 1974; Earle 1987; Blanton 1996; 高旻廷·Bale 2008; 고민정 2016). 또한 직업적 측면에서 사회분화의 시작을 보여주는 요소이기도 하며, 식량보다 가치가 높은 재화가 생산되고 소비된 보다 발전한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전문공인의 존재는 주로 대량생산과 규격화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되었다. 그러나 대량생산은 재화의 소비나 사회 규모와 관련한 것으로 오히려 전문공인이 출현한 이후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공인은 수준 높은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충분한 기술을 갖추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 생산하며, 높은 수준의 규격화를 이룬 상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교육을 통해 계승되기 시작한 시점에 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이명훈 2025).

---

7) 나주 랑동 1호묘의 경우 외부에서 화장하여 백골화한 뒤, 본래의 위치를 고려하여 매장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김재현 2006). 이 견해는 인골에서 화장한 흔적이 확인되지만, 분묘 내부에서는 화장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매우 예외적인 사례인 점은 분명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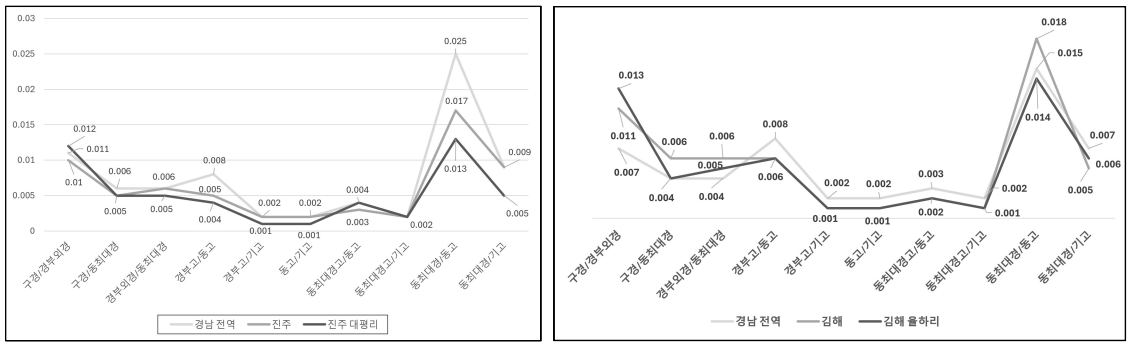


그림 3. 광역권 < 소지역권 < 개별유적권 양상(左: 외반형, 右: 내경형)

청동기시대 재화 중 규격화의 양상이 보이는 것은 석검과 적색마연토기가 대표적이다. 석검은 병부의 형태를 기준으로 규격화에 대한 양상이 검토된 바 있다(李宗哲 2019). 적색마연토기 또한 의례와 관련한 토기라는 점, 매우 높은 제작기술이 필요한 점 등을 근거로 전문공인의 출현이 검토되었다(李健茂 1986; 何仁秀 1989; 임학종 2012; 裵眞晟 2016).

필자 또한 경남지역에서 출토한 332점 적색마연호를 대상으로 전문공인의 출현을 검토한 바 있다(이명훈 2025). 검토는 적색마연토기의 외형적 비율이 얼마나 높은 정형성을 갖는지 살펴보는 것을 통해 규격화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외형적 비율이 정형화한 점을 강조하였다. 구경, 동최대경, 기고와 같은 1차적인 수치는 토기의 크기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기의 크기가 변하여도 외형적 비율, 예를 들어, 구경과 동최대경의 비율, 동고와 기고의 비율 등 주요 속성의 비율은 항상 유지하며 매우 높은 정형성을 보이므로 이를 통해 규격화를 도출하였다.

특히, 토기의 외형적 비율이 높은 정형성을 갖는 이유로 토기 제작자의 머릿속에 적색마연호 제작에 필요한 제작도면 있었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그 제작도면을 적색마연호 제작의 인식적 틀이라고 명명해 보았다. 그리고 이 인식적 틀은 상당한 범위에서 공유된 것으로 보았는데, 제작중심지에 가까울수록 더욱 높은 정형성을 보였고, 멀어질수록 더 낮은 정형성을 보이는 특징도 함께 도출하였다(그림 3). 무엇보다 이러한 인식적 틀은 교육을 통해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청동기시대는 전문공인이 출현한 사회로 볼 수 있다.

4. 경제적 재화의 집중과 분배 네트워크

경제적 재화와 관련하여 사회의 심화한 계층성을 살펴볼 수 있는 관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경제적 재화의 집중이다. 계층이 분화한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재화가 개인이나 특정 계층에게 집중하는 것은 시간과 지역을 막론한 공통적인 거대 흐름이다. 특히, 희소성이 높은 재화가 개인에게 집중하는 것은 유력개인의 출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 이해되고 있다. 둘째, 경제적 재화의 분배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는지 여부이다. 이는 중심지와 주변, 그리고 유력개인의 출현을 넘어 계층 간 계서적인 관계까지 보여주는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먼저, 경제적 재화의 집중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재화의 집중과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재화의 희소성이다. 가치가 낮은 재화가 개인이나 특정 계층에 집중한 것은 계층성과 관련하여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희소성이 높은 재화의 집중이 이 검토의 핵심이다.

여기서는 청동기시대에 가장 높은 희소성을 보이는 청동기를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표 4〉는 청동기가 출토된 청동기시대 분묘를 정리한 것이다.[8] 청동기는 45개소 유적,

표 4. 청동기 출토 청동기시대 분묘 일람

연번	유적명	유구명	청동기	공반유물	대형분묘군(10기 이상)
1	광주 역동	석관묘	비파형동검 1점 청동검파두식 1점	석촉 14점, 석제구슬 3점	
2					
3	양평 상자포리	묘역지석묘	세형동검 1점	천하석제장식	
4	속초 조양동	지석묘	선형동부 1점	무경식석촉 8점	
5	춘천 우두동 I	석관묘	비파형동검 1점 유경식동촉 1점	무경식석촉 9점, 곡옥 1점	
6					
7	춘천 중도	A1-29호(묘역)	비파형동검 1점		162기
8		D2・3-7호 (묘역)	동촉1점		
9	평창 하리	2호 지석묘	비파형동검 1점	적색마연토기 1점, 석촉 6점, 환옥 1점, 곡옥 1점	
10	대전 비래동	1호 지석묘	비파형동검 1점	적색마연토기 1점, 석촉 5점	
11	대전 상대동	5호 석관묘	비파형동검 1점		
12	부여 송국리	1호 석관묘	비파형동검 1점 동착 1점	석검 1점, 석촉 11점, 곡옥 2점, 관옥 17점	16기
13					
14	서천 오석리	주구석관묘	비파형동검 1점	석촉 4점, 관옥 11점	
15	고흥 운대리	지석묘	비파형동검 1점		
16	고흥 운대	13호 지석묘	비파형동검 1점	지석 1점, 석촉 2점, 석도편	24기
17	보성 덕치리 신기	1호 지석묘	(변형)비파형동검 1점		26기
18		15호 지석묘	동촉 1점	석검 1점, 석촉 8점, 토제품	
19	보성 봉릉리	지석묘	동모 1점		
20	순천 가곡동 원가곡(가군)	15-1호 지석묘	(추정)비파형동검 1점		
21	순천 서평리 쌍암	지표수습	비파형동모 1점		37기

8) 필자는 청동기시대 분묘를 '돌로 만든 매장주체부를 가진 분묘'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석관묘나 지석묘와 공존하는 토광묘는 포함한다. 그래서 청동기가 출토되었지만 매장주체부가 적석목관묘인 경우 검토에서 제외하였다.

22	순천 우산리 내우	8호 지석묘	비파형동검 1점	곡옥 2점, 소옥 5점	58기
23		38호 지석묘	비파형동검 1점		
24	순천 평중리 평지	지석묘	세형동검 1점		
25	순천 봉계동 월앙	10호 지석묘	비파형동검 1점	소옥 1점, 관옥 15점	15기
26	순천 오림동	8호 묘역지석묘	비파형동검 1점	석촉 1점	18기
27		5호 석관묘	비파형동검 1점	관옥 2점, 토기편	
28	순천 월내동 상촌(Ⅱ · Ⅲ)	7호 지석묘	비파형동검 1점	토기편(이중구연)	205기
29		2호 묘역지석묘	비파형동검 1점	토기편(흔암리식)	
30		92호 묘역지석묘	비파형동검 1점	석촉 1점	
31		115호 묘역지석묘	비파형동검 1점	석촉 2점, 유구석부 2점	
32		116호 묘역지석묘	비파형동검 1점	석촉 3점, 용도미상 석기 1점	
33	순천 적량동 상적	7호 지석묘(묘역)	비파형동검 1점		29기
34		2호 석관묘(묘역)	비파형동검 1점 비파형동모 1점	(관내)관옥 5점 (관외 묘역부)유구석부 1점, 지석 2점, 토기편	
35					
36		4호 석관묘(묘역)	비파형동검 1점	토기편(무문토기, 적색마연토기)	
37		9호 석관묘(묘역)	비파형동검 1점	(관외 적석부)석착, 지석, 토기편	
38		13호 석관묘(묘역)	비파형동검 1점		
39		21호 석관묘(묘역)	비파형동검 1점	(관외 적석부)석기편	
40		22호 지석묘	비파형동검 1점		
41	순천 평여동 산본	나-2호 지석묘	비파형동검 1점		28기
42	순천 화장동	26호 지석묘	비파형동검 1점	석촉 1점, 어망추 1점, 토기편	27기+ 4기?
43	영암 서호리	6호 묘역지석묘	청동방울 2점		29기
44	영암 장천리	1호 묘역지석묘	세형동검 1점	검파두식, 석기편, 토기편	11기
45	장흥 송정(나군)	16호 지석묘	(추정)동과	석촉 1점	25기
46	함평 상곡리	1호 석관묘	경형동기 4점		
47	김천 송죽리	4호 지석묘	비파형동검 1점	적색마연토기 4점, 석촉 2점, 지석 2점	19기

48	영덕 사천동	석관묘	비파형동검 1점		
49	거제 아주동	13호 석관묘	동촉 1점	석검 1점, 석촉 2점	16기
50	김해 내동	1호 지석묘	세형동검 1점	흑도장경호	
51	김해 무계리	지석묘	동촉 3점	석검 1점, 석촉 8점, 관옥 3점, 토기편	
52	김해 신문리	3호 석관묘	(변형)비파형동검 1점	적색마연토기 1점, 석촉 6점	
53	김해 연지	지석묘	청동검파두식 1점		
54	김해 율하리	B-9호 석관묘	세형동검 1점	검파두식	106기
55	김해 회현리	3호 옹관묘	(변형)비파형동검 1점 동사 9점	관옥 1점	
56					
57	남해 당항리	1호 지석묘	비파형동검 1점		
58	사천 이금동	C10호 석관묘	(변형)비파형동검 1점	토기편	63기
59		D4호 석관묘	비파형동검 1점	관옥 41점	
60	산청 매촌리	35호 석관묘	동촉 1점	적색마연토기 1점, 석촉 24점, 석검 1점	
61	산청 백운리	석관묘?	세형동검 4점 동모 1점 동사 1점		
62					
63					
64	진주 가호동	1호 묘역지석묘	청동팔찌 1점	석검 1점, 석촉 1점	39기
65	창원 덕천리	16호 석관묘	(변형)비파형동검 1점	석검 1점, 적색마연토기 1점	23기
66	창원 진동리	석관묘	(변형)비파형동검 1점	석검 1점, 석촉 1점, 적색마연토기 1점	

59기의 분묘에서 총 83점이 출토되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특징은 수량이 매우 적다는 점이다. 남한지역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분묘의 전체 수량을 정확하게 집계하지 못하겠지만, 어림잡아 수 천기가 넘는다고 볼 때, 59기의 분묘에 83점이 부장된 것은 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청동기가 이 당시 희소성을 가진 유물이라는 점은 너무도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청동기가 집중적으로 부장된 양상은 얼마나 확인될까? 먼저 유적의 관점에서 보면, 총 45개소 유적 중 청동기가 2점 이상 확인된 곳은 14개소에 지나지 않는다. 즉, 31개소 유적에서는 단 1점의 청동기만 확인된 것이다. 그나마 여수 월내동 상촌과 적량동 상적 지석묘 유적이 주목된다. 월내동 상촌의 경우 확인된 분묘 수가 205기에 달해 5점의 청동기가 출토된 것이 높은 비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타 유적에 비해 많은 청동기가 부장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적량동 상적 지석묘의 경우 29기의 분묘에서 8점의 청동기가 확인되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물론 미조사구간에 분묘가 더 조사될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여수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청동기의 집중이 뚜렷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음으로 개별 유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분묘에 2점 이상의 청동기가 부장된 사례는 모두 8기이다.[9] 세부적으로 보면 2점이 부장된 분묘가 5기, 3점 이상 부장된 것이 3기이다. 3점 이상 부장된 사례라면 청동기가 집중적으로 부장되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함평 상곡리(경형동기 4점), 김해 무계리(동촉 3점), 김해 회현동(동사 9점) 정도에 불과하다. 세형동검 수 점과 동과, 동모, 동경, 청동의기 등 다종 다량의 청동기가 부장되는 적석목관묘와 비교하면 경제적 재화의 집중을 말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청동기가 부장된 분묘 중 공반유물을 고려해도 재화의 집중은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4기 정도가 주목된다. 부여 송국리 1호묘는 비파형동검 1점, 동착 1점과 함께 석검 1점, 석촉 11점, 곡옥 2점, 관옥 17점이 출토되었다. 검, 촉, 옥이 부장된 것으로 볼 때, 일반적인 청동기시대 분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검이라는 속성이 중복됨에도 동검과 석검이 함께 출토된 점이 이례적이다. 여수 적량동 상적 2호 지석묘 동검과 동모가 함께 부장된 점이 독특하다. 적석목관묘에서는 흔한 양상이지만 지석묘에서는 유일한 사례로 보인다. 또, 김천 송죽리 4호 지석묘에서는 적색마연토기가 4점이나 부장된 것이 확인되었고, 산청 매촌리 35호 석관묘에서는 석촉이 25점이나 부장되어 눈길을 끈다. 그러나 청동기뿐 아니라 공반유물을 함께 고려해도 몇 가지 독특한 점만 드러날 뿐, 경제적 재화의 집중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경제적 재화의 분배 네트워크는 어떨까? 청동기시대 경제적 재화의 네트워크는 석기(張龍俊·平郡達哉 2009; 손준호 2010; 黃昌漢 2013; 李宗哲 201), 옥기(崔鍾圭 2000; 庄田愼矢 2005), 적색마연토기(황재훈·이정은 2022; 이명훈 2025)를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검토되었고, 식량(김장석 2008)을 대상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공통점은 생산 중심지를 상정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에 경제적 재화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고 제시하는 것이다. 필자 역시 청동기시대에 직업의 분화, 희소성 높은 재화의 생산과 소비, 전문공인의 출현 등 다양한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이러한 네트워크가 있었다는 점은 크게 동의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네트워크를 계층성 표출의 요소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경제적 재화의 네트워크가 계층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유력개인 또는 유력집단에 의한 '분배'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로는 단순히 경제적 교역을 위한 네트워크인지, 아니면 분배가 포함된 네트워크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생산 중심지를 상정하여 경제적 중심지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정치적 중심지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경제적 재화의 분배 네트워크는 현재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청동기시대에 확인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9) 산청 백운리의 경우 정식조사가 아닌 신고에 의해 발견된 자료이다. 당시 기록에 판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매장주체부가 석관묘일 가능성이 있지만, 세형동검이 4점이나 확인된 점은 청동기시대의 양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검토에서는 제외하였지만, 자료는 제시하고자 한다.

Ⅲ. 경제적 재화의 집중이 부재한 원인

지금까지 청동기시대 분묘에서 보이는 계층성 표출 요소를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묘역지석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계층성의 요소는 거대 단독묘, 귀속지위, 전문공인이다. 반면, 경제적 재화와 관련하여 재화의 집중과 분배의 네트워크는 모두 확인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계층사회라는 관점에서 청동기시대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유력개인이 출현한 심화한 계층사회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아직 본격적인 계층사회로 보기 어려울까?

이러한 질문은 수장사회이론과 맞닿아 있다. 이 이론은 수장사회를 집단지향적 수장사회(Group-Oriented Chiefdom)와 개인지향적 수장사회(Individualizing Chiefdom)로 구분한다. 남한지역의 청동기시대 사회를 집단지향적 수장사회로 바라보는 관점은 청동기시대 수장의 권력을 개인화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수장의 권력은 제도화되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여 세습된 것이 아니라고 보며(朴洋震 2006), 수장의 권력 기반은 무력이나 경제적인 측면에 이르지 못하고 이념적 수준에 기대고 있다고 보고 있다(李熙濬 2011). 그래서 청동기시대 수장은 유력개인이 아니라 공공기념물을 축조하는 협업에 기반한 우두머리라는 견해(이청규 2017)로 귀결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거대 단독묘, 귀속지위, 전문공인 등 청동기시대는 유력개인이 출현한 사회라는 지표가 다양하게 확인된다. 특히, 청동기시대에 조성되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묘역지석묘는 당시의 심화한 계층사회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요소이다.

청동기시대 계층사회를 유력개인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보는 핵심 근거는 경제적 재화의 집중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제적 재화의 집중은 계층성을 표출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시간과 지역을 관통하여 과거부터 오늘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인되는 공통된 요소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거대 단독묘라는 요소 또한 경제적 재화의 집중과 함께 심화한 계층사회를 보여주는 주류의 두 방향 중 하나이다. 그리고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사회의 경우 거대 단독묘의 규모가 너무나도 거대하여 이것을 조성한 집단의 잠재력을 무시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 재화의 집중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구산동 지석묘, 덕천리 지석묘, 진동 지석묘와 같이 수십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묘역지석묘를 1인을 위해 조성한 집단이 과연 석검 10점, 20점을 부장할 능력이 없었을까? 적색마연토기나 옥 장신구를 수십 점씩 부장할 능력이 정말로 없었을까? 능력은 넘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재화에 관한 문제, 특히 경제적 재화의 집중이 확인되지 않는 점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그 원인을 인식의 부재 혹은 필요성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즉,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사회는 경제적 재화를 집중하는 것으로 그들이 가진 계층성을 표출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다음 장에서 지석묘가 갖는 함의에 대해 상술하겠지만, 청동기시대 사회는 지석묘 자체가 이데올로기로써 작동한 사회라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화의 집중이 아니라 지석묘의 거대함을 통해 그들의 권력을 표출한다는 인식이 주된 사회였다고 볼 수 있다. 경남지역에서 확인되는 늦은 시기 거대한 묘역지석묘의 존재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으로 청동기시대 분묘를 살펴보면 기존의 모순이 해결되기도 한다. 바로 분묘의 규모와 배치, 그리고 부장유물의 희소성과 수량의 상관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로 청동기를 살펴보았는데, 45개소 유적 59기의 분묘에서 청동기가 출토되었지만, 청동기라는 희소한 유물이 유적의 중앙에 위치한, 혹은 가장 거대한 분묘에서 출토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번 논고에서 검토하지 못했지만, 석검이나 적색마연토기, 옥 등 거의 모든 유물 역시 유구(규모, 배치)와 유물(희소성, 수량) 간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다시 강조하지만 필자는 이것을 경제적 재화의 집중으로서 계층성을 표출한다는 인식 그 자체가 부재하였던 점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적 재화의 집중으로 자신이 가진 계층성을 표출한 시점은 적석목관묘를 축조한 이후이다. 대전 괴정동, 예산 동서리, 아산 남성리, 완주 갈동·덕동, 부여 구봉리, 청주 오송, 군산 선제리 등 하나의 유적 혹은 하나의 분묘에 다종 다량의 청동기를 부장하여 경제적 재화의 집중이 뚜렷하게 보이는 사례는 묘역지석묘와 너무도 대조적이다.

그러나 이 분묘들이 반드시 지석묘에 후행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의 큰 흐름에서 지석묘는 소멸하고 그 자리를 목관묘가 대신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구산동 지석묘의 조사 이후 지석묘의 하한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지금, 위의 적석목관묘 유적들은 경남지역의 대형 묘역지석묘와 동시기에 공존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어쩌면 일부 묘역지석묘는 더 늦은 시기에 조성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러한 전환기에 묘역지석묘를 조성한 사람들은 다종 다량의 재화를 집중적으로 부장하는 풍습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수용되지 못했다. 그들은 지석묘의 거대함을 통해 계층성을 표출하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적석목관묘를 조성한 집단 역시 묘역지석묘의 거대함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층성을 분묘를 거대하게 조성하는 것으로 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거대한 목곽묘가 등장할 때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분묘를 거대하게 조성하는 것과 경제적 재화를 집중하는 것 모두 계층성을 보여주는 분명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처럼 두 요소가 반드시 공존하는 것은 아니다. 묘역지석묘에 경제적 재화의 집중이 부재한다면, 적석목관묘에는 거대함이 부재한다. 즉, 두 사회 모두 계층성을 표출하는 요소 중 일부가 부재한 것은 공통인 셈이다.

그러나 적석목관묘에 거대함이 부재한 것은 지석묘에 경제적 재화의 집중이 부재한 것에 비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적석목관묘를 조성한 집단과 관련하여 계층성을 짐작할 수 있는 거대한 취락이나 특별한 주거지가 확인된 것도 아니고, 성인에 비해 탁월한 유·소아묘가 뚜렷하게 확인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적석목관묘의 피장자는 개인화한 수장으로 평가된다. 경제적 재화의 집중이라는 계층성 표출 요소가 어쩌면 이 시대 이후, 심지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장 밀접하게 체감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편중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묘역지석묘의 피장자가 적석목관묘의 피장자에 비해 개인화하지 못한 수장, 권력을 제도화하지 못한 수장, 지위를 세습하지 못한 수장으로 평가되는 것은 재평가가 시급하다. 묘역지석묘를 조성한 사회, 적어도 적석목관묘가 등장하여 두 사회가 공존한 시기에 초대형의 거대

단독묘를 조성한 사회의 수장은 개인지향적 수장사회(Individualizing Chiefdom)의 수장으로 보아야 한다. 단순히 분묘의 거대함만 아니라 유·소아묘를 통한 귀속지위의 출현, 석검이나 적색마연토기 등 희소성이 높은 재화의 생산과 관련한 전문공인의 등장이 복합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Ⅳ. 다성적 상징물로서의 지석묘

그렇다면 청동기시대 사회가 분묘를 거대하게 조성하는 것으로 그들의 계층성을 표출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지석묘, 특히 거대한 묘역지석묘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살펴보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지석묘가 가진 정치적·사회적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고, 의례적 관점에서 지석묘가 청동기시대에 중요한 요소가 된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정치적 관점에서 지석묘의 가장 뚜렷한 의미는 유력개인의 무덤이라는 점이다. 특히 묘역지석묘의 거대함과 1인은 위한 분묘라는 점은 유력개인의 심화한 계층성을 극대화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지석묘가 그런 것은 아니다. 바로 매장주체부가 확인되지 않는 지석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매장주체부가 없는 지석묘의 문제는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 나아가 밀양 살내, 경주 전촌리, 산청 매촌리 등 청동기시대 분묘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규모에 달하는 묘역지석묘에서도 매장주체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은 문제를 점점 확장시키고 있다. 분묘가 아니라는 점은 소규모 지석묘를 넘어 거대한 묘역지석묘까지도 유력개인의 계층성을 표출한 요소가 아닐 수 있다는 견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분묘가 아닌 지석묘는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가질까? 그리고 왜, 어떤 과정을 거쳐 그러한 의미를 함의하게 되었을까? 매장주체부가 없는 지석묘는 묘표석, 제단, 공공의 기념물로 추정된다(李榮文 1993; 李盛周 2012; 우명하 2016). 묘표석의 경우 분묘군의 경계 혹은 집단 영역의 경계로 볼 수 있는 외딴곳에 위치하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제단으로 보는 시각은 묘역지석묘임에도 매장주체부가 없는 점, 그리고 상면에 다양한 유물이 깨어진 채 확인되는 점을 들어 제의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란 견해이다. 공공의 기념물 역시 집단의 기억을 공유하는 물질이라는 차원에서 충분히 설득력 있다. 지석묘의 기능에 관한 논의는 매장주체부가 확인되지 않는 지석묘의 문제로서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그 결과 이처럼 다양한 해석이 나온 것이다. 모두 나름의 근거가 충분한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바로 지석묘라는 하나의 현상이 어떻게 분묘, 묘표석, 제단, 기념물이라는 다양한 기능을 가질 수 있냐는 점이다. 심지어 기능에 따른 외형이나 경관상의 구분도 확인되지 않는다. 과연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인식한 지석묘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지석묘의 의미에 관하여 논의를 심화하면 지석묘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 어려워진다. 분묘, 묘표석, 제단, 기념물은 표면적 상징이다. 그리고 그 상징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진다. 이 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대 단독묘로서 분묘는 유력개인의 권력을 보여주는 계층성 표출의

상징물이다. 묘표석은 일종의 표식으로서 집단의 영역을 상징하거나 혹은 특정 지역(예를 들어 분묘군, 주거군, 의례지역 등)의 경계를 의미하는 상징물이다. 제단의 경우 제장이라는 공간으로서 기능하지만 그 본질은 신성함에 기초하고 있어, 제단은 신성함을 의미하는 상징물인 셈이다. 공공의 기념물 역시 조상숭배, 애니미즘적 영적숭배, 공공의 기억 등 다양한 의미의 상질물이 본질이다.

이처럼 지석묘는 표면적인 상징도 다양하지만 그 이면에 포함한 본질적 의미는 더욱 다양하다. 그리고 이 모든 서로 다른 상징은 지석묘라는 현상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청동기시대 사람들에게 지석묘란 하나의 현상이지만 여러 가지 기능과 다양한 의미가 함축된 특별한 상징물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석묘는 다성적 상징물(Multivocalic Symbol)로 볼 수 있다. 다성적 상징물이란 하나의 상징물이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는 현상을 말한다(Rappaport 2017; Turnur 2018). 수십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도 있고, 심지어 서로 모순되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기 한다. 이는 상징이 갖는 다성성(Multivacality)과 압축성(Condensation)에 기인한 특징이다(Turnur 2020).

널리 알려진 다성적 상징물로 룸빔 나무가 있다. 룸빔나무는 아프리카 은뎀부 부족이나 마링코 부족 등에서 보이는 갈등 해소의 상징물이다. 그런데 룸빔나무가 상징하는 갈등의 해소는 부족 간의 전쟁에서부터 부족 내부의 갈등, 개인적인 갈등까지 다양하다. 또한, 갈등 해소에 따라오는 다양한 현상까지 모두 포함한 상징물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마링코 부족은 타 부족과의 전쟁을 종료할 시점이 되면 룸빔나무를 심는다. 이것은 상대에게 전쟁을 종료할 의사를 표현하는 상징물이면서 동시에 자신들 내부에게도 전하는 메시지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의미일 뿐, 룸빔나무를 심는 행위는 더욱 다양한 의미를 포함한다. 룸빔나무를 심는 것은 전쟁의 종료를 상징하는 것과 동시에 생산활동의 재개, 남녀 간의 결혼 가능, 특정 음식에 대한 터부 해제 등 다양한 상징을 동시에 발현하는 것이다.

반면, 룸빔나무를 뽑는 것은 이 모든 것의 반대를 상징한다. 전쟁을 시작하고, 생산활동을 중단하며, 결혼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터부까지 다시 작동하는 것을 룸빔나무를 뽑는 행위로 표현한다. 그 외에도 룸빔나무는 이방인을 받아들이겠다는 상징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터너는 룸빔나무가 최소 19가지 이상의 현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

지석묘 역시 룸빔나무와 같은 다성적 상징물로 보아야 한다. 지석묘는 분묘이자 묘표석이고, 제단이자 공공의 기념물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수장의 권력, 집단의 영역, 신성한 공간, 숭배의 대상과 같은 상징을 포함하고 있다. 심지어 이 모든 상징이 지석묘라는 하나의 현상을 통해 문제없이 인식되는 점은 지석묘가 다성적 상징물로서 청동기시대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석묘는 왜, 어떠한 과정을 거쳐 다성적 상징물이 되었을까? 아마도 지석묘가 갖는 분묘로서의 기능과 청동기시대의 의례가 지석묘라는 공간에서 결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즉, 분묘로서 출발한 지석묘에 의례적 기능이 결합하면서 지석묘가 다성적 상징물로 변한 것이다.

많은 의례 연구자들은 의례를 정의할 때 '비일상적 행위'와 '반복적 시행'을 가장 중요한 요소

로 꼽는다(Bell 2007; Rappaport 2017). 왜냐하면 의례는 비일상적 행위를 강요하지만 반복적 시행을 통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비일상적 행위가 엄격한 규칙제어성(rule controllability)을 통해 반복되면서 형식성(formality)을 갖추어야 한다. 비일상적 행위가 매번 다른 모습으로 시행된다면 그것은 우발적인 사건일 뿐 의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비일상적 행위가 정형화하면 정형화할수록 의례는 더욱 강력해진다. 형식화한 의례는 전통성(traditionality)을 갖게 된다. 의례에서 전통성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권위를 바탕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동한다. 형식화하고 전통성까지 확보한 의례는 최종적으로 불변성(invariability)을 가진 항구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되는데(Bell 2007). 이때부터 의례는 현상을 초월한 이념적인 것으로 변화한다.

지석묘는 의례의 대상이자 공간으로서, 위의 과정을 통해 그 자체가 불변성을 획득한 하나의 이념적인 것으로 발전하였다고 생각된다. 지석묘를 의례적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아마도 초기에는 피장자를 부장하고 그곳에서 장송의례를 진행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지석묘는 분묘의 의미를 초월하여 죽은 자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공간으로서 인식되면서 장송의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례가 시행되었을 것이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반복적으로 의례를 진행하였을 것이다. 반복된 의례는 점차 형식화하면서 과거로부터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전통성까지 갖게 되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항구적이고 불변한 이념적인 것이 되었을 것이고, 이것이 다성적 상징물로서의 지석묘를 만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다성적 상징물로서의 지석묘가 분묘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석묘가 다성적 상징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의례와의 결합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지석묘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의례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필자는 그것을 장송의례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지석묘에서 장송의례가 시행된 이유는 지석묘가 분묘이기 때문이다.

물론 최초의 지석묘가 분묘로 조성된 것인지, 아니면 묘표석이나 제단, 공공의 기념물로 축조된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지석묘가 분묘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의례가 결합하면서 다성적 상징물이 되었다는 흐름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석묘를 축조한 사람들은 경제적 재화의 집중보다 지석묘를 거대하게 조성하는 것으로 그들의 계층성을 표출한 것이다.

Ⅴ. 사적으로서 창원 진동리 유적의 가치

창원 진동리 유적은 남한지역에서 가장 큰 묘역지석묘군이 확인된 유적 중 하나이다. 묘역지석묘의 규모나 조성된 분묘의 수 모두 최고 수준의 탁월한 분묘군이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거대한 묘역지석묘가 연접한 양상이 다른 지역, 다른 유적에 비해 매우 탁월하다는 점이다. 물론, 단일 분묘로서 진동리 유적의 묘역지석묘보다 규모가 더 큰 사례는 김해 구산동, 창원 덕천리 등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연접 양상이 잘 보이는

유적도 사천 이금동이나 진주 가호동 등 분명히 있다. 그러나 진동리 유적과 같이 대형급의 묘역지석묘가 이처럼 다수 연접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필자는 묘역지석묘의 엽접을 집단으로서 특정 계층이 출현한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진동리 유적의 사례는 청동기시대의 심화한 계층사회의 또 다른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경남지역 적색마연토기의 생산 중심지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전 검토에서 적색마연토기 외형의 비율이 높은 정형성을 보이는 점을 근거로 전문공인의 출현과 광역권, 소지역권, 개별유적권에 따른 정형성의 차이를 검토한 바 있다. 이때 진동리 유적의 적색마연토기는 타 유적에 비해 매우 높은 정형성을 보였는데, 그렇게 볼 때 진동리 유적은 경남지역 적색마연토기의 생산 중심지 중 하나일 가능성 크다.

이처럼 진동리 유적은 남한지역에서 가장 탁월한 묘역지석묘 분묘군 중 하나이다. 심지어 보존조치를 위해 일부만 조사되어, 아직도 미조사구간이 많음에도 이 정도의 탁월함을 보이는 것이다.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진동리 유적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Ⅵ. 맺음말

거대한 분묘를 조성하는 것과 경제적 재화를 집중하는 것은 시간과 지역을 넘어 인류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계층성의 표출 요소이다. 여기에 귀속지위이 출현, 전문공인의 등장, 경제적 재화의 분배 네트워크, 그리고 전쟁의 출현이나 대외 교류 등 수많은 요소도 추가된다. 물론 어느 시점 이후라면 이 모든 현상이 동시에 확인될 것이다. 그러나 청동기시대는 이제 막 계층사회가 형성하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어떤 요소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보다 당시 사회가 어떤 요소로서 그들의 계층성을 표출하였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청동기시대는 완성된 계층사회가 아니라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한 초창기의 불완전한 계층사회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 참고문헌

高旻廷·Martin T.Bale, 2008,「청동기시대 후기 수공업 생산과 사회분화」,『한국청동기학보』2.

고민정, 2016,「청동기시대 남강유역 옥 장신구의 생산과 소비체계」,『경남연구』12.

국립국어원, 1999,『표준국어대사전』.

김병섭, 2009,「密陽地域 墓域式 支石墓에 대한 一考察」,『경남연구』1.

김재현, 2006,「부록 2. 나주 랑동유적 1호 묘실 인골분석」,『羅州 郎洞遺蹟』.

로이 라파포트(역 강대훈), 2017,『인류를 만든 의례와 종교』, 황소걸음.

마이크 피어슨(역 이희준), 2009,『죽음의 고고학』,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裵眞晟, 2016,「플라스크형적색마연호의 분포와 성격」,『韓國靑銅器學報』18.

빅터 터너(역 강대훈), 2018,『인간 사회의 상징 행위: 사회적 드라마 구조, 거뮤니타스』, 황소걸음.

빅터 터너(역 장용규), 2020,『상징의 숲 1·2』, 지식을 만드는 지식.

신석원, 2016,『人骨로 본 靑銅器時代 葬制 硏究』,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우명하, 2016,「영남지역 묘역지석묘 축조사회의 전개」,『영남고고학』75.

우정연, 2020,「남한지역 청동기시대 화장묘 형식 재검토」,『한국고고학보』 2022권 4호.

兪泰勇, 2003,「人骨分析을 통한 支石墓社會의 階層性 硏究」,『京畿史學』7.

윤형규, 2019,「대구·경북 청동기시대 무덤의 전개를 통해 본 지역사회의 변화」,『韓國靑銅器學報』24.

李健茂, 1986,「彩文土器考」,『嶺南考古學報』2.

李盛周, 2012,「儀禮, 記念物, 그리고 個人墓의 발전」,『湖西考古學』26.

이명훈, 2023,「청동기시대 계층사회의 발전 단계 검토」,『한국청동기학보』33.

이명훈, 2024,「유·소아묘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귀속지위의 출현과 양상」,『한국상고사학보』124.

이명훈, 2025,「적색마연호 제작의 인식적 틀」,『한국상고사학보』129.

李榮文, 1993,『全南地方 支石墓 社會의 硏究』, 韓國敎員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李在賢, 2003,『진·변한사회의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학종, 2012,「紅陶의 成形과 燒成 實驗」,『대동문화재연구총서』1.

崔夢龍, 1981,「全南地方 支石墓 社會와 階級의 發生」,『韓國史硏究』35.

캐서린 벨(역 류성민), 2007,『의례의 이해-의례를 보는 관점과 의례의 차원들』, 한신대학교 출판부.

콜린 렌프류·폴 반(역 이희준), 2006,『현대 고고학의 이해』, 서울: 사회평론.

何仁秀, 1989,『嶺南地方 丹塗磨硏土器에 대한 新考察』,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洪斗承·具海根, 1993,『社會階層·階級論』, 茶山出版社.

田中良之·김재현, 2011,「附錄 1. 사천 본촌리 출토 인골에 대한 분석」,『泗川 本村里遺蹟』.

Blanton, R., Feinman, G., Kowaleski, S., Peregrine, P., 1996, A dual-processual theory of the evolution of Mesoamerican Civilaization, Curren Anthroplogy 37.

Earle, T.K., 1987, Specialization and the production of wealth: Hawaiian chiefdoms and the Inka Empire, Specialization, Exchange and Complex Societies, Cambridge University.

Renfrew, C., 1974, Beyond a subsistence economy: the evolution of social organization. Moor,C,B,(Eds)Reconstruction of Societies, Cambridge: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묘역식지석묘의 함의와 창원 진동리 유적의 가치」에 대한 토론문

정대봉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발표자는 최근 일련의 논고(이명훈 2023, 2024, 2025)를 통해 한반도 남부지역 청동기시대 계층사회를 탐구하고 있다. 본 발표문 역시 그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대부분의 논고에 동의하며 질문에 앞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문의 요지를 요약한 다음 이와 관련하여 토론자가 느낀 몇 가지 원론적 질문을 남긴다.

발표문은 청동기시대 묘역지석묘의 사회적·상징적 의미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원 진동리 유적의 고고학적 가치를 살펴보았다. 발표자는 묘역의 규모와 조성 방식, 피장자의 연령, 부장품의 양상, 적색마연토기의 형태적 정형성 등을 종합하여 청동기시대 사회의 위계와 권력 표출 방식을 해석한 것으로 보고 진동리 유적 역시 그러한 시각으로 이해하였다.

특히 단독의 대규모 묘역지석묘의 축조에 상당한 노동력의 동원이 필요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거대 기념물의 조성이 당시 사회의 권력 관계 및 사회적 위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상기 전제는 논고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또한 어린 연령의 피장자가 묘역지석묘에 매장된 사례를 통해 생득적으로 지위가 세습되었을 가능성도 상정한바, 이는 청동기시대 계층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회적 요소로 파악하였다.

한편, 묘역에서 위세품이 집중적으로 부장되는 양상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시 사회가 부와 희소재의 독점보다는 거대 기념물의 조성을 통해 위계를 표현했을 가능성을 전제하였다. 그리고 적색마연토기의 형태적 규격성과 반복성을 검토하여 일정한 제작 전통과 전문적 생산활동의 가능성도 살펴봄으로써 세계사적 시각에서 계층사회화의 과정을 바라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지석묘가 단순한 매장시설을 넘어 의례와 공동체의 기억, 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복합적 상징물로서 기능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과 논의를 바탕으로 사적 제472호 진동리 유적의 대규모 묘역지석묘와 관련 유물의 특징을 강조하며 유적의 고고학적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토론자는 해당 논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조예가 부족한바, 발표자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반대하기보다는 발표문에서 제시한 고고학적 자료나 논거가 발표자의 이론적 결론을 실제로 뒷받침하는가에 대해 핵심 요소별로 몇 가지 원론적 의문을 제시한다.

첫째, 묘역지석묘의 규모는 유력 개인 권력의 산물인가?

발표자는 묘역지석묘의 규모와 조성에 필요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개인의 존재와 사회적 위계의 심화를 상정하였다. 여기에 대해 토론자는 대규모 묘역지석묘의 축조에 많은 노동력

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곧 특정 개인의 권력과 지배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가지고 있다.

최근 Bauer·Johansen(2023)[1]은 선사시대 권력을 집단적 협력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거석기념물을 개별 피장자의 지위 표상으로만 보지 않고 공동체의 형성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공공의 장소로 해석하는 연구를 발표했다. 따라서 노동력 동원 능력과 개인의 지배 권력을 등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를테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한 의례적 목적이나 집단적 협력을 통한 유대 결속 등의 목적으로도 대형 기념물의 조성이 가능했을 것인데, 지배권력 표출과 집단 협력의 산물로서의 기념물 이 양자의 가능성을 구분할 수 있는 고고학적 지표나 이론이 있을지 궁금하다.

둘째, 어린 피장자의 존재는 지위의 세습을 입증하는가?

발표문에서는 해외 연구의 일반론을 차용하여 묘역지석묘에 매장된 어린 피장자 사례를 근거로 생득적 지위 또는 지위 세습의 가능성을 상정하고 이를 계층사회의 주요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 피장자가 대규모 묘역지석묘에 매장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생득적 지위나 사회적 지위의 세습을 추론할 수 있을지, 혹은 친족관계, 특정한 장례 관습, 의례적 역할 등 다른 설명 가능성과 비교했을 때, 지위 세습 가설을 특별히 지지하는 자료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첫 번째 질문과도 궤를 같이하지만, 이를테면 일반 구성원의 죽음을 계기로 집단의 유대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거대 기념물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한된 사례를 청동기시대 사회 전반의 구조로 일반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셋째, 적색마연토기의 형태적 규격성은 전문 생산의 증거인가?

발표자는 적색마연토기에서 나타난 외형적 비율의 정형성을 통해 제작자의 '인식적 틀'로써 상정하고 이를 통해 제작 기법이 광역 범위에서 공유된 것으로 보았다. 특정 목적의 유물에서 형태적 유사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형성은 가내 생산 과정에서의 기술 전승이나 공동체가 공유한 제작 규범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즉-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하나-상기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승에 의한 종적 공유의 결과로서의 정형성인지, 특정 집단에 의한 횡적 공유의 결과로서의 정형성인지가 고고학적으로 반드시 구별되어야 할 것 같다. 양자의 구별은 공반유물을 통한 편년을 통한 동시기성 확보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전자의 경우라면, 전문 생산의 증거는 퇴색될 것이라 생각한다.

넷째, 재화의 집중이 부재한 원인?

발표자는 재화의 집중이 부재한 원인에 대해 묘역지석묘를 만든 집단이 재화를 통해 계층성을 표현하는 인식 자체가 부재했던 원인으로 보았다. 그리고 대체로 지석묘에 후행하는 대전 괴정동을 위시한 제 유적의 목관묘에서 대량 출토한 청동기를 부장하는 현상과 대비하였다. 또한 분

1) doi.org/10.1177/14696053221138580

묘의 규모와 재화의 집중이 모두 계층성을 보여주는 요소이지만, 양자는 필요충분한 조건이 아니라고 파악하였다.

그렇다면 재화의 집중이 부재한 묘역지석묘 자체가 계층성의 상징이 아닌 집단의 결속과 협력의 상징으로 논지가 회귀할 우려가 있다. 논점에서 조금 벗어나지만, 이를테면, 재화의 집중이 부재한 묘역지석묘를 규모만으로 계층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튀르키예의 괴베클리 테페(Göbekli Tepe)나 영국의 스톤헨지(Stonehenge) 등과 같은 선사시대 거대 기념물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논리적 오류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또한 발표자의 주장과 같이 지석묘 집단과 목관묘 집단의 상당 기간 공존을 상정한다면, 위세품(발표문의 경제적 재화)이 없는 묘역지석묘와 위세품이 부장된 목관묘는 동시기 다른 집단 혹은 적어도 다른 사회구조로 귀결되는데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 발표자의 생각이 궁금하다. 덧붙여 묘역지석묘의 규모로 유력 개인의 출현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최종 장송의례 흔적으로 보이는 묘역지석묘의 유물 훼기(강민석 2022) 현상에서도 계층적 차이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는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다섯째, 다성적 상징물로서의 지석묘

발표자는 매장주체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를 통해 (묘역)지석묘가 묘표석, 제단, 기념물 등의 성격을 가진 다성적 상징물로 상정하고 분묘가 다성적 상징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례와 결합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발표문에서 나열했듯, 밀양 살내, 경주 전촌리, 산청 매촌리 등에서 보이는 거대 묘역지석묘에서 매장주체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물을 훼기(강민석 2022)하는 흔적 등을 통해 고고학적으로 의례를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매장주체부가 있는 묘역지석묘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그렇다면, 유력 개인의 권력을 표출한 분묘로서의 묘역지석묘와 기념·상징물로서의 묘역지석묘는 공히 제의 등의 행위를 통해 집단의 결속을 다지는 협력의 공동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하다. 즉, 매장주체부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거대 묘역지석묘의 본질적 기능은 권력이나 계층의 표출보다는 집단의 결속을 다지는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어떨지 궁금하다.

여섯째, 진동리 유적의 묘역지석묘

사적 제472호 진동리 유적에서 보이는 거대 묘역지석묘 연접 현상에 대해 발표자는 '집단으로서 특정 계층이 출현한 현상'으로 '청동기시대의 심화한 계층사회의 또 다른 모습'이라 설명하였다. 묘역지석묘의 연접 현상은 발표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유력 개인의 상징으로서 '거대 단독묘'의 의미와는 고고학적으로 다소 배치되는 느낌이다. 발표문의 논조로 본다면, 이러한 현상은 지위의 세습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 참고문헌

강민석, 2022,「묘역지석묘의 유물 훼기와 장송의례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명훈, 2023,「청동기시대 계층사회의 발전 단계 검토」,『한국청동기학보』33.

이명훈, 2024,「유·소아묘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귀속지위의 출현과 양상」,『한국상고사학보』124.

이명훈, 2025,「적색마연호 제작의 인식적 틀」,『한국상고사학보』129.

Bauer, Andrew M. and Peter G. Johansen, 2023, The politics and historicity of megalithic places in early South India, Journal of Social Archaeology, 23(1), SAGE Publications.

발표 6

춘천 신매리 유적의 학술적 가치와 활용 방안

홍주홍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춘천 신매리 유적의 학술적 가치와 활용 방안

홍주홍
(강원역사문화연구원)

목차

Ⅰ. 머리말
Ⅱ. 춘천 신매리 유적 개요
Ⅲ. 신매리 유적의 학술적 가치
Ⅳ. 사적 신매리 유적의 활용 방안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춘천지역은 북한강과 소양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넓은 충적지와 하천변의 입지적 특성을 바탕으로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정착해 온 지역이다. 특히 중도동, 천전리, 율문리 등에서는 청동기시대의 대형 취락 유적이 다수 확인되고 있어, 춘천지역은 강원 영서지역의 선사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고고학적 공간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유적들 가운데 춘천 신매리 유적이 사적으로 지정되어있다.

신매리 유적은 북한강변에 위치하며 신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주거지와 무덤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생활 흔적이 확인된 복합유적으로, 이른 시기부터 춘천지역에 형성된 인간의 생활과 문화의 변천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2007년 11월 14일 사적 제 489호[1]로 지정되었으며, 사적 지정 이후 유적의 정비·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유적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예맥문화유산연구원(2015, 2021)에 의해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는 신매리 유적이 단순히 과거의 생활공간으로 활용되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보존과 정비가 필요한 중요한 고고학적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법 변경 고시」(문화재청고시, 제2021-141호, 2021. 11. 19.)에 의해 현재는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신매리 유적에 대한 기존 연구는 개별 발굴조사 개요 및 성과 집성에 집중되어 있어, 신매리 유적을 주변 취락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거나 이를 종합하여 유적의 학술적 가치와 국가유산으로서의 보존 및 활용 방안을 함께 검토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적으로 지정된 춘천 신매리 유적의 조사 경위와 현황을 검토하고, 사적 지정구역뿐만 아니라 신매리 범람원 일대에 분포하는 관련 유적과 기존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신매리 유적의 학술적 가치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청동기시대 취락의 형성과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신매리 유적이 지닌 학술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학술적 가치를 바탕으로 현재 유적의 보존·관리 및 이용 여건을 검토하고, 향후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유적의 역사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매리 유적의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국가유산으로서의 지속적인 보존과 지역사회에서의 관심 및 활용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춘천 신매리 유적 개요

1. 유적 위치 및 조사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및 신매리 일대로 춘천분지의 서북부지역에 해당한다.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북한강의 서쪽에 위치한 비옥한 범람원 지대이다. 춘천분지의 대표적인 충적지 중 하나로, 북한강이 화천의 두류산(993m)에서 춘천 북부의 용화산(878m) 등 산악지대를 가로질러 춘천분지 내부를 관통하면서 소양강과 합류하고 속도가 느려짐에 따라 상류에서 운반되어 온 화강암계 퇴적물로 구성된 모래·실트질의 비옥한 충적지를 형성하면서 취락 형성에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

2014년과 2018년, 2019년의 세 차례에 걸쳐 유적의 정비·복원 자료 확보를 위해 시굴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사적 「춘천 신매리 유적」은 행정구역상 강원도 춘천시 서면 신매리 302번지 외 50필지에 해당된다.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7°42′29.2″~ 127°42′42.1″, 북위 37°55′39.0″~ 37°55′54.3″일원이다. 춘천 신매리 유적은 북한강의 하천 활동으로 인해 서안에 하천의 주행방향을 따라 넓게 형성된 충적지에서 확인되는 신매리 유물산포지 거의 중심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2018년 조사지역(이하 Ⅰ구역)은 행정구역상 강원도 춘천시 서면 신매리 736번지 외 4필지(10,629㎡)로 사적 제489호 「춘천 신매리 유적」의 남서쪽 일대의 중심부 하단에 해당된다. 2019년 조사지역(이하 Ⅱ구역)은 행정구역상 강원도 춘천시 서면 신매리 308-1번지 일원(3,440㎡)으로 사적 제489호 「춘천 신매리 유적」의 동쪽 경계의 중앙부 일대에 해당된다. 2007년 11월 17일 사적 지정 후(90,833㎡), 2013년 12월 5일 1필지(403㎡)가 추가 지정되어서 최종 지정 면적은 91,236㎡이다.

춘천 신매리 일원은 1981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처음 발굴조사 한 이후 한림대학교 박물관, 강원문화재연구소, 예맥문화재연구원 등 지속적인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에서 신석기~삼국시대·조선시대에 이르는 주거지와 무덤이 밀집 분포한 복합 유적이 확인된다. 본 장

에서는 사적 지정부지에서 조사된 시·발굴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조사 개요는 〈표 1〉과 같다.

표 1. 춘천 신매리 유적 조사 개요(사적 지정부지)

연도	조사기간	조사면적 및 주소	조사내용
2014	2014. 5. 23. ~ 8. 11.	59,277㎡ (신매리 302번지 외 26필지)	- 사적 제489호 신매리 유적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시굴조사 - 신석기시대 주거지 4기・야외노지 1기, 청동기시대 주거지 83기・수혈유구 4기, 원삼국(철기)시대 주거지 1기, 조선시대 주거지 2기 등 시대별 유구 확인 - 배후습지를 확인하여 취락의 활동범위 파악
2018	2018. 9. 10. ~ 12. 7.	10,629㎡ (신매리 736번지 일원)	- 신매리 736번지 일원 중심의 1차 정밀발굴조사 - 청동기・조선시대 주거지 및 수혈유구 등 약 150기의 유구 확인 - 유구의 시기・성격 파악 및 정비・복원 기초자료 확보
2019	2019. 9. 2. ~ 12. 2.	3,440㎡ (신매리 308-1번지 일원)	- 신매리 308-1번지 일원 중심의 2차 정밀발굴조사 및 추가조사 - 신석기・청동기・원삼국(철기)・삼국・조선시대 주거지 및 수혈유구, 분묘유구 등 90여기 - 신석기~삼국・조선시대 취락・분묘유구 확인 - 주구묘 ・횡혈식 석실분 등 추가조사를 통해 정비・복원 자료 확보



그림 1. 춘천 신매리 유적 조사지역 및 주변지역 일대 위성사진(예맥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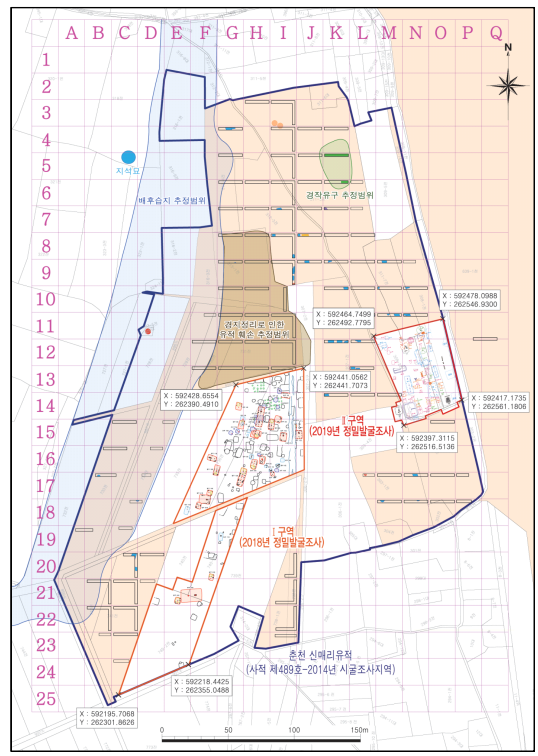


그림 2. 춘천 신매리 유적 시·발굴조사 조사현황도(예맥 2021)

2. 유구 및 유물의 편년[2)]

신매리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시기까지 다양한 시대에 이른 양상이 확인된다. 본고에서는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유구 및 유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Ⅰ·Ⅱ구역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유적은 주거지를 중심으로 수혈유구와 분묘 등이 함께 확인되어 당시 취락의 구성과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구역별로 유구 현황은 Ⅰ·Ⅱ구역 도합 청동기시대 주거지 37기, 수혈유구 40기, 주구묘 3기, 추정 석관묘 1기, 지상식 건물지 1기 등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경우 평면형태, 규모, 구조(주혈, 벽구) 및 내부시설(바닥시설, 노지, 작업공, 저장공)와 출토유물을 기준으로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표 2).

2) 본 절에서 언급하는 신매리 유적의 유구, 유물의 분류 및 편년 기준은 발굴조사 보고서(예맥 2021)를 따른다.

표 2. Ⅰ・Ⅱ구역 청동기시대 주거지 유형별 요약표(예맥 2021, 수정 후 인용)

유형		유구 특징	출토 유물	해당 주거지	연대
Ⅰ유형		평면형태: 장방형, 면적: 50~138㎡ 장단비: 1.25~1.7:1, 상면시설: 맨바닥 구조시설: 초석, 중심주혈, 벽구, 벽주혈 내부시설: (석상)위석식노지, 저장공	(절상)각목돌대문토기, 이중구연+(각목)토기, 이중구연+각목+단사선 토기, 마연토기, 대부소호, 무경식석촉 (삼각만압편평), 횡단면 장방형 합인석부, 즐형석도 등	Ⅰ-21・24호 Ⅱ-9호	기원전 13~10세기
Ⅱ유형		평면형태: (세)장방형 면적: 세장방형-60㎡이상, 장방형-30㎡내외 장단비: 1.39~3.33:1 상면시설: 맨바닥 구조시설: 중심주혈, 벽주혈 내부시설: 위석식노지, 저장공	구순각목 심발형토기, 구순각목+공렬토기, 공렬토기, 천발형토기, 직구장경호, 단사선문 호형토기, 대부소호, 무경식석촉, 어형석도, 합인석부, 편인석부	Ⅰ- 4호 Ⅰ-10・ 12・17호 Ⅱ-4・6호 (Ⅱ-3호)	기원전 12~9세기 (중심시기: 기원전 11~10세기)
Ⅲ유형	ⅢA	평면형태: 세장방형, 면적: 30~60㎡ 내외 장단비: 1.5~3.09:1, 상면시설: 맨바닥 구조시설: 중심주혈, 벽주혈 내부시설: 수혈식노지(복수), 저장공	심발형 공렬토기, 이단・일단경식석촉, 주형석도	Ⅰ-18호 Ⅱ-8호 (Ⅰ-1호)	기원전 10~9세기
	ⅢB	평면형태: (장)방형, 면적: 20㎡이하 장단비: 1.05~1.5:1, 상면시설: 맨바닥 구조시설: 중심주혈, 벽주혈(비정형성) 내부시설: 평지식노지, 저장공	호형토기, 일체형석촉, 주형석도, 합인석부 등	Ⅰ-13・20호 Ⅱ-1호 Ⅰ-2호	기원전 8세기 중엽 ~5세기
Ⅳ유형		평면형태: 장방형, 면적: 30~50㎡ 장단비: 2.0:1, 상면시설: 맨바닥 구조시설: 중심주혈, 벽주혈(비정형성) 내부시설: 수혈식노지(복수), 작업공, 저장공	천발형토기, 호형토기, 일체형석촉, 석창, 주형석도 등	Ⅱ-5・7호	기원전 10세기 후반 ~9세기 후반
Ⅴ유형		평면형태: (세)장방형, 방형 면적: 세장방형-55㎡ 이상, 장방형-15~30㎡, 방형- 20㎡ 장단비: 1.1~3.13:1, 상면시설: 점토다짐구역 구조시설: 중심주혈, 벽주혈 내부시설: 수혈식・평지식노지, 작업공, 저장공	심발형 공렬토기, 천발형토기, 호형토기, 무경(M자만입)・일단경 식・일체형석촉, 석창, 유경・일단병식석검, 주형석도, 합인석부, 편인석부	Ⅰ-16호 Ⅰ-3・5・ 6・7・11・ 15・22호 Ⅱ-2・10호 Ⅰ-19・23호	기원전 9세기~ 5세기 후반

수혈유구의 경우 무시설로 확인되는 경우가 절반 정도에 해당되고, 단순 수혈의 형태로 확인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전체의 용도를 특정하기엔 어렵다. 다만 전반적인 유구의 규모와 내부 양상 및 시설 등을 통해 일부 유구에 대해서는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석기 제작과 관련한 공방시설로 추정되는 유구는 10기(Ⅰ-2·10·11호, Ⅱ-11·12·15·22·24·28·29호)가 확인된다. 소형주거지보다 작거나 비슷한 규모로 조성되었다. 바닥은 전반적으로 경화된 양상을 보이며, 바닥의 중심부분이나 단벽으로 치우쳐 재층 및 석분과 석편이 집적된 양상이 관찰된다. 공방지 추정 수혈유구에서 석기 43점 출토되었는데, 이는 수혈유구 출토 석기 유물의 80%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석부 등 공구류를 중심으로 제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저장시설로 추정되는 유구는 14기 정도이다. 평면형태는 원형, 방형계가 혼재하나 대부분 방형계이다. 8㎡를 넘지 않는 소형 시설이 대다수인 반면, Ⅱ-4호 수혈유구의 경우 면적이 15㎡로 소형 주거지 정도의 규모이다. 내부에는 저장공 10기와 노지, 경사로가 있는 출입시설이 있다. 저장고의 규모를 볼 때, 대형 호형토기 등을 매납하였고, 그 내부에 식료 등을 저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앙의 노지는 내부의 습도를 조절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지상식 건물지 1기도 확인되었다. 고상가옥 또는 굴립주로 장방형의 평면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2칸의 주혈로 구성되어있다. 바닥에서 별도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상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분묘유구는 모두 Ⅱ구역에서 확인되었으며, 주구묘 3기, 추정 석관묘 1기가 조사되었다. 각각 20~23미터 정도 이격되어 위치하고 있다. 1호 주구묘는 주구의 평면형태가 원형으로, 강원도 일대에서 확인된 주구묘 중 특이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주구의 조성양상 역시 주구 하단의 너비가 상대적으로 단면이 완만한 U자상보다 V자상에 가깝게 굴착되어 있다. 뚜렷한 매장주체부가 확인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유구형성층 및 유구확인층 상단이 다수 교란에 의해 삭평된 양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보면 1호 주구묘의 주구 역시 상단이 다수 멸실 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장주체부도 완전히 멸실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호 주구묘의 주구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1호 주구묘와 마찬가지로 주구 상단 및 매장주체부가 삭평된 것으로 보인다. 주구의 규모와 묘광의 잔존 규모를 통해 추정할 때, 석관을 매장주체부로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았다.

표 3. 신매리 유적 청동기시대 유구 방사성 탄소연대측정값(예맥 2021 수정 후 인용)

번호	유구 호수	유형	AMS연대측정값(BP)
1	Ⅰ-10호 주거지	Ⅱ	2,858±33
2	Ⅰ-12호 주거지	Ⅱ	2,788±37
3	Ⅰ-14호 주거지		2,486±28
4	Ⅰ-15호 주거지	Ⅴ	2,459±30
5	Ⅰ-16호 주거지	Ⅴ	2,503±24
6	Ⅰ-17호 주거지	Ⅱ	2,684±18
7	Ⅰ-19호 주거지	Ⅴ	2,363±24
8	Ⅰ-20호 주거지	ⅢB	2,460±22
9	Ⅰ-21호 주거지	Ⅰ	2,861±28
10	Ⅰ-24호 주거지	Ⅰ	2,921±30
11	Ⅰ-10호 수혈유구	공방지	2,478±26
12	Ⅱ-2호 주거지	Ⅴ	2,412±21
13	Ⅱ-3호 주거지	Ⅱ	2,834±25
14	Ⅱ-6호 주거지	Ⅱ	2,808±20
15	Ⅱ-7호 주거지	Ⅳ	2,721±26
16	Ⅱ-8호 주거지	ⅢA	2,769±19
17	Ⅱ-9호 주거지	Ⅰ	2,883±23
18	Ⅱ-10호 주거지	Ⅴ	2,621±20
19	Ⅱ-23호 수혈유구	공방지	2,494±19

3호 주구묘의 주구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매장주체부는 목곽묘로 확인된다. 목관 바닥에는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치우쳐 피장자의 목에 착장하여 매납한 것으로 판단되는 옥경식 1식(환옥 2점, 관옥 6점, 반원형옥 2점)이 출토 되었다. 목곽의 함몰과정에서 일부 흐트러진 것으로 보이며, 매장주체부의 형태 및 중복관계로 보아 강원 영서지역 주구묘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북쪽 구, 서쪽 구 내부에서 마연장경호와 석제방추차 출토되었는데, 2호 주구묘 남쪽 구 내부 중심 일대에서 단도마연호가 출토되는 양상으로 추정할 때, 마연장경호는 제의와 관련하여 인위적으로 투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유적의 청동기시대 편년은 보고자에 의하면 주거지의 중복관계 및 방사성탄소연대측정결과 Ⅰ유형 → (주구묘) → Ⅱ유형 → ⅢA유형 → Ⅳ유형 → Ⅴ유형·석기 제작 공방지(수혈유구) → ⅢB유형의 순서로 변화양상이 확인된다. 다만 각 유형이 명확하게 단절되어 교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방사성탄소연대의 중복과 주거지의 존속기간을 고려하면 여러 유형의 주거지가 일정 기간 상호 공존하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신매리 유적은 사적 지정 부지 내에서도 일부 부지만 조사되었으며, 특히 Ⅰ구역의 경우 확인

된 유구 146기 중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에 의해 선별된 유구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유적 전체의 양상은 확인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된 유구만을 보았을 때, 청동기시대 취락은 적어도 기원전 13세기 무렵부터 기원전 5세기 전후까지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기에 따라 주거지의 규모와 형태, 출토유물이 변화하는 양상이 확인되어 청동기시대 신매리 취락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매리 유적은 춘천지역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생활·생산·매장문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복합유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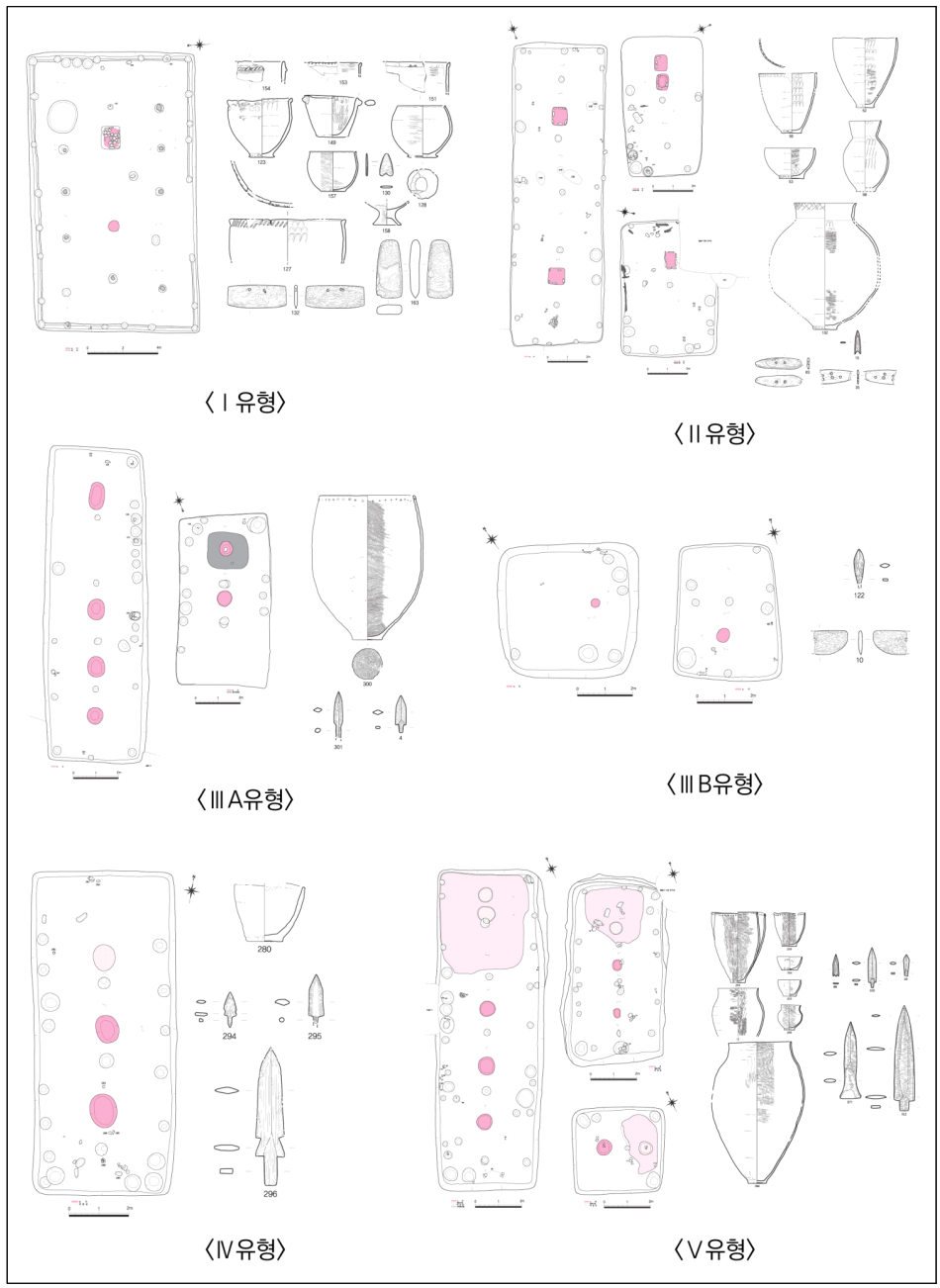


그림 3. 신매리 유적 청동기시대 유형별 유구 및 유물(예맥 20221, 수정 후 인용)

Ⅲ. 신매리 유적의 학술적 가치

사적 지정은 해당 유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하고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이다. 신매리 유적의 경우 사적 지정기준 '①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사회·문화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가질 것', '② 각 분야에서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날 것'과 분류 기준 '①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유적', '⑤ 제단·고인돌·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 장례에 관한 유적'에 의하여 지정된 유적이다(춘천시 2020: 40). 이러한 기준은 사적 지정 당시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후 이루어진 발굴조사 및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현재 시점에서 신매리 유적이 가지는 학술적 가치를 재해석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적으로 지정된 신매리 유적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정구역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신매리 범람원 일대에 분포하는 관련 유적과 기존의 발굴조사 및 연구 성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신매리 일대에는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비롯하여 수혈유구, 무덤, 구상유구 등이 넓은 범위에 분포하고 있어, 개별 유구의 성격뿐만 아니라 하나의 취락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과 주변 취락과의 관계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이에 본장에서는 먼저 신매리 취락 자체의 시기별 형성과 공간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어서 금산리·현암리·중도동 등 주변 취락과의 비교를 통해 신매리의 지역적 위상과 역할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매리 유적이 갖는 학술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춘천 신매리 유적의 형성과 공간 구조 변화[3)]

춘천 신매리 유물산포지 일대는 삼악산지 동쪽 범람원(충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신매리 범람원(충적지대)은 춘천분지 북서쪽, 북한강 좌측에 위치한 남북으로 긴 기름진 범람 충적지대이다. 해당지역 일대는 춘천분지에서도 가용 면적이 넓고 용수의 공급이 원활한 가장 좋은 평야지대에 위치한다. 이러한 지형을 바탕으로 신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주거지와 무덤이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개별 유구의 성격뿐만 아니라 취락의 형성과 성장, 공간적 재편 및 주변 취락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신매리 일대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89기, 수혈 95기, 무덤 19기, 구상유구 8기 등이 확인된다.

3) 본 장에서는 춘천 신매리 일대에서 발굴된 유적들의 명칭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유적 명을 〈표 4〉에 제시한 보고서 명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사적 지정구역에 해당하는 유적은 보고서 명에 따라 '신매리Ⅲ'으로 표기한다.

표 4. 춘천 신매리 유적 청동기시대 유구 현황 표(홍주홍 2024 수정 후 인용)

연번	보고서명	주거지	지상식건물지	수혈	무덤	구상유구	기타
1	신매리 393-1	3		4	2		
2	신매리 373-6	4		9		1	1
3	신매리 지석묘Ⅱ군				3		
4	신매리 Ⅲ	37	1	40	4		
5	신매리 329-1	5		4			
6	신매리 10	2		1			
7	신매리294-16	4		3			
8	신매리 289-11	1					
9	신매리 786	2		1			1
10	신매리 지석묘 Ⅰ군				2		
11	신매리 Ⅱ	5		4			
12	신매대교	18					
13	신매리 819	10					
14	신매리 주차장	10					1
15	신매리 33	18		3			
16	신매리 43-2	4					
17	신매리 839-1	8		1		2	
18	신매리 지석묘 1,2호				2		
19	신매리 47-1	1					
20	신매리 54-4	8					
21	신매 1제	6		2			
22	신매리 169-1	3		3			1
23	신매리 66-14	1		1		2	
24	신매리 70-6	6		1		1	1
25	신매리 주거지	1			5		
26	신매리 주거지 1호	1					
27	신매리 주거지 2호	1					
28	신매리 111-29	1		4			
29	신매리 지석묘 3호				1		
30	서상리 신매리	9		10			
31	신매지구	20		4		2	
	합계	189	1	95	19	8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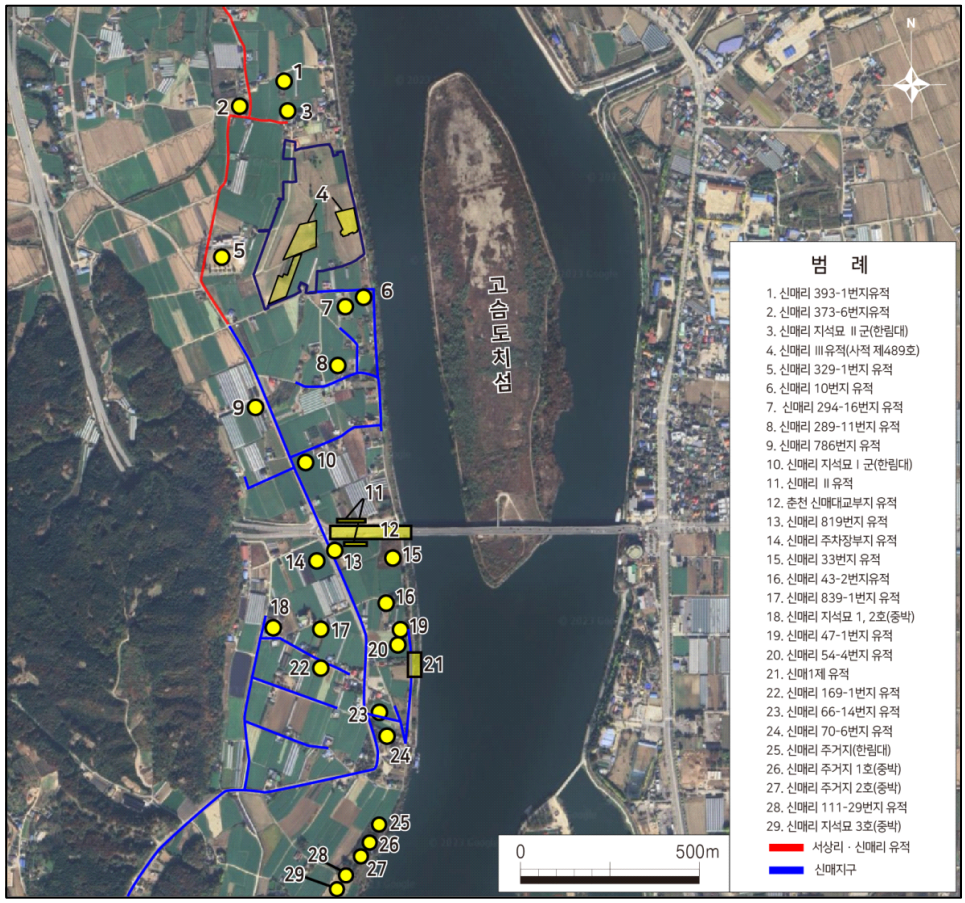


그림 4. 청동기시대 신매리 유적현황도(홍주홍 2024 수정 후 인용)

본 장에서는 기원전 13세기부터 5세기까지의 신매리 유적을 대상으로 시기별 취락의 형성과 변천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시기구분과 취락 분석의 기본적인 방법식은 필자의 선행연구인 홍주홍(2024)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춘천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분포와 관계망을 검토하기 위해 춘천지역에서 확인되는 유구 및 출토 유물의 편년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시기를 크게 3개의 시기[4]로 구분하고, 각 시기에 해당하는 유구의 동시성을 검토하여 유적별 주거군과 무덤군을 추출한 뒤, 취락 내부의 규모 및 세부 구조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매장·저장·생산영역 등의 취락 구성과 규모를 바탕으로 단위취락의 성격과 상호 관계를 분석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분석방법을 활용하되, 분석 대상을 신매리 범람원 일대로 한정하고 자연제방 별 취락공간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신매리 일원의 경우 자연제방 단위로 취락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한 홍주희·조지은(2021)에 따라 본고에서도 〈그림 4〉의 자연제방 C, D, E, F를 각각의 취락 단위로 보았다.[5] 각 취락

4) 분석 대상 시기는 Ⅰ기(BC 13~11), Ⅱ기(BC 11~9), Ⅲ기(BC9~5)로 구분하였으며, 시기 구분과 관련된 내용은 본 발표의 성격상 생략한다.

5) 각 자연제방 별 유적 목록은 아래 표와 같다. 신매리 70-6번지 유적(24번)의 경우, 북한강변에 인접한 미고지에 위치해있으나 유적의 위치상 자연제방 E와 인접하여 같은 범주로 보고자 한다.

의 시기별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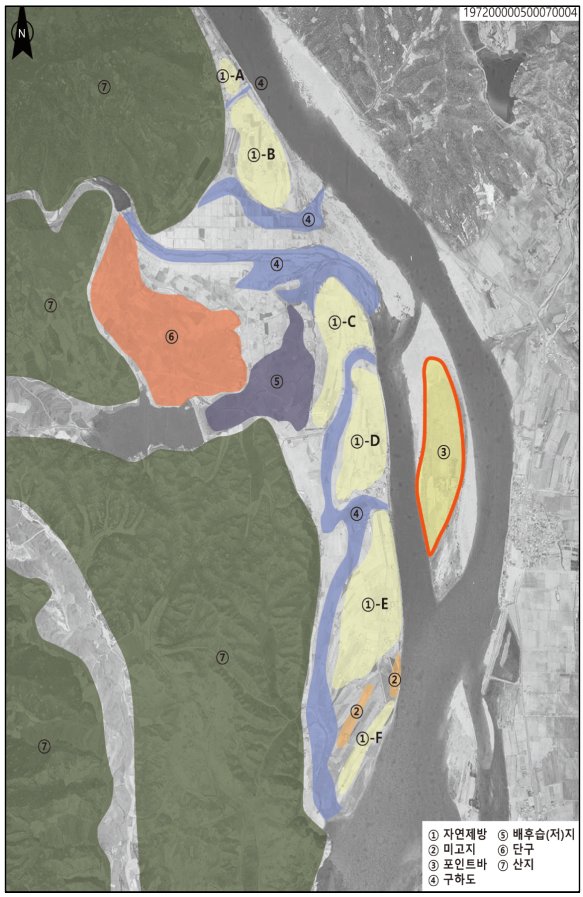


그림 5. 신매리 일원 고지형분석도(1972년 항공사진)
(홍주희 · 조지은 2021)

1) 자연제방 C

신매리의 가장 북쪽에 해당하는 취락이다. Ⅰ기에 해당하는 주거군이 확인되지 않으며, Ⅱ기부터 소수의 주거지로 구성된 소규모의 주거군이 형성되어 취락의 규모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Ⅲ기에도 주거군의 규모는 크게 확대되지 않지만, 인근에서 지석묘가 확인되는 점에서 주거영역과 매장영역이 구분되는 공간 구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따라서 자연제방 C는 비교적 소규모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늦은 시기로 갈수록 주거 이외의 기능이 나타나면서 취락 공간이 점차 분화되었음을 보여준다.

2) 자연제방 D

신매리Ⅲ유적이 있는 취락이다. Ⅰ기에는 1~2기의 주거지로 구성된 소규모 주거군이 산발적으로 분포하며, 여러 지점에서 소규모 단위주거군이 형성된다. Ⅱ기에는 주거군의 규모가 이전 시기에 비해 증가하며, 주거지와 함께 매장유구가 확인된다. Ⅲ기에는 자연제방 D를 비롯한 신매리 북쪽에서 다시 규모가 확대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신매리Ⅲ에서는 5개의 단위주거군이 확인되며, 5기 이상의 주거와 부속유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어, Ⅰ·Ⅱ기에 비해 단위주거군의 규모가 커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제방 D가 신매리 취락의 형성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용되며, 늦은 시기로 갈수록 주거공간이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3) 자연제방 E

신매대교 유적이 위치한 신매리 남쪽 부근의 취락이다. Ⅰ~Ⅲ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주거군이

구분	〈그림 4〉 범례 번호
자연제방 C	1, 2, 3
자연제방 D	4, 5, 6, 7, 8, 9
자연제방 E	11~23 (24)
자연제방 F	25, 26, 27, 28, 29

확인된다. Ⅰ기에는 소규모 주거군이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Ⅱ기에 들어서면 주거군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며 단위주거군을 구성하는 유구의 수도 가장 많이 확인된다. 동시기 신매리 일대 취락에서 확인되는 주거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보이나 매장영역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Ⅲ기에 들어서면 이전시기에 비해 주거군의 규모가 축소되는 양상이 보인다. 자연제방 E는 신매리 취락의 성장 과정에서 특히 Ⅱ기에 중요한 주거 중심공간으로 기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자연제방 F

신매리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신매리 내에 위치한 자연제방 중 가장 작은 규모이다. 다른 자연제방에 비해 확인되는 유구의 수가 매우 적어 취락 구체적인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주거지와 지석묘가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일대에도 소규모의 주거 및 매장공간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자연제방 F는 현재 조사된 자료만으로 취락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신매리 일대의 취락 공간이 특정 지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자연제방에 걸쳐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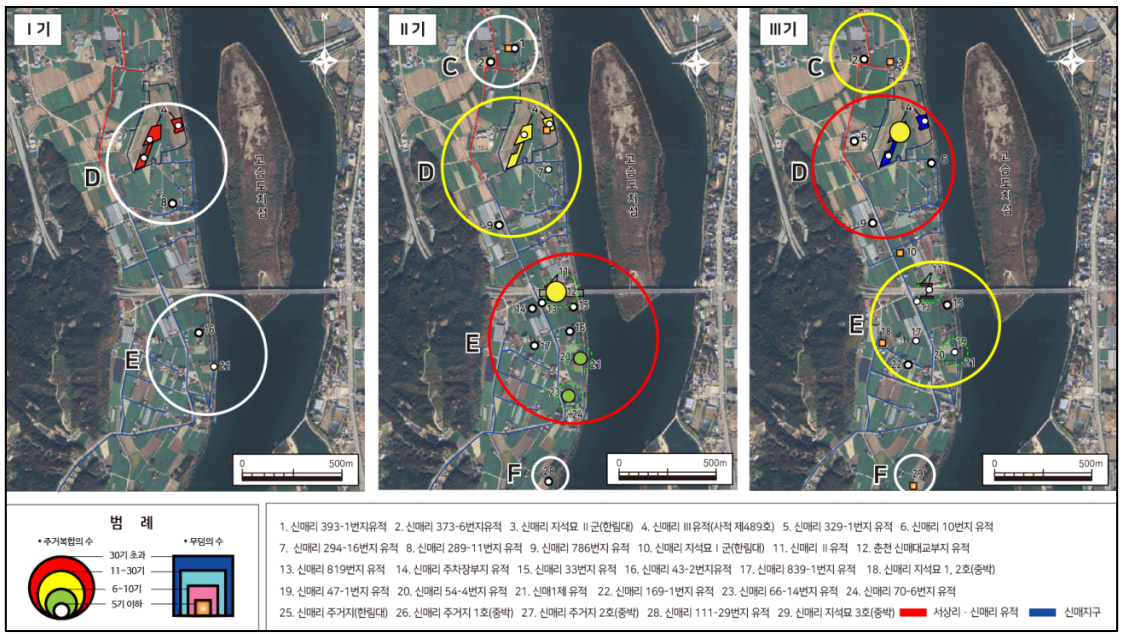


그림 6. 시기별 신매리취락 주거군 분포 변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신매리 일대 취락의 공간구조는 시기에 따라 뚜렷한 변화를 보인다. Ⅰ기에는, 주거영역 이외의 타 기능을 가진 구역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고, 자연제방 D, E 각각의 취락에서 10기 이내의 주거지로 구성된 소규모 주거영역이 취락의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이루고 있다. Ⅱ기에는 주거영역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동시에 저장영역과 매장영역이 확인되면서 취락 내부의 기능적 분화가 진행된다. 특히 자연제방 E를 중심으로 대규모 주거영역이 밀집하는 반면, 매장영역은 주거영역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북쪽에 소규모로 조성되어 주거공간

과 매장공간의 분리 양상이 확인된다. Ⅲ기에는 취락의 기능적 분화가 한층 심화된다. 주거영역은 이전 시기와 달리 자연제방 E에서 D를 비롯한 북쪽 지역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보이며, 매장영역은 신매리의 외곽지역인 자연제방 C, F에서 소규모 지석묘군이 조영되는 것이 확인된다. 저장영역의 경우 일반 수혈뿐만 아니라 늦은 시기에는 굴립주유구도 확인되고, 공방지로 추정되는 수혈을 통해 소규모 생산영역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신매리일대 취락의 시기별 변화는 단순한 취락 규모의 증감으로만 보기 보다는 주거공간의 확대와 축소, 중심지의 이동, 저장·매장·생산 기능의 등장과 분화가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신매리는 장기간 동일한 공간이 반복적으로 이용된 취락인 동시에, 점유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취락 내부의 공간 구성과 기능이 재편된 취락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점은 신매리 유적의 학술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2. 주변 취락과의 관계 및 지역 위상 변화

앞서 살펴본 신매리 취락의 시기별 변화가 춘천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체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변 취락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춘천지역의 청동기시대 취락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각 취락의 규모와 기능에 따라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김권중 2020; 김세진 2021; 김지찬 2017; 임영빈 2023). 특히 중도동과 천전리 등 인근의 대규모 취락을 중심으로 주변의 중·소규모 취락이 분포하는 양상이 제시되었으며, 취락 관계망은 지형 조건과 취락의 위치에 따라 일정한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박영구 2015; 이종철 2015).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신매리의 지역적 성격을 살펴보면, 신매리의 특징은 특정 시점의 규모나 위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 그 위치와 역할이 변화하는데 있다. 먼저 Ⅰ기에는 신매리를 비롯하여 금산리·현암리 등 북한강 서안의 충적지에 소규모 취락이 형성되었다.[6] 이 시기에는 신매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취락에서 소규모 주거영역만이 확인되고 있으나, 중도동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주거영역과 매장영역이 확인된다. 이를 고려하면 이시기의 신매리는 중도동과 같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취락이 존재하는 지역적 관계망 속에서 하나의 소규모 주거 취락으로 기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Ⅱ기에 들어서면 신매리의 주거군 규모가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한다. 특히 신매리 남쪽의 자연제방 E를 중심으로 대규모 주거영역이 형성되고, 북쪽에서는 주구묘와 석관묘 등의 매장시설이 확인된다. 또한 저장영역이 함께 나타나면서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하던 이전 시기와 달리 여러 기능이 결합된 취락구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점에서 Ⅱ기의 신매리는 현재 확인되는 주거·매장·저장영역의 구성과 상대적인 규모를 바탕으로 판단하였을 때, 인접한 금산리·현암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능적 위상을 갖는 취락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금산리·현암리와 비교하면 신매리의 또 다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금산리와 현암리는 Ⅰ기에서 Ⅱ기로 넘어가면서 규모가 증가하면서, 기존 공간을 비교적 지속적으로 점유하는 양상

6) Ⅰ기의 경우, 저장·매장·생산·의례 등 전문시설이 뚜렷하게 등장하지 않는 시기이므로 취락의 구조가 아닌 규모에 따라 성격을 분류한다.

이 나타난다. 이에 비해 신매리는 시기별로 주거군의 규모와 위치가 변화하고 자연제방 E에서 D를 중심으로 공간적 중심도 이동한다. 따라서 신매리는 주변 취락과 비교할 때 동일한 생활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보다 취락의 성장과 변화 과정에서 공간을 확대하고 재편하는 성격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신매리 유적의 가치를 단순한 취락 규모가 아니라 '변화의 과정'에서 찾아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신매리의 이러한 변화는 중도동과의 관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춘천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이 시기에 따라 규모와 기능이 달라지며, 중도동과 천전리와 같은 대규모 취락과 현암리·금산리·신매리 등 중소규모 취락이 서로 관계를 맺는 구조가 제시된 바 있다(김권중 2020; 홍주홍 2024). 특히 중기 이후 춘천지역에서는 중도동과 천전리와 같은 중심취락의 규모와 기능이 확대되는 양상이 확인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변 취락의 역할도 함께 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신매리의 변화와 연결해 보면 Ⅱ기에서 Ⅲ기로 넘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Ⅱ기에는 신매리의 주거영역이 확대되고 매장·저장 기능이 함께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능적 위상을 갖추지만, Ⅲ기에는 중도동과 같은 대규모 취락의 규모와 기능이 확대되는 가운데 신매리의 상대적인 규모와 위상이 조정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Ⅲ기의 신매리를 단순히 '쇠퇴한 취락'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춘천지역 취락체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신매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실제로 Ⅲ기에도 신매리에서는 주거·매장·저장·생산과 관련된 기능이 확인되므로 취락 자체의 기능이 소멸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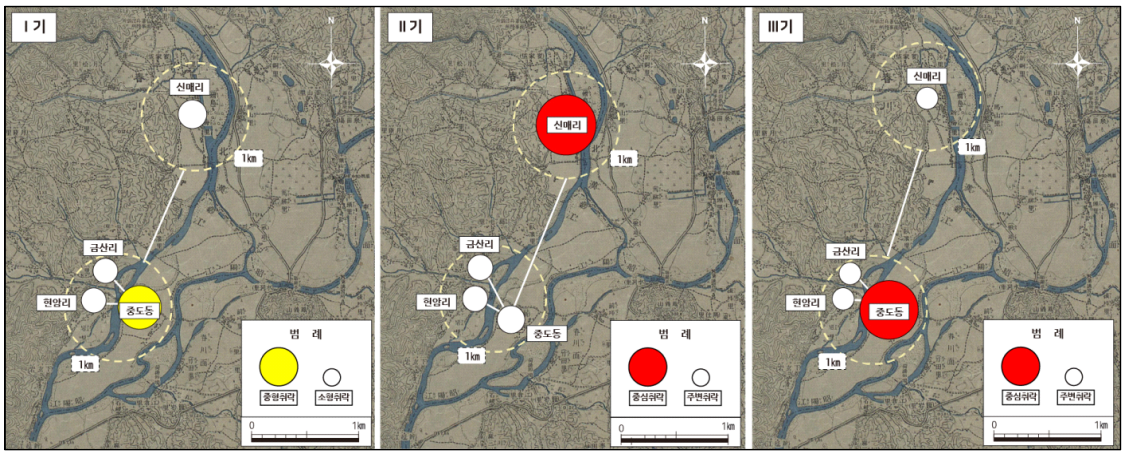


그림 7. 북한강일대 청동기시대 취락 시기별 변화

이와 같은 점에서 신매리의 지역적 역할은 특정 시기에 고정되는 중심취락 또는 주변취락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춘천지역의 취락 간 상호연계망이 특정한 하나의 중심에서 일방적으로 확산되는 구조라기보다, 중도동과 율문리·천전리 등을 기점으로 여러 방향으로 연결되는 '방사형 연계망'을 이루었으며, 중심취락과 주변취락 또는 특수취락 사이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홍주홍 2024: 82~9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매리는 금산리·현암리와 같은 인접 취락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가운데 시기별로 주거공간을 확대하거나 이동시키고, Ⅱ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능적 위상을 확보하였다가 Ⅲ기에는 변화된 지역 취락 체계 속에서 그 역할이 조정된 취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신매리의 이러한 변화가 주변 취락의 성장이나 지역적 위상 변화만으로 설명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신매리는 충적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와 공간 이동에는 충적지의 지형적 조건과 기후악화, 경작지 확보 등 생계환경의 요인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윤호필 2010; 이형원 2025). 따라서 신매리의 중심지 이동과 규모 변화는 지역 취락체계의 재편과 입지환경의 변화가 함께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후 추가 조사와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신매리 유적의 학술적 가치

앞서 살펴본 신매리 취락의 형성과 공간구조 변화, 그리고 주변 취락과의 관계를 종합하면 신매리 유적의 학술적 가치는 몇 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장기간에 걸친 취락의 지속과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매리에서는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주거지와 수혈유구, 무덤 등이 장기간에 걸쳐 확인되며, 시기별로 주거지의 규모와 공간분포가 변화한다. 특히 한 시기에 형성된 취락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기에 걸친 점유의 흔적을 통해 취락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은 신매리 유적이 갖는 중요한 장점이다. 다만 사적 지정구역 내에서도 일부 지역만 조사되었고, 조사된 유구 역시 선별적으로 확인된 경우가 있어 유적 전체의 양상을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분석은 향후 추가조사에 따라 수정·보완될 가능성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취락 내부의 공간구조와 기능이 시기별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Ⅰ기의 주거영역 중심의 비교적 단순한 구조는 Ⅱ기에 주거·매장·저장영역으로 분화되고, Ⅲ기에는 생산기능까지 더해지면서 복합적인 구조로 변화한다. 또한 자연제방 E에서 D로 중심공간이 이동하는 양상이 확인되어, 신매리 취락이 단순히 동일한 공간을 반복적으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 취락의 규모와 기능 변화에 따라 공간 구조를 새롭게 구성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신매리 유적을 하나의 장기존속 취락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부 공간과 기능이 지속적으로 변화한 취락으로 이해하게 한다.

셋째, 주변 취락과의 비교를 통해 지역적 위상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금산리·현암리와 비교할 경우 신매리에서는 시기별 공간 이동과 주거군 규모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며, 중도동과 비교할 경우에는 춘천지역의 취락체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신매리의 상대적인 역할이 달라지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신매리는 중심과 주변이라는 어느 하나의 범주에 고정되는 취락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역할과 위상이 변화한 취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신매리 유적의 학술적 가치는 단순히 취락의 규모나 주변 취락과의 관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장기간에 걸친 점유 과정에서 주거공간의 확대와 이동, 저

장·매장·생산 기능의 분화와 복합화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기에 주변 취락과의 비교를 통해 이러한 취락 내 변화가 지역 취락체계의 변화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도 검토할 수 있다. 결국 신매리 유적은 청동기시대 춘천지역에서 취락이 고정된 형태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사회적·환경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공간과 기능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특히 취락 내부의 공간적 재편과 주변 취락과의 관계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동기시대 춘천지역 취락의 형성과 변화 양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Ⅳ. 사적 신매리 유적의 활용 방안

앞서 살펴본 신매리 유적의 학술적 가치는 청동기시대 취락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 있으며, 이는 유적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신매리 유적은 청동기시대에 한정된 유적이 아니라 신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용된 취락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적의 활용 방안 역시 특정 시대의 역사적 의미만을 부각하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유적의 형성과 변화라는 전체적인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먼저 사적 지정부지의 현황과 제반 여건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신매리 유적의 보존과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단계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사적 지정 부지 현황

Ⅱ장에서 언급했듯이 신매리 유적의 사적 지정 범위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신매리 302번지 외 50필지에 해당되며, 전체 면적은 91,236㎡이다. 예맥문화유산연구원에 의해 3차례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해당 부지 중 일부는 2016~2018년도까지 춘천시에서 '막국수의 도시' 이미지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서상초등학교 옆(신매리 741번지 일원)에 7~8㏊ 규모로 메밀꽃밭을 조성하였다. 당시 춘천 시티투어 코스에 메밀밭을 추가하여 운영하였으며, 탐방로에 장승, 솟대, 바람개비, 허수아비 등의 조형물과 주차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였다. 발굴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메밀꽃밭 조성 사업은 중단되었다.



그림 8. 춘천 신매리 메밀꽃밭 홍보 포스터(좌) 및 꽃밭 전경(우)
(춘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조사 이후 2020년 춘천시에서 「사적 제489호 춘천 신매리 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지정부지 가운데 사유지는 21,729㎡로, 전체 면적의 약 23.8%를 차지한다. 이는 지정구역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므로 유적의 체계적인 정비와 향후 활용을 위해서는 잔여 사유지의 매입이 지속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이후인 후속 정비 사업이 실제로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2026년 국가유산보수정비 사업에서 '춘천 신매리 유적 관리소 및 울타리 설치'와 관련하여 예산이 책정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현장 관리 및 보호시설 정비가 추진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국가유산청 2026: 34).

현재 과거 메밀밭 경관관광사업 당시 조성되었던 조형물 및 편의시설은 발굴조사 이후 모두 철거된 상태이며 국가유산 안내판 이외에는 별다른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지정구역 내 일부 사유지에서는 현재도 경작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지정구역 상당부분이 사유지로 남아있고, 유적의 보존과 농지이용과 같은 문화층 훼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향후 토지매입 및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림 9. 신매리 유적 사적 지정 부지 전경(①~③: 남→북, ④~⑥: 동→서, 필자촬영 26.8.16.)





그림 10. 강원문화유산돌봄센터 신매리 유적 일상 정비 모습
(네이버 카페 '강원문화유산돌봄센터')



그림 11. 신매리 유적 내 폐기물 사진(필자촬영)

신매리 유적의 일상적인 관리는 춘천시와 강원문화유산돌봄센터에서 진행 중이다. 특히 돌봄센터에서는 연 3~4회 정기적으로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 관리와 경미수리 등의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자는 2026년 8월 12일에 진행된 돌봄센터의 일상 관리 작업[7] 4일 후에 신매리 유적을 방문하였다. 현장에는 국가유산 안내판 바로 옆에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안내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쓰레기 및 농업 폐기물이 적치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넓은 개방형 유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환경 정비와 현장 점검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 유적의 현장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접근성과 관람환경에 대한 개선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신매리 유적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비교적 협소하고 정비 상태 역시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유적 주변에 다수의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주차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관람객 증가를 고려한다면 진입로의 안정성과 이용 편의성, 주차공간 등의 문제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신매리 유적 활용의 기본 방향

신매리 유적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적의 현실적인 여건을 함께 고려

7) "08월 12일 춘천팀 일상관리/춘천신매리 유적, 서상리삼층석탑, 춘천김정표역문인석, 춘천증리고분군", 네이버 카페 '강원문화유산돌봄센터', 2026. 8. 12., https://cafe.naver.com/gwmy/108569

할 필요가 있다. 국가 사적은 교육·연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어 매우 유효한 공공자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황재훈 2022). 다른 청동기시대 사적들과 비교할 때 신매리 유적은 사적으로 지정된 역사적·학술적 가치에 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관리와 활용 기반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일반적인 공원 수준의 기반시설 조차 조성되어 있지 않고, 시가지에서도 상대적으로 외곽에 위치하여 시민·관광객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접근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은 향후 활용에 있어 중요한 제약 요인이다. 따라서 신매리 유적의 활용은 처음부터 대규모 전시관이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방식보다는 유적을 보존하고 방문객이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1) 기초적인 보존·관리환경 구축

신매리 유적 활용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유적의 안정적인 보존과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 종합정비계획에서도 유적의 정비에 있어 과도한 개입을 지양하고 원형과 진정성을 유지하는 보존 중심의 계획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유적의 현황조사, 주변 토지 및 시설 조사, 관련 법규와 상위계획 검토 등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춘천시 2020). 따라서 향후 활용사업 역시 이러한 원칙에 따라 기초적인 관리환경 정비를 선행 사업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유적의 경계와 국가유산 지정구역을 방문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안내판을 보완하여 유적의 성격, 주요 조사 성과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유적 내부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적 주변의 잡목 및 경관을 정비하고, 방문객이 안전하게 유적을 둘러볼 수 있는 최소한의 보행동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쓰레기나 농업 폐기물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유적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 이후 화장실, 휴게시설, 주차 공간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 역시 단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초 정비를 통해 신매리 유적을 단순히 '사적 표지판이 있는 빈 공간'에서 벗어나, 방문하고 머무르며 유적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유산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가 될 것이다.

2) 기존 동선과 지역 문화 활동을 활용한 연계

신매리 유적은 현재 자체적으로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콘텐츠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독립적인 관광 목적지로 개발하는 방식은 현실성이 낮다. 따라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주변의 자전거길 산책로, 지역축제 및 인근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신매리 유적을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12. 북한강 자전거길 신매대교 무인인증센터



그림 13. 신매리 유적과 연결된 자전거길

먼저 신매리 일대는 북한강과 인접해 있어 자연경관 자체가 유적의 경관적 가치와 결합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주변 북한강변의 수변환경과 기존 '북한강 자전거길'과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트레킹 코스인 '봄내길' 등 주변 동선과 연결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춘천시 2020). 기존 자전거길에 설치된 신매대교 무인 인증센터에서 신매리 유적 방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향표지와 거리·소요시간 정보를 제공하면 자전거길 종주객의 자연스러운 방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전거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스탬프 투어, 모바일 해설이나 간단한 온라인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여 현장에서 안내판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적의 위치와 시기별 취락 구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지역축제와의 연계 역시 대규모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드는 방식보다는 기존 지역행사에 신매리 유적의 역사문화 콘텐츠 일부 포함하는 정도에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과거 신매리 일대에서 메밀밭을 활용한 관광사업이 이루어진 경험을 고려하여, 향후 지역행사나 축제가 다시 운영될 경우 행사장이나 주변 공간에서 신매리 유적을 소개하는 소규모 전시, 해설처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동기시대 생활과 농경 환경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발굴 유물과 유구를 소개하는 이동형 전시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인근의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강원도립화목원이나 춘천 인형극장, 애니메이션박물관 등 이미 방문객이 형성되어있는 시설과 신매리 유적을 하나의 대규모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주변 관광정보에 신매리 유적을 함께 소개하고 방문 가능한 역사문화자원 가운데 하나로 안내하는 방식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별도의 대규모 홍보나 시설 투자 없이도 신매리 유적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연계의 핵심은 신매리 유적 자체에 많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지역의 이동 경로와 문화 활동에 신매리 유적을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는 자전거길 안내판, 소규모 해설자료, 모바일 콘텐츠, 지역 행사와 연계한 간단한 전시·체험 정도를 우선 시행하고, 실제 방문객의 반응과 이용수요가 확인 된 이후 대규모 테마파크와 같은 추가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2027년 사적 지정 20주년을 활용한 재조명과 향후 방향 설정

향후 신매리 유적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계기는 2027년 사적 지정 20주년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신매리 유적 사적 지정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학술대회를 통해 그동안 이루어진 발굴조사와 연구성과를 종합하고, 신매리 유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검토하며, 현재의 보존 및 관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적 지정 20주년이라는 단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지난 20년간의 보존·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활용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술대회와 함께 지자체, 관련 기관과 논의하여 실제로 필요한 정비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예산과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시민 대상 특별강연, 발굴유물 특별전,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유적 답사 및 지역축제 등을 진행한다면 사적 지정 20주년을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유산 행사로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상설 사업으로 운영하기보다 20주년이라는 시점을 활용하여 신매리 유적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상으로 신매리 유적의 활용 방안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단기간에 대규모 시설을 조성하는 방식보다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첫째, 유적의 경계와 안내체계 정비, 현장 환경정비, 정기적인 관리와 모니터링 등 기초적인 보존·관리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그 후에 탐방로·주차·화장실·휴게시설 등 기본적인 방문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북한강 자전거길과 주변 문화관광자원 등 이미 존재하는 지역의 동선과 활동을 활용하여 별도의 대규모 시설을 조성하지 않고도 신매리 유적을 알릴 수 있는 소규모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27년 사적 지정 20주년을 계기로 그 동안의 연구성과와 보존·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후의 정비와 활용 방안을 현 상황에 맞게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매리 유적의 향후 활용은 단기간의 활성화나 시설 확충보다 현재의 여건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기초적인 보존과 관리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 이후 실제 이용수요와 관리 여건을 살펴보면서 필용한 범위에서 활용을 확대한다면, 신매리 유적의 학술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사회가 유적의 의미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Ⅴ. 맺음말

춘천 신매리 유적은 신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용된 취락유적으로, 춘천 지역의 선사 및 역사시대 문화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가장 많이 확인되는 청동기시대의 유구와 유물은 당시 취락의 형성과 변화, 공간 이용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신매리 유적의 학술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조사·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매리 유적의 학술적 가치를 검토하고, 현재 사적 지정부지의 보존·관리 현황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활용 방안을 살펴보았다.

신매리 유적의 중요한 특징은 특정 시기에 한정된 유적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공간이 지속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적의 가치는 개별 시대의 유구와 유물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의 공간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이용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활용 역시 특정 시대만을 부각하기보다는 유적의 장기간에 걸친 형성과 변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청동기시대 취락의 형성과 변화는 신매리 유적의 학술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주요한 주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신매리 유적은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으로 지정되었지만, 현재 현장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사적 지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리와 시민들의 관심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유적의 가치가 실제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활용되기 어렵다. 특히 현재의 신매리 유적은 대규모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에 앞서 유적의 보존·관리와 관람을 위한 기초적인 환경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적 지정구역의 경계와 안내시설, 관람 동선 등 기본적인 관리 환경을 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단계적인 활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매리 유적의 학술적 가치를 시민과 방문객에게 알리고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2027년 사적 지정 20주년은 그동안의 조사·연구 성과와 관리 현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보존과 활용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학술대회, 특별강연, 전시, 유적 답사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매리 유적의 가치를 알리고, 이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결국 신매리 유적의 가치는 사적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보존과 연구를 통해 그 의미를 밝히고 이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과정에서 더욱 구체화될 수 있다. 앞으로 신매리 유적이 춘천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리와 시민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유적의 학술적 가치를 알리고,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신매리 유적이 단순히 보존되는 사적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가 그 역사적 가치를 직접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8,『춘천 신매리유적-춘천 서면 신매리(887번지 일원 서상, 신매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부지 내 유적(신매지구)-』.

강원문화재연구소, 2003,『춘천 신매리 주차장 신축예정부지 유적』.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신매리 54-4번지 유적』.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a,『신매리10·47-1번지 유적』.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b,『신매리 373-6번지 유적』.

강원문화재연구소, 2018,『춘천 서상리·신매리유적』.

강원역사문화연구원, 2024,『춘천 신매리 819번지 유적』.

경강문화재연구원, 2018,『춘천 신매리 329-1번지 유적』.

국강고고학연구소, 2017,『춘천 신매리 70-6번지 유적』.

국강고고학연구소, 2022,『춘천 신매리 169-1번지 유적』.

국가유산진흥원, 2024,「춘천 신매리 294-16번지 유적」,『2022년도 소규모발굴조사보고서ⅩⅩⅧ』.

국가유산청, 2026,「2026 국가유산관리 재정현황」.

국토문화재연구원, 2019,『춘천 신매리 786번지 유적』.

김권중, 2020,「영서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세진, 2021,「북한강유역 청동기시대 대형 취락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지찬, 2017,「북한강유역 청동기시대 인구변동과 취락의 변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영구, 2015,「동해안지역 청동기시대 취락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예맥문화재연구원, 2009,『춘천 신매리유적Ⅰ』.

예맥문화재연구원, 2015,「부록: 춘천 신매리유적(사적 제489호) 시굴조사 보고서」,『襄陽 浦月里遺蹟-양양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17,『춘천 신매리유적Ⅱ』.

예맥문화재연구원, 2021,『춘천 신매리유적Ⅲ』.

윤호필, 2010,「농경으로 본 청동기시대의 사회」,『경남연구』제3집.

이종철, 2015,「송국리형문화의 취락체제와 발전」,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형원, 2025,「청동기시대 강변 충적지 마을의 정주성과 이동성-한강변 하남 미사동유적과 구리 토평동유적의 검토」,『문물연구』48.

임영빈, 2023,「북한강 중·상류 유역 지석묘 사회의 네트워크 검토: SNA를 활용하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종모, 1998,「춘천시 서면 신매리 청동기시대 주거지 발굴 경과」,『제20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회』.

춘천시, 2020,『사적 제489호 춘천 신매리 유적 종합정비계획』.

한국문화재재단, 2015a, 「춘천 신매리 839-1번지유적」, 『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Ⅲ-강원3-』.
한국문화재재단. 2015b, 「춘천 신매리 43-2번지 유적」, 『2013년도 소규모 발굴조사보고서Ⅲ-강원-』.
한국문화재재단, 2019a, 「춘천 신매리 393-1번지유적」, 『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Ⅴ』.
한국문화재재단, 2019b, 「춘천 신매리 111-29번지외 1필지 유적」, 『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ⅩⅩⅡ』.
한림대학교박물관, 1986, 『신매리 지석묘 주거지 발굴조사보고』.
한림대학교박물관, 2003, 『춘천 신매대교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한림대학교박물관, 2012, 『춘천 북한강수계 기존제방 보강공사 구간내(신매1제)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홍주희·조지은, 2021, 「춘천 신매리 일원의 유적 집성-청동기·철기·삼국시대 유적을 중심으로」, 『2021년 중부고고학회 유적조사 발표회』.
홍주홍, 2024, 「청동기시대 춘천지역의 취락분포정형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재훈, 2022, 「선사시대 사적의 지정, 보존, 관리 현황과 활용 방안」, 『헤리티지 : 역사와 과학』55-2.

○ 누리집

강원문화유산돌봄센터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gwmy.
춘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 www.chuncheon.go.kr/village/seo-myeon/

「춘천 신매리 유적의 학술적 가치와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문

홍주희
(강원고고문화연구원)

발표를 맡은 홍주홍선생은 북한강유역 청동기시대를 연구하는 신진 연구자로서 향후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 연구자입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요하는 국가지정유산(사적)의 학술적 가치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춘천 신매리 일원의 유적 집성(홍주희·조지은 2021)을 발표한 바 있어 토론이 주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토론에서는 국가지정유산인 춘천 신매리 유적의 학술적 가치 규명과, 보존 및 활용 방안으로 구분해서 질문과 의견을 구함으로써 발표자를 포함한 학회 참가자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1. 학술적 가치 규명과 관련하여

신매리 범람원 내에 위치한 춘천 신매리 유적은 지정구역 뿐만 아니라 전역에서 소규모 발굴조사 및 각종 사업에 의한 발굴조사를 통해 조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장기점유 취락임이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장기점유 취락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적 내에서 동시기성에 근거해 각 분기별 취락구조의 변천과정을 증명하고, 인접 취락과의 관계 내에서 취락의 위치나 기능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학술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유적의 편년과 관련하여 발표자는 주거지와 유물의 조합을 발굴 보고서상의 Ⅰ~Ⅴ유형으로 구분한 후 각 유형 주거지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결과를 제시하였고(Ⅱ장 2항), Ⅲ장 신매리 유적의 형성과 공간구조에서는 Ⅰ기(B.C.13~11세기), Ⅱ기(B.C.11~9세기), Ⅲ기(B.C.9~5세기)로 편년하였습니다.

보고서상에서의 유형 구분은 주거지와 출토유물의 조합을 가시화하기 위한 방편인데, 발표자는 유형구분을 그대로 따라 Ⅰ유형 → (주구묘) → Ⅱ유형 → ⅢA유형 → Ⅳ유형 → Ⅴ유형·석기 제작 공방지(수혈유구) → ⅢB유형의 순으로 변화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Ⅰ유형과, Ⅱ유형의 일부는 유물이나 절대연대로도 병존 가능성이 높고, ⅢA와 Ⅳ유형, ⅢB와 Ⅳ·Ⅴ유형·공방지 역시 그러합니다. 춘천분지를 중심으로 한 북한강유역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조기-전기-중기-후기의 4분기로 편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발표자의 편년과 기존 4분기(조기-전기-중기-후기) 편년의 차이[1]가 있어 발표자의 3시기 구분에서 각 분기별로 포함된 유형은 무엇인지, 편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1) 발표자의 편년과 기존 4분기 편년을 비교하면 Ⅰ기-조기~전기 전반, Ⅱ기-전기 후반~중기 전반, Ⅲ기-중기 후반~후기로 생각된다.

2) 신매리 일원 자연제방 4개소(C~F)로 취락이 확산되고 주거군의 규모가 증가해 주거·저장·생산·매장문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복합유적으로 평가하는 시기를 Ⅱ기로, Ⅲ기에는 거점취락(중도동유적)의 주변취락으로서 지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춘천분지 내에서는 전기부터 천전리/율문리-우두동-신매리-근화동-현암리/금산리 일원의 범람원별로 중심취락이 형성되었는데, 현재까지 분묘가 확인되지 않은 현암리/금산리를 제외한 모든 취락들에서 주거·저장·생산·매장양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2] 〈그림 7〉에서 제시하였듯이 인근의 금산리, 현암리, 중도동 취락들과 비교할 때 Ⅱ기(전기 후반~중기 전반)에 신매리 유적이 취락구조나 형태, 위계(위상)상으로 구분되는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보존 및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1) 신매리 유적 일대는 주로 밭경작지와 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밭작물 경작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2007년 신매리 유적의 국가유산(사적) 지정은 마 경작 등 주로 심경이 이뤄지는 신매리 일원 유적 보존을 위한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3] 그러나 2016년 신매리-서상리 일대 하수관거정비사업부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객토 없이 반복된 경작행위로 인해 문화층과 유구가 삭평된 사례들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8; 강원문화재연구소 2018). 또한 지정범위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역의 범위가 신매리 범람원의 북쪽(자연제방 C~E)에 치우쳐 있어 국립중앙박물관(1984년)에서 조사한 움집터유적과 지석묘 일대는 제외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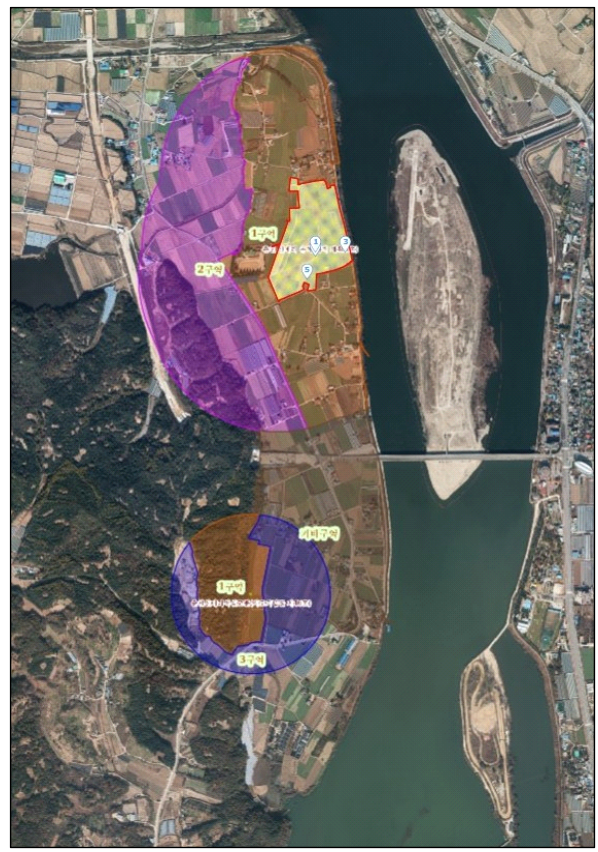


그림 1. 춘천 신매리 유적 지정구역 및 현상변경허용기준

정비계획에 따른 사유지의 추가 매입은 2013년 단 1필지 403㎡(기존 50필지 90,833㎡→ 변경 51필지 91,236㎡)입니다. 2020년 유적의 가치를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형 종합정비계획이 재수립되었지만, 활용 컨텐츠에 대한 계획은 원론적인 내용에 가깝습니다. 금번 발표와 관련하여 2020년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2) 범람원별 대부분의 취락유적에서 석기 생산과 관련된 유구가 확인되고 있지만, 보고자에 따라 주거지, 공방지, 수혈 등으로 보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홍주희 2017). 현암리와 금산리 유적도 인접한 지역에 매장영역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3) 현상변경허용기준 상 공통적으로 지하층 훼손이 수반되는 경작행위(마 경작 등)를 금지하고 있다.

2) 결국 보존 및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재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유산청-지자체-조사기관 등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가 제시한 사적지정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개최는 학술적 가치를 제고하고 유적정비를 위한 순차적인 발굴조사 계획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동시에 관계당국과 전문가 간의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장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신매리 유적은 신석기시대~조선시대에 이르는 장기 점유 취락임과 동시에 중도동유적 등 인접지역에 다수의 청동기시대 취락이 분포하고 있어 이와 연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 참고문헌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8,『춘천 신매리 유적』.
강원문화재연구소, 2018,『춘천 서상리·신매리 유적』.
홍주희, 2017,「북한강유역 청동기시대 공방에서의 석기 생산방식 검토」,『한국청동기학보』20.
홍주희·조지은, 2021,「춘천 신매리 일원의 유적 집성-청동기·철기·삼국시대 유적을 중심으로」,
『2021년 중부고고학회 유적조사 발표회』.